

空軍

1982
AIR FORCE



적(敵)보다 강(強)한 힘 보유(保有)만이 전쟁(戰爭) 막아

우리의 생존권(生存權) 확보(確保)에 있어서 최대(最大)의 적(敵)은 전쟁(戰爭),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戰爭)을 막는 유일(唯一)한 길은 전쟁(戰爭)을 일으키려는 적(敵)보다도 훨씬 강(強)한 힘을 우리 스스로가 보유(保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강(強)한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를 무력(武力)으로 굴복(屈伏)시키려는 측(側)도 그 기도(企圖)를 포기(拋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비축(備蓄)은 전쟁(戰爭)을 막는 길임과 동시에(同時)에 조국(祖国)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의 힘에서 요체(要諦)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력(軍事力)입니다. 그리고 월등(越等)한 공군력(空軍力)을 주축(主軸)으로 초전(初戰)에 승패(勝敗)를 판가름하는 속전속결(速戰速決)의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공군력(空軍力)이 군사력(軍事力)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실(實)로 막중(莫重)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군력(空軍力)은 오늘날에 있어 군사력(軍事力)의 총아(寵兒)이며, 세계(世界) 모든 국가(國家)들이 최신 항공기(最新 航空機)의 개발(開發)에 많은 자원(財源)과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말씀 중에서-



지난 4월(月) 7일(日)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제30기 졸업(卒業) 및 임관식(任官式)이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三府要人)과 외교사절(外交使節),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합참의장, 3 군(軍)참모총장, 한(韓)·미(美) 연합사령관 등 많은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대(星武台)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유시(諭示)를 통해 「우리의 생존권(生存權) 확보에 있어서 최대의 적(敵)은 전쟁(戰爭)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쟁(戰爭)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戰爭)을 일으키려는 적(敵)보다 훨씬 강한 힘을 우리 스스로가 보유(保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군 제 180 호(空軍 第 180 号) —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강용구(姜容求) (2)

건전사회(健全社會)와 시민(市民)정신(精神) 조복신(趙福新) (7)

특집(特輯)/ 민족웅비(民族雄飛)의 의지(意志)

통일조국(統一祖國)에의 염원(念願) 문도빈(文道彬) (17)

동반자시대(同伴者時代)의 한미관계(韓·美關係) 유광진(兪光震) (24)

수출(輸出) 250억 달러에의 의지(意志) 송기동(宋起東) (31)

공군영외장병가계(空軍營外將兵家計)의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

소고(小考) 이원식(李元植) (58)

레닌주의(主義) 비판(批判) 서홍교(徐弘敎) (76)

80년대(年代) 문화적(文化的) 차원(次元)의 한미관계(韓美關係)

..... 편집실(編輯室) (92)

논문(論文) **한국(韓國)의 안보(安保)환경(環境)** 서진태(徐鎭泰) (40)

일제하(日帝下) 독립운동정신(獨立運動精神)과 그 교훈(敎訓) 편집실(編輯室) (149)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미그-21기(機) 시승기(試乘記) 이건순(李建淳) (99)

최신(最新) 항공(航空)미사일 개발(開發) 및 증가(增加)추세 최양수(崔良洙) (111)

소련(蘇聯)의 위성정찰 활동(活動)과 그 추세 윤형기(尹炯基) (121)

TU-계열의 항공기(航空機) 윤용현(尹龍鉉) (129)

우수(優秀)전투(戰鬪)조종사(操縱士)의 조건(條件) 박범진(朴范鎭) (140)

교양강좌 敎養講座

개인(個人)과 국가(國家)사회(社會) 편집실(編輯室) (157)

한국인(韓國人)의 자각(自覺) 편집실(編輯室) (158)

건강의학(健康醫學) 알코올의 작용(作用)과 술주정 편집실(編輯室) (159)

만화·漫畫

보라매 일기(日記) 정운섭(鄭雲燮) (75)

단편(短篇) **첩자(諜者)** 류주현(柳周鉉) (162)

慶

제16대(第16代)
참모총장(參謀總長)

김상태(金相台)

대장 취임
(大將 就任)

祝

참모총장(參謀總長)이•취임식이 지난 6월(月)5일(日) 윤성민(尹誠敏)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회 국방분과위원장, 합참의장, 한•미 연합사령관, 육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과 역대 참모총장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상태(金相台) 참모총장(參謀總長)



윤성민(尹誠敏) 국방부(國防部)장관으로부터 공군기(空軍旗)를 받고 있는 김상태(金相台) 참모총장(參謀總長)



강릉지구 전적비(戰跡碑) 제막



6. 25 당시 우리 공군(空軍)의 단독 출격작전을 기념(記念)하고, 조국(祖國)의 평화(平和)를 사수하다 장렬히 산화한 젊은 보라매 용사(勇士)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강릉지구 전적비가 경포대 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졌다. 이 전적비에는 「이 아름다운 산수와 겨레의 그윽한 향기, 오늘도 빨간 머플러를 휘날리며 창공을 누빌 때 조국의 평화는 길이 약속되리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4. 16)



82년도 제 2 차 정훈참모회의(政訓參謀會議) 개최
정의사회(正義社會) 구현을 위한 의식개혁(意識改革)운동에 앞
장설 것을 다짐했다.〈4. 20 제 2 회의실〉



조국(祖國)대항 반공(反共)응변대회 개최(개최 6. 7)



공군

제 180 호

1982년 제 2 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제공통일(制空統一) 이룩하자

인 화 단 결 (人 和 團 結)

인 기 연 마 (人 機 鍊 磨)

견 적 필 승 (見 敵 必 勝)

공 군 본 부
(空 軍 本 部)

국가발전(國家發展)과 의식개혁(意識改革)

정훈감(政訓監) 대령(大령)

강용구(姜容求)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양심(良心)을 바탕으로 도덕(道德)과 질서(秩序)를 준수(遵守)하는 사회적(社會的) 정신생활(精神生活)을 영위하는데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 많은 민족(民族)들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해 왔지만 건전(健全)한 정신(精神)과 질서(秩序)있는 생활(生活)을 지닌 민족(民族)은 발전(發展)해 왔고, 그렇지 못한 민족(民族)은 지구상(地球上)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위대한 민족정신은 위대한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했으며, 타락한 민족의식(民族意識)은 참담한 역사(歷史)를 만들어 낸 것을 알 수 있다.

현대(現代) 세계사(世界史)를 통해서 볼 때도 영국(英國) 사람들의 신사도(紳士道)는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위대한 역사(歷史)를 이룩하는데 바탕이 되었고, 독일(獨逸)사람들의 근면(勤勉), 성실성(誠實性)은 잿더미 위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200년(年)의 짧은 역사(歷史)를 가진 미국(美國)은 청교도(淸敎道)와 개척정신(開拓精神)으로 오늘날 자유세계(自由世界)를 이끌어 가는 위대(偉大)한 국가(國家)를 이룩했던 것이며, 일본(日本)이나 싱가포르도 국민(國民) 개개인(個個人)의 정직(正直), 성실(誠實)은 물론 사회(社會)의 법(法)과 질서(秩序)를 확립(確立)하였기에 서구(西歐)에 못지 않은 선진국(先進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 한때 세계(世界)를 지배하여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으로 알았던 로마제국(帝國)의 멸망원인(滅亡原因)은 군사력(軍事力)과 경제력(經濟力)이 미약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시민(市民)의 의식(意識)이 불건전(不健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월남의 공산화(共產化) 과정이나, 이란의 내적(內的) 혼란(混亂)은 국민의 정신적(精神的) 타락이나 사회질서(社會秩序)의 혼란(混亂)이 국가(國家)의 운명(運命)을 좌우(左右)할 수 있다는 생생한 교훈(敎訓)을 주고 있다. 우리 민족(民族)이 여러 나라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오면서도 유구한 5천년(千年)의 역사(歷史)와 찬란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예절바르고 신의를 지키며 정의(正義)를 지닌 민족(民族)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서구사조(西歐思潮)와 돈이면 다라는 배금물질만능(物質萬能)의 의식으로 인해서 가치관(價値觀)이 혼란(混亂)되었다. 즉 「정직한 사람은 바보」라든가 「법대로 살면 손해다», 「백이 있어야 출세(出世)한다」는 등 우리 사회(社會)의 정치(政治), 경제(經

濟), 사회(社會) 모든 면에서 부정적(否定的) 사고방식(思考方式)이 팽배하여 요령있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정직(正直)하고 성실(誠實)한 사람보다 인정받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되어 가고 있다.

권력남용(權力濫用), 권모술수(權謀術數), 극한대립(極端對立)의 정치풍토(政治風土), 부패(腐敗)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행정풍토(行政風土), 책임(責任)과 윤리의식(倫理意識)을 망각한 채 이익추구(利益追求)에만 급급한 경제풍토(經濟風土), 분수를 모르는 무질서(無秩序)와 공중도덕(公衆道德)이 결여된 불신풍조(不信風潮)가 있는 한 국가발전(國家發展)은 요원하며 북한(北韓)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국민적 화합(和合)은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인 정의(正義)롭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福祉國家)를 건설(建設)하여 위대(偉大)한 조국(祖國)을 후손(後孫)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싹터가는 이 잘못된 갖가지 의식을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기에 의식개혁운동(意識改革運動)으로 정직(正直), 질서(秩序), 창조(創造), 책임(責任), 본분(本分), 분수(分數), 주인의식(主人意識), 국민화합(國民和合), 가정교육(家庭教育) 등(等) 9개(個)의 실천요강(實踐要綱)을 마련하고 모든 공직자(公職者)와 사회지도층(社會指導層)이 솔선해서 이 운동(運動)을 수범(垂範)할 것을 강조(強調)하며 민족(民族)과 국가(國家)의 운명(運命)을 건 이 운동(運動)의 성공적(成功的) 추진(推進)을 위한 결의(決意)의 땃물이 지금 전국(全國)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고 있다.

먼저 「웃음」부터 맑아져야 하겠다는 결연한 실천의지에 따라 복되고 성숙된 새 시대(時代)를 여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은 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안 했어야 옳을 당연한 덕목(德目)이 곧 9대(大) 실천요강(實踐要綱)! 지나간 세월이 이 덕목을 잃어 갔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 그런 뜻에서 의식개혁운동은 곧 「도(道)의 르네상스」! 우리의 정신적(精神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우리 군인(軍人)은 조국(祖國)의 운명(運命)과 더불어 살고 죽어왔기에 살을 에이는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고쳐야 할 의식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굳은 신념(信念)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이 대개혁(大改革)에 참여하고 되찾은 이 덕목(德目)을 영원(永遠)히 그리고 확고(確固)하게 우리 생활(生活) 속에 정착화(定着化), 생리화(生理化)시켜야 하겠다.

취임사(就任辭)



참모총장(參謀總長) 공군대장(空軍大將)
김 상 태 (金相太)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방위원장님, 합참의장님, 한·미 연합사령관님, 각군 총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명예에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로 이끌어주신 것은 물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상사 여러분과 선배, 동료, 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내일의 어려운 여건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정의로운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5공화국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공군의 지휘권을 맡게 되어 그 사명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영명하신 대통령각하의 민족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의지와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받들어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완수에 진력할 것을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오늘의 우리 공군을 훌륭하게 성장 발전시켜 온 선배님들의 업적에 감사드리며, 신념을 갖고 책임을 완수하는 강하고 멋진 공군, 싸워 이겨 조국에 헌신하는 훌륭한 우리의 공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선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을 바칠 각오를 다짐드리며 배전의 지도편달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군 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과 젊음을 바친 33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는 이희근장군님은 역전의 용장으로서, 그리고 공군의 산 증인으로서 공군사에 길이 빛나는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는 전력증강과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통한 완벽한 영공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공기 국내 생산에 박차를 가해 선진 공군으로서의 긍지와 면모를 새롭게 하였으며 미공군 A-10 항공기의 국내 전개, 공중전투 훈련장을 신설, 조종사의 전투기량 향상과 실질적인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이희근장군님의 그간의 노고와 공적에 대해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현금의 국제정세는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자국 실리추구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치열한 열전이 계속되고 있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분쟁, 이란과 이라크 간의 중동분쟁, 중남미의 좌경화 책동에 의한 계속적인 혼란, 그리고 아프칸 및 폴란드 사태 등은 우리에게 호국을 위한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이 실리추구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도전과 응전의 양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편승한 소련의 집요한 세계 적화전략은 자립과 자주적 자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좌경화시키고 있는 한편, 서방진영들도 각자 자국의 실리추구를 우선하여 상호 대립과 분열 및 분쟁상태까지를 초래하고 있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의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휴전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무력침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괴는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 편승하여 기습남침의 좋은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적 호국정신으로 전투 상비태세를 완비하여 북괴의 침략도발을 일격에 분쇄할 수 있는 전투기량과 정신력을 발휘하고 압도적 공중우세를 유지하여 제공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강력한 인화단결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자고로 물질력은 목제의 칼집이며, 정신력은 번쩍이는 칼날이라 했습니다. 이는 곧 전쟁의 승패가 장병의 정신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애국충정의 희생정신과 백전백승의 기백으로 다져진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지휘관을 핵심으로 철통같이 단결할 때 우리의 임무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화단결”은 곧 승전의 지름길인 동시에 전력 극대화의 요체가 되는 것이므로 지휘관의 희생적 노력과 휘하 장병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북괴 우위의 정신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대전의 성격은 고도정밀한 과학무기가 총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운영 하는 각급 요원의 정예화와 질적으로 우세한 장비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적으로 우세한 북괴공군을 질적 우세로 압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무기체계의 발전을 이룩해야 하겠으며, 이를 운용하는 각급 요원들을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운전을 강화함은 물론, 전문적인 지휘관리를 통하여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병 각자는 온갖 어려움을 창의와 인내로 극복하고 부단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맡은 바 직분에 정통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북괴 공군의 기량을 압도할 수 있는 “인기연마”(人機練磨)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북괴는 숫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배경으로 속전 속결의 기습공격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적을 소수 정예로서 완전 섬멸하기 위해서는 건적필승의 정신과 실전과 같은 피땀 어린 맹훈련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실전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 향상과 새로운 전술 전기를 개발하여 숙달시킴으로써 대적우위의 자신감과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공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우리의 당면과제와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장병 여러분들에 앞장서서 우리 공군을 세계 최강의 공군, 싸워 이겨 조국에 헌신하는 훌륭한 멋진 공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장병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육성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육군, 해군 전우들의 계속적인 협조, 그리고 미 공군의 우의 넘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떠나시는 이회근장군님의 앞날에 항상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취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2. 6. 5

건전사회(健全社會)와 시민정신(市民精神)

조 복 신(趙福新)

〈전우신문(戰友新聞)·논설위원(論說委員)〉

**법(法)과 질서(秩序)를 지켜야 하겠다는 용기(勇氣)
있는 자각(自覺)과 자주성(自主性)이야말로 국민자
율화(國民自律化) 시대(時代)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중대한 의식의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民主市民)의 책임(責任)과 의무(義務)

우리는 유구한 민족사(民族史)에 새롭고 찬란한 역사(歷史)의 장(章)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란 스스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時代)를 사는 인간들의 의지(意志)와 노력(努力)의 결과로 창조된다는 자명한 진실을 믿는다. 그러기에 지난날의 운명론적이고 수동적(受動的)인 자세(姿勢)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위대(偉大)한 민족사(民族史)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姿勢)를 주체적(主體的)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가다듬고 운명(運命)이란 허상(虛像)에 맞서 도전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절감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건전사회(健全社會)를 이 땅에 정착(定着)시키기 위한 일대 국민운동으로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課題)를 슬기롭게 극복(克服)하고 새 역사창조(歷史創造)에 매진하려는 민족적(民族的) 소명(召命)의식(召命意識)에서 연유한 것이다.

건전사회(健全社會)를 이 땅에 정착(定着)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國民) 각자의 투철한 시민(市民)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가 새해들어 취한 획기적인 조치, 즉 광복 이후 36년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야간통행(夜間通行) 금지를 지난 1월 6일 자정을 기해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海岸線) 등 일부 취약 지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 조치(措置)와 중(中)·고생(高生)의 교복(校服)과 두발형태의 자율화(自律化) 조치는 우리로 하여금 시민(市民)정신의 생활화(生活化)가 더욱 시급함을 절감케 하고 있다.

정초(正初)부터 단행된 정부(政府)의 이러한 획기적(劃期的)인 조치(措置)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국민자율화(國民自律化) 시대로 접어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자율화시대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민 각자가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성실히 수행하여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措置)는 80년대(年代)의 절대과제의 하나인 국민생활의 향상(向上)과 자율의식(自律意識)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변천의 요청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결코 낭비나 사치, 무절제(無節制)와 탈선(脫線) 조장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차원(次元)의 대전제(大前提)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자율화(國民自律化) 시대로의 진입(進入)과 함께 우리는 자율화에 따른 책임(責任)과 의무(義務)의 중요성을 재인식(再認識), 통감하면서 건전(健全)사회를 육성, 발전(發展)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努力)을 아끼지 않겠다는 저마다의 다짐을 마음 속 깊이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건전사회(健全社會)의 핵(核)은 시민정신(市民精神)

건전(健全)사회를 육성, 발전(發展)시키는데 있어서 요청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要素)는 뭘니 뭘니 해도 시민정신(市民精神)의 고양(高揚)이다.

시민(市民)정신은 타율적(他律的)이 아닌 자율적 이성(自律的 理性)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민 각자의 책임(責任)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선택(選擇)하고 실천(實踐)하는 행동의 즐거움 뒤에는 그 결과를 책임(責任)져야 하는 고독한 아픔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선택으로부터 책임(責任)에까지 이르는 인간행위(人間行爲)의 과정이야말로 자율적 이성(自律的 理性)의 지배하(支配下)에 놓인다.

바로 이같은 자율적 이성의 소유가 인간을 기계나 또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별(區別)시켜주는 우리 인간(人間)만의 특징(特長)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시민(市民)정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중동(中東)이나 폴란드사태(事態)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쟁위기(戰爭危機)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國內)로 눈길을 돌려보아도 경제난국(經濟難局) 등 우리의 생존(生存)을 위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술하게 가로놓여 있다.

상기(上記)와 같은 격동기(激動期)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시민(市民)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공생활(公共生活)의 생활윤리(生活倫理)(사회적(社會的)인 윤리(倫理)와 국가적(國家的)인 윤리(倫理))이다.

공공생활(公共生活)의 생활윤리(生活倫理)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궁극적(窮極的)으로는 개인(個人)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각(自覺)(자율적 이성(自律的 理性))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사회(民主主義社會)란 기실(其實) 개인(個人)의 자유(自由)가 가능한 한 향유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공공생활(公共生活)의 생활윤리(生活倫理) 다시 말하면 고도(高度)의 시민(市民)정신에 의해서 유지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시민(市民)정신은 「나」만의 안일(安逸)과 자유(自由)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일과 자유」, 다시 말하면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질서(秩序)를 먼저 생각하는 인생관(人生觀)과 생활관(生活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자유롭게 또는 잘 살면 된다는 생활관(生活觀)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마땅히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자율화(國民自律化) 시대 속의 건전(健全)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위에서 지적한 바의 생활자세(生活姿勢) 즉 「사회전체(全體)의 이익(公益)과 질서(秩序)」를 우선(優先)하는 생활자세를 견지(堅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건전사회(健全社會)란 과연 어떤 사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건전(健全)사회란 간단히 말해서 질서(秩序)가 생명(生命)인 질서(秩序)사회, 윤리(倫理)가 통하는 도의(道義)사회, 준법(遵法)정신이 핵(核)을 이루는 준법사회, 정결하고 청렴한 국민기상이 주축이 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따라서 건전(健全)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자신의 물질적(物質的) 이익(利益)이나 지위 상승만을 노리는 일이 없는 사회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자기 양심(良心)에 따라 자기의 직분(職分)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健全)사회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구성원(構成員)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식(意識)이 강하다

이같은 의식(意識)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社會構成員) 간에는 동지애가 싹터 강한 연대의식을 견지(堅持)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生活)을 통한 참여의식(參與意識)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이상과 같은 건전(健全)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사회(社會)구성원들이 무엇보다도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질서(秩序)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공(公共)의 이익과 질서(秩序)」를 개인(個人)의 이익과 욕구에 앞세우는 정신을 도산(島山)안창호(安昌浩) 선생(先生)은 일찌기 「대공주의(大公主義)」라고 부르면서 공공정신(公共精神)을 고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公共)정신이란 다름 아닌 시민(市民) 정신이다.

도산(島山)은 또한 「독립(獨立)이란 내가 나 자신의 힘을 믿고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노예란 남의 힘을 믿고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민족(民族)의 타율(他律) 아닌 자율(自律)에 의한 자유인격(人格)의 구현(具現)을 역설(力說)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같은 정신은 오늘에 있어도 교훈적(教訓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율(自律)에 의한 자유인격(自由人格)의 구현(具現)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시민(市民)정신의 발양(發揚)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市民)이란 「공민(公民)」의 동의어(同義語)이고, 공민(公民)이란 국가(國家)의 공적인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參與)하는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곧 공공(公共)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공민(公民)이고, 시민(市民)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시민(市民)정신이란 바로 참여의 정신이기도 하며 공공(公共)의 일에 더불어 책임(責任)을 나누는 책임의식(責任意識)이기도 하다.

공공(公共)의 일에 적극 참여(參與)함과 아울러 이에 대해 책임(責任)을 나누는 능동적(能動的) 시민정신은 자기 개인만의 질서(秩序)에의 순응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참다운 의미의 시민(市民)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참다운 의미의 시민(市民)정신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成員)들이 반질서적(反秩序的) 행위에 대해 용기있게 발언(發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反社會的) 행위에 대해 고발(告發)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 발양(發揚)되는 것이다.

정신적(精神的) 근대화(近代化)와 시민정신(市民精神)

시민(市民)정신은 비단 국민자율화(國民自律化) 시대 속의 건전(健全)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근대화를 위해서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福祉)·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具現)을 지향(指向)하고 있는 새 시대(時代)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갖 그릇된 물질만능의 가치관에서 탈피(脫離)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보다 큰 대아(大我)를 향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民主市民)정신의 함양(涵養)은 필수불가결한 요소(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공동체(共同體)의 사회이건 그 공동체(共同體)가 존속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市民)이 올바른 시민(市民)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는 참다운 민주사회(民主社會)를 실현(實現)하기 위한 전제조건(前提條件)인 것이다.

시민(市民)들이 올바른 시민(市民)정신의 함양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그 사회의 안정(安定)과 질서(秩序)는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健全)한 사회풍토(社會風土)도 조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以上)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 시민(市民)정신으로는 여러 가지 규범(規範)이 있다.

모든 법규(法規)를 준수하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주장(主張)하기에 앞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스스로 다하는 정신, 개인(個人)의 이익(利益)보다 사회와 국가 전체(全體)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公益)정신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의 일에 최선(最善)을 다하는 근면(勤勉)정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알고 겸손하는 겸양(謙讓)의 미덕(美德),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생활태도(生活態度), 공중(公衆)도덕 등이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民主市民) 정신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명랑하고 밝은 정의사회(正義社會)가 구현(具現)될 것이며, 국가는 더욱 발전(發展)되어 민주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다.

다음은 상기(上記)에서 소개한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제규범(諸規範) 중(中) 특히 요구되는 질서(秩序)준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言及)하고자 한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사회(社會)의 질서(秩序)를 위해 법(法)이라는 외재율(外在律)이 필요하고 도덕의 질서를 위하여 양심(良心)이라는 내재율(內在律)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외재율(外在律)과 내재율(內在律), 법(法)과 도덕에 의해서 인간사회(人間社會)는 유지(維持)되고 역사(歷史)는 발전한다.

그러므로 국민자율화(國民自律化)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法)과 질서(秩序)를 지키려는 의식(意識)과 의지(意志)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나 스스로 법(法)과 질서(秩序)를 지켜야 하겠다는 용기(勇氣)있는 자각(自覺)과 자주성(自主性)이 어떤 의미(意味)에서는 국민자율화시대(國民自律化時代)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중대한 의식(意識)의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사회(文明社會)의 생명(生命)줄과 같은 질서(秩序)의식과 준법의식, 새로운 시대(時代)에 조화할 수 있는 윤리(倫理)의 근대화가 제 빛을 보일 때 진정한 의미(意味)의 건전사회(健全社會)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전사회(健全社會)가 이땅에 정착화(定着化)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서(秩序)지키기가 우리들에 의해 생활화(生活化)되어야 한다.

전두환대통령(全斗煥大統領)이 지난 1월 22일 국회(國會)에서의 국정연설(國政演說)을 통해 국민 속에 내재(內在)되어있는 무질서심리(無秩序心理), 부패심리(腐敗心理), 인플레이심리(心理) 등 3대심리(大心理)의 추방운동을 천명한 것은 질서확립(秩序確立)과 질서(秩序)지키기의 생활화(生活化)로 건전사회(健全社會)를 이 땅에 정착(定着)시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意志)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질서심리(無秩序心理)가 존재하는 한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기본자질(基本資質) 여하는 고사하고 이 사회를 일정한 규칙(規則)에 의해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이 3대 부정적 심리(心理)의 추방, 그 중에서도 특히 무질서심리(無秩序心理)의 추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나라를 선진(先進)에 보다 근접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질서(秩序)는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질서(秩序)는 모든 존재(存在)의 기본법칙(基本法則)이자 창조(創造)의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원자(原子)의 운동에서부터 우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 현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秩序)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사회(人間社會)에 있어서도 이러한 근본적(根本的)인 원칙(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진 사회는 사회적인 제요소간(諸要素間)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사회이며, 이처럼 조화되고 안정된 사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지 자연(自然)은 있는 그대로의 질서(秩序)에 따라 움직이는데 비해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질서는 합의(合意)에 의해 창조(創造)된 질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질서는 자연적 질서의 논리(論理)에 바탕을 둔 창조적(創造的) 질서(秩序)라야 하는 것이다.

창조적(創造的) 질서란 구성원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질서를 뜻한다.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법칙(自然法則)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낸 질서가 바로 창조적 질서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질서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각 개인(個人)이 인간사회의 질서(秩序)를 만든다는 말은 개개인이 다 제멋대로 어떤 규칙(規則)이나 행동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즉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질서(秩序)는 어디까지나 여러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진 합의(合意)된 규칙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맺어져 있는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려는 개인(個人)의 노력(努力)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사회질서의 유지는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질서(秩序) 지키기의 생활화(生活化)로 건전사회 이룩

상기(上記)에서 지적한 창조적(創造的) 질서(秩序)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參與)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질서개념(秩序概念) 즉 위치질서(位置秩序)와 역할질서(役割秩序), 관계질서(關係秩序)에 입각한 우리의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가. 위치질서(位置秩序)

위치질서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自然)의 질서라는 것은 자연(自然)을 형성 하는 개개의 구성요소(構成要素)들이 상황적(狀況的) 여건과 결부되어 정연한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질서는 붕괴된다.

그러므로 사물(事物)도 자연질서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물적질서(物的秩序)가 성립(成立)되며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사회질서(社會秩序)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위치질서(位置秩序)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가.

첫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지위(地位)에 적합한 사람을 요구한다. 인간(人間)은 어떤

집단(集團)에든지 소속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존재(存在)가 됨을 자각한다. 즉 집단(集團)에 소속되는 개개인에게는 그 집단 속에서 각자(各自)의 상대적(相對的)인 지위(地位)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기존(既存)의 지위에 대해서 구성인들은 대개 그 지위(地位)에 합당(合當)한 사람이 그 지위(地位)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바 이것이 곧 사회적 기대(期待)이다.

적합한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과 사회가 최대(最大)의 효율을 증진(增進)시킬 수 있는 능력우선(能力優先)의 공정(公正)한 인선(人選)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要求)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적 양심(良心)에 입각(立脚)한 자기성찰(自己省察)과 인사행정(人事行政)에 있어서의 위치질서(位置秩序)를 흐트리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회는 법(法), 도덕(道德), 규범(規範) 등의 사회적 통제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영역(行爲領域)을 규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공간을 향유(享有)할 자유를 가지지만 법, 도덕, 규범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제한(制限)은 개개인(個個人)의 생활(生活)을 침해하는 제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위치질서(位置秩序)를 확립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生活)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하나의 방편(方便)인 것이다.

적합한 장소(場所)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우선 법(法)이 허용(許容)하지 않는 장소에 침입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집회(不法集會)나 입장(入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혹은 횡단보도의 불법통과라든가 통행금지가 발효(發効)된 때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등은 위치질서(位置秩序)를 저해(沮害)하는 대표적인 예(例)에 속한다.

셋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정도에 합당(合當)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도에 합당한 행위란 주로 경제적인 위치개념(位置概念)으로 분수(分數)에 맞는 행위를 말한다.

개개인(個個人)에게 경제행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공동체인만큼 나 혼자만의 지출(支出)이 아닌 남을 의식하고 있는 지출(支出)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풍토(風土)가 조성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에 합당(合當)한 행위란 개별적(個別的)인 합당(合當)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조화(調和)된 합당(合當)의 정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역할질서(役割秩序)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형무형의 지위(地位)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어지거나 성취(成就)된 지위에는 언제나 사회적 기대(期待)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社會的) 기대(期待)는 주로 사회의 규범(規範)에 의해서 정해진다.

정치가(政治家)는 정치가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군인(軍人)은 군인(軍人)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며 부모는 부모로서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기대(期待)되는 역할(役割)이 있는 것이다.

즉 역할질서(役割秩序)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상태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각자(各自)의 역할(役割)에 충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충되는 역할(役割)의 기대(期待)를 조절하기 위해 대화(對話)를 통하여 합의(合意)에 이르거나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立場)을 이해하려는 노력(努力)을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여야 할 것을 하는 정신으로서의 역할질서(役割秩序)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役割)을 책임(責任)지고 실천해 나가는 정신과 상통하므로 곧 책임윤리(責任倫理)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정신으로서 이는 또한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역할(役割)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責任感)이 없을 때 즉 역할(役割)질서가 붕괴될 때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不條理)와 무질서가 야기되는 것이다.

사회부조리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남용하는 경우와 역할(役割)을 경시하는 경우 그리고 역할(役割)을 포기하는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역할(役割)의 남용(濫用)이란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직권(職權)을 남용하는 부당행위(不當行爲)를 말한다.

법관(法官)이 이권(利權)에 개입하여 부당판결을 한다거나 고급 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재량권(裁量權)을 남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의 비리(非理), 기업주가 부당하게 고용자를 해고하는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둘째, 역할(役割)의 경시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責任)과 의무를 제대로 완수(完遂)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땅히 납세(納稅)의무가 있는데도 탈세를 한다거나 병역을 기피한다든가 기업(企業) 윤리(倫理)를 저버리고 불량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책임(責任)을 다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셋째, 역할(役割)의 포기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함으로써 사회(社會) 전체(全體) 질서(秩序)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범죄(犯罪)를 목격하고도 이를 신고(申告)·고발(告發)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보고도 무관심하게 방관(傍觀)하는 경우 등은 시민(市民) 스스로가 주변의 질서파괴행위(秩序破壞行爲)를 묵인함으로써 어느 면에서는 질서파괴를 조장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곧 역할(役割)에 대한 책임(責任)과 노력(努力)을 다함으로써 역할(役割) 질서(秩序)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관계와 개인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 관계질서(關係秩序)

인간(人間)은 누구나 고립하여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人間)을 사회화적 존재라고 말하며 실제로 모든 인간(人間)은 사회의 상호 작용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바야흐로 관계의 그물이며, 관계의 짜임이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본위(自己本位)의 관계를 설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관계에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좋은 관계, 즉 합리적(合理的)이고 효과적(效果的)이며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곧 관계질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合理的)인 관계의 형성(形成)은 협동적(協同的)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질서란 바로 협동윤리(協同倫理)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서로 맺어지는 관계가 참다운 것이 되지 못할 때 사회적 질서(秩序)는 붕괴되고야 만다는 점이다.

바로 관계질서의 악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커지면 사회는 불안(不安)과 격동의 와중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질서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여 지금까지 자기본위(自己本位)로 습성화된 행동 양식을 버리고 이웃과 다른사람을 의식(意識)함으로써 시민(市民)정신에 입각한 협동(協同)정신이 이 사회에 충만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다.

결어(結語)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는 정초(正初)에 단행된 정부의 획기적(劃期的)인 조치(措置), 즉 야간 통행금지의 해제조치와 중고교생의 교복과 머리형의 자율화(自律化)조치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국민자율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국민자율화시대 속의 건전(健全)사회를 이 땅에 정착화(定着化)시키기 위해서는 고도(高度)의 시민(市民)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높은 질서(秩序)의식 및 준법정신과 함께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겠다는 책임(責任)의식의 확립(確立)이 필요하다.

최근 북괴(北傀)의 도발양상은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 이름의 대남선전방송과 불온비라 살포, 무장간첩 납파,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및 대규모 군사훈련 등 일련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북괴의 대남 적화야욕과 함께 폴란드사태로 인한 미(美)·소(蘇)대립 등 내외정세의 심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치안질서의 확립과 대공경계태세(對共警戒態勢)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통금(通禁)을 해제(解除)한 조치 등은 하나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의 결단에 호응하는 길은 모든 국민의 사려깊은 행동과 자각(自覺)인 것이다.

정부의 자율화(自律化)조치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意識)이 만에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일부에서라도 물지각한 사회혼란 조성행위가 일어난다면 정부의 자율화(自律化)조치의 참뜻이 그르쳐지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앞에는 86년(年)의 아시안게임과 88년(年)의 올림픽대회를 치뤄야 할 숭한 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

상기(上記) 두 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1등국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先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법규(法規)준수와 질서지키기의 생활화(生活化)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규(法規)준수와 질서지키기의 생활화(生活化)는 국민 자율화(自律化)시대 속의 건전(健全)사회를 이 땅에 정착(定着)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要素)인 동시에 1등국민으로 가는 요체(要諦)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銘心)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문화(文化)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화재(話材)의 원천(源泉)

*정수동의 해학(諧謔)

이조 시대의 해학가 정수동이 어려서 글방에 다닐 때, 하루는 졸고 있다가 훈장한테 매를 맞았다. 그러던 어느날 훈장이 조는 걸 목격한 수동이 「선생님은 왜 졸아요?」「나는 조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단다. 그래서 내 혼자만이 살짝 빠져나가 공자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이다. 아마 너희들 눈에는 조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했었다.

며칠 후, 수동이 또 졸고 있자 「넌 또 조는구나?」「선생님 조는 것이 아니야요. 저도 공자님한테 다녀온 거예요」 훈장은 내심 깜찍하다는 듯 「그래 공자님은 만나 보았느냐?」「네」「무슨 말을 물어 보았느냐?」「선생님이 전에 오셨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다고 해요」

특집(特輯) 민족웅비(民族雄飛)의 의지(意志)

우리의 통일방안(統一方案)은 민주적(民主的) 절차와 평화적(平和的) 방법에 의해 민족(民族)·민주(民主)·자유(自由)·복지(福祉)의 이상을 추구하는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에 입각한 것이다.

통일조국(統一祖國)에의 염원(念願)

전(全)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의와 우리의 다짐길

문도빈(文道彬)

〈서울신문·논설위원(論說委員)〉



평화통일(平和統一) 위한 획기적 제의(提議)

분단조국(分斷祖國)의 평화적 통일은 6천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특히 「민족·민주·자유·복지」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통일조국(統一祖國)의 완성은 제5공화국(共和國)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최대의 국가목표이다.

이 점에서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국정(國政)연설을 통해 제시한 「통일헌법(統一憲法)」제정을 골자로 하는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民主統一)방안」은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을 그대로 대변함과 아울러 새 공화국의 통일의지를 거듭 극명하게 천명한 획기적인 대북정책(對北政策)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북한(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제시하려던 통일 방안을 이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실천의지를 북쪽에 정확히 이해시킴으로써 「1.12 제의」 및 「6.5 제의」에 대한 북한(北韓)의 부정적(否定的) 태도를 바로잡아 「남북한(南北韓) 최고책임자 회담」을 기필코 실현시키려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北韓)측의 모든 제의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포용성(包容性)과 자신감(自信感)을 보여 준 이 제의는 이미 국력(國力)과 체제면(體制面)에서 명백히 드러난 대북우위(對北優位)의 입장에서 앞으로 평화통일(平和統一) 정책을 우리의 주도하(主導下)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全)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무력(武力)·폭력(暴力)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적화(赤化)통일이 아닌 민주(民主)통일, 특정계층을 위한 통일이 아닌 민족 전체를 위한 통일의 방법론(方法論)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에 의거, 남북한(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暫定協定)의 체결에 의해 민족적 화합(和合)을 먼저 이룩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할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또 남북(南北) 쌍방의 입장 중 상호 합의(合意)가 가능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북한(北韓)측의 주장도 허심탄회하게 협의,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기만적이고 악의적(惡意的)인 대남(對南)선전을 효율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의는 소위 「대민족회의」「통일촉진대회」등 북한(北韓)측의 불순한 목적이 깔린 비당국(非常局)주도 대화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렴(收斂)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성의(誠意)만 있다면 대화기구(對話機構)설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터놓고 있다.

이로써 북한(北韓)측이 그동안 역설했던 온바 「분열주의」「2개의 한국(韓國)」등 우리측에 대한 모략과 비난은 결정적으로 그 발판을 잃게 된 셈이다. 왜냐하면 그 허구적(虛構的)인 소위 「고려연방안(高麗聯邦案)」을 비롯해 그들이 내걸어 온 「전제조건(前提條件)」등 어떠한 문제도 일방적(一方的)으로 상대방에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흥금을 터놓고 협의하여 「통일헌법」 초안과정에서 취사(取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全)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南北韓) 통일방안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간추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민주적(民主的) 절차와 평화적(平和的) 방법에 의해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통일민족(統一民族)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 측의 「연방안(聯邦案)」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를 빙자하여 주한미군(駐韓美軍)철수 및 한국(韓國)의 반공(反共)정책 철폐 등 「전제조건」을 우리측에 강요함으로써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반공(反共)체제를 「연공(聯共)」체제로 변질시키고 궁극적으로 공산당(共產黨)주도하의 적화(赤化) 통일을 완성한다는 속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南北韓) 어느 쪽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自明)하다 하겠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번 전(全)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北韓)에 대해 제시했던 여러 방안을 집대성(集大成)한 것으로 긴장완화—신뢰회복—통일달성이라는 일관된 통일정책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점이다.

즉 「통일헌법」제정의 여건(與件)조성을 위한 「남북한(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제의는 종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外交政策)선언」(73년 6월 23일), 「상호 불가침협정(不可侵協定) 제의」(74년 1월 18일),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74년 8월 15일)의 대북(對北)관계 부분을 그 7개항 속에 총망라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일관성있게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듯 전(全)대통령이 이번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南北)분단 이후 서로 제시해 온 여러 방안 중 가장 획기적이며 항구적인 평화통일 실현방안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확산(擴散)돼가는 국제적 지지반응(支持反應)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全)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 대북(對北)제의는 민족의 통일에 평화적으로 이르는 현실적인 길을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밝힌 방안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평화통일예의 이정표(里程碑)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6천만 우리 겨레의 절대적인 환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공명(共鳴)과 지지(支持)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전(全)대통령의 이번 제의에 대해 지지 반응을 보여온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 방안이야말로 한반도(韓半島)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의지(意志)를 담고 있으며, 과거의 어떤 제의보다도 가장 포괄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제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통일(民主統一)방안에 대한 이같은 국제적 지지기반(支持基盤)의 확산은 우리 정부의 통일 외교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동맹(非同盟)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 주고 있다.

지난 2월 16일 현재로 재외공관(在外公館)이 외무부(外務部)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헌법」제의에 환영 지지 등의 반응을 보인 나라는 모두 92개국에 이르며 시간이 갈수록 지지 반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중 44개국이 남북한(南北韓)과 동시수교(同時修交)의 관계를 맺고 있는 비동맹(非同盟)국가들이며, 심지어 대다수 공산권(共產圈) 국가들마저 중립적(中立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제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얼마나 튼튼히 다져져가고 있는가를 한 마디로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주요 우방(友邦)국가들이 밝힌 공식반응을 보면 미국(美國)은 「본격적이고 새로운 제안으로서 매우 건설적이다. 전폭적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했고, 일본(日本)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순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영국(英國)은 「한국(韓國)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과 결단력이 있는 접근책으로서 광범한 지지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고, 독일(獨逸)은 「신축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세계여론에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北韓)은 세계여론에서 결정적으로 수세(守勢)에 몰릴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비동맹(非同盟)국가들이 지지환영 또는 긍정적 반응을 보내온 내용은 그들의 외교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의 몇 가지를 든다면 「대단히 논리적인 평화통일 접근방법이다」 「남북한(南北韓) 어느 쪽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한국(韓國)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대통령의 지지친서(支持親書)까지 보내왔고, 중립국의 어떤 나라는 남북대화(南北對話)의 재개(再開)를 위해 대화의 장소(場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또 남북한(南北韓) 동시 수교국인 어떤 나라는 북한(北韓)의 주요 인사가 자기 나라를 방문할 경우 한국(韓國)과의 대화를 하도록 적극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북구(北歐)의 한 중립국은 한국(韓國)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대외(對外) 정책상 중립(中立)을 견지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직접적인 지지의사를 천명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는 뜻을 외교채널을 통해 전해오기도 했다.

각국 정부의 공식반응들이 이러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저명한 여러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임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지의 『선전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워싱턴포스트」지의 『가장 획기적이고 상세한 제의.』 「요미우리」지의 『북한(北韓)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對話)에 응하게 하려는 것』 등 미(美)·일(日) 언론의 논평과 「스위스」라 스위스」지의 『매우 상세하고 완벽한 것.』 「클럼비아」라 레푸블리카」지의 『김일성(金日成)이 응답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것.』 「인도네시아」 「베리타 부아나」지의 『북한(北韓)이 거부할 경우 통일의사가 없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 등등 세계 각국 언론의 광범위한 성원이 그 보기들이다.

전(全)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여론은 이렇듯 우리의 우방국가들만이 아니라 비동맹 및 제3세계 국가에도 이제 요원(遼遠)의 불길처럼 세차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다.

북괴(北傀)의 거부(拒否)자세와 그 속셈

국제적 지지여론의 추세가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북한(北韓)의 김일성(金日成)집단은 전(全)대통령의 획기적인 「통일헌법」제정 제의에 대해 또 다시 거부 자세를 보이고 나섰다.

그들은 4일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 1월 26일 대남(對南)통일전선조직인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일(金一)의 이름으로 된 「답화」를 통해 전(全)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어떤 긍정적인 의의도 부여할 수 없는 방안』 『현실을 외면한 도식(圖式)』 운운하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거래의 엄원과 국제여론을 거둬 외면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이 답화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韓國) 측이 선행(先行)조건으로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반공(反共)정책을 포기하고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과 반공(反共)단체를 철폐해야 하며, 정치범(政治犯)을 모두 석방하고 한국(韓國)정부가 이에 대해 사죄(謝罪)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까지 내세웠다.

그들은 소위 「고려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도 남한(南韓)의 「용공(容共)」정권수립, 공산당(共產黨)의 합법화(合法化),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와 똑같은 조건을 다시금 내세워 우리측의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한국(韓國)정부의 전복과 한국(韓國)의 무력화(無力化)에 의한 적화(赤化)통일 달성이라는 그들 대남(對南)기본전략에 하등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지난해 상당기간 침묵을 지켰던 「1·12제의」 및 「6.5제의」 때와는 달리 전(全)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내놓은 지 4일 만에 공식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고려연방안」 이외의 통일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듯 시사하는 유연성을 보인 점이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이같이 마치 신축성(伸縮性)이라도 있는 듯 분장한 것은 전(全)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북한(北韓)측의 모든 제의도 논의할 수 있다는 대담한 포용성(包容性)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려연방안」만을 계속 고집하거나 실천 가능한 우리 측 제의를 묵살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孤立)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국제여론의 신랄한 비판(批判)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유연성(柔軟性)이 있는 듯한 자세를 이례적(異例的)으로 보인 것 또한 그들의 적화(赤化) 통일 야욕을 은폐하려는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韓國)측이 소위 「전제조건」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새 협상안이라도 되는 양 반한인사(反韓人士) 일색의 한국측 참가대표를 일방적으로 지명(指名)한 가운데 이른바 「남북정치인(南北政治人)연합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그 단적(端的)인 증거인 것이다.

요컨대 그들이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부자세로 나온 것은 이번 우리의 평화제(平和提議)를 둘러싸고 그들 나름의 고민(苦悶)이 심각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첫째로 그들은 우리의 대화(對話)재개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한(南北韓)간의 긴장(緊張)이 완화된다면 한반도(韓半島)의 부단한 긴장조성과 소위 「남조선(南朝鮮)혁명」에 의한 적화(赤化) 통일목표의 추구 등 강경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돼온 김일성-김정일(金日成-金正日)의 세습독재(世襲獨裁)체제의 기반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둘째로는 남북한(南北韓)사회가 서로 개방(開放)되고 다방면에 걸친 교류(交流)가 이루어질 경우 서구(西歐)사회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의 현실처럼 자유화(自由化)의 물결이 들이닥쳐 철저한 폐쇄(閉鎖) 속에서만 지탱이 가능했던 그들 사회에도 동요(動搖)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러한 세습독재체제 및 폐쇄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 취약성(脆弱性) 때문에 그들은 우리측의 대화재개와 상호 사회개방 및 교류제이에 시종일관 거부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의지(統一意志) 관철을 다짐하자

그러나 북한(北韓)측이 현시점에서 상투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의의(意義)가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할수록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시대적 소명(召命)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온 국민이 더욱 일치단결해서 민주통일목표를 꾸준히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 지난 2월 1일 우리 정부가 재차 제시한 「20개 통일시범(統一示範) 실천사업」의 제의인 것이다. 이 제의는 「민족 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의한 남북한(南北韓) 당국 최고책임 회담이 성사(成事)되기 이전이라도 또는 그와 병행하여 각 분야에서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통해 남북한(南北韓) 간의 신뢰(信賴)를 회복하고 통일(統一)의지(意志)를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최고당국자 회담의 실현은 물론 통일문제 해결의 참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20개시범 사업 대북(對北)제의를 기존의 남북한(南北韓) 간 교류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북한(南北韓)사회의 완전개방과 긴장완화를 하루 속히 실현해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意志)가 구체적으로 강도높게 담겨있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개방(社會開放)을 위한 8개사업을 비롯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8개사업,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 사업 등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남북한(南北韓)이 생각만 있다면 당장 실천(實踐)에 옮겨질 수 있는 문제들이며, 더우기 이 사업들은 남북한(南北韓)이 즉각 실천에 옮겨 그를 바탕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통일의 대도(大道)에 착실히 다가서기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과제들이다.

이같은 사리(事理)에 비추어 북한(北韓)측이 현재로서는 이 시범사업 제의에 대해서도 반사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인젠가 이성(理性)을 되찾는 날엔 최소한 선별적(選別的)으로라도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처럼 설득력있고 실천용이한 시범사업마저 끝까지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호전적(好戰的)인 평화거부(平和拒否)자세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북한(北韓)당국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선택(選擇)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우선 시범(示範) 사업 제의에 순순히 응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살 길을 찾느냐, 아니면 한반도(韓半島)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는 겨레의 염원과 국제 사회의 여망을 또 다시 외면함으로써 호전성으로 인한 국제적 지탄(指彈)과 반민족성(反民族性)으로 인한 역사의 심판을 자초하여 스스로 파멸(破滅)을 재촉하느냐의 어느 한 길인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거시적(巨視的) 안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北韓)이 여전히 경직(硬直)된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은 현시점에서의 고민을 호도(糊塗)하기 위한 단기적 반응일 뿐 앞으로 상황변화(狀況變化)에 따라서는 그들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장족정책(長足政策)」(Big Brother Policy)에 입각한 후속(後續)노력을 인내와 성의를 다해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점차 커져가고 있는 남북한(南北韓) 간 힘의 격차(隔差)와 날로 심화(深化)돼가고 있는 북한체제(北韓體制) 내부의 갈등, 그리고 계속 확산돼 가고 있는 우리측 평화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과 이로 인한 북한(北韓)의 외교적(外交的) 고립(孤立)추세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80년대(年代)가 다하기 전에 그들의 경직된 자세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變化)가 일어나고야 말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세계의 협상사(協商史)에 나타나 있는 공산주의(共產主義) 정치집단(政治集團)들의 협상행태(協商行態)는 쌍방의 힘이 교착상태에 도달할 때 자신의 권력(權力)유지의 방책(防冊)으로서 협상(協商)의 조건이 성숙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일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체제(體制)경쟁과 국력(國力)경쟁에서 열세(劣勢)에 몰려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져가고 있는 사실을 북한(北韓)이 자인(自認)한다면 자신의 활로(活路)를 평화협상(平和協商)에서 찾을 수 밖에 판 도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대세(大勢)의 필연적 귀추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루빨리 그 부질없는 대남적화(對南赤化)야욕을 포기하고 우리의 평화제에 순순히 응해오도록 국민 모두의 단합된 통일(統一)의지(統一意志)와 그 실천역량(實踐力量)을 더욱 높이 과시(誇示)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언(名言)명구(名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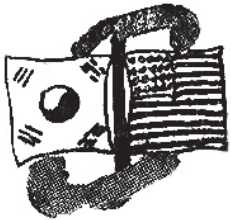
* 권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그 권력을 맡은 자의 특별한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2조>

* 화가 나거든 10까지 세어라. 그래도 풀리지 않거든 백까지 세어라.

< 제퍼슨 >

한(韓)·미(美) 수교(修交) 100년(年)을 맞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동반자(同伴者) 관계(關係)를 유지하면서 세계정책(世界政策)에 대응(對應)하고 있다.

동반자시대(同伴者時代)의 한·미(韓·美) 관계(關係)



한·미 수교 100주년을 맞아

유 광 진(俞光震)

〈정박(政博)·동국대법정대교수(東國大法政大教授)〉

1. 한(韓)·미(美) 관계사(關係史)의 재인식(再認識)

『대조선국(大朝鮮國)과 미합중국(美合衆國)은 양국 국민 사이에 영원한 친선(親善)과 우호(友好)의 관계가 확립되기를 중심으로 열망하여...』로 시작된 한(韓)·미(美) 수호조약(修好條約)을 체결한지도 벌써 100년을 맞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韓)·미(美) 관계(關係)는 공식적(公式的) 관계로 정립(定立)되었고 또 지금까지 친선(親善)과 우호(友好)의 유대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韓)·미(美)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본(日本), 중국(中國)과 더불어 거의 같이 개항(開港)과 수교(修交)가 강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와는 달리 한번도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형성하여 「적(敵)」 개념에 의한 갈등(葛藤)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강대국(強大國)으로서의 대립(對立)과 협력(協力)을 통한 적극적 제후를 맺어 온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정책(政策)을 전개해 왔느냐에 따라 많은 논의(論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역사관점에서 볼 때는 친선과 우호(友好)의 형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韓)·미(美)관계는 시작되었으나 국제관계(國際關係)의 변화양상에 따라 많은 단계(段階)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단계의 관계는 열강정치(列強政治) 속에서의 한(韓)·미(美) 관계를 파악(把握)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한(韓)·미(美) 수호조약(修好條約)에서는 「상호 협력(協力)을 통한 우호(友好)를 강조하였지만 미국(美國)은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관계 속에서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韓)·미(美)관계를 최초로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호암(湖岩) 문일평선생(文一平先生)의 「한(韓)·미(美)관계 50년사(年史)」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美國)은 대한정책(對韓政策)에서 「엄정중립(嚴正中立)·절대 불간섭주의(不干涉主義)」와 이 「주의(主義)」를 파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노(露)·일(日) 전쟁(戰爭) 이후 「테프트-가스라」비밀협약(秘密協約)이 입증(立證)해 주고 있으며, 그로부터 약 40년간은 공식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韓國)의 일본지배하(日本支配下)에서는 미국(美國)이 일본(日本)과의 적대(敵對)관계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던 것이다.

제2단계의 관계 회복은 냉전체제(冷戰體制)의 일환으로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다. 2차대전(次大戰)의 종결과 함께 미국(美國)은 전후처리(戰後處理)의 하나인 한국(韓國)의 자주독립(自主獨立) 정부수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군사적(軍事的)으로 볼 때 미군(美軍)의 대한진주(對韓進駐)라는 특별한 의미(意味)를 갖게 된다. 과거의 역사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때의 미국(美國)은 승전국(勝戰國)으로서 한국에 「주는 입장(立場)」에 서서 대한지원(對韓支援)을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韓國)의 미국(美國)영향권으로의 편입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의 전략적(戰略的) 지위(地位)를 놓고 일본(日本)의 방어를 위한 낙관적(樂觀的) 정세판단으로 이른바 「6·25전쟁(戰爭)」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제3단계의 관계는 한국전쟁(韓國戰爭)으로 군사적(軍事的) 혈맹관계(血盟關係)로 밀착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의 전략적(戰略的) 주요성(主要性)을 인식하게 되었고 휴전(休戰)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 이에 따른 방위무(防衛義務)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동조약(同條約)이 피침시(被侵時) 자동개입(自動介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美軍)을 상주(常駐)시키므로 무한지원(無限支援)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 시기(時期)는 혈맹적(血盟的) 무한지원(無限支援)의 수직적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60년대(年代)에 접어들어 한(韓)·미(美)관계의 혈맹적(血盟的) 협력관계(協力關係)로의 전환이었다. 즉 50년도(年度)의 무한지원(無限支援)성격에서 유한지원(有限支援)성격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한지존(有限依存)관계로 재정립(再定立)되어 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혜(施惠)의 입장에서 협력(協力)의 관계로 전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월남(越南) 파병(派兵)과 한(韓)·미(美) 안보협의회(安保協議會) 구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제5단계는 70년대(年代)와 더불어 「성숙한 동반자적(同伴者的)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군사적(軍事的) 측면에서는 60년대(年代)의 협력성격(協力性格)을 진전시키면서 외교적(外交的) 측면에서는 「주권국가(主權國家)」로서의 위치 정립(定立)을 위한 갈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데

망트 조류(潮流)와 함께 한국(韓國)의 자주역량(自主力量)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한·미간의 「불편(不便)한 관계」의 개운참은 갈등이 내재(內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理由)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체제(政治體制)의 문제와 정책(政策)스타일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6단계에는 80년대(年代)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동반자시대(同伴者時代)」로 성숙되었다. 전대통령(全大統領)의 방미(訪美)와 함께 한(韓)·미(美) 관계는 「불편(不便)한 관계」의 완전 해소를 가져왔고 군사적(軍事的) 갈등관계도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의 동결(凍結)이 이를 잘 입증(立證)해 주고 있다. 이것은 또 미국(美國)의 극동정책(極東政策)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안정(東北亞安定)과 평화(平和)의 관건임을 입증(立證)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韓)·미(美) 관계(關係) 100년사(年史)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에 와서 보다 실질적인 친선과 우호(友好)의 정착(定着)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한(韓)·미(美) 간에 있어 수평적(水平的) 협력(協力)을 통한 이해일치(利害一致)의 관계(關係) 정립(定立)을 의미한다.

2. 한(韓)·미(美) 양국(兩國)의 정책적(政策的) 관점(觀點)

그러면 미국(美國)이 한국(韓國)과의 협력관계(協力關係)를 유지(維持) 발전(發展)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미국(美國)의 국익(國益)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한(韓)·미(美)양국이 다같이 동북아(東北亞)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해 가면서 대공억지력(對共抑止力)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美國)은 구한말(舊韓末)부터 청국(淸國)과 노서아(露西亞)의 대한진출(對韓進出)을 억지(抑止)해 왔고 해양세력(海洋勢力)인 일본(日本)을 지원(支援)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지금은 「모든 악(惡)의 근원(根源)」인 소련의 남하정책(南下政策)을 최대한 억지(抑止)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 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남침(南侵)을 억지(抑止)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韓)·미(美)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미국(美國)은 기본적으로 북한(北韓) 공산집단(共產集團)의 침략(侵略)을 억지(抑止)해야 한다는 정책(政策)도 결국에 가서는 대소(對蘇)견제의 일환으로 파악(把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을 동북아(東北亞) 안정(安定)과 평화(平和)의 전초기지(前哨基地)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美國)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기지(戰略基地)로서 한국(韓國)의 필요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位置)로 보아 미국(美國)은 대륙세력(大陸勢力)의 남하(南下)를 한국(韓國)에서 저지(沮止)해야 한다는 전략적(戰略的) 이익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세력균형(東北亞勢力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존재가 군사적(軍事的), 정치적(政治的)으로 이익(利益)이 보장(保障)되도록

록 함에 있다. 동시에 장차(將次) 일본(日本)과 중공(中共)과의 협력(協力)을 통하여 소련을 견제함으로써 미국(美國)의 동북아(東北亞)에 대한 이익(利益)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政策的)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 최근 동북아(東北亞)에 그대로 투영(投影)되고 있다. 소련의 서태평양(西太平洋) 진출의 길목이 바로 대한해협(大韓海峽)이며, 이 대한해협을 다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정책(政策)전개는 곧 한국의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值)가 그만큼 상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째로 미국(美國)은 한국이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勢力均衡)을 유지시키고 일본(日本)과 태평양(太平洋)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지역(地域)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美國)은 태평양(太平洋)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 한국이 공산세력(共產勢力)의 영향하에 들어갈 경우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日本)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要素)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한계(限界)가 있다. 즉 한국(韓國)은 동북아(東北亞)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日本)을 보호하는 방벽(防壁)이 되기 때문에 미국(美國)으로서는 결코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美國)의 입장(立場)에서는 일본(日本)을 군사적(軍事的)으로 육성(育成)하여 태평양(太平洋)을 공동으로 지키는 방법도 있었지만 과거의 미(美)·일(日)관계와 현재 일본(日本)의 태도(態度) 등에서 결코 「강한 일본(日本)」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한 일본(日本)」을 원하지도 않는 입장(立場)에 있다. 이것은 곧 미일안보조약(美日安保條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대소(對蘇)견제를 위한 군사협력(軍事協力)을 현수준에서 전개(展開)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극동유사시(極東有事時) 연구」를 통한 공동 해상작전(海上作戰)과 훈련, 그리고 미일연합군사(美日聯合軍事) 편제(編制) 즉 극동식(極東式) 「나토형(型)」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중공(中共)과 한국까지를 포함한 장래(將來)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美國)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을 현수준(現水準)에서 유지(維持)하면서 전력강화(戰力強化)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성격(性格)은 구조면(構造面)에서도 ① 전술군(戰術軍)인 동시에 전략군(戰略軍)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② 부대구조(部隊構造)도 육(陸)·공(空) 및 특수부대(特殊部隊)까지 포함한 종합군대(綜合軍隊)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 핵무기(核武器)를 포함한 강력한 무장력(武裝力)을 갖춘 군대(軍隊)라는 점 등이며 기능(機能), 임무면(任務面)에서도 ① 한반도평화유지(韓半島平和維持)를 위한 「유엔」평화군(平和軍)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한 동맹군(同盟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③ 미국(美國)의 대아세아전략(對亞細亞戰略)을 전개하는 일부로서 또 미국(美國)의 세계 전략적(戰略的) 차원에서의 기능(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美國)은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침략억지(侵略抑止)를 위해서도 미군(美軍)의 한국 주둔(駐屯)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대소(對蘇)견제를 위한 미국(美國)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이 미국(美國)의 국익(國益)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절대 필

요한 위치(位置)를 점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美國)은 동맹국(同盟國)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 대소 우위(對蘇優位)를 확보하겠다는 의지(意志)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질서(新冷戰秩序)의 상황(狀況)에서는 한국(韓國)과의 긴밀한 동반자적(同伴者的) 협력(協力)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의 국군현대화(國軍現代化) 계획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적(經濟的)인 이익(利益)에도 많은 지원(支援)과 협력(協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동반자적(同伴者的) 한(韓)·미(美)관계의 재정립(再定立)

한(韓)·미(美)관계의 실질적 동반자(同伴者)관계가 재정립(再定立)된 것은 80년대(年代)의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전대통령(全大統領)과 「레이건」대통령(大統領)간의 진지한 정상회담(頂上會談)의 결과로 나타났다. 81년(年) 2월(月) 2일(日) 전대통령(全大統領)의 미국방문(美國訪問)은 한 마디로 70년대(年代)의 「불편한 관계」를 깨끗이 청산(清算)하고 「상호 협력」의 새로운 친선(親善)과 우호(友好)를 형성한 동반자시대(同伴者時代)의 개막을 굳게 다짐하는 일대 전기를 제공해 주었다.

한(韓)·미(美)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核心的)인 축(軸)은 누가 뭐라 해도 안보(安保)협력(協力)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전대통령(全大統領)의 방미성공(訪美成果)에서도 안보면(安保面)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14개항(個項)의 공동성명(共同聲明)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한(韓)·미(美)관계의 획기적인 재정립(再定立)을 가져온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를 완전히 백지화(白紙化)한 선언이다. 이는 대공억지(對共抑止)를 위해서는 힘의 우위(優位)를 확보해야 한다는 「레이건」대통령(大統領)의 의지(意志)나 전대통령(全大統領)의 의지(意志)를 상징적으로 표현(表現)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속(持續)되어 왔던 한(韓)·미(美) 양국간의 혈맹(血盟)관계를 재확인한 점에서 보다 높게 평가(評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 계획의 백지화(白紙化)는 한국(韓國)의 안정(安定) 뿐만 아니라 동북아(東北亞)의 안정(安定)과 평화(平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한(韓)·미(美)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에 의한 미국(美國)의 의무(義務)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미국(美國)의 태도(態度)는 한국(韓國)의 방위(防衛)가 세계평화에 중요한 관건임을 나타낸 것이다. 한(韓)·미(美)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에 의한 공약(公約)의 이행(履行) 다짐은 일차적으로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으로 하여금 대남침략기도(對南侵略企圖)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리적 효과(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군현대화(國軍現代化) 계획의 강력한 지원(支援)과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장비(裝備)보완(補充)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지(意志)의 표현(表現)만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美國)의 지원(支援)과 협력(協力)에 의해 한국의 방위산업(防衛產業)도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는 연례안보협의회의(年例安保協議會)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편(不便)한 관계」로 인한 한(韓)·미(美) 간의 갈등(葛藤)은 80년(年) 안보협의회의(安保協議會)를 열지도 못하였고 한(韓)·미(美)정착협의회의도 취소되었던 것으로 잘 입증(立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全)·레이건」정상회담(頂上會談) 이후 정상적인 협의회의(協議會)가 개최되어 안보(安保)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協議)를 보아 새로운 군사협력체제(軍事協力體制)를 갖추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미국(美國)은 안보협의회의(安保協議會)에서 한국군 장비현대화(裝備現代化)를 위해 F-16전폭기, M-55 I 탱크, 수동형 미사일, M-88 대전차포 등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등이다.

네째는 한국의 평화통일기반조성(平和統一基盤造成)을 위한 일련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評價)를 받았다는 점이다. 미국(美國)은 전대통령(全大統領)의 「1·12」「6.5」 제의를 적극 지지(支持)하고 또 「1·2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支持)를 표명해 왔다. 더우기 미국(美國)은 대북(對北)관계에 있어 한국(韓國)을 제외(除外)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고 또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동맹국(同盟國)이 한국과 접촉하지 않는 한(限) 미국(美國)도 북한(北韓)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約束)하여 실질적인 동반자(同伴者)의 신뢰관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다섯째는 안보적(安保的) 차원 뿐만 아니라 한국(韓國)의 경제적(經濟的) 역할(役割)의 중요성(重要性)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共同聲明)에서 한(韓)·미(美)경제협의회의(經濟協議會)를 개최하기로 합의(合意)함과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한국에 에너지 공급(供給)을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은 획기적인 성과(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韓)·미(美)관계는 안보적(安保的) 측면에서 혈맹적(血盟的) 협력관계(協力關係)를 더욱 굳혔고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한 공동노력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또한 비군사적(非軍事的) 측면에서도 상호협력(相互協力)을 통한 환태평양지대(環太平洋地帶)에 있어 이해일치(利害一致)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실질적이고 확고한 동반자(同伴者)로서의 관계(關係)를 정립(定立)하였던 것이다.

4. 새 차원(次元)의 협력시대(協力時代)로의 발전(發展)

지금까지 한(韓)·미(美)관계(關係)의 재정립(再定立)과정을 국제(國際) 정세변화(情勢變化) 추세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한(韓)·미(美) 양국은 분명히 이해관계적(利害關係的) 측면에서 친선(親善)과 우호(友好) 그리고 협력(協力)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立場)에 있다. 그것은 한(韓)·미(美) 양국이 다같이 한반도(韓半島)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와 동시에 공산세력(共產勢力)의 해양진출(海洋進出)을 억지(抑止)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이다. 「레이건」대통령(大統領)도 취임사에서 「평화(平和)를 위해 협상(協商)하며 희생할 것이나 결코 평화(平和)를 위해 굴복(屈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힘을 보유(保有)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힘에 의한 대공억지력(對共抑止力)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외정책(對外政策)에 입각하여 미국(美國)은 이미 극동지역(極東地域)에 있어서 일본(日本) 및 중공(中共)과 제휴하여 소련을 견제한다는 입장(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에 있어서도 똑같이 「미국(美國)에 대한 소련의 위협(威脅)」제거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美國)은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안보(極東安保)에 보다 많은 역할(役割)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중공(中共)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군사협력(軍事協力)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일안보협의회(美日安保協議會)에서의 안보협력(安保協力) 문제논의와 「한반도유사시(韓半島有事時)연구」의 진행과 미국의 중공(中共) 대련항(大連港)기지 제공설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韓)·미(美) 관계(關係)로서 안보적(安保的) 차원에서의 협력(協力)은 대소견제를 위한 미(美)·일(日)·한국(韓國) 그리고 장래(將來)에는 중공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동협력(共同協力)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韓國)의 지위(地位)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韓)·미(美)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동반자(同伴者)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정책에 대응(對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공억지력(對共抑止力)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관계(協力關係)가 계속 지속되고 또 한반도사태(韓半島事態)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한국군현대화(韓國軍現代化)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支援)해 나가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80년대(年代)의 교역(交易)은 무역전쟁(貿易戰爭) 바로 그것이다. 관민(官民)이 일체(一體)가 된 총력전(總力戰)에의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대응전략(對應戰略)이 필요하다.

수출(輸出) 250억달러에의 의지(意志)

한·미 수교 100주년을 맞아

송기동(宋起東)

〈한국경제신문(韓國經濟新聞)·논설위원(論說委員)〉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여기 우리들 귀에 익은 낱말들이 있다.

「한강(漢江)의 기적(奇蹟)」, 「세계 속의 한국(韓國)」, 그리고 요즘 새롭게 듣는 「자율화시대(自律化時代)」가 바로 그것이다.

「한강(漢江)의 기적」이란 근 2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대한 세계의 찬사(讚辭)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75년 불변가(不變價)로 따져 9.4%, 수출(輸出)증가율이 경상가(經常價)로 37.5%, 그리고 1인당 실질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7.3%라는 실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움에서 나온 별명(別名)이다.

아시아대륙 동쪽 끝에 마치 층수(蟲垂)처럼 매달려 눈에도 잘 띄지 않던 조그마한 나라가, 1세기 전만 해도 못 열강(列強)들의 발부리에 짓밟히다가 끝내는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가 되어야 했던 약소국(弱小國)이 그것도 2차대전 후 가까스로 질곡(桎梏)에서 풀려났으나 38선으로 두 동강 나버린 「불구(不具)」의 나라에서 이룩한 기적이기에 더욱 더 세계 각국은 놀라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6·25동란까지 겪어 황폐한 폐허 속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民族)의 끈기에 더 큰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

또 「세계 속의 한국(韓國)」이라는 말은 실상 우리들 스스로가 자부심(自負心) 속에서 일컫는 말이며 아울러 이제는 국제사회의 몇몇한 일원으로서 계속 도약과 전진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다짐이기도 하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를 상대로 한 수출(輸出)만이 살 길이라는 건 익히 느껴왔고 또한 실험해 왔기에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폭넓은 시야(視野)와 자각(自覺)이 갈수록 요건(要緊)해지고 있다.

그동안 간단없는 고속(高速)으로 치달던 우리 경제(經濟)도 한동안의 국내정세에 난조(亂調) 등과 유류파동(油類波動)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난기류(亂氣流)에 휩쓸려 3년이 넘도록 불황(不況)의 늪에서 허우적대야만 했다.

짐짓 기리던 「대망(待望)의 80년대」가 그만 그 첫 발부터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자 아스라한 마음은 모든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동안 성장(成長) 일변도에 치우쳤던 누적된 부작용(副作用)의 요인도 있었지만 특히 10.26이라는 뜻밖의 충격이 불안(不安)과 불황(不況) 속에 휘말리게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정체(停滯)와 위기(危機)의 늪에서 벗어나는 민족의 슬기를 보였고 제(第)5공화국(共和國)을 출범시켜 기약(期約)된 내일의 발판을 더욱 굳혔다.

더구나 올 1982년은 크나큰 역사(歷史)의 한 분수령(分水嶺)을 넘어서는 해이다.

해방 후 줄곧 우리의 생활행동과 경제활동을 묶어왔고, 그보다는 의식적(意識的) 측면에서 후진성(後進性)을 스스로 되씹어 왔던 통금(通禁)이라는 자굴(自屈)의 굴레를 끊는 단안(斷案)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굳혀온 내재(內在)의 자신감(自信感)에 대한 표출(表出)이며 개방사회(開放社會)에로 내딛는 자율(自律)과 자주意識(自主意識)에 뿌리를 준 새로운 가치관(價値觀)을 다지는 시점(時點)임을 깨닫게 된다.

곧 「자율화(自律化) 시대(時代)」에의 개막(開幕)인 것이다

한국 수출(輸出) 어제와 오늘

올해 우리 나라의 수출목표는 작년의 2백억 달러 달성에 이어 2백50억달러 선에 도전하고 있다.

손쉽게 2백50억달러라지만 수치상(數値上)의 어감(語感)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년 전의 수출실적들과 대비(對比)해보면 상대적으로 그 규모를 직감케 된다.

가령 1960년의 수출실적은 고작 3천만달러였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3차년인 64년에야 겨우 1억달러 선을 돌파했던 사실과 견주어 보면 실감이 난다. 그 후 6년만인 70년에 10억달러, 다시 7년만인 77년에 드디어 1백억달러 고지(高地)를 점령했던 흥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고는 4년만인 작년에 2백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렇듯 비약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은 수출입국(輸出立國)이라는 국가적 대명제(大命題)에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되었다는데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계획적(計劃的)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전의 우리의 사회상(社會相)이나 경제여건(經濟與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했었다는 사실을 또한 웅변해 주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의 5년,

3년간의 6·25전화(戰禍),

정상배(政商輩)와 매판자본(買辦資本) 등이 판을 쳤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휴전(休戰) 후의 자유당(自由黨) 시절 7년,

그리고 4.19와 5.16혁명(革命), 어제의 우리의 역사는 이렇듯 위기(危機)와 불신(不信), 그리고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 속에 점철(點綴)되어 있었다. 그때의 경제(經濟)여건은 관성(慣性)인플레이션 속에 생산성제고(生産性提高)와는 거리가 먼 농업위주의 산업구조(産業構造)와 3%에 육박하는 인구증가율, 또 엄청난 실업률(失業率)의 누증 등 어느 하나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역사의 전기(轉機)는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됨으로써 마련되었지만 개발(開發) 초기엔 협소한 국토(國土), 인구(人口)의 과밀(過密), 그리고 부존자원(賦存資源)과 개발재원(開發財源)의 부족 등으로 허탈과 실의(失意)를 맛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선 양적(量的) 성장(成長)에 역점을 두어야 했고, 그 개발전략(開發戰略)도 넓은 해외시장(海外市場)을 상대로 한 대외지향형(對外指向型)으로 수출(輸出)드라이브 정책을 펴야 했다. 그리하여 경제운용(經濟運用)도 저금리(低金利)와 선별지원(選別支援), 그리고 경쟁제한(競爭制限) 등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와 규제에 의한 정부주도(政府主導)로 이끌어 왔었다.

마침 당시의 국제경제여건이 저가(低價)에너지원(源)의 확보와 세계(世界)교역(交易)이 활발한 데 힘입어 급격한 수출신장이 가능하였고, 안으로는 풍족한 노동 인력에 따른 저임금(低賃金)으로 다른 경쟁국에 비해 가격면에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수출 1억달러 고지(高地)를 확보한 64년째를 기점(起點)으로 급속히 성장, 70년대 중반엔 어느덧 수출 1백억달러에 달했고, 자주경제(自主經濟)에로 치달는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의 발판을 굳혔다

그러나 조기완성(早期完成)과 초과달성(超過達成)이라는 흥분 속에 내달아왔던 우리 경제는 개발계획 착수 후 작금(昨今)에 가장 큰 기조 전환기(基調轉換期)에 접어들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제시류(國際時流)에 맞춰 전면적인 개방경제(開放經濟)체제에로 이행(移行)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앞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대두와 후진(後進)개발국들의 급속한 세계시장(世界市場)진출, 그리고 세계 통화불안(通貨不安) 등 국제경제사회의 경화(硬化)된 여건의 변화 등이 우리 경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外的)인 악조건 뿐만 아니라 내적(內的)으로도 계속된 물가(物價)양등과 요근래 2,3년 동안 호경기(好景氣)에 덩달은 임금(賃金)상승의 급격한 파급과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消費)구성의 분에 넘치는 고급화 등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국제수지(國際收支)균형에의 안간힘, 통화(通貨)증발과 안정기조(安定基調)의 위협,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누르기 위한 긴축(緊縮)정책으로 기업의 자금(資金)궁핍은 극에 달하고 여기에서 유가(油價)의 파상공세(波狀攻勢)로 불황(不況)은 몇년째 꼬리를 물었다.

그리하여 끝내 거작년 80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른 후 처음으로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6.2%라는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다.

아름든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점 위에 서 있다.

국제정세의 혼란과 신보호주의(新保護主義) 등 일련의 대외적인 여건과 정신없이 달려만 왔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부작용 등 대내적인 술한 장애요인 속에서 견디어 왔던 그 역정(歷程)을 이젠 제2의 도약(跳躍)을 위한 체질(體質) 강화에의 체험과 교훈(敎訓)으로 삼아야겠다.

내일을 향한 수출전략(輸出戰略)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 결코 부인(否認) 못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첫째는 적화(赤化)야욕에 광분하고 있는 북(北)의 팻발 선 눈을 마주 대한 채 한시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5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땅에 3천8백만이 살아가려면 오직 수출(輸出) 밖에 없다는 생활방도가 그 두번째다.

지금 우리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동강난 한반도(韓半島)의 땅은 일본(日本)의 3.6분의 1, 미국(美國)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영토의 3분의 2는 경제성(經濟性)없는 산지(山地)이며 하천과 늪지대를 빼고 나면 22%의 가용지(可用地) 밖에 남지 않는다. 이 좁디 좁은 터에 집을 짓고 땅을 갈아 살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것인가. 또한 이 좁은 땅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이래야 30년 남짓 켤 수 있는 석탄(石炭)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는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출은 곧 생명선(生命線)이란 필연성을 깨물며 20년 동안 「수출입국(輸出立國)」을 내세워 피땀을 쏟아 왔었다. 그러나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經濟)는 이제 새로운 전환기(轉換期)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3년여에 걸친 불황(不況)의 터널에 올부터 여러 부문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도약(跳躍)으로 내딛고 있는 우리 앞길의 서광(瑞光)임이 분명하다.

이제부터의 80년대 「제2 도약기(跳躍期)」의 수출(輸出)은 열(熱)과 성의(誠意)로서 밀어부쳐 양적(量的)인 목표달성에만 치우쳤던 안이한 전략(戰略)으로는 탈락되고 만다. 80년대의 교역(交易)은 이제 바로 무역전쟁(貿易戰爭) 그것이다.

그러기에 관민(官民)이 일체(一體)가 된 총력전(總力戰)에의 보다 자원(次元) 높은 새로운 대응전략(對應戰略)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주도형경제(政府主導型經濟)에서 내일의 제2의 경제도약(經濟跳躍)을 겨냥하고 민간주도(民間主導)의 경제(經濟)체제로 일대(一大) 전환(轉換)을 꾀할 치밀한 청사진(靑寫眞)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開發)초기단계에는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조 또한 단순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經濟運用)은 민간(民間)부문의 경영능력의 미흡함을 보완해 주는 구실까지 했다. 이같은

은 양적(量的) 성장(成長) 위주의 정책과 정부주도 경제 운용은 단시일 내에 경제건설을 가능케 하는 그 능률성(能率性)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정부주도 경제운용(經濟運用)방식은 경제가 발전하고 그 구조(構造)가 비대해짐에 따라 그 자체가 오히려 일부 부분이나 어떤 업종에서는 창의적(創意的)인 능률향상(能率向上)을 저해하거나 자주적(自主的) 경쟁력(競爭力) 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성장잠재력(成長潛能力)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민간주도(民間主導)경제란 자율화(自律化)와 자기(自己) 책임(責任)의 윤리(倫理) 없이는 결코 성립되지 못한다. 곧 민간기업(民間企業)이 이를 능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자율적(自律的) 체질개선(體質改善)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기업윤리자세(企業倫理姿勢)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차원 높은 경제운용(經濟運用) 효율화(效率化)의 지름길은 오직 「민간주도(民間主導)」밖에 없다는 식의 일언가파(一言可破)는 결코 아니다. 바꿔 말하면 제2의 경제도약기에서는 70년대까지의 정부의 과보호(過保護) 내지 과규제(過規制)의 「온실경영(溫室經營)」에서 과감히 뛰쳐나올 수 있는 강인한 기업체질(企業體質)이 필요불가결해졌다는 뜻이다.

여태껏 기업이 스스로 내재(內在)하고 있는 부실경영(不實經營)의 쇄신, 생산성(生產性)향상을 위한 노력의 배가(倍加)와 악조건 아래서도 꾸준한 기술개발의 추구 등 기업 체질강화(體質強化)를 향한 피나는 자조노력(自助努力)이 긴요한 것이다.

물론 불황(不況)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상황 아래서 허약해진 기업체질을 강화하기란 말로는 하기 쉬워도 안팎의 제반 여건이 아직도 설비(設備) 투자(投資)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고, 타성(惰性)이 되어버린 듯한 자기(自己) 자본(資本)부족의 재무구조(財務構造)를 손쉽게 개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은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기에도 더욱 자성(自省)과 자조노력(自助努力)이 배가(倍加)되어야 한다는 역설(逆說)을 또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정부는 업계의 자조(自助)노력에 장애가 될만한 규제와 간섭을 두루 살피 이를 배제해 주고 오히려 기업체질(企業體質)을 북돋아주는 적극시책(積極施策)을 펴줘야 할 것이다.

기술(技術) 드라이브 시대(時代)로

제(第)2경제도약(經濟跳躍)에 대한 총괄적인 포석(布石)으로는 기업체질(企業體質)강화를 전제로 한 민간주도경제(民間主導經濟)에의 이행(移行)으로 기업의 창의성(創意性)과 잠재력(潛能力)발휘를 위한 자율성(自律性)을 강조했다지만 이는 국제시류(國際時流)에 따른 우리의 개방정책(開放政策)과도 부합된다. 바야흐로 자립(自立)·자주(自主)·자율(自律)의 시대(時代)가 펼쳐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제(第)2도약(跳躍)에의 대응전략(對應戰略)은 과학기술개발(科學技術開發)에 대한 과감한 투자(投資)다.

「기술(技術)개발 없이 우리의 살길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이제 수출상품의 품질(品質)개선은 물론 신제품(新製品)개발에는 보다 고도의 기술연구(技術研究)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생산성(生産性)하고도 직접 연관됨은 물론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란 곧 인적(人的) 자본(資本)에 대한 투자를 뜻하기도 한다. 인적(人的) 자본(資本)개발의 바탕은 곧 과학기술(科學技術)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로 가름되게 마련이다. 이 연구개발비의 대(對)GNP비율이 지금 우리는 고작 0.8%인데 일본(日本)만도 이미 70년대 초에 2%선을 넘기고 있고, 서독(西獨)은 2.6%나 된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GNP규모 자체가 한국의 20배가량이나 되는걸 감안하면 우리의 연구개발비 절대(絶對)규모는 그들의 6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기술개발(技術開發)투자에 소홀하고 있었나를 실증(實證)해 주고 있다.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와 재원(財源) 염출의 절대량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80년대의 무역전쟁(貿易戰爭)은 곧 「기술개발전쟁(技術開發戰爭)」임을 새삼 명각(銘刻)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제(第)2의 산업혁명(産業革命)」에의 관문 앞에 다다르고 있다. 컴퓨터와 산업(産業) 로봇의 급격한 발달은 공장무인화(工場無人化) 내지는 작업(作業)의 인간대역(人間代役)으로 제품의 생산성(生産性)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이는 반도체(半導體)로 대표되는 초고밀도집적회로(超高密度集積回路) (VLSI)의 개발로 인력(人力)의 수백, 수천배의 일을 대신해 주고 또 정보처리(情報處理)를 해주고 있다.

「반도체시장(半導體市場)을 석권하면 세계기술(世界技術)을 지배한다」는 구호(口號) 아래 미(美)·일(日)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치열한 선두주자(先頭走者) 다툼을 한창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는 VLSI의 국산화(國產化) 및 15억달러의 수출을 겨냥, 7백억원의 특별 기술개발(技術開發) 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美)·일(日)에의 추격전에 맘을 쏟고 있다.

반도체(半導體)분야 말고는 기술(技術)개발의 손발이 되는 기능공(技能工)부터가 우리는 태부족이다. 올부터 '86년까지만도 연간 1만3천여명의 '절대기능인력(絶對技能人力)'이 부족, 86년엔 무려 6만5천명의 기능공 부족현상을 자아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기에 기능공(技能工)의 특별(特別) 양성계획(養成計劃)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쨌든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전쟁(貿易戰爭)에서 이기고, 올 수출목표인 2백50억달러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수출입국(輸出立國)」으로 기약(期約)된 내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술(技術)드라이브 정책(政策)」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先進國)의 기술(技術) 기여도(寄與度)가 22~23%인데 우리는 고작 7%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가치관(價值觀)의 재정립(再定立)부터

80년대의 수출전쟁(輸出戰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창의(創意)와 자율화(自律化)를 극대화시킬 민간주도(民間主導)체제에의 무리없는 이행(移行)의 바탕 구축과 인적(人的) 자본(資本)의 개발 곧 기술(技術)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국제 경쟁력의 강화, 품질(品質)개선과 고급화,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공급의 거점(據點)확보, 세일즈의 강화(強化)와 시장(市場)의 다변화(多邊化) 등 마케팅전략의 고도화(高度化) 등 숭한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상관(相關)관계가 있음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걸맞는 획기적이고도 치밀한 종합청사진(綜合靑寫眞)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 한국경제의 제2단계 건설과 우선 넘어야 하는 2백5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포석구상(布石構想)에 앞서 한 가지 선행조건(先行條件)이 있다.

바로 정치(政治) 및 사회(社會)의 안정(安定)이다. 사회가 불안한데 그 누가 마음놓고 투자를 하며 일에 열중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거작년 국내고정(國內固定) 투자(投資)의 14. 8%의 마이너스 현상(現象)이 그때 당시의 사회상(社會相)을 한 마디로 실증(實證)해 뱉주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질서있는 신뢰사회(信賴社會), 이것이 경제발전의 선행요건이며 국력신장(國力伸張)에의 제일(第一)의 의(義)임을 다져야겠다.

물론 우리는 뜻밖의 10.26의 충격도, 또 이에 뒤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도 차분히 참고 견딘 끝에 새 시대를 향한 제(第)5공화국(共和國)을 수립, 출범(出帆)시킨 지 1년 동안 숭한 개혁과 정화(淨化)로 정치 및 사회의 안정(安定)을 튼튼히 굳혀오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의 사회적 불안은 누적되어 온 불황(不況)을 더욱 짓눌렀고 물가(物價)를 부채질했다. 마침 작년부터 불황(不況) 탈피의 조짐이 각 부분에서 일고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물가(物價)의 10%선 억제를 굳게 다잡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부언(附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가고(物價高)의 억제란 물가상승률의 둔화를 뜻하는 것이며, 결코 절대가격(絶對價格)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인플레이션 속의 수출전략(輸出戰略)은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제고(提高)에 눈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이들 비가격(非價格) 경쟁요인에는 대금결제(代金決済)조건의 완화 등과 같이 연불(延拂)수출 지원금융의 확대조치와 기존 수출보험(輸出保險)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조치 등 제도적(制度的) 지원이 요구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은 어디까지나 기업(企業) 자체의 노력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어쨌든 2백50억달러의 수출고지 점령은 물론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수출입국(輸出立國)에의

마지막 열쇠는 곧 기업인(企業人)들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정책도 어디까지나 「지원(支援)」에 불과하며, 더구나 제2의 도약(跳躍)을 다짐하면서 민간주도(民間主導)에로 포석(布石)을 굳혀 가는 80년대의 기업인(企業人)은 더한층 무거운 소명감(召命感)을 깨물어야겠다.

이제부터의 기업인은 단순한 이익추구나 기업의 성장을 뛰어 넘은 보다 차원(次元)높은 역사관(歷史觀)과 조국관(祖國觀)에 뿌리박은 사회적(社會的) 사명(使命)을 새삼 다짐해야 한다. 곧 수출(輸出)신장만이 우리 모두의 생명선(生命線)이며, 배수진(背水陣)을 친 그 선봉장(先鋒將)이 바로 기업인 자신이라는 투철한 가치관(價値觀)의 재정립(再定立)이 가장 긴급한 것이다.

자율화시대(自律化時代)의 새 각오(覺悟)

북(北)의 적화(赤化)야욕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적(現實的) 사실과 좁은 땅에서 수출(輸出)만이 살길이라는 본질적(本質的)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姿勢)는 절로 분명해진다.

모름지기 안보(安保)는 모든 것에 선행(先行)한다는 그 가장 간단한 진리(眞理)를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안전보장(安全保障)의 기틀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고, 그 국방력은 자립경제(自立經濟)라는 뿌리로부터 이룩됨을 새삼 인식해야겠다. 수출(輸出)에 바탕한 자립경제(自立經濟)에로의 매진은 곧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기반이며 튼튼한 자주국방 아래 사회(社會)안정을 뿌리박고 이를 다시금 자립 경제에의 촉진제(促進劑)로 삼는 상승작용(相乘作用)을 거듭함으로써 우리의 국력(國力)은 끝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첫번째 과녁은 뚜렷이 보인다. 2백50억달러의 수출고지를 향해 치닫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수출전사(輸出戰士)들은 물론, 이를 에워싸고 뒤밀어주는 온 국민의 총화(總和)의 손길과 성원(聲援) 없이는 우리의 배수진(背水陣)은 풀리고 만다.

바야흐로 자율화시대(自律化時代)의 문을 연 올 1982년은 자신감(自信感) 어린 개방사회(開放社會)에로의 바탕을 굳히는 새로운 각오(覺悟)의 해로 기억해야 한다.

사람마다 내재(內在)한 실천리성(實踐理性)이 스스로 도덕률(道德律)을 설정, 여기에 따르는 자율시민의식(自律市民意識), 곧 주인의식(主人意識)이 영글었을 때 2백50억 달러 수출고지 점령은 물론, 풍요한 복지(福祉)와 진정한 민주사회(民主社會)까지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사실을 지그시 깨물어 보자.

이솜 우화(寓話)

감언이설(甘言利說)

남에게 충고를 하는 것도 여러가지이다. 진실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거니와 그와 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남에게 그럴듯한 충고를 하는 예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남에게서 충고를 받았을 때도 그것이 참으로 자기를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캐어 보고 받아들여야겠다.

어떤 여우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다가 그만 꼬리를 잘랐다. 그 여우는 꼬리가 없이 남과 같이 다니는 것이 무척 창피하게 생각되었다. 그 여우는 어떻게 하면 자기도 남과 같은 모양을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 싶어서 밤낮으로 궁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남의 꼬리를 몰래 잘라다가 붙여볼까도 생각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여우는 새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여우들의 꼬리를 잘라 버리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여우는 여러 여우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여우들이 다른 짐승보다 머리는 좋은데 모양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요. 더우기 그놈의 꼬리가 길어서 흠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는 그 보기 흉한 꼬리를 모두 잘라버립시다.」 그는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그렇게 하면 몸이 홀가분해서 날쌔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못된 놈들을 놀릴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일조이석이 될 것이요.」하고 사뭇 열변 어조로 늘어 놓았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느 여우 한 마리가 입을 열었다.

「이놈아 그것도 그럴 듯한 이야기긴 하나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됩니다. 저놈은 제 꼬리가 없어졌으니까 창피해서 우리를 속여 저같은 병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하고 반대했다. 잔꾀를 부리던 여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뒤를 돌아다 보며 도망치고 말았다.

이 글은 미(美) 공군대학원(空軍大學院) 전략정책(戰略政策)과정을 우등(優等)으로 수료(修了)함과 동시에 어번 대학교(大學校) 석사(碩士)과정을 우수한 성적(成績)으로 졸업(卒業)하여 미국(美國) 정치학회(政治學會) 회원자격(會員資格)을 취득(取得)한 바 있는 필자(筆者)가 해외유학(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공(提供)한 당시 어번대학(大學) 정치학(政治學) 석사(碩士)과정의 졸업논문(卒業論文)이다.

한국(韓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

- 4강(強)을 중심(中心)으로 -

서 진 태(徐鎭泰)

2. 사회개발(社會開發)

(7) 새마을 운동(運動)

「자조(自助)」란 너무나 분명(分明)한 사실(事實)이라 역설(力說)할 필요(必要)도 없다. 자조정신(自助精神)은 자신감(自信感)과 독립심(獨立心)에서 우러나온다. 자조정신(自助精神)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自身)의 책임(責任)을 남에게 전가(轉嫁)시키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바를 행(行)한다. 자조정신(自助精神)이란 것은 스스로의 노력(努力)으로 자신(自身)의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려고 애쓰면서 보다 넓은 차원(次元)에서 자신(自身)을 이해(理解)하고, 자신(自身)의 능력(能力)에 자신감(自信感)을 갖고 자립심(自立心)과 독립심(獨立心)을 기르며 어떠한 상황하(狀況下)에서도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조정신(自助精神)은 공동운명체감(共同運命體感)을 조장(助長)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단합(國民團合)과 국방력(國防力)을 강화(強化)시킨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일하는 마을사람들에게 번영(繁榮)을 가져다 주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自然)히 지역적(地域的)인 단합(團合)과 국민(國民)의 주체성(主體性)에 대(對)한 자각심(自覺心)을 마을사람들이 기르도록 돕고 있다. 보다 큰 의미(意味)에 있어

이 운동은 대외재정지원(對外財政支援)의 의존(依存)에서 벗어나도록 국가적(國家的) 자립(自立)을 조장(助長)시킨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합심(合心)하여 돕는 가운데 각자 개인(個人)의 욕구를 충족(充足)시켜주는 사회(社會)를 창조(創造)하려는 한국민(韓國民)들의 열망(熱望)과 노력(努力)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한 사회(社會)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住民)들이 마을 도로확장(道路擴張), 다리 건설(建設), 제방(堤防) 보수(補修)와 같은 여러 가지 지역사업(地域事業)에 참여(參與)할 것이 촉구된다.

「협동(協同)」은 단결(團結)로 귀착(歸着)된다. 마을사람들이 서로 협력(協力)하여 이룩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굳게 뭉칠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력(協力)하여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確信)하게 된다. 현재(現在) 진행중(進行中)인 새마을운동의 성공적(成功的)인 수행(遂行)을 위해 협동정신(協同精神)이 필수적(必須的)이란 것은 두 말 할 필요(必要)도 없다. 새마을정신의 삼대기본요소(三大基本要素)인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은 불가분(不可分)하게 서로 연관(關聯)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수행과정(遂行過程)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要素)를 잘 조화(調和)시키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새마을운동은 말보다 실천(實踐)을 특(特)히 강조(強調)한다. 이것은 가장 쉬운 일부터 완성(完成)시키는 것이 용변이나 글보다 훨씬 더 가치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의 개념(概念)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實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말할 자격(資格)이 없다.

이 운동은 거의 우연히 시작(始作)돼서 아주 세련(洗鍊)되게 되었다. 교수(教授)들과 학자(學者)들이 이 운동에 관여(關與)하게 되자 이 운동이 약간 이론적(理論的)으로 뒷받침 되었다. 이 운동을 더 잘 이해(理解)하기 위하여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되게 된 일화(逸話)를 살펴보자.

한국(韓國)에서 가장 풍부(豐富)한 자원(資源)은 석회석이다. 그래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초기상태(初期狀態)에 한국(韓國)의 많은 기업(企業)들이 이 풍부(豐富)한 광물(鑛物)을 시멘트 제조(製造)에 이용(利用)하기 시작(始作)한 것은 당연한 진행(進行)이었다. 그러나 문제(問題)는 시멘트가 응고(凝固)되는 경향 때문에 장기간(長期間) 저장(貯藏)할 수 없는 점이다. 1970년(年)엔 시멘트가 과잉생산(過剩生産)됐고 판로(販路)도 마땅치 않았다. 한국(韓國) 시멘트 제조협회(製造協會)는 정부(政府)에 도움을 호소해야만 했다. 그들은 정부(政府)가 무이자(無利子)에 4년(年)거치 3년분할상환(年分割償還)의 조건으로 300,000미터톤을 매입(買入)함으로써 시멘트 제조업자(製造業者)들을 곤경(困境)에서 풀어 줄 것을 제의했다. 따라서 정부(政府)는 이 시멘트를 이용(利用)할 방도(方途)를 궁리해야만 했는데 마침내 간단한 해결책(解決策)을 찾았다. 한국(韓國)의 마을 총수(總數)는 34,665개소(個所)로 정부(政府)는 각(各) 마을에 335부대의 시멘트를 분배(分配)했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이 시멘트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決定)해야만 했다. 정부(政府)는 그들에게 아무런 지도(指導)도 없이 자신(自身)들의 수의(隨意)에 따라 시멘트를 사용(使用)하도록 했다.

마을에서는 연장자(年長者)와 지도자(指導者)들이 소집됐고 마을의 이익(利益)을 위해 어떻게 시멘트를 사용(使用)할지 결정(決定)했다. 어떤 마을은 그것을 도로건설(道路建設)에 사용(使用)했고 어떤 마을은 근처 시냇가에 다리를 놓는데 썼다. 또 어떤 마을은 공동(共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倉庫)와 공회당(公會堂)을 짓고, 다른 마을들은 간단한 여과시설(濾過施設)을 갖춘 조그만 저수지를 계곡(溪谷)에 만들어서 플라스틱 파이프로 각 가정(家庭)에 연결(連結)시켜 놓았다. 이 간단한 수도시설(水道施設)로 우리는 콜레라, 이질 따위와 같은 수인성(水因性) 질병(疾病)을 추방(追放)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오늘날 농촌(農村)에 살고 있는 한국인(韓國人)의 80% 이상(以上)이 수도(水道)물을 공급(供給)받고 있다. 이같은 개선(改善)으로 마을 여성(女性)들은 우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일상(日常)의 잡일에서 해방(解放)됐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서도 큰 변화(變化)를 가져 왔다.

시멘트를 할당(割當)한 1년후(年後)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들이 그 동안 마을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마을을 방문(訪問)했다. 어떤 마을은 아주 성공적(成功的)이었고 그들의 작업(作業)은 매우 만족(滿足)할 만한 것이었다. 반면(反面)에 일부(一部) 마을은 실패(失敗)했다. 다리를 건설(建設)한 마을들은 대부분 실패(失敗)한 것으로 보였다. 적절한 계획(計劃)과 공법(工法)도 모른 채 시멘트와 노동(勞動)만 들여 만든 다리는 다음해 장마 때 떠내려 갔다. 지방정부(地方政府)는 그들 마을에 다리를 재건설(再建設)하도록 기술지원(技術支援)과 보강(補強)철근을 제공(提供)했다. 그러나 정부(政府)는 34,000여(餘) 마을 모두에 도움과 충고(忠告)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부(政府)는 처음에 그 계획(計劃)이 가장 성공(成功)할 것으로 생각되는 8,000개(個) 마을을 선별(選別)해 도와주었다. 「허만간」교수(教授)는 이 운동(運動)을 다음과 같이 묘사(描寫)하고 있다.

「이 운동 또한 최소한(最小限)의 도전(挑戰)과 최소한(最小限)의 지원(支援)을 필요(必要)로 할 것이 분명(分明)했기 때문에 초기(初期)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點)이 중요(重要)했다. 보다 회의적(懷疑的)이고 야심(野心)이 적은 마을로부터 협력(協力)을 얻어내는 비결(秘訣)이 그 사업(事業)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證明)하고 있었다.

새마을 사업(事業)의 성과(成果)가 매우 놀라운 성공(成功)을 보인 결과(結果) 아무리 허심탄회한 사람이라도 세세한 것을 묻고 늘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비판하기가 불가능(不可能)했다. 그러나 비평가(批評家)들은 그 점(點)을 무시했다. 우리가 아는 한 정치적(政治的) 남용(濫用)과 그와 비교(比較)될 만한 사회계획(社會計劃)에는 상당한 관심(關心)과 지면을 할애한 권위(權威)있는 언론기관(言論機關)들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보족한 기사는 없었다. 이에 대(對)한 부분적(部分的)인 이유(理由)는 한국정부(韓國政府) 스스로가 외국인(外國人)들이 평가(評價)하거나 모방(模倣)할 수 없는 독특(獨特)한 한국적(韓國的)인 사업(事業)으로서 이것을 특색(特色)지어 언급하면서 이에 대(對)한 국제적(國際的) 관심(關心)이 집중(集中)되도록 노력(努力)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한국민(韓國民)이 이룩하고 있는 경제발전(經濟發展)과 영웅적(英雄的)인 업적(業績)만을 가지고선 이들 외국인(外國人)들의 관심(關心)을 쉽게 끌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以上)의 일화(逸話)는 한국(韓國)의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시작(始作)됐는지를 밝히는 실제 이야기로서 소개(紹介)되었다. 시초(始初)에는 계획(計劃)된 사업(事業)이나 정확(正確)한 목적(目的)도 없었다. 각(各) 마을이 채택한 어떤 사업(事業)의 계획(計劃)과 실행(實行)의 전과정(全過程)이 그 마을사람들에게 떠맡겨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지시(指示)나 지침(指針)도 발표(發表)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민(韓國民)으로 하여금 역사(歷史)의 어두운 유산(遺産)을 제쳐두고 열렬(熱烈)한 애국심(愛國心)으로 고무(鼓舞)되어, 이론(理論)이나 이상(理想)이 아닌 행동(行動)과 실천(實踐)에 의한 단합(團合)된 노력(努力)을 통(通)해, 국가(國家)의 근대화(近代化)와 발전(發展)을 모색하려고 계획(計劃)된 범국민운동(汎國民運動)인 새마을운동이 성공(成功)하게 된 주요인(主要因)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3. 정치발전(政治發展)

최근(最近)에 한국(韓國)의 정부형태(政府形態)가 논쟁(論爭)거리가 되어 왔다. 이것은 그러한 비평(批評)이 부당(不當)하다는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中) 일부(一部)는 한국(韓國)의 정치유산(政治遺産)에 대(對)한 이해부족(理解不足)과 이상주의(理想主義)를 반영(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것처럼 이해(理解)가 결여(缺如)된 속에서는 한국(韓國)이나 여타 신생독립국(新生獨立國)이 주어진 기간내(期間內)에 당연히 성취(成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발전(社會發展)이나 정치발전(政治發展)의 기준(基準)이 설정(設定)되기가 거의 불가능(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발전(國家發展)이 어떤 노선(路線)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어떤 면(面)들은 발전(發展)을 저해(沮害)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거(除去)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認識)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發展)을 촉진(促進)하는 다른 면(面)으로 대체(代替)돼야 할 것이지만 문화전통(文化傳統)이 천천히 사멸(死滅)하고 새로 가치있는 문화(文化)에 똑같이 느린 속도(速度)로 동화(同化)되리라는 것을 인식(認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重要)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국(韓國)의 정치유산(政治遺産)과 이것이 현한국정치환경(現韓國政治環境)의 본질(本質)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을 간단히 검토(檢討)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 신유교(新儒敎), 이조(李朝)와 외국간섭(外國干涉)

마그나카르타가 제정(制定)될 당시 한국(韓國)은 몽고 침입(侵入)에 점차(漸次) 굴복(屈服)하고 있었다. 몽고 통치하(統治下)에서 장기간 신음한 후 예속상태(隸屬狀態)에서 벗어나 이조(李朝)가 들어섰다. 한국(韓國)의 정치문화유산(政治文化遺産)에 가장 크게 영향(影響)을 끼친 것이 이조(李朝)와 일제식민통치기(日帝植民統治期) (1910~1945)였다. 타락한 승려(僧侶)들에 의한 왕정연합통치기(王政聯合統治期)에 뒤이어 이조(李朝)는 한국사회(韓國社會)를 재건(再建)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어느 정도 풍토(風土)에 맞는 대체적(代替的)인 철학(哲學)을 모색(摸索)했다.

새 왕조(王朝)의 기본방침(基本方針)은 그 사회내(社會內) 인간관계(人間關係)의 계급질서(階級秩序)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형태(權威主義形態)를 주요(主要) 정치교리(政治敎理)로서 받아들이는 신유교(新儒敎)를 장기적(長期的)인 국가철학(國家哲學)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계급사회(階級社會)로서의 이러한 관념(觀念)은 주요(主要) 통치기반(統治基盤)이었던 양반에게 절대적(絶對的) 복종(服從)을 강요(強要)시키는 철학(哲學)을 만들어 냈다. 박애(博愛)와 지혜(知慧), 정의(正義) 아랫사람 다루는 법을 가르쳤던 유교(儒敎)의 그러한 요소(要素)는 정책상(政策上) 빨리 잠식(蠶食)당하고 전체적(全體的)으로 통치자(統治者)의 잇속만 채우는 그러한 철학적(哲學的) 면(面)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다수(大多數) 한국민(韓國民)에 대(對)한 억압(抑壓)의 수단(手段)이 되었고 마침내 이조(李朝) 관료(官僚)들의 부패(腐敗)를 낳게 되었다. 이 철학(哲學)에 바탕을 두고 보자면 그러한 사회(社會)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망(渴望)하는 지위는 정부(政府)의 최고수준(最高水準)의 정치적(政治的) 지위(地位)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分明)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점증(漸增)하는 지원자(志願者)들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등용(登用) 가능(可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은 미국(美國)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경쟁규칙(競爭規則)」(법존중(法尊重), 공정성존중(公正性尊重), 법정판결(法廷判決)의 존중(尊重), 화해정신존중(和解精神尊重), 패자동정(敗者同情) 따위)이 충분히 인식(認識)되지 않은 채, 상부사회(上部社會)에서 극(極)한 대립(對立)을 야기(惹起)시켰다. 게다가 또다른 결과(結果)로서 정부(政府)와 사회내(社會內)에 당쟁(黨爭)을 격화(激化)시켰고 이러한 철학(哲學) 속에 가족(家族)과 씨족(氏族)의 역할(役割)이 작용(作用)해 당쟁(黨爭)은 지속화(持續化)됐다.

아마도 이조(李朝)에 대(對)해, 그리고 한국정치발전(韓國政治發展)에 남겨놓은 유산(遺産)에 대(對)한 가장 명확(明確)한 설명(說明)은 다음과 같은 김관봉씨의 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조(李朝)의 전통사회(傳統社會)는 절대복종(絶對服從)의 원칙(原則) 위에 세워져 가족(家族) 속에서는 가장(家長), 국가내(國家內)에서는 봉건관료(封建官僚)들에 의해 통치(統治)된 이념적(理念的)으로나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으로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사회(社會)였다. 이조(李朝)는 개인(個人)이라는 존재(存在)가 가족(家族)과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에 의해 질식(窒息)당한 사회(社會)였다. 그 사회내(社會內)에서 국민대다수(國民大多數)는 정부(政府)와 사회문제(社會問題)에 참여(參與)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社會的) 활동(活動)을 하기 위한 기회(機會)도 부여(賦與)되지 않았다. 이 사회(社會)에서 정부(政府)는 때로는 부패(腐敗)하고 전제적(專制的)이며 사악(邪惡)한 당쟁(黨爭)에 의한 내부적(内部的)으로 분열(分裂)된 특권소수(特權少數)들을 위한 특권소수(特權少數)만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회(社會)는 소수통치자(少數統治者)들이 개개인(個個人)의 발전(發展)을 엄격(嚴格)히 금(禁)했던 사회(社會)였으며 이러한 모든 점을 현대(現代)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상속(相續)받아 가장 심각한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불안요소(不安要素)로서 작용(作用)하고 있다.」

1840년대(年代)에서 1880년(年)까지 이조쇠퇴기(李朝衰頹期)에 한국(韓國)의 정치적(政治的) 배경(背景)은 조정(朝廷)과 조신(朝臣)들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할 수 있는 지위(地位)를 획득(獲得)하기 위해 다루는 중국(中國), 러시아, 일본(日本)의 각축(角逐)터였다. 이 당시 조정(朝廷)은 어느 특정(特定) 외세(外勢)를 지지(支持)하는 여러 당파(黨派)로 갈라져 있었으며, 반면(反面)에 다른 사람들은 고립주의(孤立主義) 입장(立場)을 옹호(擁護)하고 있었다. 조정(朝廷)과 조신(朝臣)들 내(內)의 이러한 분열(分裂)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억압(抑壓)을 느끼는 학자(學者)들과 전통적(傳統的)으로 가난하고 무기력(無氣力)한 농민(農民)들의 불만(不滿)을 조금도 해소(解消)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터뜨린 불만(不滿)은 1800년대(年代) 중반(中盤)에 조심히 그러나 기꺼이 사회적(社會的) 종교적(宗教的) 세력(勢力)과 결속(結束)해서 반정부적(反政府的)이며 외세배격운동(外勢排擊運動) 지지(支持)로 나타났다. 비록 처음에는 파급효과(派及效果)가 느렸지만 마침내 이 세력(勢力)은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요청(要請)으로 중국(中國)이 반란(反亂)을 진압(鎮壓)하기 위해 군대(軍隊)를 파견(派遣)할 정도로 커졌다.

중국군(中國軍)의 한국이동(韓國移動)에 대(對)한 반응(反應)으로 한반도(韓半島)를 오랫동안 탐내온 일본(日本)이 중국(中國)을 방해(妨害)하기 위해 1894년(年)에 개입(介入)했다. 짧은 중일전쟁(中日戰爭)이 1년후(年後)에 끝나고 시모노세끼조약(條約)으로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에 대(對)해 공식적(公式的)으로 주둔권을 잡았다. 이러한 권한(權限)이 부여(賦與)된 직후(直後) 일본(日本)은 한국정부(韓國政府)가 오랫동안 늦춰왔던 개혁(改革)을 단행(斷行)하기 시작(始作)했다. 노예제도(奴隸制度), 계급제도(階級制度) 및 과거시험이 폐지(廢止)되고 서구적(西歐的)인 일면(一面)이 한국인(韓國人)들에게 강요(強要)되었다.

나. 일본식민통치(日本植民統治)

노일전쟁(露日戰爭)의 결과(結果) 포츠머스 조약(條約)이 체결(締結)되고 한국(韓國)은 일본(日本)의 보호국(保護國)이 되었다. 그 후 1910년(年) 합병조약하(合併條約下)에 한국(韓國)은 일본(日本)의 식민지(植民地)가 되었고 한국(韓國)은 모든 면(面)에서 가혹하고 권위적(權威的)이며 관료주의적(官僚主義的)인 일본식민통치(日本植民統治)에 의해 영향(影響)받았다. 모든 국민(國民)의 자유(自由)가 박탈(剝奪)됐고 사립학교(私立學校)가 폐쇄(閉鎖)됐으며, 한국(韓國)의 젊은이들을 일본문화(日本文化)에 동화(同化)시키려는 노력(努力)으로 일본(日本)은 신학교(新學校)를 세웠다. 일본(日本)은 또한 한국어(韓國語)와 역사(歷史)에 대(對)한 모든 연구(研究)를 중지(中止)시키고 일본어(日本語)와 일본역사(日本歷史)를 강요(強要)했다. 일본인(日本人)들은 또

한 한국인(韓國人)을 무자비(無慈悲)하게 이용(利用)하고, 특(特)히 일본인(日本人) 지주(地主)와 업자(業者)들에게 유리(有利)하도록 계획(計劃)된 경제관계(經濟關係)를 만들어 놓고 이를 강요(強要)했다. 자신(自身)들끼리라든지 타집단(他集團) 사람들과의 원한(怨恨)과 싸움으로 그들을 분열(分裂)시키고 지도자(指導者)를 잃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엄격(嚴格)한 통치수단의(統治手段外)에도 일제(日帝)는 한국(韓國)의 애국자(愛國者)들을 살해(殺害)하고 해(害)치고 투옥(投獄)시키는 등 강력(強力)한 탄압(彈壓)을 가(加)하므로 인하여 한국인(韓國人)들은 혈기(血氣)만 넘치고 결과(結果)는 비참(悲慘)한 항의(抗議)데모만 벌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모는 일제(日帝)로부터 단지 명목상(名目上)의 양보(讓步) 정도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일제식민통치(日帝植民統治) 결과(結果) 이조(李朝)의 고관(高官)들은 일본인(日本人)들로 대체(代替)되고, 관직(官職)에서 쫓겨났거나 훨씬 낮은 직(職)으로 좌천(左遷)되었다. 국내(國內)의 저항(抵抗)과 일부한정(一部限定)된 국제적(國際的) 비난(非難) 및 명목상(名目上)의 양보(讓步)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일제(日帝)는 한국인(韓國人)들이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으로 발전(發展)하거나 자국경영(自國經營)에 구조적 실질적(實質的)으로 참여(參與)하는 것을 교묘하게 잘 막아냈다. 게다가 그들은 학교(學校)로부터 한국문화(韓國文化)의 모든 것을 체계적(體系的)으로 말살(抹殺)하려고 노력(努力)했고, 이러한 노력(努力)은 모든 한글 간행물(刊行物)의 폐지(廢止)로까지 확대(擴大)됐다.

일본식(日本式) 이름이 국민(國民)에게 강요(強要)됐고 신도(神道)와 일본식(日本式) 유교개념(儒教概念)이 그들의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특징(特徵)을 이용(利用)코자 학교(學校)에 도입(導入)됐다. 그러나 일제(日帝)는 한국사회(韓國社會) 규범(規範)의 전통적(傳統的)인 패턴을 별로 변화(變化)시키지 못했다. 높은 관직(官職)을 박탈(剝奪)당하거나 토지(土地)를 빼앗긴 지체 높은 사람들조차 그들의 높은 사회적(社會的) 존경(尊敬)을 계속(繼續)해서 유지(維持)했다. 김관봉씨는 그의 저서(著書)에서 일제통치(日帝統治)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평가(評價)를 내리고 있다.

「일제통치(日帝統治)가 남긴 경제적(經濟的), 문화적(文化的) 및 그밖의 흔적과는 별도로 가장 중대(重大)한 유산(遺産)은 어쩌면 일제관료주의(日帝官僚主義)의 한국내(韓國內) 도입(導入)일 것이다. 그것은 엄격(嚴格)하고 법률적(法律的)이며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특색(特色)으로 유명(有名)한 프러시아 형(型)의 재수입판(再輸入版)이었다.」

다. 미군정(美軍政)

1945년(年) 8월(月), 일본(日本)의 항복(降服)으로 일제통치(日帝統治)에서 한국(韓國)이 해방(解放)된 후 주한미군(駐韓美軍)이 38이남(以南)의 한국(韓國)을 다스리게 되었다. 미군정(美軍政)은 일시적(一時的)인 조치(措置)로 일본관료주의(日本官僚主義)를 보류(保留)시켰다. 이것은 한국인(韓國人)들이 정부운영(政府運營)의 경험(經驗)이 부족(不足)했고 쫓겨간 일본인(日本人)들에 의해 생긴 진공(眞空)을 급히 메꿔야만 했기 때문에 불가피(不可避)했다. 비록 일본(日本)에 군정(軍政)을 세우는 데는 잘 준비된 미국(美國)도 한국(韓國)에 군정(軍政)을 세우는 데는 효과

적(效果的)으로 준비(準備)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이 자치(自治)의 길로 들어서도록 돕기 위해 거주민(居住民)을 쫓아 할지, 망명한국인(亡命韓國人)을 쫓아 할지를 정확(正確)히 알지 못했다. E. Grant Meade씨는 그의 저서(著書)에서 미군정(美軍政)이 얼마나 미준비상태(未準備狀態)였는지를 간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다..

「이유(理由)야 어쨌든 그들은 자격(資格)이 없었다. 미(美) 24사단(師團)은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 오랜 전투경험(戰鬪經驗)을 가졌다. 이 사단(師團)은 전후단계(戰後段階)에서 민정(民政)을 수행(遂行)할 만한 능력(能力)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問題)의 개념(概念)도 알지 못했다. 한국할당(韓國割當)에 대(對)한 브리핑도 별로 없었고 기본적(基本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정보(情報)도 별로 없었다. 「하지」중장(中將)이 발표(發表)한 정책성명(政策聲明)들도 너무나 빈약(貧弱)하고 모호(模糊)해서 그가 취(取)한 모든 조치(措置)가 부작용(副作用)을 낳았다.」

36년간(年間)의 일제통치후(日帝統治後)라 한국인(韓國人)들이 비록 미군정(美軍政) 초창기(草創期)에 데모와 다른 표현방법(表現方法)을 통(通)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점을 분명(分明)히 밝혔지만 대중적(大衆的)인 민주정부(民主政府)를 즉시 세우기에는 전반적(全般的)으로 준비(準備)가 모자랐다. 앞서 밝힌대로 일제(日帝)는 새 정부(政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모든 한국토착집단(韓國土着集團)을 철저히 분쇄(粉碎)했고 민족지도(民族指導)의 자질(資質)을 가진 사람들을 파멸(破滅)시키거나 세계도처(世界到處)로 쫓아냈다. 미국정부내(美國政府內)에서도 한국(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問題)의 성질(性質)과 중요성(重要性) 및 복잡성(複雜性)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부족(不足)했다.

만일(萬一) 미국정부(美國政府)가 경험(經驗)이 없는 한국관리(韓國官吏)들과 정치가(政治家)들을 훈련(訓練)시키는 일에 맥아더 장군(將軍)이 일본(日本)에서 했던 식(式)으로 보다 긴 안목(眼目)으로 조심스럽게 대들었더라면, 그리고 미군(美軍)을 성급히 철수(撤收)시키지 않았더라면, 사태(事態)는 달라졌을 것이고 한국인(韓國人)들은 출발(出發)을 보다 좋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정당(政黨)과 야당(野黨)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에 있어 정당(政黨)은 「집권(執權)」을 목표(目標)로 양육(養育)되고 영구화(永久化)하기 때문에 국가(國家)의 건전(健全)한 정치발전(政治發展)을 위해 중요(重要)하고 활력(活力)을 주는 요소(要素)로 보통 간주(看做)되고 있다.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가 행정부(行政府) 권력(權力)에 일련(一聯)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主張)하는 것은 부분적(部分的)으로 정치(政治)의 이러한 면(面)에 근거(根據)한 것이다. 위기시(危機時)에조차 그것이 계엄하(戒嚴下)든 프랑스가 공략중(攻略中)이든 간에 법의원(法議員)들은 지도자(指導者)로부터 최고법(最高法)을 고수(固守)하고 국가수반(國家首班)에 의한 권력남용(權力濫用)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保護)하려는 마그나카르타 정신(精神)으로 일관(一貫)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傳統)이 한국(韓國)의 정치문화부분(政治文化部分)에는 없었고 그 결과(結果) 한국인(韓國人)들은 국가(國家) 공동이익(共同利益)을 위해 서로가 어떻게 정당(政黨)을 효과적(效果的)으로 취급(取扱)해야 할지에 대(對)한 경험(經驗)과 지식(知識)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부족(不足)했다. 앞서 말한대로 한국(韓國)의 정치(政治)에 있어, 야당(野黨)에 대한 관용(寬容)은 별로 없었다. 이 정치문제(政治問題)에 있어 한국인(韓國人)의 견해는 「우리를 지지(支持)하지 않는 자(者)는 우리의 적(敵)」이라는 생각이 일반적(一般的)이며 따라서 이런 생각은 발전(發展)에 방해(妨害)가 되니 없어져야 한다.

야당(野黨)이 약(弱)해지면 이러한 경향(傾向)은 개인(個人)의 생존(生存)을 위하여 망명(亡命)을 떠나거나 국가수반(國家首班)이나 여당(與黨)의 행위(行爲)를 인정(認定)하는 것으로 보통 발전(發展)한다. 따라서 위기(危機)가 국가(國家)에 닥칠 때 대통령(大統領)과 국민(國民)이 취(取)할 행동(行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豫想)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大部分)의 국민(國民)들처럼 혼란(混亂)과 위험(危險)이 닥치면 한국인(韓國人)들은 그들이 가장 익숙히 알고 있고 신뢰(信賴)하고 있는 강경수단(強硬手段)에 호소(呼訴)해 왔다. 그들은 대통령(大統領)에게 비상권(非常權)을 인정(認定)했다. 이것은 정부(政府)의 여타 권력(權力)보다 대통령(大統領)의 권한(權限)이 최고(最高)라는 인식(認識)을 심어온 오랜 일련(一聯)의 조치(措置)로 증명(證明)된 것 중 첫번째 것이었다.

마. 근대정치문화(近代政治文化)

1948년(年) 정부수립후(政府樹立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제(第)5공화국(共和國)을 맞고 있다. (1) 제(第)1공화국(共和國) (1948~60) (2) 제(第)2공화국(共和國) (1960~61), (3) 제(第)3공화국(共和國) (1961~72), (4) 제(第)4공화국(共和國) (1972~1981. 3.), (5) 제(第)5공화국(共和國) (1981. 3~ 현재(現在))이 그것이다.

박대통령(朴大統領) 서거후(逝去後) 신임(新任) 전두환(全斗煥) 대통령(大統領)은 민주정치체제(民主政治體制)의 무질서(無秩序) 상태(狀態)와 유권자(有權者)의 변덕(變德)으로 인(因)한 통제약화(統制弱化)를 우려한 나머지 군부(軍部)가 지지(支持)하는 「위기관리정부(危機管理政府)」를 이끌고 부득이 전권(全權)을 장악했으며,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떠맡기 앞서 국가(國家) 안보특별위원회(安保特別委員會)(NCNSM) 상임위원장(常任委員長)의 직능(職能)으로 정치(政治), 교육(教育) 기타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사회분야(社會分野)에서 개혁(改革)을 단행(斷行)하고 사회악(社會惡)을 엄단(嚴斷)함으로써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주도적(主導的)으로 재정립(再定立)시켰다. 박대통령(朴大統領) 사후(死後)에서 전대통령(全大統領) 선임(選任)까지 국가(國家)는 구악(舊惡)을 일소(一掃)할 목적(目的)으로 전례(前例)없이 빠르고 신속(迅速)한 사회개혁(社會改革)을 실시(實施)했다.

한국인(韓國人)들은 군부(軍部)의 민정능력(民政能力)에 대(對)해 서방(西方) 옵서버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論難)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한국인(韓國人)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외침(外侵)을

겪었고 많은 고통(苦痛)을 당했다. 제(第)2차세계대전후(次世界大戰後) 우리는 미처 준비(準備)할 사이도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서구문명(西歐文明)에 노출(露出)되었다. 지정학적(地政學的)인 면(面)에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에 쉽게 동화(同化)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완전(完全)히 동화(同化)되지는 않았다. 과거(過去) 인접국(隣接國)들의 수많은 외침(外侵)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한국(韓國)은 국가(國家)의 정통성(正統性)과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본질적(本質的)으로 보지(保持)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外部)의 방해(妨害)없이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누린 적이 한시도 없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군주(君主)이거나 식민통치자(植民統治者)들에 의해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통치(統治)를 받아 왔다. 우리는 민중(民衆)의 주도(主導)로 스스로를 통치(統治)하도록 훈련(訓練)받거나 그럴만한 기회(機會)를 잡지 못했다. 유일한 자치기회(自治機會)가 미국(美國)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한번 뿐이었다. 한국동란중(韓國動亂中)에 그리고 그 후(後)에도 우리의 최우선권(最優先權)은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強)이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한국군사요원(韓國軍事要員)들을 교육(教育)하고 훈련(訓練)시키는 일에 그들의 노력(努力)을 집중(集中)시켰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해서 군부(軍部)는 높은 지도자적(指導者的) 자질(資質)을 보여 왔다.

비록 우리는 미국(美國)과 영국(英國) 및 프랑스와 같은 서방국가(西方國家)에서 교육(教育)받고 훈련(訓練)된 민간 학생(學生)과 학자(學者)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도자(指導者) 훈련(訓練)이 지식(知識)만의 문제(問題)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實踐)과 지성(知性), 책임감(責任感) 등(等)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作用)하는 문제(問題)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관학교(士官學校)는 미국(美國)의 West Point, Annapolis 및 Colorado Springs에 있는 사관학교(士官學校)를 모델로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생도(美國生徒)와 거의 똑같은 학과(學科)를 공부한다. 졸업 후(卒業後) 우리 사관생도(士官生徒)의 자질(資質)은 미국생도(美國生徒)의 자질(資質)과 맞먹는다.

개인적(個人的) 관찰(觀察)로는 미국민주주의(美國民主主義)가 가장 이상적(理想的)이고 인도적(人道的)인 정치체제중(政治體制中)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취약성(脆弱性)을 갖고 있다. 미국민주주의(美國民主主義)는 두 가지 조건(條件)인 국가(國家)의 부(富)와 정치적(政治的) 성숙(成熟)을 전제(前提)로 하지 않으면 거의 작용(作用)될 수 없다. 우리가 국가적(國家的)으로 부강(富強)해지고 국민(國民)들의 정치수준(政治水準)이 미국인(美國人)의 수준(水準)과 맞먹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회정치환경(社會政治環境)에 가장 잘 맞는 기존 민주정치체제중(民主政治體制中)의 하나를 고쳐나가는 방법(方法)을 모색(摸索)해야 한다.

중요(重要)한 것은 우리가 법(法)과 형(型)을 얼마나 좋게 만드나 하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政治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현(實現)하려는 노력(努力)에 앞서 생활방편(生活方便)으로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먼저 실현(實現)해야 하는 기본공식(基本公式)도 알지 못한 채 대다수(大多數) 한국인(韓國人)이 「정치적(政治的)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對)하여만 말하고 있는 우리 역사중(歷史中) 이 특별(特別)한 시기(時期)에 우리 국민(國民)을 이끄는 데는 어떤 형

(型)의 지도자(指導者)가 가장 알맞으며 책임(責任)있고 헌신적(獻身的)인 지도자(指導者)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내느냐 하는데 있다. 복종(服從)이 한국인(韓國人)의 역사(歷史) 속에 것처럼 오랫동안 제(第)1의 미덕(美德)이었던 유교적(儒教的) 생활방식(生活方式)의 전통(傳統) 속에 살아왔던 국민(國民)들에게 불과 36년(年) 제(第)2차세계대전말(次世界大戰末) 이후(以後)이란 세월(歲月)은 「생활(生活) 양식(樣式)으로서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자연(自然)스럽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時間)이다.

그밖에 지정학적(地政學的) 상황(狀況)과 국토분단(國土分斷) 및 경제(經濟) 압박(壓迫)은 강력(強力)하고 헌신적(獻身的)인 지도자(指導者)의 필요성(必要性)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1979년(年) 10월(月), 박대통령(朴大統領) 사후(死後) 오일쇼크를 포함(包含)하여 국제적(國際的)인 도전(挑戰)과 북(北)으로부터의 계속적(繼續的)인 도발위협(挑發威脅)이 겹쳐 우리는 현재(現在) 어려운 시기(時期)에 처(處)해 있다. 이 상황(狀況)은 어느 정도 1930년대(年代) 미국(美國)의 상황(狀況)과 비교(比較)될 수 있다. 우리에게 미국(美國)의 루스벨트 대통령(大統領)과 같이 유능(有能)한 지도자(指導者)가 필요(必要)하다. 우리는 한국(韓國)의 루스벨트를 원한다. 궁극적(窮極的)으로 정치지도력(政治指導力)의 당위성(當爲性)은 선거(選舉)와 헌법(憲法) 및 대의과정(代議過程)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追從者)들의 순수한 요구에 따라 책임(責任)있는 정치(政治)를 펼 수 있는 지도자(指導者)의 능력(能力)에 있다.

4. 인권문제(人權問題)

인권(人權)의 추구(追求)는 행정부(行政府) 교체(交替)에 상관없이 미국(美國)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기본(基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行政府) 기간중(期間中) 미국(美國)의 대외정치문제(對外政治問題)에서 가장 논란(論難)을 불러 일으킨 것이 인권문제(人權問題)였다. 인권(人權)을 대미관계(對美關係)의 전제(前提)로 설정(設定)하는 한편 미국(美國) 대외정치(對外政治)의 필수요소화(必須要素化)하려는 노력(努力)은 많은 어려움과 주의를 요(要)했다.

1980년(年) 6월(月) 13일(日)에 공표(公表)한 미국(美國)의 인권정책(人權政策) 「제(第)198호(號)」에 따르면 카터 행정부내(行政府內)의 인권(人權)담당 국무차관(國務次官)이었던 Patricia M. Derian 여사(女史)가 1980년(年) 6월(月) 12일(日)에 위스콘신주(州) 밀워키 시(市)에 있는 미대학여성협회(美大學女性協會)에서 행(行)한 연설(演說) 속에 한국(韓國)에 대(對)해 언급(言及)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만일 한국(韓國)의 일부(一部) 장성(將星)들이 독재(獨裁)를 세우고자 결심(決心)한다면 경제(經濟的) 도덕적(道德的) 압력(壓力)으로는 이들의 결심(決心)을 돌리게 하는데 불충분(不充分)할 것이다.」

Derian 여사(女史)가 이처럼 부당(不當)한 망발(妄發)을 하기에 앞서 한국(韓國)의 정치적(政治的) 문화적(文化的) 배경(背景)을 고려(考慮)했어야 했다. 앞서 지적(指摘)했듯이 한국인(韓國人)들은 왕(王)이나 포악(暴惡)한 식민통치자(植民統治者)들로부터 권위적(權威的)인 통치(統治)

를 항상 받아왔다. 미국(美國)의 중요(重要)한 맹방(盟邦)인 한국(韓國)의 정치문화환경(政治文化環境)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努力)없이 Derian 여사(女史)는 한국인(韓國人)의 입장(立場)에서 인권문제(人權問題)를 인식(認識)하려는데 실패(失敗)할 것이다.

그녀는 군사적(軍事的)인 면(面)에 대(對)하여 불만(不滿)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만(不滿)이 있다면 군사적(軍事的)인 무능력(無能力)에 대(對)하여 그녀는 불만(不滿)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녀는 단지 군인(軍人)이 아니라는 이유(理由) 때문에 민간인(民間人)에 대(對)하여 만족(滿足)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들의 지도자적(指導者的) 자질결여(資質缺如) 여부(與否)를 살펴야 한다. 세계(世界)에는 민간출신(民間出身) 독재자(獨裁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事實)을 그녀는 보다 더 인식(認識)해야 한다.

미국인(美國人)들은 사고방식(思考方式)이 매우 합리적(合理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합리적(合理的)인 사람과 사귀는 데는 매우 효과적(效果的)이다. 그러나 미국식(美國式) 논리(論理)는 비논리적(非論理的)인 사람과 대결(對決)할 때는 자주 실패(失敗)한다. 논리적(論理的)인 면(面)과 비논리적(非論理的)인 면(面)을 함께 이해(理解)할 수 있으면 착실하고 꾸준한 노력(努力)이 요구(要求)된다. 인내(忍耐)는 미국인(美國人)이 세계지도자(世界指導者)로서 가져야 할 미덕(美德)이다. 인권(人權)은 미국인(美國人)만의 발명품(發明品)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世界的)으로 다 알려져 있다. 제(第)3세계(世界) 국민(國民)들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발전(經濟發展)과 국가안보(國家安保)와 같은 선결문제(先決問題)와 싸우며, 그네들 자신의 국가(國家)를 건설(建設)하는데 여념(餘念)이 없다. 데리안 여사(女史)가 그녀의 연설(演說)에서 언급(言及)한 식량(食糧)·주택(住宅)·보건(保健)·행동(行動)의 자유(自由), 종교(宗教)와 교육(教育)의 자유(自由) 따위의 기본권(基本權)을 한국인(韓國人)은 갖고 있다.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상황(狀況)은 Derian 여사(女史)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다. 한국인(韓國人)들은 미그 기(機)로 3분(分)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북(北)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하(威脅下)에 있다. 소련(蘇聯) 전투기(戰鬥機)들이 Dulles 공항(空港)에 비상대기중(非常待機中)이며 백악관에서 그들을 직접 바라보는 상황(狀況)을 상상해보라.

코리아 헤럴드는 1981년(年) 2월(月) 15일자(日)에 Ernest W. Lefever씨(氏)의 말을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미국(美國)은 우방국(友邦國)이긴 하지만 독재적(獨裁的)인 외국(外國) 정부(政府)가 인권(人權)을 남용(濫用)한다는 이유(理由) 때문에 경제적(經濟的) 군사적(軍事的) 원조(援助)를 중단(中斷)하는 따위의 보복적(報復的)인 제재(制裁)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개혁방법(改革方法)은 「조용한 외교(外交)」와 우호관계유지(友好關係維持)인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이 특별(特別)히 거부(拒否)하지만 않는다면 미국(美國)은 미국정부(美國政府)가 타국정부(他國政府)와 정상적인 교역(交易)을 실시(實施)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국가(國家)가 따라야 하는 조건(條件)으로서 인권기준(人權基準)을 설정(設定)하는 모든 법조항(法條項)을 법령집(法令集)에서 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世界)를 우리 생각대로 개조(改造)할 도덕적(道德的)인 위임권(委任

權)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맹방(盟邦)의 국내행위(國內行爲)와 심지어 적대국(敵對國)의 국내행위(國內行爲)까지도 개혁(改革)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美國)의 오만이다.」

이 글은 인권문제(人權問題)에 대(對)한 Ernest W. Lefever 씨(氏)의 철학(哲學)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밝힌대로 인권(人權)은 미국(美國)만의 발명품(發明品)은 아니다. 미국인(美國人)의 전통적(傳統的)인 가치관(價值觀)인 다원주의(多元主義), 경쟁규칙(競爭規則), 권력분립(權力分立), 인권존중(人權尊重) 따위는 충분(充分)히 인정(認定)된다는 것이 세계적(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권목표(人權目標)를 실행(實行)하는 과정(過程)에 있어 미국(美國)은 「차렷, 세계(世界)여 미국(美國)은 방금 놀라운 인권혁명(人權革命)을 성취(成就)했다.」는 식(式)의 가혹한 인상(印象)을 없앨 수 있도록 장기적(長期的)인 안(案)을 발전(發展)시켜야 한다.

인권(人權)은 선전(宣傳)이나 PR의 대상(對象)이 아니다. 중요(重要)한 것은 정직(正直)한 인도적(人道的) 노력(努力)이고 그래야만 한다. 미국(美國)은 계속(繼續)해서 인권(人權)을 추구(追求)해야 할 것이지만 미국(美國)은 적대국(敵對國)보다 우방국(友邦國)에 더 높은 행동기준(行動基準)을 설정(設定)함 없이 보다 신중(慎重)하고 미묘(微妙)한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이를 추구(追求)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點)에서 레이건 행정부(行政政府)는 현실적(現實的)인 태도(態度)를 취(取)했고, 이 문제(問題)를 공적(公的)으로 덜 강조(強調)하는 가운데 보다 논란(論難)이 적은 노선(路線)을 받아들였다. 비록 이러한 입장(立場)이 조금 늦게 취(取)해졌지만 이것은 미국(美國)의 대외정치(對外政治)에서 적어도 불필요(不必要)한 논란(論難)을 최소화(最小化)하는데 효과적(效果的)일 것이 분명(分明)하다.

IV. 한국(韓國)을 둘러싼 4강(強)의 이해관계(利害關係)

1. 미국(美國)의 이해관계(利害關係)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美國防長官)이 설명(說明)하듯이 「한국(韓國)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지지(支持)는 일본(日本)이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를 자국안보(自國安保)와 밀접(密接)하게 보는 것처럼 동북아안전(東北亞安全)에 긴요(緊要)하다.」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에 쓴 돈은 1945~1976기간(期間)에 1890억불(億弗)로 엄청난 돈인데 그 중 대부분(大部分)은 쉽게 미국경제(美國經濟)에 되돌려질 수 있는 퇴역군인(退役軍人) 연금(年金)과 한국전(韓國戰) 비용(費用)이었지만 약(約) 120억불(億弗)은 한국(韓國)에 대(對)한 군사적(軍事的) 경제적(經濟的) 원조(援助)였다. 오늘날 한국(韓國)은 서독(西獨)을 제외(除外)한 유일한 사단(師團)규모(規模)의 미군(美軍) 주둔국(駐屯國)이다.

이른바 중(中)·소(蘇) 팽창주의(膨脹主義)에 대(對)한 견제(牽制)와 같은 과거(過去)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는 더 이상 근거(根據)로 작용(作用)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북괴(北傀)에 의한

무력통일방지(武力統一防止)와 일본(日本)의 안전보호(安全保護)라는 두 가지 면(面)에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주어진다. 남북간(南北間)의 긴장완화(緊張緩和)와 대규모(大規模) 군사적(軍事的) 충돌재발(衝突再發)을 방지(防止)함으로써 한반도(韓半島)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하겠다는 것이 확고(確固)한 미국(美國)의 공약(公約)이다. 이 지역(地域) 안정보전(安定保全)과 중(中)·소(蘇)와 충돌회피(衝突回避)는 미국(美國)의 이익(利益)에 직관(直關)된다.

미국(美國) 옴서버들에 의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빠른 성장(成長)에 대(對)한 인식(認識) 또한 중요(重要)하다. 경제적(經濟的)으로 한국(韓國)은 이제 미국(美國)의 주요무역상대국(主要貿易相對國)이고 브라운 미국무차관(美國務次官)이 주지(周知)시킨 바 미국(美國)의 대극동교역(對極東交易)은 이제 유럽보다 커지고 있다.

한국(韓國)에 대(對)한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의 이해(利害)를 비교(比較)해 보면 한반도(韓半島)에 특수(特殊)한 일본(日本) 또는 미국(美國)의 이해(利害) 간에 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結論)이 나온다. 어떤 의미로는 일본(日本)이 한국(韓國)에 접근(接近)하여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을 피(避)하는 데에 더 큰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반면(反面)에 미국(美國)은 직접 전투(戰鬪)에 개입(介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손해(損害)를 안고 있다. 미국(美國)의 납세자(納稅者)들은 주한미군유지비(駐韓美軍維持費)로 매년(每年) 약(約) 7억불(億弗)을 냈고 전후 한국원조(戰後韓國援助)로 앞서 밝힌 대로 총(總) 120억불(億弗)을 썼다.

미국(美國)은 1977년(年)에 총(總) 434,000,000불(弗)에 달하는 막대(莫大)한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했다. 한국(韓國)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경제적(經濟的) 이해정도(利害程度)에 대(對)한 보다 정확(正確)한 척도(尺度)는 1978년중(年中)에 미민간은행차관중(美民間銀行借款中) 25억불(億弗)이 미결(未決)됐다는 사실(事實)이 암시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韓國)은 미국(美國)의 공공차관(公共借款) 14억(億)5천만불(千萬弗)을 썼다. 한국은행(韓國銀行)들에 대(對)한 외국은행차관선중(外國銀行借款線中) 80% 이상(以上)이 다국적민간은행(多國籍民間銀行)들이고 그들 중 큰 몫을 미국민간(美國民間) 은행(銀行)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행(美國銀行)들이 한국은행(韓國銀行)들에 차관(借款)을 제공(提供)한다는 사실(事實)은 자국정부(自國政府)의 공약(公約)에 대(對)한 그들의 신뢰(信賴)를 나타내는 것이며 공(公)·사간(私間)의 참여(參與)를 구분(區分)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만일(萬一) 미국(美國)이 세계은행(世界銀行)(World Bank)과 아시아 개발은행(開發銀行)같이 한국(韓國)을 우호적(友好的)인 케이스로 다루고 있는 다국적금융기관(多國籍金融機關)에 참여(參與)하게 되면 한국(韓國)의 안정(安定)을 지속(持續)시키는데 있어 미국(美國)의 역할(役割)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의미심장하게도 한국(韓國)에 투자(投資)하고 있는 일본(日本) 상사(商社)들이 미국(美國)과는 아주 대조적(對照的)으로 중소기업(中小企業)들이다.

걸프오일 사(社)는 단독(單獨)으로 한국(韓國)에 원유(原油)를 연간(年間) 10억불(億弗) 이상(以上) 팔고 있고 정제(精製)와 비료생산(肥料生產) 및 석유화학물질(石油化學物質) 제조시설

(製造施設)에 2억불(億弗)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미국(美國)은 23억불(億弗) 상당의 군사기지(軍事基地)를 한국(韓國)에 유지(維持)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繼續)해서 일신(一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美國)에 귀속(歸屬)된 이해관계(利害關係)는 북괴(北傀)가 한반도(韓半島)를 장악(掌握)할 경우(境遇) 일본(日本)이 당하는 손해(損害)보다 더 큰 손해(損害)가 미국(美國)에 돌아오는 그러한 성질(性質)의 것이다.

한국(韓國)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경제적(經濟的) 이해관계(利害關係)의 대부분(大部分)은 공평투자형태(公平投資形態)인 반면(反面)에 일본(日本)의 경우(境遇)는 기술지원(技術支援)과 특허협정형태(特許協定形態)가 지배적(支配的)이다. 한반도(韓半島)가 장악(掌握)될 경우(境遇) 일본(日本)은 미국(美國)보다 직접적(直接的)인 영향(影響)을 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수출무역(日本輸出貿易)의 대부분(大部分)이 일본기업(日本企業)들이 국영(國營)일 때조차 일본관련기업(日本關聯企業)들을 위해 필요(必要)되는 원자재(原資材)와 그 밖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왜 약(約) 39,000의 미군(美軍)을 한국(韓國)에 유지(維持)하는데 불만족(不滿)하고 있는지를 이해(理解)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美國)은 한반도(韓半島)에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이 일어나면 자동적(自動的)으로 개입(介入)되는 상태(狀態)가 지속(持續)되는 것을 피(避)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경제적(經濟的), 군사적(軍事的) 발전(發展)이 크게 이룩된다면 이는 미군(美軍)의 부담(負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美國)이 결론(結論)짓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日本), 중공(中共) 및 소련(蘇聯) 모두가 현상태유지(現狀態維持)를 원할 때 미국(美國)이 스스로 사태(事態)를 변화(變化)시키고자 애써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비록 카터 행정부(行政政府)의 철수정책(撤收政策)이 미국내(美國內) 정치(政治)의 관점(觀點)에서는 이해(理解)할 만한 것이었지만 대외정책상(對外政策上) 그것은 지극히 천진난만한 것이라는 비난(非難)을 면(免)하기가 어려웠다. 철수계획(撤收計劃)이 중지(中止)되고 레이건 행정부(行政政府)가 그것을 사안(死案)으로 공식적(公式的)으로 확정(確定)지은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다.

2. 소련(蘇聯)의 이해관계(利害關係)

남북한(南北韓)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고유(固有)한 변화(變化)와 요소(要素)로 소련(蘇聯)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논(論)하는데 있어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소련전략(蘇聯戰略)이 변(變)할 수 있는 다음의 전제(前提)가 고려(考慮)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條件)은 소련(蘇聯)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이 한반도(韓半島)를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나 전략적(戰略的)으로 중요(重要)한 지역(地域)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실제로 소련(蘇聯)은 한국동란(韓國動亂) 이전(以前)에는 소련(蘇聯)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입안(立案)에 있어 한국(韓國)을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로 인식(認識)했다. 따라서 한반도(韓半島)는 소련(蘇聯)의 안전(安全)에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했다. 소련(蘇聯)은 북한(北韓)에 대(對)한 원조(援助)를 자국(自國)의 절대적(絶對的) 의무(義務)로 생각해서 북한(北韓)에 친소정부

(親蘇政府)를 유지(維持)시키는 데 전적(全的)인 노력(努力)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년대(年代) 중반(中盤) 이후(以後)부터, 특(特)히 스탈린 사후(死後) 소련(蘇聯)은 이른바 평화공존노선(平和共存路線)에 바탕을 둔 다각적(多角的)인 전략(戰略)으로 발전(發展)했다. 소련(蘇聯)이 북한(北韓)에 대(對)한 원조(援助)를 대남혁명전략(對南革命戰略)에 중요(重要)한 것으로 간주(看做)했던 것은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소련(蘇聯)은 강대국간(強大國間)의 화해(和解)와 제(第)3세계(世界)의 발전(發展)에 더 중점(重點)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變化)는 소련(蘇聯)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 특(特)히 대북한정책(對北韓政策)이 제한적(制限的)이며 유동적(流動的)임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바꿔말해서 소련(蘇聯)의 국익면(國益面)에서 한반도(韓半島)의 중요성(重要性)은 여타 지역(地域)과 비교(比較)한 관점(觀點)에서 그들의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무력통일획책(武力統一劃策)이 실패(失敗)한 후(後)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蘇聯)은 이제 한반도(韓半島)를 완충지역(緩衝地域)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韓半島)에서 균형(均衡)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기정사실(既定事實)로 되었다. 이러한 이유(理由) 때문에 소련(蘇聯)은 미국(美國), 일본(日本), 한국(韓國)의 대북괴(對北傀) 접근태도(接近態度)에 민감(敏感)하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둘째 조건(條件)은 소련(蘇聯)의 대외정책(對外政策)에 있어 우선권(優先權)이 어디에 놓이느냐 하는 문제(問題)다. 흐루시초프 시대(時代)부터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의 대외정책(對外政策) 공식화과정(公式化過程)에 있어, 소련(蘇聯)은 국제정치현실상(國際政治現實上) 그들이 목적(目的)하는 바에 제한(制限)이 걸린다는 점(點)을 인정(認定)하면서도 그들의 목적(目的)을 최대(最大)로 달성(達成)하고자 했다. 한국전쟁(韓國戰)에서 쓰라린 교훈(教訓)을 배운 바 있는 소련(蘇聯)은 유동정책(流動政策)을 펴는 것이 자국(自國)에 유리(有利)함을 깨닫고 그 전의 강경노선(強硬路線)을 포기(拋棄)했다

세째 조건(條件)은 중(中)·소(蘇) 분쟁상태하(紛爭狀態下)의 소련(蘇聯)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가변성(可變性) 문제(問題)다. 중(中)·소(蘇) 밀월기중(蜜月期中)에 소련(蘇聯)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은 대북(對北) 적극원조(積極援助)를 통(通)한 계속적(繼續的)인 통일정책(統一政策)이었지만 1950년대(年代) 말(末) 표면(表面)에 나선 중(中)·소(蘇) 대립(對立)은 상호자제(相互自制)와 소원(疎遠)의 관계(關係)로 발전(發展)했다. 그 결과 북괴지도층(北傀指導層)은 친소(親蘇), 친중국내파(親中國內派)로 갈라졌다. 따라서 김일성은 중(中)·소(蘇) 분쟁(紛爭)에 휘말리는 것을 피(避)하기 위해 독자적(獨自的)인 정치노선(政治路線)을 택(擇)했다.

요컨대, 북괴(北傀)의 혁명(革命)을 지원(支援)한다는 면(面)에서 중(中)·소(蘇) 양국(兩國)은 의견(意見)을 같이 하지만 국제환경(國際環境)의 변화추세(變化趨勢)에 따라 소련(蘇聯), 중공(中共), 북한(北韓)의 3각관계(角關係)는 자국(自國)의 국익(國益)이 우선(優先)하는 견지(見地)에서 볼 때 어떤 화합(和合)할 수 없는 요소(要素)를 안고 있다. 중공(中共)과 북한(北韓)과의 관계발전(關係發展)이 북한(北韓)에 대(對)한 소련(蘇聯)의 태도(態度)를 실제로 결정(決定)지을 것

이다. 한국동란(韓國動亂)을 통한 무력통일(武力統一) 달성노력(達成努力)이 실패(失敗)한 이후(以後) 소련(蘇聯)은 수 많은 북한(北韓)의 제의(提議)에 말로만의 원조(援助)를 약속(約束)하고 어떠한 통일정책(統一政策)도 쓰지 않았다.

푸에블로 호(號) 납북(北北), EC-121 기(機) 격추(擊墜), 그리고 2명(名)의 미군장교(美軍將校)가 DMZ에서 북괴군(北傀軍)에 살해(殺害)된 1976년(年) 8.18 도끼만행(蠻行) 같은 일련(一聯)의 북괴도발행위(北傀挑發行爲)는 소련(蘇聯)의 압력(壓力)을 받지않고 저지른 것이다. 1961년(年) 소련(蘇聯)과 북한간(北韓間)의 상호원조협정(相互援助協定)을 위한 협상시(協商時)에 소련(蘇聯)의 지도자(指導者)들은 제(第)2의 한국전(韓國戰)이나 대규모(大規模) 베트남식 게릴라 전(戰)을 위한 어떠한 원조(援助)도 북한(北韓)에 제공(提供)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明白)히 밝혔다.

남북적십자회의(南北赤十字會議)를 위한 예비회담(豫備會談)이 발표(發表)되던 때인 1971년(年)까지 북한(北韓)에 대(對)한 소련(蘇聯)의 태도(態度)는 온건한 정책노선(政策路線)에 바탕을 둔 주로 구두원조(口頭援助)였다. 한편 남북적십자회의(南北赤十字會議)에 대한 반응(反應)으로 소련(蘇聯)은 북한(北韓)의 입장(立場)을 지지(支持)했다. 그러나 그 논평(論評)은 비교적 온건했고 기본적(基本的)으로 한반도긴장완화추세(韓半島緊張緩和趨勢)를 강조(強調)하고 있었다. 실제로 1972년(年) 12월(月) 5일(日), 프라우다 지(紙)는 논설(論說)에서 「이 회담(會談)을 통(通)해 남북간(南北間)의 긴장(緊張)이 완화(緩和)되고,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이 방지(防止)되고, 그들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을 고려(考慮)하여 남북간(南北間)에 합의(合議)된 조치(措置)를 취(取)하는 문제(問題)가 해결(解決)돼야 한다」.

소련(蘇聯)은 분명(分明)히 남북대화(南北對話)의 발전(發展)을 바라고 있고 남북간(南北間)의 평등(平等)을 바탕으로 현상태(現狀態)를 안정(安定)시키겠다는 표현(表現)으로 이것은 해석(解釋)될 수 있다.

1973년(年) 6월(月) 23일(日) 박대통령(朴大統領)이 선언(宣言)한 평화통일(平和統一) 외교정책(外交政策)에 관한 특별성명(特別聲明)에 대처(對處)해 김일성은 소위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를 주장(主張)했다. 북한(北韓)의 계획(計劃)은 선전효과(宣傳效果)를 거두기 위해 1960년대(年代) 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소련(蘇聯)의 북괴제의(北傀提議)에 대한 반응(反應)은 이전(以前)의 제의(提議)에 대한 반응(反應)과 다를 바가 없다. 1973년(年) 7월(月) 27일(日) 모스크바 방송(放送)은 「이 제의(提議)는 한반도(韓半島)와 극동(極東)에서 긴장(緊張)을 완화(緩和)하고 동시(同時)에 한국(韓國)을 평화적(平和的),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으로 통일(統一)하려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또다른 중요(重要)한 제안(提案)이다」했다.

소련(蘇聯)은 북한(北韓)의 제의(提議)에 대한 내용(內容)을 전혀 거론(擧論)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련(蘇聯)이 될 수 있는 한 남북한(南北韓) 모두에게 도발적(挑發的)인 표현(表現)을 피(避)하면서 현상(現狀)의 발전(發展)을 인정(認定)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암시하는 것이다.

긴장완화정책(緊張緩和政策)을 추구(追求)하는 입장(立場)을 취하고 있는 소련(蘇聯)은 28차(次) UN총회(總會) 정치위원회회의(政治委員會會議)에서 한 결의안(決議案)을 통과(通過)시키는데 있어 여타 관계국(關係國)과 보조(步調)를 같이 했다. 남북관계(南北關係)에 대한 소련(蘇聯) 정책(政策)의 고찰(考察)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가정(假定)을 설정(設定)할 수 있다.

첫째, 소련(蘇聯)은 남북한문제(南北韓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북한(北韓)과의 동맹관계(同盟關係)를 완강히 주장(主張)하지만 화해(和解)와 긴장완화(緊張緩和)와 같은 기본노선유지(基本路線維持)에 중점(重點)을 두고 있다.

둘째, 한반도(韓半島)를 4강(強)의 역학관계(力學關係)를 조정(調整)하는 완충지역(緩衝地域)으로 보기 때문에 소련(蘇聯)은 한반도(韓半島)에 분쟁(紛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가능한 한(限) 현상태(現狀態)를 안정(安定)시키기를 원한다.

끝으로, 한국(韓國)을 둘러싼 미(美)·소(蘇)·중(中)·일(日) 4강(強)의 역학관계(力學關係)를 조정(調整)하는 상호자제(相互自制)의 기능면(機能面)에서 소련(蘇聯)은 남북한간(南北韓間)의 평화적(平和的)인 접촉(接觸)이 소련(蘇聯)에 어떤 불리(不利)한 상태(狀態)를 야기(惹起)시킬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南北韓) 접촉(接觸)의 동기(動機)와 목적(目的)에 대(對)한 소련(蘇聯)의 태도(態度)를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긍정적(肯定的)으로 보는 것이 타당(妥當)한 것이다. (계속(繼續))

명언 명구(名言 名句)

*인생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 에이버리 〉

공군(空軍) 영외장병가계(營外將兵家計)의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 소고(小考)

이원식 (李元植)

I.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와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

한 경제사회(經濟社會)에 있어서 소비(消費) 및 저축행위(貯蓄行爲)에 관(關)한 가장 기본적인(基本的) 의사결정단위(意思決定單位)는 가계(家計)이다. 이러한 가계(家計)의 소비(消費) 및 저축행위(貯蓄行爲)가 합리적(合理的)으로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問題)가 작게는 그 가계(家計), 크게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오늘과 내일을 운명(運命)짓게 된다.

특(特)히 근로소득(勤勞所得)을 전소득원(全所得源)으로 하는 근로자(勤勞者) 가계(家計)들의 짜임새 있는 생활설계(生活設計)가 중요(重要)하다. 이에 가계(家計)들이 어떻게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를 세우고 관리(管理)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인가?

이에 개인금융이론(個人金融理論)에다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을 연결(連結)하여 바람직한 하나의 접근(接近)을 얻게 되었다.

먼저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부터 음미해 보면,

첫째, 목표설정(目標設定)(Goal . Setting)이다. 이 단계(段階)에서는 장기목표(長期目標)와 전략적(戰略的) 계획(計劃)을 세우고 구체적(具體的) 전반적(全般的) 목표(目標)를 개발(開發)한다.

둘째, 행동계획(行動計劃)(Action Plamiing)이다. 이 단계(段階)에서는 우선 이용가능(利用可能)한 자원(資源)을 분류분석(分類分析) 평가(評價)하고 일련(一連)의 기능적(機能的) 전략(戰略)을 개발(開發)한다. 그리고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爲)하여 구체적(具體的) 자원배분계획(資源配分計劃)을 세운다.

셋째, 자기통제(自己統制)(Self- Control)이다. 이는 자신(自身)이 실행(實行)에 옮기며 필요(必要)에 따라 수정조치(修正措置)를 취한다.

넷째, 주기적(週期的) 재검토(再檢討) (Periodic- Reviews)가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세운 목표(目標)를 향(向)한 진행상태(進行狀態)를 검토(檢討)하고 전반적(全般的)인 진도(進度)의 평가(評價), 행동(行動)의 보강(補強) 및 동기(動機)의 강화(強化)를 도모하면서 이를 계속 반복(反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을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에 세우는 것이 유익(有益)하다. 한 가구주(家口主), 특(特)히 공군(空軍) 영외장병(營外將兵)이 그의 일생주기(一生

週期)(Life- Cycle)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변화(主要變化) 시기(時期)인, ①임관(任官), ② 결혼(結婚), ③ 자녀교육개시(子女教育開始), ④ 주택(住宅)마련, ⑤ 자녀결혼(子女結婚), ⑥ 정년 퇴직(停年退職), ⑦ 노년기(老年期) 등(等)에 대(對)하여

① 무엇을 위(爲)하여 저축(貯蓄)할 것인가(= 목표설정 = (目標設定)

② 무엇이 목표달성(目標達成)에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방법(方法)인가? (= 행동계획(行動計劃)

③ 실천(實踐)하는 가운데 수정(修正)할 것이 있는가? (= 자기통제(自己統制))

④ 목표(目標)가 얼마나 이루어 지고 있는가? (= 주기적(週期的) 검토(檢討)

를 되풀이하여 살펴야 한다. 환언(換言)하면 가구(家口) 구성(構成), 가구(家口)의 지출욕구(支出欲求), 가구주(家口主) 소득(所得)의 흐름(= 제급여(諸給與)의 증감추세(增減趨勢)) 등(等) 가계(家計)의 내적(內的) 요인(要因)이 두드러지게 변(變)하거나 가계(家計)를 둘러싼 경제사회(經濟社會)로부터 외적(外的) 요인(要因)(= 물가고 = (物價高), 복지혜택(福祉惠澤) 등(等)) 들의 변화(變化)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가계(家計)의 살림을 앞에서 지적한 순서(順序)대로 재검토(再檢討)해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習慣化) 해야 한다. 공군구성원(空軍構成員)들의 욕망(欲望)은 무한(無限)하다. 그러나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또 한 자신(自身)의 희소(稀少)한 자원(資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적(競爭的) 목적(目的)들 가운데 어떻게 선택(選擇)하여 충족(充足)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解決)해야 한다. 즉(卽) 어느 한 욕망(欲望)을 선택(選擇)한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욕망(欲望)을 덜 채우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다. 환언(換言)하면 우리 장병(將兵)의 욕망(欲望)은 많고, 우리의 급여(給與) 자원(資源) 등(等) 수입(收入)은 제한(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욕망(欲望) 가운데 가장 중요(重要)한 욕망(欲望)들을 선택(選擇)하여 충족(充足)해야 되고, 이러한 선택(選擇)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덜 중요(重要)한 욕망(欲望)들을 희생(犧牲)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 가계(家計)가 휴가여행비(休暇旅行費) 10만(萬)원을 지출(支出)한다면. 그것을 은행예금(銀行預金)하여 매년(每年) 약(約) 20%의 이자(利子)를 늘려 나가는 기회(機會)를 포기(拋棄)한 셈이다. 그러므로 우선 일정(一定)한 금액(金額)을 가지고 지출(支出)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기회(選擇機會)들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열거(列擧)한 다음 그 가운데 가장 중요(重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選擇)하는 버릇을 생활화(生活化) 해야 한다.

일반적(一般的)으로 경영학(經營學)에서 Portfolio란 유가증권(有價證券)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산(資産)의 구성(構成)을 뜻하지만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와 관련해서 말할 경우에는 유가증권(有價證券) 뿐만 아니라 부동산(不動産), 은행예금(銀行預金) 등(等) 모든 물적자산(物的資産)은 물론(勿論)이거니와 교육(教育) 기술연수(技術研修) 등(等)으로 축적(蓄積)된 인적자산(人的資産)을 포함(包含)하는 넓은 의미(意味)로 풀이되어야 한다. 즉(卽) 한 가계(家計)가 동원(動員)할 수 있는 모든 자원(資源)(인적(人的), 물적(物的))의 구성(構成)을 Portfolio라고 해야 한다.

가계(家計)는 이러한 넓은 의미(意味)의 자산(資產)들 가운데 어느 것을 어떤 비율(比率)로 갖 추느냐를 결정(決定)하는 작업(作業)이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에 중요(重要)한 것이다. 결정(決定)하는 과정에서 일례(一例)로(일반적(一般)의)이나 공군장병(空軍將兵)의 심리(心理)(의지(意志))상(上) 상품(商品)의 양(量)과 질(質)을 가지고 욕구(欲求)를 충족(充足)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실제(實際)로 개인(個人)의 초라한 주택(住宅)보다는 전셋방일망정 고급(高級) 주택(住宅), 막걸리 한잔보다는 양주 한잔 등(等) 이러한 심리적(心理的) 동기(動機) 때문에 비합리적(非合理的) 소비지출(消費支出) 행위(行爲)를 했던 것이다.

또한 가계(家計)는 한 개인(個人)(가구주(家口主) 한 사람)의 입장(立場)에서 모든 소비(消費) 및 저축행위(貯蓄行爲)가 결정(決定)되지는 않는다. 일반적(一般)으로 하나의 가구(家口)는 가구주(家口主)(장병(將兵) 본인(本人))과 부모형제(父母兄弟), 배우자(配偶者), 자녀(子女)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인격(人格), 선호(選好) 및 욕구(欲求)를 가지므로 어떠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이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이루어지기 전(前)에는 서로의 의견충돌(意見衝突)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것이 타협(妥協)에 이르기 위(爲)해서는 때로는 비합리적(非合理的)인 결정(決定)이 내려지기도 한다.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가 합리적(合理的)으로 이루어지기 위(爲)해서 가구주(家口主)가 먼저 합리적(合理的)인 의견(意見)을 제시(提示)하여 전가구원(全家口員)이 이에 동조(同調)해야 하는데 이의 객관적(客觀的)(합리적(合理的))인 의견(意見)이 본고안(本考案)이라고 강조(強調)하고 싶다. 합리적(合理的)인 의견(意見)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생활(家庭生活) 분위기(雰圍氣)가 일상적(日常的)으로 조성(造成)되어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II.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과 가계지출설계(家計支出設計)의 방향(方向)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에 따르면 먼저 가계(家計)에서 목표(目標)를 설정(設定)해야 한다. 목표(目標)가 현실적(現實的)인 것이고 달성가능(達成可能)한 것으로 되기 위(爲)해서는

- ① 여러 가지 욕구(欲求)들을 모두 열거(列擧)하고 이것들의 상대적(相對的) 중요성(重要性) 순위(順位)를 생각하고
- ② 가계(家計)의 모든 소득(所得)(봉급(俸給), 제수당(諸手當), 상여금(償與金), 정근수당(精勤手當) 등(等))을 추산(推算)하고
- ③ 가계수입(家計收入)에 맞도록 목표(目標)(욕구(欲求))들을 선택(選擇) • 조정(調整)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段階)는 행동계획(行動計劃) 즉(卽), 목표(目標)를 가장 효율적(效率的)으로 달성(達成)하기 위(爲)하여 전략(戰略)을 세우는 일이다.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에 있어서

이것은 소비(消費), 지출(支出), 저축(貯蓄) 및 투자(投資)에 관련(關聯)된 결정(決定)을 말한다. 결정(決定)을 할 때는 가구주(家口主)의 일생주기(一生週期)(Life- Cycle)에 따라 결정(決定)하여야 한다.

가계(家計)의 소득(所得)은 소비지출(消費支出)과 저축(貯蓄) 및 투자(投資)로 크게 양분(兩分)된다. 여기서 유의(留意)할 것은 대부분 장병가계(將兵家計)의 소득(所得)이 일정(一定)하여 현재(現在) 소비(消費)를 1원 늘리면 저축(貯蓄) 및 투자원(投資源)이 1원 줄게 된다는 사실(事實)이다.

현재(現在)의 소비지출(消費支出)은 다시 지출항목(支出項目)들과 보호적(保護的) 보험(保險) 등(等)으로 구분(區分)되며 다시 지출항목(支出項目)들은 가변적(可變的)인 것과 불변적(不變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변적(可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은 음식(飲食), 피복(被服), 가구집기(家具什器), 주택지장(住宅置裝), 가정용품(家庭用品), 각종선물(各種贈物), 교통비(交通費), 의료(醫療), 이용(理容), 오락(娛樂), 여가활용비(餘暇活用費), 기타(其他)(문구(文具), 우편(郵便), 신문(新聞), 잡지(雜誌) 등(等))와 같이 불규칙적(不規則的)으로 단기적(短期的) 기초(基礎)에서 발생(發生)하며 지출금액(支出金額)에 있어서 상당한 기복(起伏)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實際)로 음식(飲食)에 있어서 비싼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생선, 맞춤복 대신 간편한 기성복(既成服), 택시타는 대신(代身) 전철(電鐵)이나 버스 이용 등(等) 기복(起伏)이 크게 있는 것이다. 반면(反面) 불변적(不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 (Fixed Expense)은 주택(住宅) (집세, 융자원리금(融資元利金) 상환(償還) 등(等)), 조세공과금(租稅公課金)(전기(電氣), 수도(水道), 오물세 등(等)), 월부금(月賦金), 보험(保險), 교육비(教育費), 회비(會費), 정기적금(定期積金) 등(等)과 같이 규칙적(規則的)으로 일정액(一定額)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이 장기적(長期的) 기초(基礎) 위에서 발생(發生)하는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소비지출(消費支出)을 양분(兩分)하는 이유(理由)는 현재(現在)의 소비지출(消費支出)을 줄이고 저축(貯蓄)을 늘릴 필요(必要)가 없을 경우 1차적(次的)으로 가변지출항목(可變支出項目)을 면밀히 검토(檢討) 절약(節約)할 수 있는 여부(與否)를 발견(發見)하고, 그 이상(以上)의 절약(節約)이 가능(可能)할 때 불변지출항목(不變支出項目)을 검토(檢討) 조정(調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소득(家計所得) 가운데 소비(消費), 지출(支出)로 쓰이지 않는 부분(部分), 즉(卽) 저축(貯蓄)과 투자(投資)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안전지향적(安全指向的)인 것과 성장지향적(成長指向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전지향적(安全指向的)인 저축(貯蓄) 및 투자(投資)에는 은행저축예금(銀行貯蓄豫金), 국공채(國公債), 생명보험(生命保險), 인간자본(人間資本)(교육(教育) 등(等))에 대(對)한 투자(投資), 주거용(住居用) 주택(住宅)의 구입(購入)이 포함(包含)된다. 우리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질화(痼疾化), 만성화(慢性化) 되어 있는 상황하(狀況下)에서는 주택(住宅)은 자산증식(資産增殖)의 가장 좋은 수단(手段)으로 되어 있었다. 일가구(一家口) 일주택(一住宅)인 경우 무주택(無住宅) 장병(將兵)이 겪는 불안정(不安定)한 생활기반(生活

基盤)을 안정화(安定化)시킬 수 있 다는 뜻에서 안전지향적(安全指向的) 투자(投資)로 간주(看做)할 수 있다.

한편 성장지향적(成長指向的) 투자(投資)에는 주식(株式) 및 회사채(會社債)의 구입(購入), 부동산(不動產) 구입(購入), 귀금속(貴金屬) 사두기, 퇴직후(退職後)의 설계지출(設計支出) 등(等)이 포함(包含)된다. .

목표관리모형(目標管理模型)의 세번째 단계(段階)는 행동계획(行動計劃)의 실행(實行)이다. 앞의 단계(段階)에서 목표(目標)들이 명시적(明示的)으로 설정(設定)되고 행동계획(行動計劃)이 실천성(實踐性)이 있도록 짜여진 것이라면, 계획(計劃)을 실행(實行)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가 당초(當初)에 가계구성원(家計構成員)들의 심리적(心理的) 이유(理由) 때문에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요소(要素)가 포함되었을 때는 실천불가능(實踐不可能)한 것으로 판명(判明)된다. 이 경우에는 행동계획(行動計劃)의 실행단계(實行段階)에서 차질(蹉跎)을 가져오게 되므로 목표설정(目標設定) 및 행동계획(行動計劃)을 다시 조정(調整)해야 된다

네 번째 단계(段階)로서 주기적(週期的) 검토(檢討)가 있어야 한다.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에 있어서는 잘 변화(變化)하는 여건(與件)에 잘 수정(修正)하는 것이 핵심(核心)이다. 만일 시간(時間)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여건변화(與件變化)가 누적(累積)됨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주기적(週期的) 검토(檢討)를 통(通)한 필요(必要)한 수정(修正)을 않는다면 가계생활설계(家計生活設計)의 현실성(現實性)을 잃고 때로는 위험(危險)한 경지에도 이르게 된다. 따라서 주기적(週期的)으로 명시(明示)된 목표(目標)를 향(向)한 진척상황(進捗狀況)을 내검(來檢)하고 필요(必要)에 따라 목표(目標)와 이를 달성(達成)하기 위(爲)한 전략(戰略) 행동계획(行動計劃)을 수정(修正)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기적(週期的) 검토(檢討)는 장병(將兵)의 일생주기(一生週期)와도 긴밀(緊密)하게 관련(關聯)된다. 전장(前章)에서 이미 언급(言及)한 바 임관(任官), 결혼(結婚) 및 가정형성(家庭形成), 진급(進級), 자녀교육(子女教育), 퇴직(退職), 노후생활(老後生活)에 따라 중대(重大)하고도 심각(深刻)한 생활설계(生活設計)의 검토(檢討)가 요망(要望)된다. 그러나 생활설계(生活設計)의 신축성(伸縮性)을 강조(強調)한다는 것이 곧 가계생활설계(家計生活設計)의 기본모형(基本模型) 자체(自體)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며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의 의사결정모형(意思決定模型)은 그대로 지속(持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이나 부대(部隊)살림이나 가계(家計)살림이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을 짜임새 있게 운영(運營)하려면 예산(豫算)을 세워야 한다. 예산(豫算)은 가계(家計)에서 주부(主婦)들이 월급(月給)봉투를 받는 즉시 여러 가지 지출항목별(支出項目別) 봉투들에 나누어 두고 한 달간의 지출(支出) 및 저축생활(貯蓄生活)을 해야 하며 매지출(每支出) 때마다 이를 다시 장부(帳簿)(가계부(家計簿))를 기록(記錄)해야 하는 것이다. 가계지출설계(家計支出設計)의 방향(方向)을 구체적(具體的)으로 들어보면

① 비정상적(非正常的)인 지출(支出)을 정밀(精密)하게 조사(調查)해야 한다. 지난 몇년간의 평균적(平均的)인 지출수준(支出水準)을 거울삼아 비정상적(非正常的)이거나 예상(豫想)하지 않았던 지출항목(支出項目)들을 찾아내어 그것이 과연 필요불가피(必要不可避)했던가를 음미한다.

② 지출담당자(支出擔當者)가 돈을 관리(管理)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가구주(家口主)가 주택(住宅)의 구입(購入), 보험(保險)과 같은 비교적(比較的) 거액(巨額) 및 예외적(例外的)인 지출(支出)에만(예외관리(例外管理)의 원칙(原則)) 책임(責任)을 지고 나머지는 월급(月給)봉투에 따라 주부(主婦)가 지출책임(支出責任)을 가진다면, 그에 필요(必要)한 돈 관리(管理)는 주부(主婦)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가구주(家口主)(장병(將兵))과 주부(主婦)(사모님)가 서로 별도(別途)의 통장(通帳)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方法)이다. 공군(空軍)이 실시(實施)하고 있는 가계수표제도(家計手票制度)에 따라 일상금(日常金)은 월급(月給)봉투에, 거액(巨額) 또는 예외적(例外的)인 것은 가계예금(家計豫金)으로 가구주(家口主)가 수표(手票)로 보관(保管) 관리(管理)함도 바람직한 것이다.

③ 저축(貯蓄)에 항시 유의(留意)하여 생활(生活)해야 한다.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사회(經濟社會)에서 가계생활(家計生活)의 안정(安定) 및 경제적(經濟的) 성공(成功)은 결국(結局) 가계(家計)가 소유(所有)하는 자산(資産)(또는 부(富))의 다소(多少)에 의(依)하여 결정(決定)된다. 자산(資産)을 축적(蓄積)하는 정상적(正常的) 수단(手段)이 저축(貯蓄)이다. 즉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戰略的)인 요인(要因)은 바로 저축(貯蓄)이다. 항상 일정기간(一定期間)의 소비지출(消費支出)이 그 기간(期間)의 제급수령액(諸給受領額)을 초과(超過)치 않도록 하며 저축여력(貯蓄餘力)을 키워야 한다. 장병중(將兵中)에는 때로는 적자가계(赤字家計)를 운영(運營)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지난날의 저축(貯蓄)을 잠식(蠶食)하거나 차용(借用)하게 된다. 일정(一定)한 급여(給與)에 있어서 「오늘 기분(氣分)이다」 2차(次) 3차(次) 들이키는 예(例)는 저축생활(貯蓄生活)에 절대 금물(禁物)이다. 이는 훗날 구입(購入)할 수 있었던 어떤 자산(資産)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 또한 미래(未來)의 소득(所得)을 앞당겨 써버리는 셈이 된다는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長期的) 계획(計劃)이어야만 인플레이션, 각종의 비상사태(非常事態), 개인적(個人的) 재난(災難) 등(等)과 같은 상황(狀況)의 예측불가능성(豫測不可能性)을 극소화(極小化)할 수 있다.

⑤ 생활설계(生活設計)는 되도록 간단(簡單)하여야 한다. 간단(簡單)한 형태(形態)의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나 가계부(家計簿)를 이용(利用)하여 기록(記錄)이 용이(容易)하고 주기적(週期的) 재검토(再檢討)를 통(通)하여 실제지출(實際支出)이 계획(計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⑥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가 가구원(家口員)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한 것이지만 생활설계(生活設計)를 위(爲)하여 가구원(家口員)들이 존재(存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事實)을 알아야 한다.

⑦ 가계(家計)의 생활설계지도(生活設計指導)를 전문가(專門家) 등(等) 외부(外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機會)를 적극활용(積極活用)하는데 게을리 말 것이다. 각종(各種)의 소비자(消費者) 단체(團體), 주부(主婦)알뜰모임들이 베푸는 건전생활설계(健全生活設計)를 위(爲)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과거(過去) 우리 장병가구(將兵家口)들은 이런 면(面)에 소홀했던 점(點)은 고사하고 소비풍조(消費風潮)가 오히려 만연했던 사례(事例)도 있었다. 저축(貯蓄)한 것 하나 없이 퇴직후(退職後) 비참한 생활(生活)을 하는 선배(先輩)가 한 둘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Ⅲ . 가계지출(家計支出)의 구체적(具體的) 설계(設計)

1. 소비지출(消費支出)의 설계(設計)

장병(將兵)들의 가계증(家計中) 소비지출(消費支出)을 크게 지출항목(支出項目)과 보호적(保護的) 항목(項目)으로 양분(兩分)하였고, 지출항목(支出項目)들은 다시 가변적(可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과 불변적(不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계(家計)의 건전(健全)한 생활설계(生活設計)를 위(爲)해서는 불규칙적(不規則的)으로 발생(發生)하는 가변적(可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들이 비정상적(非正常的)으로 불어나지 않도록 예방(豫防)하여야 한다는 사실(事實)을 강조(強調)했다.

우리는 여기서 가계(家計)가 제급여소득(諸給與所得)의 테두리를 벗어난 커다란 지출수요(支出需要)에 직면(直面)하여 가변적(可變的) 및 불변적(不變的) 지출항목(支出項目)을 줄일만큼 줄이고 과거(過去)의 저축(貯蓄)으로부터 동원(動員)할 수 있는 만큼 동원(動員)한 것으로도 부족(不足)하여 타인(他人)으로부터 차용(借用)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 신용(信用)의 문제를 고찰(考察)해 보기로 한다.

타인(他人)으로부터 금융(金融)을 임차(賃借)하는 일에 대(對)하여 전통사회(傳統社會)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율법(律法)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에 있어서 이 같은 충고(忠告)는 그대로 유효성(有効性)을 가지지 못한다. 장병(將兵)들의 소득(所得) 흐름은 그의 일생주기(一生週期)에 따라 임관기(任官期)의 낮은 수준(水準)에서 점차 상승(上昇)하여 40대(代)서부터 진급(進級) 등(等)과 더불어 절정(絶頂)에 이르렀다가 퇴직(退職)과 동시(同時)에 근로소득(勤勞所得)의 흐름은 거진 전무(全無)하게 감소(減少)되고 재산소득(財産所得)(퇴직연금(退職年金) 등(等))에만 의존(依存)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지출(消費支出)의 흐름은 일생(一生)에 걸쳐 거의 비슷한 수준(水準)으로 나타난다.

임관(任官) 직후(直後)에는 여러 가지 사업(事業)(?)에서 적자(赤字) 인생(人生)이었다가 결혼(結婚)하여 가구(家口)를 형성(形成)하고 내구제품(耐久製品)이나 주택(住宅)마련 준비 등의 지출수요(支出需要)가 큰 반면(反面)에 급여수준(給與水準)은 낮아 일생중(一生中)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消費者) 신용제도(信用制度)나 당군(當軍)에서 전원(全員) 가입(加入)하고 있는 가계수표(家計手票)의 당좌(當座) 대월제도(貸越制度)가 가계생활설계(家計生活設計)에 숨통을 열어주는 매우 가치(價値)있는 수단(手段)으로 될 수 있다.

환언(換言)하면 신용(信用)이나 대월제도(貸越制度)는 필요(必要)할 때 필요(必要)한 것을 갖도록 하며 현재(現在) 욕구(欲求)가 있는 자산(資產)을 얻는 대신(代身) 그 대가(代價)를 점진적으로 지불(支拂)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肯定的)으로 이해(理解)할 필요(必要)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돈을 벌려는 사람이나 외상(外上)을 일삼는 사람은 절약(節約)과 책임감(責任感)이 부족(不足)한 사람으로 보고 남에게 신용(信用)을 베푸는 사람은 존경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부채(負債) 그 자체(自體)는 선(善)도 악(惡)도 아니다. 다만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는 부채(負債)를 진다음 그것을 자신(自身)의 자산(資產)으로 갚아 나갈 능력(能力)이 있느냐의 여부(與否)이다.

그러나 어느 장병가계(將兵家計)나 누구든지 무한정(無限定) 차용(借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용등급(借用等級)(쉽게 군내(軍內)에서 계급(階級)이라고도 할 수 있다)에 따라 결정(決定)된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차용(借用)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適用)되는 4가지 기준(基準)이 있다고 한다.

① 인품(人品) (Character) —정직성(正直性), 책임감(責任感), 신뢰성(信賴性) 그리고 금전적(金錢的) 책임(責任)의 기록(記錄)

② 능력(能力) (Capacity) —현재(現在) 및 미래(未來)의 수입능력(收入能力),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③ 자본(資本) (Capital) —용자(融資)에 대(對)한 담보물(擔保物)로서 금전적자원(金錢的資源)

④ 신용등급(信用等級)(Credit Rating) —채무상환(債務償還)의 전반적능력(全般的能力)

환언(換言)하면 직업(職業), 소득(所得), 주거(住居), 금융기관거래(金融機關去來), 부채기록(負債記錄), 쟁송(爭訟), 인품(人品) 등(等)이 금융기관(金融機關)으로부터의 소비자(消費者) 신용(信用)을 결정(決定)하는데 중요(重要)하게 작용(作用)하는 요인(要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요즈음 이 신용측정(信用測定)은 기계적(機械的)이긴 하나 Computer의 응용(應用)으로 각(各) 개인(個人)의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만으로 각종(各種) 부채(負債) 등(等)의 기일내(期日內) 상환여부(償還與否), 지불능력(支拂能力), 심지어는 생활방법(生活方法)까지도 분석추리(分析推理)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具體的)으로 소비자(消費者) 신용(信用)을 얻을 수 있는 원천(源泉)은 은행기관(銀行機關)(특(特)히 국민은행(國民銀行), 주택은행(住宅銀行)), 신용협동기구(信用協同機構)(마을 금고(金庫), 신용상호금고(信用相互金庫)), 각종(各種) 보험(保險), 계(契), 친지(親知) / 전우(戰友) 등(等)이다.

가계(家計)가 소비자(消費者) 신용(信用)을 구(求)함에 있어서 유의(留意)해야 할 것은 이상(以上)과 같은 여러 가지 신용원천(信用源泉)들로부터의 신용(信用)들이 가지는 조건(條件)들이자

(利子), 기간(期間), 담보요구(擔保要求) 유무(有無) 등(等))을 자세하게 비교(比較) 검토(檢討)한 다음에 결정(決定)하여야 한다. 공군(空軍)은 이의 결정(決定)을 전문분야(專門分野)인 관리참모(管理參謀)가 조언(助言)하여 지휘관(指揮官)이 지시(指示)하게 되는 바 장병(將兵) 개개인(個個人)의 검토시간(檢討時間)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혹자(或者)는 「강제저축지시(強制貯蓄指示)이다」는 등(等) 불신폭조(不信風潮)는 본인(本人)에게 불리(不利)해진다는 점(點)을 알아야 한다.

각종(各種) 신용조건(信用條件)들에 공통(共通) 검토사항(檢討事項)을 들면 이자(利子), 기간(期間), 담보요구(擔保要求)(유무(有無)외(外)에 계약서(契約書)의 작은 글자까지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한다. 신용(信用)기관이라는 가면하(假面下)에 소비자(消費者)를 올린 예(例)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신용판매(信用販賣), 현금가격할부판매(現金價格割賦販賣), ○○○회원(會員) 모집(募集)(판매목적(販賣目的)) 등(等) 광고물(廣告物)만 믿고 그대로 구입(購入), 가입(加入)을 서두르지 않도록 특(特)히 주의(注意)하여야 한다.

공군장병(空軍將兵)들은 대개 학교교육(學校教育)을 필(必)하자마자 비행교육(飛行教育) 기타(其他) 각종(各種) 특기교육(特技教育) 수료후(修了後) 바로 Base 등(等)에 배치되어 부대업무(部隊業務)들에만 전념(專念)하다 보면 약삭빠른 상거래(商去來) 등(等)의 물정(物情)에는 어렵게 마련이다.

할부판매(割賦販賣)라는 것은 흔히 상당(相當)한 금리부담(金利負擔)을 포함(包含)하는 것으로 현금구매(現金購買)보다 불리(不利)한 경우가 흔하다. 「외상(外上)של값 헐하기 만무」하고 대손예정률(貸損豫定率)만큼 더 원가(原價)에 포함(包含)시키는 것이다. 같은 종류(種類)의 상품(商品)도 판매(販賣) (Sale) 상(商)에 따라 다른 조건(條件)으로 신용(信用) 판매(販賣)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매상(販賣商)들의 판매조건(販賣條件)들을 면밀히 비교(比較) 검토(檢討)하는 일도 중요(重要)하다. 그리고 요즘 성행(盛行)하고 있는 Credit Card 등(等)도 다소간(多少間)의 차이점(差異點)이 있으므로 이것을 선별(選別) 가입(加入)하는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고 이를 가졌다고 과도(過度)한 구매(購買)를 삼가도록 절제(節制)해야 함은 물론(勿論)이다.

다음으로 보호적(保護的) 보험(保險)의 문제를 다뤄보면, 여러 가지 보험(保險)은 공(共)히,

- ① 반드시 필요(必要)한 금액(金額)만큼 보험(保險)을 구입(購入)토록 해야 한다.
- ② 보험(保險)을 구입(購入)한만큼 투자(投資)할 수 있는 자산(資產) (현금(現金))이 감소(減少)되는 것임을 명심(銘心)할 것
- ③ 보험외판사원(保險外販社員)들의 달변에 또는 기분(氣分)에 좌우(左右)되어 가입(加入)치 말 것.
- ④ 가입(加入)시 반드시 부대(部隊)의 전문부서(專門部署)에 문의가 필요(必要)하다. 같은 Uniform 입은 전우(戰友) 이상(以上) 더 믿을 데는 드문 일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함으로써 첫째로 스스로의 위험(危險)부담을 줄이는 동시(同時)에 많은 위험에 대한 보험(保險)을 얻어야 하고, 둘째로 계약(契約)에 앞서 요율(料率)을 비교(比較)하여야 하고, 셋째로 먼저 스스로 모든 위험에 대(對)한 예방대책을 강구 생활화(生活化)하여 위험자제

(危險自體)가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타직장인(他職場人)들보다 공군장병(空軍將兵)들은 더 우수하다고 본다. 평소(平素)의 안전활동(安全活動), 치밀 정확(正確)한 부대생활(部隊生活)이 습성화(習性化)되어 있다고 보나 항상 위험은 쫓아다니게 마련인 고(故)로 최소한(最小限)의 보험(保險)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저축(貯蓄) 및 투자(投資)의 설계(設計)

저축(貯蓄) 및 투자(投資)에는 Sid Mittra에 의하면 안전지향형(安全指向型)과 성장지향형(成長指向型)으로 구분(區分)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無視)하는데 그 이유(理由)는 예컨대 부동산(不動產)의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안전지향적(安全指向的)인 것이며 또 어느 것부터가 성장지향적(成長指向的)(투기적(投機的))인 것인지를 실제(實際)로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은행저축(銀行貯蓄)과 주택(住宅)마련에 대한 설계(設計)를 다루고자 한다.

가. 은행저축(銀行貯蓄)의 설계(設計)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에 의(依)하면 저축(貯蓄)과 관련하여,

- ① 저축동기(貯蓄動機)를 명시(明示)할 것.
- ② 저축(貯蓄) 목표액(目標額)을 가급적 정확(正確)하게 결정(決定)할 것.
- ④ 저축자금(貯蓄資金)을 안전(安全)하게 투자(投資)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手段)들의 장점(長點)을 평가(評價)할 기준(基準)을 개발(開發)할 것.
- ④ 이러한 기준(基準)에 따라 저축욕구(貯蓄欲求)에 가장 적합(適合)한 저축수단(貯蓄手段)을 선택(選擇)할 것이다.

저축동기(貯蓄動機)로는 공군장병(空軍將兵)이라고 예외(例外)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유형(類型)이 일반적(一般的)이다.

- 의외(意外)의 사고(事故)나 질병시(疾病時)에 의존(依存)할 수 있는 비상기금(非常基金)을 마련하는 동기(動機)
- 주택(住宅)마련을 위(爲)한 동기(動機)
- 자녀(子女) 교육(教育) 위(爲)한 동기(動機)
- 취미생활(趣味生活) 영위(營爲) 위한 동기(動機)
- 노후생활(老朽生活) 대비 위한 동기(動機)(퇴직후(退職後)) 등(等) 어떠한 동기(動機)나 모든 동기(動機)를 충족(充足)키 위(爲)해서는 현재(現在)의 소비지출(消費支出)이 과도(過度)하게 압박(壓迫)을 받지 않도록 저축목표(貯蓄目標)를 설정(設定)해야 한다. 저축목표설정(貯蓄目標設定) 요령(要領)으로는 다음 7가지 단계(段階)를 들 수 있다..

- ① 저축동기(貯蓄動機)를 재고(再考)하고 저축목표(貯蓄目標)를 현실화(現實化)한다. 최고급 주택(最高級住宅), 세계일주(世界一週) 호화여행(豪華旅行) 등(等)의 과욕(過慾)을 삼갈 것.

② 미래(未來)의 욕구(欲求)를 정확(正確)하게 결정(決定)한다. 예상(豫想)치 못한 재난(災難)에 대(對)한 대비(對備)를 검토(檢討)한다.

③ 금전적(金錢的) 부담(負擔)을 검토(檢討)한다. 자녀(子女)의 경제적(經濟的) 독립시기(獨立時期) 등(等)을 생각한다.

④ 연간총소득(年間總所得)(제급여(諸給與))을 추산(推算)한다.

⑤ 정상적(正常的) 연중(年中) 생계비(生計費)를 추산(推算)한다.

⑥ 최소한(最小限)의 연중행사비(年中行事費)를 추산(推算)한다.

⑦ 연중(年中) 총소득(總所得)에서 생계비(生計費), 최소한(最小限)의 행사비(行事費)를 통제(控除)하여 당년중(當年中)에 저축(貯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期待)되는 금액(金額)을 산출(算出)한다.

이렇게 추산(推算)한 저축가능액(貯蓄可能額)을 길잡이로 해서 장기적(長期的) 저축계획(貯蓄計劃)을 세울 수 있다. 즉(卽) 앞으로 매년(每年) 예상(豫想)할 수 있는 저축(貯蓄)의 원리합계액(元利合計額)이 일정기간(一定期間) 경과후(經過後)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목표년도(目標年度)의 목표저축금액(目標貯蓄金額)을 얻기 위(爲)해서 올해부터 얼마만큼의 저축(貯蓄)을 축적(蓄積)해 나아가야 하나를 시산(試算)할 수 있고, 이것을 저축가능추산치(貯蓄可能推算値)와 비교(比較)해 볼 수 있다. 저축수단(貯蓄手段)을 선택(選擇)하는 경우 이용(利用)할 수 있는 기준(基準)으로서 ① 안전성(安全性), ② 유동성(流動性), ④ 간단성(簡單性), ④ 특별(特別)서비스, ⑤ 수익성(收益性) 그리고, ⑥ 세제상(稅制上) 혜택(惠澤)과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은행파산례(銀行破產例)가 없으므로 은행예금(銀行豫金)의 안전성(安全性)은 문제되지 않는다. 유동성(流動性)이란 즉시 현금(現金)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性質)이기 때문에 환금성(換金性)이라고도 한다. 모든 금융자산(金融資産)들은 거래(去來)가 간단(簡單)하다. 은행예금(銀行豫金)의 경우 최저(最低) 잔고(殘高)에 대(對)한 강제규정(強制規程)이 없는 것이나 단자(短資)나 투신(投信)의 경우 최저거래한도(最低去來限度)가 있다. 은행(銀行)은 조세공과금수납(租稅公課金收納), 수표발행(手票發行) 등(等) 과외(課外)의 서비스를 제공(提供)하며, 이자(利子) 등(等)의 수익(收益)을 저축(貯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자소득(利子所得)에도 세금(稅金)이 부과(賦課)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재형저축(財形貯蓄), 가계종합예금(家計綜合豫金), 국공채(國公債) 등(等)은 면제(免除)되는 것들이다.

이자계산(利子計算)에도

① 복리(複利)가 단리(單利)보다 유리(有利)

② 높은 이자(利子)가 낮은 이자(利子)보다 유리(有利)

③ 이자(利子)를 복리(複利)로 빈도(頻度)높게 (자주 계산(計算)) 계산(計算)하는 것이 저빈도(低頻度)보다 유리(有利). (예(例)컨대 연이율(年利率) 5%인 경우 매분기계산(每分期計算)은 5.0945%, 매월계산(每月計算)은 5.116%, 매일계산(毎日計算)은 5.1265%)

④ 이자(利子)선불(先拂)이 후불(後拂)보다 유리(有利) 등(等)의 상식(常識)을 염두(念頭)해야 한다

저축기관(貯蓄機關)으로는,

일반은행(一般銀行)과 특수은행(特殊銀行)들이 있다. 이들은 전술(前述)한 여섯 가지 선택기준(選擇基準)에 대체로 합격(合格)하는 수단(手段)이다.

그 밖에는 신용조합(信用組合), 마을금고(金庫) 등(等) 신용협동(信用協同) 기구(機構)들이 있다. 이들은 수익성(收益性)이라는 측면(側面)에서는 은행예금(銀行豫金)보다 유리(有利)하지만 타측면(他側面)(안전성(安全性), 기타(其他) 서비스 등(等))에서는 상대적(相對的)으로 불리(不利)하다. 그 밖에 국공채(國公債)는 수익성(收益性)에는 뒤지지만 안전성(安全性), 세제상(稅制上) 혜택(惠澤) 등(等)에서는 앞선다.

그 밖에 계(契) 또는 사채(私債)같은 사금융(私金融)의 수단(手段)도 있다. 계(契)는 회원(會員)들간의 친목(親睦)도모란 측면(側面) 하나만의 뜻이므로 계(契)모임 없이도 공군장병(空軍將兵)은 누구나 생활(生活)을 같이 하는 친목(親睦) 이상(以上)의 유대가 기왕에 정(定)해지고 있으므로 구태여 수익성(收益性)도 높지 않고 안전성(安全性)이 극(極)히 저조(低調)하여 건전(健全)한 가계(家計)를 위(爲)해서는, 기필코 회피(回避)해야 하는 것이다. 사채(私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나. 주택(住宅)마련 설계(設計)

공군(空軍) 영외장병(營外將兵)들은 대개는 관사(官舍) 등의 혜택을 우선은 받고 있으나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기본동기(基本動機)임에는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이다.

주택구입(住宅購入)(또는 건축(建築)을 통(通)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과 비경제적(非經濟的)인 측면(側面)이 있다.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이란 주택소유(住宅所有)의 투자측면(投資側面)을 말한다. 그리고 비경제적(非經濟的)인 측면(側面)이란 소유자(所有者)가 건실(健實)하고 성공적(成功的)인 시민(市民)임을 남에게 알리는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이며, 자신(自身)에게도 그것을 다집하는 주체성(主體性)으로서 주택(住宅)의 기능(機能)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측면(側面)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住宅)마련이 경제적(經濟的)으로 합리적(合理的) 기준(基準)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 경제사회(經濟社會)처럼 좁은 국토(國土)에 많은 인구(人口) (특(特)히 공군(空軍) 장병(將兵) 생활(生活) 주변)를 가지고 있으며 만성화(慢性化)된 인플레이션 상황하(狀況下)에서는 주택(住宅)이 자산가치(資産價値)의 보전(保全)은 물론(勿論), 증식(增殖)에 가장 최효(最効)한 수단(手段)이었으므로 내 집 마련의 열기(熱氣)는 부동산(不動産) 투기(投機) 붐을 재연(再燃)시키곤 하였고 아직도 그 불씨가 살아있어 고급(高級) 아파트 분양시(分讓時)에 나타나곤 한다.

그러므로 가계(家計)가 일생주기(一生週期) (Life- Cycle)에 걸친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를 세움에 있어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안정(安定)시키고, 자산(資産)을 늘리며 노후생계(老

朽生計)를 의탁(依託)하고 사후(死後)에 자녀(子女)에게 가장 적합(適合)한 형태(形態)의 것으로 주택(住宅)에 가장 큰 역점(力點)을 두어야 한다. 연(然)이나 금일(今日)과 같이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높은 수준(水準)에 머물고 있는 현실(現實)에 비추어 무주택(無住宅) 장병(將兵)들이 주택(住宅)마련 하기에는 연중무휴(年中無休) 근무(勤務)보다 훨씬 어렵다 하겠다.

위선(爲先) 주택소유(住宅所有)와 임대(賃貸)를 대비(對比)해 볼 필요(必要)가 있다. 보통(普通) 고급주택사용료(高級住宅使用料)(전세(傳賃))와 서민(庶民)아파트 가격(價格)이 비슷하다. 따라서 현재(現在)의 순수경제적(純粹經濟的) 관점(觀點)에서만 따져보면 주택소유(住宅所有)와 임대(賃貸)가 우열(優劣)을 가리기 어려우나 주택(住宅)의 비경제적(非經濟的) 측면(側面)과 주거용(住居用) 이외(以外)의 용도(用途)로도 쓰인다는 점(點)을 고려한다면 임대(賃貸)보다 소유(所有)가 유리(有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住宅所有)의 어려움은 자금소요(資金所要)가 정상소득수준(正常所得水準)에 비(比)하여 엄청나게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주택구입(住宅購入)을 위(爲)한 금융문제(金融問題)가 크게 제기(提起)된다. 주택금융제도(住宅金融制度)가 크게 발달(發達)되어 있는 선진(先進) 제국(諸國)에서는 현금(現金) 일시불(一時拂)의 비율(比率)이 낮고 융자금(融資金)이 장기저리(長期低利)로 공급(供給)이 되어 근로자(勤勞者) 가계(家計)들이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하고 소망 규모(所望規模)대로 주택(住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은행(住宅銀行)에서 가장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으로 제공(提供)하는 복지주택자금(福祉住宅資金)도 최고한도(最高限度)가 아직도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비(比)해 낮게 설정(設定)되어 있어 무주택장병(無住宅將兵)들이 내집을 마련하려면, 전세(傳賃)로부터 10坪(坪) 내외(內外)의 연립주택(聯立住宅)을 거쳐 점차로 평수(坪數)가 가족수(家族數)에 적합(適合)한 국민주택규모(國民住宅規模)(25.7坪(坪))에 이르도록 소유(所有) 주택(住宅)의 시가상승(時價上昇)에 그동안의 저축(貯蓄)을 추가(追加)하여 여러 단계(段階)를 거치는 어려움을 경험(經驗)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와중(渦中)에서 장병(將兵)들의 소유주택(所有住宅)은 농어촌(農漁村) 주택(住宅)과는 달리 장기간(長期間) 일정(一定)하지 않고 수시(隨時)로 바뀌는 실정(實情)에 벗어나지 못한다.

내집 마련을 위(爲)해서는 공적(公的) 금융기관(金融機關)들로부터의 융자금(融資金)을 이용(利用)할 뿐만 아니라 한푼이라도 저축(貯蓄)을 일관성(一貫性) 있게 계획(計劃)을 밀고 나아간다면 주택(住宅)마련이 결코 불가능(不可能)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과욕(過慾)으로 큰 규모(規模) 좋은 위치(位置)의 주택(住宅)만을 고르지 말고 작은 규모(規模)(유지비(維持費)도 고려) 다소 불리(不利)한 위치(位置)의 주택(住宅)부터 고려한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 현실적(現實的)이다. 환언(換言)하면 처음부터는 주택(住宅)의 비경제적(非經濟的) 측면(側面)(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 계급(階級) 등(等))에 영향을 배제(排除)하도록 노력(努力)해야 한다.「장군(將軍)이 그런 집을 사느냐」는 등(等)의 말은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에서는 통(通)하지 않는 말이다. 수상(首相)을 지낸 사람도 집이 없으면 전세(傳賃)인 세를 다시 질 수 밖에 없는 예(例)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명심(銘心)할 사실(事實)이다.

그리고 주택(住宅) 등(等) 부동산시장(不動產市場)은 매우 불완전(不完全)한 시장(市場)이므로 동일조건(同一條件)의 주택(住宅)이라도 가격차이(價格差異)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주택구입(住宅購入)에 앞서 여러 지역(地域)의 많은 주택(住宅)들을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고 도시계획(都市計劃) 등(等)은 관계참모(關係參謀)(시설(施設))에도 문의해 볼 것이며, 세법(稅法)이 자주 바뀌므로 최신(最新)의 정보(情報)를 얻도록 노력(努力)해야 하는 등(等) 장병(將兵) 경제(經濟) 교육(教育) 등(等)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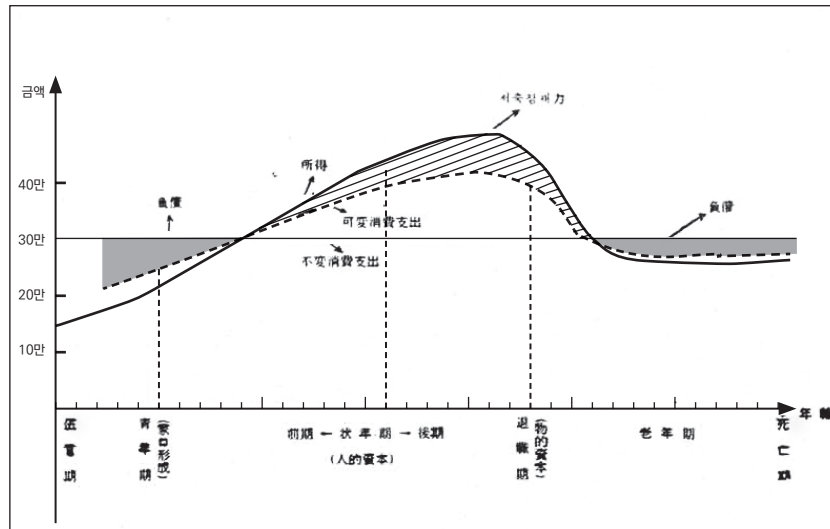
IV. 가계수입(家計收入)의 설계(設計)

공군장병(空軍將兵) 가계(家計)의 소득(所得) 흐름은 주(主)로 가구주(家口主)(장병자신(將兵自身))의 일생주기(一生週期)에 따라 연령별(年齡別) 특징(特徵)을 가지고 나타난다.

가계(家計)가 소득(所得)을 얻게 되는 근원(根源)을 크게 인적(人的) 자본(資本)(Human Capital)과 물질자본(物的資本)(Physical Capital)으로 양분(兩分)할 수 있다. 인적(人的) 자본(資本)으로부터 발생(發生)하는 소득(所得)을 근로소득(勤勞所得)(봉급(俸給), 수당(手當) 등(等))이라고 부르고, 물질(物的) 자본(資本)으로서 얻는 소득(所得)을 재산소득(財産所得)이라 한다. 인적(人的) 자본(資本)이란 교육(教育), 기술습득(技術習得), 건강(健康) 등(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형(無形)의 것인 반면(反面)에 물질(物的) 자본(資本)은 소득(所得) 가운데 현재(現在)의 소비지출(消費支出)되지 아니한 부분(部分) 즉(卽) 저축(貯蓄)이 누적(累積)되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有形)의 수익성(收益性) 자산(資產)으로 구성(構成)된다. 여기서 자본(資本)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간(時間)에 걸쳐 소득(所得)의 흐름을 발생(發生)시키는 모든 원천(源泉)을 말하며 자원(資源)이라고도 일컫는다.

가계(家計)의 살림을 보다 질적(質的)으로 윤택하게 하고 생산수준(生産水準)을 향상(向上)하기 위(爲)해서는 가계지출수준(家計支出水準)에 대(對)하여 제약조건(制約條件)으로 작용(作用)하는 가계(家計)의 소득(所得)흐름을 증대(增大)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重要)하다. 가계(家計)의 소득(所得)흐름을 증대(增大)시키는 것은 곧 그것의 원천(源泉)인 인적(人的) 자본(資本)과 물질(物的) 자본(資本)을 축적(蓄積)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一般的)으로 가계(家計)의 생활설계(生活設計)를 논(論)할 때에는 소득(所得)의 흐름을 일정(一定)하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제약조건하(制約條件下)에서 가계지출(家計支出)의 합리화(合理化)에만 치중(注重)하는 경향(傾向)이 지배적(支配的)이다. 이것은 일생주기(一生週期)의 어느 한 단계(段階)나 어느 한 기간(期間)에서의 생활설계(生活設計)를 다룰 때는 타당(妥當)한 접근방법(接近方法)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구주(家口主)의 일생(一生)에 걸친 장기(長期) 생활설계(生活設計)를 다룰 때에는 소득(所得)의 흐름을 보다 근본적(根本的)으로는 인적 자본(人的資本)과 물질자본(物的資本)의 증대방안(增大方案)을 거론(學論)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한 가구주(家口主)가 청년기(青年期)에 가구(家口)를 형성(形成)한 시점(時點)부터 사망(死亡)에 이르기까지 소득(所得)흐름과 소비지출(消費支出) 흐름을 보인다.



소비지출(消費支出)흐름은 일생(一生)에 대체로 동일(同一)한 수준(水準) (불변소비지출(不變消費支出)을 유지(維持)하는 것과 가변소비지출(可變消費支出)을 유지(維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소득(所得)의 흐름은 대체로 청년기(青年期)(위관급(尉官級))로부터 점차 진급(進級) 등(等)으로 인(因)해 증대(增大)하여 장년기(壯年期)에 절정(絶頂)에 이르렀다가 퇴직(退職)과 더불어 반감(半減)하게 된다. 따라서 장년기(壯年期) 초(初)의 저축(貯蓄)으로 청년기(青年期)의 부채(負債)를 상환해야 하며 후기(後期)의 저축(貯蓄)으로는 노년기(老年期)의 생활(生活) 수단(手段)으로 지출(支出)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임관후(任官後) 5개년(個年)까지 청년기(青年期)에는 결혼(結婚)이다, 가구(家具)장만이다 등(等) 재산형성(財産形成)에 급급한 나머지 부채(負債)로 생활(生活)한다고 보고 그 후 장년기(壯年期) 전반(前半) 5개년간(個年間)은 청년기(青年期)의 부채생활(負債生活)과는 달리 저축(貯蓄)이 가능(可能)한 것이다. 그 후 10개년간(間)은 가변소비지출(可變消費支出)도 증가(增加)하나 저축여력(貯蓄餘力)이 있어 일생주기(一生週期)에 걸친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의 요제(要諦)이다.

사람이 출생(出生)한 시점(時點)으로부터 양육(養育), 교육(教育), 훈련(訓練) 등(等)을 통(通)하여 꾸준히 인적자본(人的資本)을 쌓아 청년기(青年期)에 이르러 임관(任官),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 결혼(結婚)을 통(通)하여 가구(家口)를 형성(形成)하게 됨을 나타낼 수 있고 인적자본(人的資本)으로 발생(發生)하는 근로소득(勤勞所得)을 모두 소비(消費) 지출(支出)하지 않고 저축(貯蓄)의 지혜(知慧)를 발휘(發揮)하여 물적(物的) 자본(資本)을 축적(蓄積)해 나아가며 퇴직

시(退職時)까지 쌓아 올린 물적자본(物的資本)을 근거(根據)로 해서 노후생활(老後生活)을 유지(維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물적자본(物的資本)도 근본적(根本的)으로는 인적자본(人的資本)으로부터 유래(由來)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가계(家計)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을 제고(提高)하기 위(爲)해서는 소비(消費) 및 저축행위(貯蓄行爲)를 합리적(合理的)으로 운영(運營)하여야 함은 물론(勿論), 보다 근본적(根源的)으로는 인간(人間) 자본(資本)을 증대(增大)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제 임관(任官)과 결혼(結婚)으로 한 독립(獨立)된 가구(家口)를 형성(形成)한 다음 가구주(家口主)가 다시 정규학교(正規學校) 교육(教育)을 이수(履修)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OJT, SOC, CSC 기타(其他) 제반(諸般) 보수교육(補修教育) 등(等)을 통(通)하여 인적자본(人的資本)을 청년기(青年期)에 이루어진 일정(一定)한 수준(水準)에 머물도록 하지 말고 가능(可能)하면 퇴직시(退職時)까지 부단(不斷)한 연마(研磨)를 통(通)하여 인적자본(人的資本)이 계속(繼續) 자랄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는 것이 현대사회(現代社會)에서 경쟁(競爭)에 이기고 가계(家計)살림을 안정화(安定化) 또는 향상(向上)시키는 길이다. 어제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이 오늘에 노후화(老朽化)될 만큼 급변(急變)하는 사회(社會) 속에서 계속적(的)인 노력(努力)으로 인간자본(人間資本)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간자본(人間資本)의 가치(價値)가 잠식되어지고 심지어는 뜻밖의 실직상태(失職狀態)를 맞이하게 될 공산(公算)이 크며 이때 대응책이 막연한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급변(急變)하는 사회(社會)에서는 인간자본(人間資本)의 부단(不斷)한 축적세력(蓄積勢力)이 없이는 현상유지(現狀維持)조차 어렵다 하겠다. 실사 현상유지(現狀維持)가 목표(目標)라고 하더라도 축적노력(蓄積努力)이 있어야 한다.

인간자본(人間資本)의 증대(增大)를 위(爲)하여는 역시 목표관리(目標管理) 기법(技法)에 따라 목표설정(目標設定), 행동계획(行動計劃), 자기통제(自己統制), 주기적(週期的)검토(檢討)의 순서(順序)로 반복(反復)하여야 소망(所望)스럽다.

인간자본(人間資本)이 가계생활설계(家計生活設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重要性)에 비추어 자녀(子女)의 교육(教育)에 대(對)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관심도(關心度)(「논팔아 굶더라도 자식(子息) 공부(工夫)는 시킨다」는 공군장병(空軍將兵)들도 예외(例外)는 아니라고 본다.

V. 결론(結言)

한 경제사회(經濟社會)의 일익(一翼)인 공군(空軍)에 있어서도 소비(消費) 및 저축행위(貯蓄行爲)에 관(關)한 가장 기본적(基本的) 의사결정(意思決定) 단위(單位)는 가계(家計)인데 이 의사결정(意思決定)을 개인금융이론(個人金融理論)에다 목표관리기법(目標管理技法)을 도입(導入) 풀

이하면서 장병(將兵)들의 일생주기(一生週期)에 여전(如前)히 가계수입(家計收入) 및 지출설계(支出設計)를 소망스럽게 할 것이냐를 풀이해 본 결과 역시 저축(貯蓄)할 수 있을 때는 서슴치 말고 저축(貯蓄)할 것이며 인간자본(人間資本) 형성(形成)에 역점(力點)을 두고 장기(長期) 생활설계(生活設計)를 세워 은행저축(銀行貯蓄)에 전념(專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參考文)〉

1. 한국인(韓國人)의 장기생활설계(長期生活設計) 연구(研究), 김병주(金秉柱) 박사(博士) 저(著), 1980.
2. 저축(貯蓄) 어느 것이 유리(有利)한가. 동아일보(東亞日報), 1981. 11. 25.
3. Mittra Sid 저(著) "Life-Time Management of Objectives". New York Harper & Raw 1977.



반공교육(反共教育)

레닌주의(主義) 비판(批判)



소령 서 홍 교(徐弘敎)

서론(序論)

오늘날 세계(世界)가 양대진영(兩大陣營)으로 분열(分裂)됨으로써 공산주의(共產主義)가 세계인구(世界人口)의 3분의 1을 점유(占有)하게 된 것은 바로 1971년(年) 10월(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에 의(依)한 공산주의(共產主義) 혁명(革命)이 성공(成功)한 후였다 1).

원래(原來) 마르크스의 이론(理論)에 의하면 독일(獨逸)이나 영국(英國) 불란서(佛蘭西) 등(等) 서(西)유럽의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豫測)했으나 오히려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공업생산체제(工業生産體制)가 가장 후진적(後進的)인 수준(水準)에 머물렀던 러시아에서 공산혁명(共產革命)이 요구(要求)되었는데, 이는 마르크스 주의(主義)를 신봉(信奉)하면서 당시(當時) 러시아 현실(現實)에 알맞게 혁명 이론(革命理論)을 실제(實際)로 적용(適用)하고 실천(實踐)해 온 혁명지도자(革命指導者)인 레닌(Vladimir I. Lenin, 1870~1924)이 그 장본인인 것이다2).

가. 레닌주의(主義)의 정의(定義)와 내용(內容)

이와 같이 레닌은 마르크스 주의(主義)에 입각(立脚)한 획기적(劃期的) 변화(變化)와 적응(適應)을 러시아 땅에 부식시킴으로써 오늘날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 흔히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3).

따라서 레닌주의(主義)는 마르크스 주의(主義)와 밀착(密着)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로서, 스탈린 독재(獨裁) 이후(以後)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추종(追從)하는 모든 세력(勢力)에게 교과서적(教科書的) 역할(役割)을 하기 시작(始作)했다.

오늘날 레닌주의(主義)의 정의(定義)는 스탈린에 의한 것으로, 「레닌주의(主義)는 제국주의(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시대(革命時代)의 마르크스 주의(主義)이다. 더 정확(正確)하게 말하면 레닌주의(主義)는 일반적(一般的)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의 이론(理論)과 전술(戰術)

이며, 특(特)히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의 이론(理論)과 전술(戰術)이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4).

스탈린은 그의 저서(著書) 「레닌주의(主義)의 제문제(諸問題)」에서 언급(言及)한 주요(主要) 내용(內容)을 ① 제국주의(帝國主義)에 관(關)한 문제(問題),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에 관(關)한 문제(問題) ③ 당(黨)의 역할(役割)에 관(關)한 문제(問題), ④ 노농동맹(勞農同盟) 문제(問題), ⑤ 민족(民族)과 식민지(植民地) 문제(問題) 등으로 구분(區分)하였다.

아울러 레닌주의(主義)는 볼셰비즘(Bolshevism)이며, 당(黨)은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 내지 독재(獨裁)의 이론(理論)과 전술(戰術)로서 마르크스 주의(主義)를 러시아에 적응(適應)시킨 이론(理論)이며, 마르크스 주의(主義)를 정권장악(政權掌握)의 수단(手段)으로 적용(適用)하고 있는 것이다5).

한편 레닌주의(主義) 특징(特徵)에 대(對)한 살바도리(Massimo Salvadori) 교수(教授)의 해석(解釋)을 보면, ①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 ② 전위당(前衛黨)과 직업혁명가론(職業革命家論), ③ 제국(帝國) 주의론(主義論), ④ 노농동맹론(勞農同盟論), ⑤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론(階級獨裁論)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6).

이처럼 레닌주의(主義)의 특징(特徵)은 그의 독특(獨特)한 혁명수단(革命手段)에 있으며 레닌을 위시한 마르크스 주의자(主義者)들의 실현(實現)을 위해 제1단계(第一段階)는 지배계급(支配階級)을 타도(打倒)하기 위한 폭력혁명(暴力革命)을 제창(提唱)하고, 폭력혁명(暴力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가 장악(掌握)한 국가권력(國家權力)을 수호(守護)하고 반대(反對) 계급(階級)을 소멸(消滅)하기 위한 소위(所謂)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를 실시(實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卽),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社會)의 즉각적(即刻的)이고, 진보적(進步的)인 전복(顛覆)을 위해 폭력(暴力), 무력(武力)에 의한 수단(手段)의 사용(使用)을 제창(提唱)한 것이 또한 레닌주의(主義)의 핵심(核心)이 될 수 있다.

나. 레닌의 러시아 혁명(革命) 적용(適用)

20세기(世紀)에 들어서기까지 러시아는 아직도 후진국가(後進國家)였고, 근대산업(近代產業)의 발달(發達)은 초보적(初步的) 단계(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國民)의 대다수(大多數)가 문맹(文盲)의 농민(農民)들로서 전통적(傳統的)인 생산방식(生産方式)을 답습(踏襲)하고 있는 형편(形便)이었다. 그 동안 짜이르 체제(體制)의 전통적(傳統的) 보수성(保守性) 때문에 당시(當時) 혁신주의적(革新主義的) 지식층(知識層)은 러시아의 후진성(後進性)에 대(對)한 불만(不滿)이 점차(漸次) 고조(高潮)되어 갔으며, 1905년(年) 노일전쟁(露日戰爭)에서 러시아가 근대화(近代化)가 된 일본제국(日本帝國)에게 패(敗)하게 되자 이들의 불만(不滿)은 극도(極度)로 악화(惡化)되었다. 특(特)히 서구(西歐)의 발전상(發展相)에 눈을 돌리고 거기서 자신(自身)의 후진성(後進性)을 극복(克服)하고 하나의 돌파구(突破口)를 찾아 보려고 했다.

당시(當時) 마르크스 이론(理論)이 새로운 급진사상(急進思想)의 형태(形態)로 유럽에 등장

(登場)하게 되자 많은 러시아인(人)들은 이를 자기(自己)들의 문제(問題)에 대(對)한 해결책(解決策)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마르크스의 혁명사상(革命思想)이 러시아인(人)들을 완전(完全)히 만족(滿足)시켜 주지 못하였고 마르크스가 제시(提示)한 약속(約束)은 모두가 근대공업사회(近代工業社會)의 후기단계(後期段階), 즉(卽) 성숙단계(成熟段階)에 도달(到達)한 공업사회(工業社會)에서 실현(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卽)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體制)가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하여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階級)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계급(勞動者階級)이 급성장(急成長)하여 자본계급(資本階級)을 숫자적으로 완전(完全)히 압도(壓倒)할 수 있을 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발생(發生)한다고 주장(主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러한 이론(理論)은 아직도 초기(初期)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단계(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에서는 하나도 적용(適用)되지 않았고, 농민(農民)과 지주(地主)의 국가(國家)였던 러시아는 소수(少數)의 공장(工場) 노동자(勞動者)로만 존재(存在)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들보다 적은 자본가(資本家)로만 하나의 계급(階級)을 형성(形成)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實情)이었다.

따라서 변증법적(辯證法的)인 원칙(原則)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相當)한 기간(期間)에 걸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성장(成長)이 필요(必要)할 것이라는 논리(論理)가 생긴다. 이러한 논리(論理)가 마르크스 이론(理論)과 실제적(實際的) 러시아의 적용(適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아직 약세(弱勢)한데다 그에 맞선 자본계급(資本階級)도 한층 더 허약(虛弱)한 존재(存在)였고, 무능(無能)한 제정(帝政) 러시아의 짜아르 체제(體制)는 그 지지기반(支持基盤)을 거의 상실(喪失)함으로써 바야흐로 혁명적(革命的) 기운(氣運)이 감돌았고, 바로 이러한 상황(狀況)에서 정치적(政治的) 수완(手腕)과 감각(感覺)이 기민(機敏)한 레닌이 러시아의 상황(狀況)을 감지(感知)하고 소수(少數)의 혁명조직(革命組織)을 마르크스 주의(主義)로 무장(武裝)시켜 혁명(革命)을 수행(遂行)할 준비(準備)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절(適切)한 기회(機會)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豫想)하고 짜아르 정부(政府)에 대한 붕괴활동(崩壞活動)의 수법(手法)으로 그의 독특(獨特)한 당이론(黨理論)을 전개(展開)함으로써 그는 정통(正統) 마르크스 이론(理論)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의 촉발(觸發)을 합리화(合理化)시킬 수 있는 이론(理論)을 제기(提起)하게 된 것이다7).

레닌의 제(諸) 이론(理論)

가. 독점자본(獨占資本)으로서 제국주의(帝國主義)

1916년(年) 제국주의론(帝國主義論)은 1916년(年) 레닌의 저서(著書) 중 영향력이 큰 책으로

써 헵슨(Hobson)의 「제국주의론(帝國主義論)(1902)」과 힐퍼딩(Hufferdin)의 「금융자본론(金融資本論)(1910)」에 근거(根據)를 두고 저술(著述)했다8). 레닌은 생산혁명(生産革命)이 자본주의(資本主義)가 발달(發達)되지 않은 후진국(後進國)인 러시아에서 오히려 용이(容易)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帝國主義) 이론(理論)으로 합당화(合當化)시켜 놓았다.

서구(西歐)의 고도(高度)로 발달(發達)된 공업국가(工業國家)들은 제(第)1차대전(次大戰)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식민지(植民地) 획득경쟁(獲得競爭)을 벌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을 레닌은 마르크스 주의적(主義的) 용어(用語)로 분석(分析)하여 자본주의(資本主義) 부패(腐敗)의 전형적(典型的) 증상이라고 했다.

제국주의(帝國主義)는 1915년(年) 레닌이 「사회주의(社會主義)와 전쟁(戰爭)」에서 20세기에 비로소 도달(到達)한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최고(最高)의 발전단계(發展段階)9)로서, 기본적인(基本的) 특징(特徵)은 ① 자본(資本)의 독점(獨占) ②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부패(腐敗) ③ 불균형적(不均衡的) 발전(發展) ④ 제국주의(帝國主義) 산물(產物)로서 전쟁(戰爭) 등을 들 수 있다.

즉(卽) 선진(先進) 공업국가(工業國家)들의 계속적인 증대일로(增大一路)에 있는 생산제품(生産製品)을 국내시장(國內市場)에서 소화시킬 수 없게 되자 해외(海外)로 눈을 돌려 식민지(植民地) 시장(市場)을 개척(開拓)하므로 그들의 돌파구를 찾았었다.

여기서 서구(西歐) 자본가(資本家)들은 막대한 식민지(植民地) 노동(勞動)의 잉여가치(剩餘價值)를 착취(搾取)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國內)의 노동력(勞動力)을 완전(完全)히 착취(搾取)하지 않아도 이윤(利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예언(豫言)과는 달리 자본가(資本家)들을 구태여 국내(國內) 노동자(勞動者)들의 임금(賃金)을 최저수준(最低水準)에 묶어두지 않고도 자신의 팽창이 가능(可能)했던 것이다. 이른바 빈곤(貧困)의 해외수출(海外輸出)이며, 이렇게 하여 자본가(資本家)들은 서구(西歐)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비교적(比較的) 잘 살게 할 수 있었고, 선진(先進) 공업국가(工業國家)에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階級) 의식(意識)이 제대로 대두(擡頭)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해외(海外) 식민지(植民地)를 계속 획득(獲得)하여 제국주의(帝國主義)가 팽창(膨脹)할 수 있는 영역(領域)은 무한정(無限定) 존재(存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닌에 의하면 각(各) 식민제국(植民帝國)들이 제한(制限)된 식민지(植民地) 시장(市場)을 놓고 결사적(決死的)인 각축(角逐)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제국주의전쟁(帝國主義戰爭)의 형태(形態)로 나타나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發展)의 최후단계(最後段階)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0).

제(第)1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의 발발(勃發)은 자본주의(資本主義)가 결국(結局) 이러한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하였으며 고도(高度)로 성숙(成熟)한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體制)가 완전(完全)히 해체(解體)될 시기(時期)가 왔음을 입증(立證)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레닌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붕괴(崩壞)가 공업국가(工業國家)의 중심부(中心部)에서 시작(始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資本主義) 세계(世界)를 둘러싼 식민지역(植民地域)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했다. 더구나 대부분(大部分)의 식민지역(植民地域)은 그 경제적(經濟的) 낙후성(落後性)으로 말미암아 세계(世界)의 어느 프롤레타리아트보다도 오랫동안 극심한 착취(搾取)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식민지역(植民地域)은 어느 곳보다도 혁명(革命)이 발생(發生)하기 쉬운 지역(地域)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美國), 프랑스 등 서구공업국가(西歐工業國家)의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體制)는 일정(一定)한 발전단계(發展段階)를 넘어서서 러시아, 아프리카 등 후진지역(後進地域)에 진출(進出)하여 식민지(植民地)를 개발(開發)하고, 그 곳에서 원료(原料)를 획득(獲得), 본국(本國)에서 공업제품화(工業製品化)한 다음, 다시 그것을 식민지(植民地)에 판매하는 소위 제국주의(帝國主義)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의 주장(主張)에 의하면 이 단계(段階)에 자본주의(資本主義)는 그 병폐(病弊)와 모순(矛盾)을 식민지(植民地)에 전가함으로써 본국(本國)에서의 자본가(資本家)와 노동자(勞動者) 사이의 관계(關係)는 심한 수탈관계(收奪關係)를 벗어나게 되며, 자본가(資本家)는 노동자(勞動者)의 복리(福利)를 위해 배려를 해 줄 여유가 생기는 까닭에 노동자(勞動者)는 굳이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와 같은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아직 제국주의(帝國主義)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하지 못한 후진적(後進的)인 초기(初期)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에서 가능(可能)하다는 역설적(逆說的) 설명(說明)에서 레닌과 마르크스의 견해차이(見解差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약(虛弱)한 짜아르 체제(體制)에 도전(挑戰)하여 혁명(革命)을 성공(成功)시킴으로써 이를 세계적(世界的) 혁명(革命)의 시발점(始發點)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레닌의 주장(主張)이다.

이것은 레닌이 그의 조국(祖國) 러시아에 직업적(職業的) 혁명가(革命家) 정당(政黨)을 수립하여 정권(政權)을 탈취(奪取)하겠다는 야심(野心)을 합리화(合理化)시키기 위한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 공산당(共產黨)의 역할(役割)

레닌은 앞서 제국주의(帝國主義) 이론(理論)에서 후진지역(後進地域)인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촉발(觸發)될 수 있다는 논리(論理)를 제시(提示)하면서 한편으로 다가올 혁명(革命)을 근본적(根本的)으로, 이른바 혁명적(革命的) 노동계급(勞動階級)의 전위조직(前衛組織)으로서 당(黨)에 의한 실천(實踐)을 강조(強調)했다¹¹⁾.

여기서 당(黨)은 일반(一般) 노동자(勞動者)나 마르크스 사상(思想)의 동조자(同調者)들로 구성(構成)되는 광범위(廣範圍)한 조직(組織)이 아니라 마르크스 주의(主義)에 투철(透徹)하고 혁명(革命)을 위해서 무조건(無條件) 공헌(貢獻)할 수 있는 한정(限定)된 정예분자(精銳分子)로서 고도(高度)로 집권화(集權化)된 조직(組織)이어야 하며, 그들의 활동(活動)은 엄격한 규율(規律) 아래 비밀적(秘密的)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다.

당시(當時) 프롤레타리아트가 많지 않고 또 어떤 형태(形態)의 정치적(政治的) 결사(決死)가 허용(許容)되지 않는 러시아 사회(社會)에서 대중정당(大衆政黨)의 결성(結成)이 불가능(不可能)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레닌의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정당(政黨)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西歐)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정당(政黨)과는 전혀 다른 독특(獨特)한 정치조직형태(政治組織形態)로서 공산당(共產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산혁명(共產革命)의 목표(目標)를 효과적(效果的)으로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전위당(前衛黨) 이론(理論)이 대두(擡頭)되었다.

이는 레닌의 초기저작(初期著作)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1902년)에서 혁명정당(革命政黨)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條件)을 제시(提示)했는데 12) 즉 당(黨)의 크기가 문제(問題)가 아니고 공산당(共產黨)은 앞으로 잡다(雜多)한 요소(要素)들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철저(徹底)하게 엄선(嚴選)된 당원(黨員)들로만 이루어지는 정당(政黨)을 주장(主張)하면서 직업적(職業的)인 혁명가(革命家)들로만 뭉쳐진 공산당(共產黨)에 절대적(絶對的) 충성(忠誠)을 바쳐야 할 것 이며, 잘 훈련(訓練)된 군대(軍隊)와 마찬가지로 상부(上部)의 명령(命令)에 무조건(無條件) 복종(服從)할 태세(態勢)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完全)하고 엄격(嚴格)한 규율(規律)의 정예분자(精銳分子)들이 대중적(大衆的) 여러 조직체(組織體)에 침투(浸透)하여 그 조직체(組織體)의 리더십을 장악(掌握)하게 되고 이렇게 그들의 수중(手中)에 들어간 조직체(組織體)들은 당(黨)의 목표(目標)를 전달(傳達)해 주는 통로(通路), 즉 전동대(傳動帶) (Transmission Belt)로 이용(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이 창안(創案)한 이 조직적(組織的)인 당(黨)은 일반적(一般的)인 당(黨)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투조직(戰鬪組織)으로 고안(考案)된 것이며, 사상적(思想的), 군사적(軍事的)인 군대(軍隊)이며, 테러로부터 화술(話術)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수단(手段)을 사용(使用)하여 파괴함으로써 권력(權力)을 탈취(奪取)함을 목적(目的)으로 착안(着案)한 것이다. 여기에서 당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으로 조직된 당(黨)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중(階級中)에서 전투적(戰鬪的)이고 혁명적(革命的)인 정예(精銳)로서 조직(組織)된 프롤레타리아 전위대(前衛隊) 또는 혁명(革命)의 전위대(前衛隊)이며 프롤레타리아의 여러 조직(組織) 가운데 최고(最高)의 계급조직(階級組織)이라는 것이다.

원래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류(人類) 자체(自體)를 해방(解放)하는 유일(唯一)하고 진정한 혁명계급(革命階級)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닌은 모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적(的) 계급조직(階級組織)으로 무장(武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본질적(本質的)으로 현재(現在)의 일시적(一時的) 이익(利益)에 사로잡힌 노예(奴隸)로 되어 있으며, 당(黨)에 의해 함께 이끌려가지 않으면 브르조아 사상(思想)에 의존(依存)하는 경향(傾向)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혁명적(革命的) 조직분자(組織分子)인 당원(黨員)이 진정으로 혁명이론(革命理論)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정체(正體)가 한결같이 계급의식(階級意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고 프롤레타리아는 계급의식(階級意識)이 빈약(貧弱)한 노동조합(勞動組合)과 같은 대중조직(大衆組織)과 마르크스 적(的) 계급의식(階級意識)이 투철(透徹)한 소수정예(少數精銳)의 직업적(職業的) 혁명가(革命家)로 구분(區分)하여 후자(後者)에 의해 구성된 전위당(前衛黨)이야말로 혁명(革命)을 주도(主導)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위당(前

衛黨)에는 견고(堅固)한 조직성(組織性)과 지도성(指導性)이 필요(必要)하다. 이어 레닌은 노동 조합(勞動組合) 등 대중(大衆) 조직(組織)과 소수정예(少數精銳)의 혁명적(革命的) 조직(組織)이 서로 구분(區分)되어야 하는 논리(論理)를 제시(提示)한 것이다.

한편 혁명가당(革命家黨) 조직(組織)은 전생애(全生涯)를 혁명(革命)에 바칠 수 있는 직업적(職業的) 혁명가(革命家)로서 구성(構成)되고 강철(鋼鐵)같은 단결(團結)과 규율(規律)이 필요(必要)하며 위로부터 아래로 엄격(嚴格)한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를 이루어 군대(軍隊)처럼 조직(組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공산당(共產黨)의 특징(特徵)은 ① 프롤레타리아트의 핵심적(核心的) 전위부대(前衛部隊)로서 역할(役害), ② 당(黨)에서 결정(決定)된 사항(事項)은 철(鐵)의 규율(規律)로서 관철(貫徹)시키는 조직(組織) 원칙(原則), ③ 프롤레타리아 계급조직(階級組織)의 최고(最高) 형태(形態)로서 공산당(共產黨), ④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를 수행(遂行)하기 위한 정치(政治) 도구(道具), ⑤ 분파(分派)를 허락(許諾)하지 않고 단일의사(單一意思)의 통일체(統一體), 그러나 공산당(共產黨)은 당내(黨內)의 숙청(肅清)을 통하여 분파활동(分派活動)을 배제하고 종파분자(宗派分子)의 과도(過度)한 제지(制止)로 오로지 당에 충성(忠誠)하고, 충직(忠直)한 결성(結成)을 통(通)하여 당(黨)을 견고(堅固)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共產黨)은 이론성(理論性)이나 실재성(實際性)으로나 일당(一黨) 독재(獨裁)이며, 자유(自由)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정당(政黨)과는 전연(全然) 다른 종류(種類)의 형태(形態)인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共產黨)은 전투적(戰鬪的) 집단(集團)으로서의 명확(明確)한 역사(歷史)의 진로(進路)를 따라서 활동(活動)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레닌주의(主義)에 있어서 이러한 당(黨)의 개념(概念)안에는 정의(正義)의 이상(理想), 인도적(人道的) 목적(目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義務)의 관념(觀念)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산당(共產黨)에 있어서 혁명(革命)은 직업(職業)이며, 역사(歷史)의 집행자(執行者)로서 정당화(正當化)된다.

다.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

마르크스 주의(主義)는 국가(國家)를 지배계급(支配階級)의 억압(抑壓)과 착취기관(搾取機關)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혁명(革命)을 통(通)하여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전복(顛覆)하고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실현(實現)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본래(本來) 혁명(革命)은 18세기 이후(以後) 서구(西歐)에서 봉건적(封建的) 전제권력(專制權力)의 타도(打倒)를 목적(目的)으로 일어난 혁명(革命)을 마르크스 주의(主義)는 브르조아 혁명(革命)이라 하며, 브르조아의 소시민(小市民)들이 참가(參加)하지만, 혁명(革命) 후(後)에 사회(社會)의 결정적(決定的) 세력(勢力)으로 브르조아지가 등장(登場)하므로 브르조아 혁명(革命)이라 부르고 있다.

특(特)히, 브르조아 혁명(革命)은 정치혁명(政治革命)으로 끝나기 때문에 경제적(經濟的)인 평등(平等)은 실현(實現)되지 않기에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소유(所有)를 폐지(廢止)하고 사회주의

(社會主義)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主張)이다.

그리고 브르조아지를 타도(打倒)하고 사회주의(社會主義)를 가져오기 위한 개혁(改革)의 주력(主力)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주의(主義)는 이러한 혁명(革命)을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이라고 하고 있다.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실현(實現)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정치권력(政治權力)을 잡아야 하며 정치권력(政治權力)을 잡기 위해서는 평화적(平和的) 수단(手段)으로 의회(議會)를 합법적(合法的) 방법(方法)과 비합법적(非合法的)인 수단(手段)에 의한 폭력투쟁방법(暴力鬭爭方法)으로 정권(政權)을 획득(獲得)한 방법(方法)이다. 마르크스 주의(主義) 폭력혁명(暴力革命)에 대(對)해 레닌은 「국가(國家)와 혁명(革命)」(State and Revolution, 1917)에서 「피압박계급(被壓迫階級)의 해방(解放)은 폭력혁명(暴力革命) 없이는 불가능(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支配階級)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國家) 권력기관(權力機關)을 파괴(破壞)하지 않고서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했다.

즉 국가(國家)를 계급적(階級的) 대립(對立)의 산물(產物)이므로 이로 인(因)하여 노예화(奴隸化)된 계급(階級)의 해방(解放)은 반드시 폭력혁명(暴力革命)이어야 한다는 것과 자본주의(資本主義), 제국주의(帝國主義) 시대(時代)에는 지배계급(支配階級)에 의한 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강화(強化)되므로 당연(當然)히 폭력혁명(暴力革命)의 방법(方法)을 취(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는 지금까지의 일체의 사회(社會) 질서를 폭력적(暴力的)인 전복(顛覆)에 의해서만 그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고 선언(宣言)하고 지배계급(支配階級)을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革命) 앞에 전율케 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에 있어 노동자(勞動者)들은 「쇠사를 외에는 잃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얻는 것은 전세계(全世界)다」고 공산당(共產黨) 선언(宣言)에서 기술(記述)하고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들은 폭력(暴力)을 숭배(崇拜)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 혁명(革命)의 소형태(小形態)로서 테러 전술(戰術)을 적용(適用)하는 것은 물론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한 후(後)에도 계속적(繼續的)으로 폭력(暴力)을 사용(使用)해 왔다.

마르크스 이론(理論)에 의(依)하면 자본주의(資本主義)의 경제적(經濟的) 성숙(成熟)은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이라고 제시(提示)했으나, 레닌은 이것을 수정(修正)하여 「오늘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시대(時代)에 있어서 혁명(革命)의 객관적(客觀的) 조건(條件)은 일국(一國)의 경제적(經濟的) 성숙(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계급(階級) 여하에 달렸으며 혁명(革命)을 수행(遂行)할 주체적(主體的) 역량(力量)의 성숙(成熟)이 주(主)가 된다.

따라서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쇠사슬이 가장 강(強)한 고리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가능(可能)하다」고 피력(披瀝)했다. 약(弱)한 고리란, 「억압(抑壓)과 복종(服從), 지배(支配)와 예속(隸屬)의 관계(關係)가 극심하고 지배자(支配者)와 피지배자(被支配者)의 대립(對立)과 증오(憎惡)의 감정(感情)이 노골화(露骨化)되고 소수나마 프롤레타리아를 지도(指導)할 우수(優秀)한 전위(前衛), 즉 공산당(共產黨)이 존재(存在)하는 사회(社會)」라고 했다.

따라서, 후진국(後進國)에서는 혁명(革命)을 앞질러 수행(遂行)하지 않으면 안 되며 미발달(未發達)된 단계(段階)에서 자본주의(資本主義) 최종(最終) 단계(段階)로 비약(飛躍)함으로써 사회주의(社會主義) 단계(段階)를 달성(達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의 이와 같은 혁명관(革命觀)은 러시아 혁명(革命)에서는 설명(說明)이 가능(可能)할지 모르나 오늘날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에서는 혁명(革命)이 부진(不進)한 데에 대(對)해 레닌은 설명(說明)할 수 없었다

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獨裁論)

폭력혁명(暴力革命)으로서 브르조아지의 계급지배(階級支配)를 타도(打倒)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기(自己)들의 계급지배(階級支配)를 이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주의(主義) 국가이론(國家理論)에 의하면, 사회(社會)에서 계급적(階級的) 대립(對立)이 극복(克服)되면 계급적(階級的) 억압기구(抑壓機構)로서 국가(國家)는 당연(當然)히 소멸(消滅)된다. 그러나 국가(國家)의 소멸(消滅)이 자본주의(資本主義)가 폐기(廢棄)됨으로써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르조아 계급(階級)이 권력(權力)을 잃고 재산(財産)을 빼앗기는 했어도 다시 회복(回復)할 기회(機會)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반항(反抗)이 완전(完全)히 없어질 때까지 계급적(階級的) 억압기구(抑壓機構)로서 통치기구(統治機構)가 존속(存續)되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資本主義)로부터 사회주의(社會主義)으로 이행(履行)하는 과도기(過渡期)에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가 불가피(不可避)하다고 했으며, 이때 계급투쟁(階級鬭爭)은 더욱 첨예화(尖銳化)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革命的) 독재(獨裁)는 브르조아지에 대 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暴力)으로서 탈취되고 유지(維持)되는 권력(權力)이며, 아무런 법률(法律)에도 구속되지 않는 권력(權力)이라고 했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권장악(政權掌握)은 혁명(革命)의 출발(出發)이며 종결(終結)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르조아지는 권력(權力)에서 추방(追放)되었다고 해서 곧 경제적(經濟的)으로 몰락(沒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期間)에 걸쳐서 강력(強力)한 경제력(經濟力)을 지능(持續)하면서 구제도(舊制度)의 분할(分割)을 기도(企圖)하여 프롤레타리아에 대(對)한 반항(反抗)을 격화(激化)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는 권력(權力)을 강화(強化)하여 타도(打倒)된 착취계급(搾取階級)과 반항(反抗)을 억압(抑壓)하면서, 그 권력(權力)을 지렛대로 삼아 착취계급(搾取階級)을 경제적(經濟的)으로 수탈(收奪)하여 이 계급(階級)을 소멸(消滅)시킴으로써 인간(人間)에 의(依)한 인간(人間)의 착취(搾取)를 근절(根絶)시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첫 단계(段階)인 사회주의(社會主義)를 건설(建設)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인 것이다.

이상(以上)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란 자본주의(資本主義)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의 과도기(過渡期)에 있어 유일(唯一)한 지배형태(支配形態)이며, 여기에서 기존(既存)의 국가기관(國家機關) 대신 대중(大衆)을 널리 포섭(包攝)하고 창의력(創意力)을 반영(反映)하여 소비에트 제

도(制度)를 채택(採擇)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레닌이 실천(實踐)한 혁명(革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가 아니라 공산당(共產黨)의 일당독재(一黨獨裁)가 되어 버렸다.

소련(蘇聯)의 당규약(黨規約)에 의(依)하면 당(黨)은 「사회조직(社會組織), 정치조직(政治組織)의 최고(最高) 형태(形態)이며 소비에트 사회(社會)의 지도적(指導的) 핵심(核心)이다」고 규정(規定)되어 있다¹³⁾.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공업(工業), 노동자(勞動者)의 모든 계급(階級)을 타도(打倒)하는 독재(獨裁)가 아니라, 소수(少數)의 볼셰비키 당(黨)의 독재(獨裁)에 불과(不過)하며, 실제(實際), 레닌이나 스탈린의 일인독재(一人獨裁)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點)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결국(結局) 공산당(共產黨)의 일당(一黨) 독재(獨裁)로 귀착(歸着)하는데 불과(不過)한 것이다.

마. 레닌의 전략전술(戰略戰術)

공산주의(共產主義) 전략전술(戰略戰術)은 「공산주의(共產主義) 혁명투쟁(革命鬭爭)의 지도(指導)에 관(關)한 과학(科學)이며 공산당(共產黨)의 행동법칙(行動法則)」이다. 따라서 모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행동(行動)은 공산주의(共產主義) 전략전술(戰略戰術)을 법칙(法則)으로 삼고, 주어진 조건(條件)에 능동적(能動的)으로 적응(適應)하여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속도(速度)로 하나의 목표(目標)로부터 다른 목표(目標)로 이동(移動)하는 것을 생명(生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전술(戰略戰術)은 레닌 이전(以前)에는 마르크스·엥겔스의 단편적(短篇的) 사상(思想)에 의(依)한 사회혁명(社會革命)을 추구(追求)하였으나 정권탈취(政權奪取)를 위한 공산당(共產黨)의 훈련(訓練), 독재방법(獨裁方法) 등에 대(對)해서 조직적(組織的)이고, 체계적(體系的)인 기도(企圖)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폭력혁명(暴力革命)에 관(關)한 공산당(共產黨)의 새로운 전략전술(戰略戰術)은 레닌에 이르러 등장(登場)하게 되었다. 스탈린에 의(依)하면, 레닌주의(主義)의 전략전술(戰略戰術)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階級鬭爭)을 지도(指導)하는데 관(關)한 과학(科學)」이다.¹⁴⁾

즉(卽), 마르크스-레닌주의자(主義者)들은 일정(一定)한 투쟁(鬭爭) 단계(段階)와 일정(一定)한 정세(情勢)의 과학적(科學的) 분석(分析)에 당(黨)이 만든 정치적(政治的) 방침(方針), 정치노선(政治路線)에 따라 투쟁(鬭爭)해야만 승리(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政治) 방침(方針) 내지 정치노선(政治路線)을 전략전술(戰略戰術)이라는 개념(概念)으로 사용(使用)한다.

스탈린(1879~1953)은 전략(戰略)이란 「그때 그때의 혁명단계(革命段階)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주(主)된 공격방향(攻擊方向)을 결정(決定)하고 여러 세력(勢力)의 집결(集結)을 비롯해서 그 적절(適切)한 배치계획(配置計劃)을 작성(作成)하며 작성(作成)된 계획(計劃)을 그 혁명단계(革命段階)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실현(實現)하기 위하여 투쟁(鬭爭)할 기본방침(基本方針)」이라고 정의(定義)했고 전술(戰術)은 일정(一定)한 혁명단계(革命段階)에 있어서 혁명운동(革命運動)의 만조(滿潮) 또는 간조혁명(干潮革命)의 양양(昂揚) 또는 쇠퇴(衰退) 등 비교적(比較的) 단기간(短期間)의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그 시대(時代)에 알맞는 프롤레타리아트 행동방침

(行動方針)을 결정(決定)하여 낡은 투쟁형태(鬭爭形態)와 조직(組織)은 새로운 형태(形態)로, 낡은 구호(口號)를 새 것으로 바꾸고, 그러한 여러 형태(形態)의 것을 결합(結合)시키는 등 전략상(戰略上)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하도록 행동방침(行動方針)을 수행(遂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전략전술(戰略戰術)은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를 타도(打倒)하기 위한 혁명(革命)의 방향(方向)과 원칙(原則)을 정립(定立)하고, 구체적(具體的)인 투쟁(鬭爭)의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결정(決定) 짓는 기술(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산주의(共產主義) 전략전술(戰略戰術)은 역사적(歷史的) 절차(節次)와 사회적(社會的) 환경(環境)의 변화(變化)에 따라 달라졌으며, 획일적(劃一的)으로 적용(適用)될 수 있는 공통적(共通的)이고 불변(不變)의 것이 아니라 항상(恒常) 신축성(伸縮性)과 적응성(適應性)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레닌의 혁명전략(革命戰略)과 전술(戰術)은 1917년(年) 러시아 혁명(革命)을 통(通)해 이루어졌고 주요내용(主要內容)은 ① 혁명(革命)의 시기(時機)에 대(對)하여, 마르크스는 생산력(生産力)과 생산관계(生産關係)를 모순(矛盾)으로 생산력(生産力)이 더 이상(以上) 발전(發展)할 여지(餘地)가 없을 때를 혁명(革命)의 시기(時機)로 보았지만 레닌은 생산력(生産力)의 발전정도(發展程度)에는 관계(關係)없이 전투적(戰鬪的) 혁명집단(革命集團)인 공산당(共產黨)이 조직(組織)되고 사회적(社會的) 혼란(混亂)이 극도(極度)에 달(達)하여 지배계급(支配階級)의 권력(權力)이 강화(強化)되었을 때를 호기(好機)로 포착해야 한다. ②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가능(可能)한 곳은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가 아니라 소위(所謂)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쇠사슬이 가장 강(強)한 후진국(後進國)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革命)은 겨우 성장단계(成長段階)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階級)이 인구(人口)의 대다수(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빈농(貧農)계급(階級)과의 동맹(同盟)에 의(依)해 수행(遂行)되는 것이다. ③ 폭력혁명(暴力革命)만이 탈권(奪權)의 유일(唯一)한 수단(手段)이라고 믿고 테러 활동(活動), 무장(武裝)테모, 무장단체(武裝團體)에의 침투(浸透)를 통(通)한 장악(掌握)에 온갖 권력(權力)을 경주(傾注)하였다. 卽 볼셰비키는 짜이르 군대(軍隊)에 침투(浸透)하여 죽음의 전선(戰線)에로의 출동(出動)에 불안(不安)을 품고 있는 장병(將兵)에게 염전사상(厭戰思想)과 반전사상(反戰思想)을 고취(鼓吹)하여 이들의 충부리를 국내(國內)로 돌리게 하는데 성공(成功)시키기도 했다. ④ 레닌은 혁명(革命)을 도시(都市)의 점령(占領)이 권력탈취(權力奪取)의 선결요건(先決要件)이며, 도시(都市)에서 쟁취(爭取)한 혁명(革命)을 점차 농촌(農村)으로 파급(波及)시키는 전략(戰略)을 전개(展開)하여 중국(中國) 공산당(共產黨)과 다른 전략(戰略)을 낳게 하므로 러시아와 중국(中共)의 혁명전략(革命戰略)이 상반(相反)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레닌의 전술원칙(戰術原則)으로서 융통성과 적응성(適應性)을 들 수 있으며, 테러 전술(戰術)은 결코 고정적(固定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환경(環境)에 맞도록 항상 변화(變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일보전진(一步前進)을 위해 이보후퇴(二步後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⁵⁾ (일보전진(一步前進), 이보후퇴(二步後退) 1904).

이처럼, 레닌은 적(敵)을 강화(強化)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부(內部)에 침투(浸透)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구(機構)의 민주적(民主的) 절차(節次)를 이용(利用)하면서, 이를 파괴(破壞)하고 분열(分裂)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強調)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립적(中立的) 집단(集團)이나 심지어 적(敵)과도 잠정적(暫定的) 연합(聯合)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전술(戰略戰術)이 변질(變質)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적화(世界赤化)를 위한 침략(侵略)의 수법(手法)으로 갖가지 형태(形態)가 제기(提起)되고 나아가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수법(手法)으로 널리 사용(使用)하고 있는 것이 다양(多樣)하고 신축성(伸縮性) 있는 전술(戰術)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직활동(組織活動)과 침투전술(浸透戰術), 연합전선전술(聯合戰線戰術)(인민전술(人民戰術), 통일전선(統一戰線), 테러 전술(戰術), 파업전술(罷業戰術), 무장폭동전술(武裝暴動戰術), 게릴라 전술(戰術), 선전선동(宣傳煽動)(심리전(心理戰)) 등이 시(時)·공간(空間)을 초월(超越)하여 적용(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전략(戰略)과 전술(戰術)은 오로지 공산혁명(共產革命)을 달성(達成)하기 위한 모략(謀略)과 기만(欺瞞)의 술책(術策)에 불과(不過)한 것이며,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흉계(凶計)와 음모(陰謀)는 어디에서든 활용(活用)되고 있음을 명백(明白)히 간파(看破)해야 하겠다.

바, 노동동맹(勞農同盟)

레닌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미발달(未發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세력(勢力)이 강(強)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의 승리(勝利)를 보장(保障)하기 위하여 노동자(勞動者)와 농민(農民)의 동맹이론(同盟理論)을 제기(提起)했다¹⁶⁾.

아울러 레닌은 <인민(人民)의 벗이란 무엇인가?>에서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이 승리(勝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농촌(農村) 프롤레타리아가 이것을 지지(支持)하는 것이 불가결(不可缺)의 조건(條件)이다. 만약(萬若) 이러한 동맹(同盟)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만으로 도저히 혁명(革命)에서 승리(勝利)할 수 없었으며, 시월혁명(十月革命)도 바로 이러한 동맹(同盟)의 역할(役割)이 주효한 것이다. 레닌은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과 농민(農民)의 동맹(同盟)을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이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만일 우리들이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과 농민(農民)의 동맹(同盟)을 파괴(破壞)하거나 약화(弱化)시킨다면 우리의 임무(任務)는 남김없이 공중(空中)에 떠버릴 염려가 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는 광범한 농민대중(農民大衆)을 쟁취(爭取)하며, 농민(農民)과 동맹(同盟)을 강화(強化)하고, 노동계급(勞動階級)이 영도(領導)하는 노동동맹(勞動同盟)을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의 최고(最高) 원칙(原則)이라고 했다. 이러한 원칙(原則)은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과 그 지도(指導) 밑에 있는 노동(勞動), 농민(農民) 대중(大衆)과의 공고(鞏固)한 단결(團結)에 있으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농민(農民)과의 동맹(同盟)을 절대시(絕對視)하고 있는 원인(原因)도 여기 있다. 그러나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과 농민(農民)의 동맹(同

盟)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계급(階級)을 대등(對等)한 주장(主張)에서의 동맹(同盟)이 아니라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이 혁명(革命)과 독재(獨裁)의 과정(過程)을 통(通)해서만 언제나 지도적(指導的) 주도세력(主動勢力)인데 반해 농민(農民)은 그 지도(指導)를 받아야 하는 계급(階級)이라고 규정(規定)하므로 이 두 계급(階級) 사이엔 근본적(根本的) 차별(差別)이 있는 것이다. 즉 농민(農民)은 이중적(二重的) 성격(性格)의 소유(所有)에 문제(問題)가 있는 것으로 이는 노동(勞動)하고 생산(生産)하는 근로자(勤勞者)로서의 일면(一面)과 토지(土地)라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을 소유(所有)하고 있는 사적(私的) 소유자(所有者)로서 일면(一面)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勞動者)의 측면(側面)과 사적(私的) 소유자(所有者)의 측면(側面)으로서 농민(農民)은 노동계급(勞動階級)과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 사이에 부단(不斷)히 동요(動搖)되고, 이 동요성(動搖性)은 빈농(貧農)에서 보다 중농(中農)에서 심(甚)하다. 이 점(點)에 대해 레닌은 「농민(農民)은 일반적(一般的)으로 모든 소브르조아지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 밑에서 또 중간적(中間的)인 지주(地主)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는 불가피(不可避)하게 프롤레타리아트와 브르조아지와 사이에서 동요(動搖)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민문제(農民問題)는 전체(全體) 인구(人口)에서 농민(農民)이 차지하는 비율(比率)이 가장 큰데다 노동자(勞動者), 농민(農民)의 대중적(大衆的) 기반(基盤)을 확보(確保)하는 것이 혁명(革命)의 승리(勝利)를 위한 불가결(不可缺)의 조건(條件)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농(勞農) 동맹(同盟)의 유지(維持)를 위해 레닌은 삼차(三次) 코민테른 보고(報告)에서, 「독재(獨裁)의 최고(最高)의 원칙(原則)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적(指導的) 역할(役割)과 국가권력(國家權力)을 확보(確保) 유지(維持)할 수 있도록 프롤레타리아트는 농민(農民)과의 동맹(同盟)을 유지(維持)하고 있다」고 했으나 스탈린은 농민문제(農民問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획득(權力獲得)을 위한 투쟁(鬭爭)에 있어서 그 동맹(同盟)은 파생적(派生的)인 문제(問題)이다. 따라서 노농동맹(勞農同盟)의 목적(目的)은 농민(農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共產黨)의 독재정권(獨裁政權)을 위해서 존재(存在)하는 것이며 농민(農民)을 이용(利用)하여 동맹(同盟)으로서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하는 들러리에 불과(不過)하다고 했다.

즉(卽) 혁명초기(革命初期)에 토지(土地)를 농민(農民)에게만 주라,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는 슬로건을 통(通)해 농민(農民)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고는 정권탈취(政權奪取)하는 데까지 동반적(同伴的)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다 혁명(革命)이 달성(達成)된 후(後)에는 다른 조치를 내리게 한다.

이러한 사례(事例)는 소련(蘇聯)에서 시월혁명(十月革命) 후(後) 레닌은 농민(農民)을 이용(利用)할 속셈으로 혁명(革命) 다음 날 「토지(土地)에 관(關)한 법령(法令)」을 공포하여 지주(地主), 브르조아, 황족(皇族), 사원(寺院) 등의 많은 토지(土地)를 농민(農民)에게 무상(無償)으로 나누어 주고 1929년(年)에는 농업(農業)의 집단화(集團化) 방침(方針)으로 굳히고, 1932년(年)에는 농민(農民)에게 배당(配當)된 모든 토지(土地)를 회수(回收)하여 국유화(國有化)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산당(共產黨)은 근본적(根本的)으로 토지(土地)를 공유화(公有化)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政策)과 모순(矛盾)되는 것이 명약(明若)한 것이다.

특히, 혁명초기(革命初期)에 토지(土地)를 농민(農民)에게 나누어 주고 소유형식(所有形式)으로 분배(分配)하고서는 나중에 공유화(公有化) 내지 사회화(社會化)의 조건(條件)으로 국가(國家)에서 수용(受容)하는 방식(方式)을 채택(採擇)하고 있다. 만약 농민(農民)의 항거(抗擧)나 반항(反抗)이 야기될 때는 공산당(共產黨)의 비밀조직(秘密組織)을 통하여 탄압(彈壓) 내지 분쇄(粉碎)해 버림으로써 농민(農民)에 대한 공산당(共產黨)의 정책(政策)은 근본적(根本的)으로 위장(偽裝)된 속임수에서 출발(出發)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론(結論)

이상(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레닌주의(主義)는 1917년(年) 볼셰비키 혁명(革命)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마르크스 주의(主義)에 대한 새로운 해석(解釋)의 적용(適用)과 러시아에서의 혁명적(革命的) 실천(實踐)을 통(通)하여 공산정권(共產政權)을 장악(掌握)하게 된 것이다. 특(特)히 레닌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예언(豫言)과 달리 선진(先進) 자본주의(資本主義) 제국(帝國)에서의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희박해지자 새로운 해석(解釋)을 내려 후진국(後進國)에서의 혁명(革命)을 주장(主張)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이 가능(可能)한 곳은 자본주의(資本主義)가 가장 발전(發展)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階級)이 인구(人口)의 대다수(大多數)를 차지하는 선진(先進)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發展)이 허약하고 세계적(世界的)으로 볼 때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쇠사슬이 가장 약(弱)한 고리」(The Weakest Link in the Chain of Imperialism)에서 혁명(革命)이 가능(可能)하다는 제이론(諸理論)의 실천(實踐)을 통해 이룩한 것 뿐이다¹⁷⁾.

그러나 오늘날 모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에게는 레닌주의(主義)가 하나의 혁명형태(革命形態)의 정형(定型)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과 실제(實際)는 많은 모순(矛盾)과 시대(時代) 착오적(錯誤的)인 현상(現狀)으로 비과학적(非科學的)인 종교화(宗教化)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明白)한 사실(事實)은 폭력(暴力)이든 평화적(平和的)이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目標)는 전세계(全世界)를 공산화(共產化)로 만드는데 있으며 이러한 혁명목표(革命目標)를 달성(達成)하기 위해서는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음모(陰謀)와 술책(術策)을 통(通)하여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社會)를 붕괴(崩壞)시키고 자유진영(自由陣營)의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쟁취(爭取) 파괴(破壞)하기 위한 이론적(理論的) 기술(技術)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레닌주의(主義)는 현대(現代)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정권탈취(政權奪取)와 유지(維持)를 위한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의 도구(道具)로 사용(使用)되며 이러한 실천적(實踐的) 도구(道具)를

분쇄(粉碎)하기 위해서는 그의 책략(策略)과 수법(手法)을 간파(看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소련(蘇聯)이 공산주의(共產主義) 종주국(宗主國)으로서 세계혁명(世界革命)을 주도(主導)하여 세계(世界)를 지배(支配)하고자 음모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북괴(北傀)와 대치(對峙)되고 있는 현실(現實)임을 결(決)코 망각(忘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해(註解)〉

(1) Thomas T. Hammond,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정권장악유형(政權掌握類型), 극동문제연구소(極東問題研究所), 1977, p. 13.

(2) 정학가(鄭學稼), 레닌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극동문제연구소(極東問題研究所), 1976, p.9.

(3) Joseph L. Noguee, Man,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2, p. 8.

(4) 스탈린 전집(全集) 제6권(第六卷), 레닌주의(主義)의 기초(基礎), 1924. 4, 일본(日本): 대월서점(大月書店), p.86.

(5) 국제과학문화연구소(國際科學文化研究所), 승공론(勝共論), 양서각(良書閣), 1974, p. 43.

(6) M. Salvador, 공산주의발달사(共產主義發達史), 문명사(文明社), 1976, p. 26.

(7) 공산당(共產黨)의 전략전술비판(戰略戰術批判), 국군정전학교(國軍精戰學校), 1979, p. 59.

(8)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London: Pelican Book, 1975, p. 204.

(9) Ibid. ,

(10) Ibid. , P.208.

(11) De George Pattern of Soviet Though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6, pp. 131~134.

(12) Op. Cit. , p.185.

(13)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0, p.133.

(14) 승공론(勝共論), p.263.

(15) G. Niemeyer(ed.), 공산주의본질비판(共產主義本質批判), 극동문제연구소(極東問題研究所), 1977, p. 128, 본서(本書)는 미국(美國) Vanderbilt 대학(大學)에서 사회과(社會科) 담당교사훈련용(擔當教師訓練用)으로 만든 공산주의본질(共產主義本質)과 비판(批判)의 새로운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한 것이다.

(16) 이대우(李大雨),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농민(農民)의 역할(役害), 자유(自由)아카데미 연구논총(研究論叢) 제7집(第七輯), 1978, p. 547.

(17) 서홍교(徐弘敎),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전쟁(戰爭)의 역할(役割)」, 자유(自由)아카데미 연구논총(研究論叢) 제9집(第九輯), 1979, p. 479

이솜 우화(寓話)

희비(喜悲)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한 가지는 좋지 못한 법이다. 「한시에 나는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다」는 속담도 있듯이 모든 일이 골고루 만족스럽게 되기는 어려운데 보다. 이솜의 우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윽고 그물이 묵직해졌다.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줄로 알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 올려놓고 보니 바라던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기 대신에 돌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부들은 낙심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에는 실망이 대단했다.

어부들이 모두 기운을 잃고 맥 빠진 사람들처럼 허탈상태에 있을 때, 그들 어부 가운데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실망할 것까지 없소. 슬픔은 기쁨의 자매와 같은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들 지금과 같이 맥이 빠지도록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니요.」 이 말을 들은 일당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겐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테지요」 하면서 또 다시 그물을 만지기 시작했다

80년대(年代)의 문화적 차원(文化的 次元)의 한·미 관계(韓·美 關係)



다음은 리처드 L. 워커 주한미대사(駐韓美大使)가
1981년 10월 5일 한(韓)·미(美)협회(協會)에서 행
하기 위해 준비한 연설 전문(全文)이다

편 집 실(編輯室)

본인은 한(韓)·미(美)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협회(協會)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 주제는 바로 본인이 한국(韓國)에서 맡고 있는 사명(使命)의 핵심입니다. 본인은 우리 양국(兩國)간의 이해(理解)를 넓히고 깊게 하는 일이 본인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모임에서의 연설은 흔히 우리 양국(兩國)의 우의(友誼)를 자축(自祝)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열렬하게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美國)과 한국(韓國)이 거의 독특(獨特)하다고 할만한 따뜻한 관계를 계속 누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자축(自祝)이 지나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우리의 관계가 한결 같이 평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밀하고 확고한 유대에 지나치게 열중하다 보면 때로는 마치 관계가 밀접한 가족(家族)간에 흔히 위험신호가 무시되듯 위험신호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韓)·미(美) 유대의 독특한 성격에 주목하여 이야기 할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양국(兩國)은 가끔 강하고도 깊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관계는 극(極)과 극(極)이 서로 반발하는 또 그와는 달리 서로 끌어당기는 물리학적(物理學的)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양국(兩國)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미국(美國)은 대륙국가(大陸國家)이고 한국(韓國)은 작은 반도(半島)라는 지리적(地理的) 차이도 있습니다. 역사적(歷史的)으로는 미국(美國)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 용광로에 받아들여 독특한 전통을 세웠으나 한국(韓國)은 인종적(人種的)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또 외세(外勢)의 침입에 항거하면서, 그 문화(文化)를 특색있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국(兩國)의 사회적(社會的), 정치적(政治的) 가치관(價值觀)은 더 큰 대조(對照)를 이룹니다. 미국(美國)은 때로는 거의 「방임(放任)」에 가까운 개인주의(個人主義)에 치중(置重)하고 있는데, 한국(韓國)은 유교(儒敎)의 자제(自制)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다양

성(多樣性)의 유용성(有用性)을 신봉(信奉)하고 있는데 비해, 전통적인 한국(韓國)은 전통적으로 순종(順從), 단일성(單一性)과 단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국인(美國人)은 교육(教育)에 대해서 거의 만인균등주의적(萬人均等主義的) 접근방식을 추구해 왔는데 비해, 한국인(韓國人)에게는 그 접근방식이 고도로 경쟁적이며 엄격합니다. 대인(對人)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인(美國人)은 서슴없는 태도를 취하는데 비해, 한국인(韓國人)은 격식(格式)을 강조합니다. 여가(餘暇)를 즐길 때의 오늘날의 미국인(美國人)의 옷차림은 한국인(韓國人)의 깔끔한 격식을 갖춘 옷차림과 대조를 이룹니다. 심지어 등산차림도 그렇습니다. 그 대조(對照)를 더 열거하자면, 「맥도날드 햄버거 샌드위치」와 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 양국(兩國)의 문화(文化)는 서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것을 약간 수정하게 하는 정도라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결코 우리 양국간의 경제(經濟) 및 통상관계(通商關係)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고 싶지 않거니와, 또한 아마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의 군사적(軍事的) 방위(防衛) 및 안보(安保) 면에서의 우리 양국의 전폭적 협력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 및 미래의 우리 양국 문화관계(文化關係)의 몇 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많은 도움과 혜택을 서로 주고 받은 분야는 문화적(文化的) 분야(分野)이며, 또한 오직 문화적(文化的) 이해(理解)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실수, 오판(誤判), 오해(誤解) 및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에서 우리 양국(兩國)이 함께 겪은 비극(悲劇)을 통해 한(韓)·미(美)간(間)의 결속이 공고해졌으며, 그 결속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자랐습니다. 전쟁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은 한국(韓國)은 미래를 같이 하기 위하여 미국(美國)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50년대는 「대규모로 빌려다 쓰는」 10년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천명의 한국인(韓國人)들이 인문(人文) 및 과학(科學) 전 분야에 걸친 고도(高度)의 교육을 위해 미국(美國)으로 유학(留學)했습니다. 이 10년동안에 미국(美國)은 한국인(韓國人)들이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분야들에서 선생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 한국인(韓國人)은 재능(材能)있고 성실(誠實)한 학생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모방(模倣)이라는 최고의 형태의 자아형성(自我形成)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한(韓)·미(美) 쌍방에는 미래에 오해(誤解)를 낳을 잠재적 요소를 가진 습성(習性)들이 생겼습니다. 즉 한국인(韓國人)들은 미국인(美國人)들에게 문제의 해답(解答)을 기대했고, 미국인(美國人)들은 한국인(韓國人)들이 자기들의 조언(助言)에 잠자코 경청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1960년대는 한국(韓國)이 「자각(自覺)한 나라」가 됨에 따라 협력촉진(協力促進)의 10년대가 되었습니다. 고도로 유능한 한국인(韓國人)들이 미국(美國)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기적(奇蹟)」을 위한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韓)·미(美) 양국(兩國)은 월남전(越南戰)에서 또다시 협력(協力)했으며, 이들 양국은 이같은

협력(協力)을 폐쇄사회(閉鎖社會)와 개방사회(開放社會)를 갈라놓은 대단층선(大斷層線)에 대한 일치된 인식이 기초를 두었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인식(認識)은 근본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협력(協力)은 쉽게 영어(英語)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인(韓國人)들은 외부세계(外部世界)와 자유로이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지도계층이 통상적으로 세계의 상업 및 정치의 방편이 되고 있는 언어(言語)에 통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어(韓國語)와 같이 어려운 언어(言語)를 배울 수 있는 외부세계(外部世界)의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1960년대의 호황(好況)이 계속된 후, 특히 1975년 봄의 월남전(越南戰)의 비극적 종말(終末)이 있는 후, 양국사회(兩國社會)는 다같이 주저의 10년대, 내부(內部) 지향적(指向的), 자기반성적(自己反省的) 10년대로서 1970년대도 끝났습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어느 정도 그들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적(孤立主義的) 형태(形態)로 후퇴하였으며, 과잉개입과 개입 축소, 과잉공약과 데탕트에 관한 시비를 벌였습니다. 한국인(韓國人)들은 미국인(美國人)들의 조언(助言)에 대해 불신(不信)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인(韓國人)들은 민족적(民族的) 주체성(主體性)을 더 많이 내세웠으며,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한 것이요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쨌든 폐허의 잿터미와 빈곤 속에서 일어나 인구 1인당 소득을 1961년의 82달러 수준에서 20년이 채 못된 기간에 1,500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린 나라로서는 긍지를 가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해(理解)의 일부 유형들이 공동(共同)의 회생에 관한 기억들이 사라져 가고 새로운 세대(世代)들이 진출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어느모로 보나 1980년대는 재조정(再調整)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어 가졌던 벗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이해심을 지닌 상호간의 솔직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술면의 창조적 활동에서나 상업과 공업면의 건설에서나 그리고 개인적 유대와 가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구축된 인간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적 관계에서 당면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제점들을 토의하기에 앞서 문화적 관계(關係)와 이해(理解)를 굳게, 그리고 깊이 하기 위해 마련되어 온 공고한 기반, 우리가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을 확실히 도와줄 기반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우선 현재 광범하고 다양하고 값진 방대한 한(韓)·미(美)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등하게 빠르고도 명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大統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사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미국(美國)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과 군사편제의 양식은 미국(美國)식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남이 추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공동방위 노력을 긴밀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미국(美國)에서 훈련 받은 전문가들을 한국(韓國)처럼 많이 고위직(高位職)에 배치한 정부(政府)는 이 세상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장관(長官), 차관(次官), 차관보(次官補)의 30퍼센트가 미국(美國)에

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1만여명의 한국인(韓國人)이 미국(美國)에서 수학(修學)중입니다. 미국(美國)의 대학(大學)에서 박사(博士)학위를 받은 한국인(韓國人)은 약 1,5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 중 일부만을 들어도 그분들은 법률, 경제학, 철학, 물리,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지도자이며, 명성이 높은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30년 동안에 발전해 온 협력관계가 존속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韓國)과 미국 도시(美國都市) 사이에서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곳이 열두 곳이나 됩니다. 한국(韓國)의 27개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이 미국(美國)의 38개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과 결연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한미친선회(韓美親善會)」와 「우정(友情)의 사절(使節)」의 활동에 관해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친선사절이 1978년에 경사스럽게 발족한 이래 한(韓)·미(美) 양편에 각각 약 3천에 달하는 민박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긴밀한 가족적 유대와 우정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1975년 이래 한미친선회(韓美親善會)는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미군인(美軍人)을 접대했으며, 거의 1만 8천에 달하는 민박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韓國) 국제문화협회(國際文化協會)는 각계 각층의 저명한 미국(美國) 지도급 인사들을 한국(韓國)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에게 시찰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동서문화(東西文化)센터, 플브라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미국국제교류처(美國國際交流處)(USICA)의 활동으로 연구, 문화교류 및 방문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韓國)의 국립교향악단(國立交響樂團)은 미국(美國)을 순회공연했으며,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미국(美國)의 4개(個) 교향악단(交響樂團)이 한국(韓國)에서 공연했습니다.

한편 미국(美國)측에서도 한국(韓國)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千年)·전시회(展示會)를 보기 위해 줄을 섰던 미국인(美國人)의 수(數)는 2백만명(百萬名)이 넘습니다.

1981년 처음 6개월(個月) 동안에 한국(韓國)을 방문한 미국인(美國人)은 6만(萬)2천여명(千餘名)이나 됩니다. 아마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50만명(萬名)이 넘는 한국계(韓國系) 미국인(美國人)이—이는 아마 한국(韓國)의 가장 큰 해외교포(海外僑胞) 사회일 것입니다—미국(美國)에 받아들여져서 의사(醫師), 교수(教授), 건축가, 공학기사(工學技士), 산업인(產業人) 및 은행가(銀行家)로서 미국사회(美國社會)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기업(韓國企業)들은 미국(美國)에서 비단 문자 그대로 수천명(數千名)을 고용하고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한국회사(韓國會社)들은 미국내(美國內)에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투자(投資)하고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아뭏든 1980년대(年代)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계의 이 분야는 각종 통계수자(統計數字)의 예를 가지고서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우리 양국(兩國)간의 접촉과 상호(相互)관계와 이해(理解)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 양국(兩國)은 어떤 애로도 해소하고,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광범한 활동과 그리고 가족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利益)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솔직성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분야의 많은 것들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관계를 특징 지어온 친밀성(親密性)에서 나옵니다. 미국(美國)에서 유학(留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접촉을 하고서 돌아온 한국학생(韓國學生)들, 신흥산업(新興產業) 및 도시화(都市化)된 중류층(中流層), 외국을 널리 여행한 이론 정연하고 세련된 한국인(韓國人), 양국군(兩國軍), 장병(將兵)간의 부단한 접촉,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韓國)의 전통적인 사회와 가치관(價値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한국(韓國)은 1950년대(年代) 중엽(中葉)과는 판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안정(安定), 질서(秩序), 정치(政治), 격리 및 통제에 대한 유교식(儒敎式) 접근방식의 일부는 주로 서방권(西方圈), 특히 미국(美國)과의 개방적인 접촉 때문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金日成)은 북한(北韓)에서 정보(情報)의 교환 및 유통을 막으려 들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신위성(通信衛星)과 트랜지스터의 시대에는 정보(情報)에의 접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韓國)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국(韓國)에서는 세계의 개방된 사회(社會)와의 교류(交流)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통신혁명(通信革命)과 한국사회내(韓國社會內)의 심대한 변화를 감안할 때에, 최근의 일부 추세에서 은연 중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표류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감시와 호의적(好意的)인 주의를 요하는 다섯 가지 개괄적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 분야는 미국인(美國人)들이—서울에만도 20,000여명의 민간인(民間人)들이 있습니다. —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인(美國人)들은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및 한국적(韓國的) 양식(樣式) 그 자체의 존엄성 내지 순결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우리 미국인(美國人) 자신들 내지 한국인(韓國人)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全世界)에 걸쳐 근 6천만에 달하는 한국인(韓國人)은,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 등(等) 강대국(強大國)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나 주의를 파생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인(美國人)들은 우리의 맹방(盟邦)인 한국(韓國) 국민들 및 그의 문화(文化)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 어린 관심을 보여 주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인이 앞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특히 이곳 한국(韓國)에서 민족주의(民族主義)의 강화(強化)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전 한국인(韓國人)들은 서방(西方)의 개방사회(開放社會)를 향해 진출(進出)해 나갔으며 중소국(中小國)으로서의 현실(現實)들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그런 현실(現實)에 관한 솔직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성장한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처신하려면 나라가 작은 한국인(韓國人)들은 하나 이상의 서방언어(西方言語)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이같은 패턴으로부터의 일탈(逸脫)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통령(全大統領)은 그의 아시안 방문(訪問)을 마치고 난 후 외국어(外國語) 교육(教育)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국가적 성취에 대한 긍지인 민족주의(民族主義)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유해(有害)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인(韓國人)들은 배타주의자(排

他主義者)가 되거나 은자(隱者)의 왕국(王國)의 특징들로 되돌아갈 처지가 못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경향(傾向)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또 통신(通信)과 정보(情報)의 통로(通路)가 계속 열려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곳 한미협회(韓美協會)에 있는 우리들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국이 배출한 최고의 지성(知性)들을 여러 해 동안 괴롭혀온 세계의 전반적 문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비슷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북(北)쪽의 전체주의적 관행(慣行)에 대항해서 안보(安保)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세계(世界) 공산주의(共產主義)의 경향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韓半島) 북(北)쪽에 있는 정권(政權)의 극단적 행태(行態)들이 상징하고 있는 위험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文學賞) 수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한 위험은 지구 각 지역간의 정보(情報)의 차단이다. 현대과학은 그같은 차단이 엔트로피(Entropy)의 길이며 세계적 멸망의 길임을 알고 있다. 정보(情報)의 차단은 국제적 서명(署名)이나 조약(條約)들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강압적 침묵의 지대(地帶)에서는 어떠한 조약(條約)도 멧대로 쉽게 고쳐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보다 간단히 말해서 마치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듯이 은폐할 수도 있다(오웰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압적 침묵의 지대 내에는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해방시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을 갖고 세상을 납작히 짓밟아 버리려는 화성(火星)으로부터의 원정군(遠征軍)이— 겉으로 보기에 지구의 주민과는 전혀 판이한—살고 있다.」

북(北)쪽의 침묵지대를 생각할 때, 이곳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사상(思想) 교류(交流)의 자유(自由)를 유지하는 일은 갑절로 중요해집니다. 솔제니친이 지적했듯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아직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다른 창조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회는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는 「진리의 한 마디는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본인은 학원(學園)의 자유와 면허제 아닌 언론(言論)의 자유를 옹호함에 수반하는 문제점과 모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어쩌면 자유의 방향으로 너무 멀리 잘못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방향에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편이 보다 낫다는 것을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문화면의 자유는 우리가 신봉해야 하는 대의(大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국(美國) 사회로부터 이 영향을 받아들인 한국인(韓國人)들이 이 한반도(韓半島)와 미국(美國)에 수만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이 영향이 북한(北韓)에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네째로 개방성(開放性)과 다양성(多樣性)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혁명적인 미국인(美國人)의 꿈과 보다 보수적인 유교적(儒敎的) 전통 사이의 차이에 유의하였습니다. 오늘날 협소해진 이 세상에서는 균일성을 유지하고 만장일치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어렵고도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일 것입니다. 상이한 문화는 서로 기여하는 바가 많으므로 다양성(多樣性)은 유일한 적극적 가치일 수 있습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대인(對人)관계의 존중면이나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다시 중요시(重要視)하고자 바라는 가정(家庭)에 대한 중시면(重視面)에서 한국(韓國)으로부터

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韓國)에서 미국(美國)의 대표자들은 다양성(多樣性)은 강점(強點)이지 약점(弱點)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예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문화적(文化的) 감수성(感受性)으로써 견해의 전폭적인 다양성을 표명하는 기회는 견해의 양극화(兩極化)와 잠재적 폭발성을 방지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制度化)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방식을 고집하는 나머지 문서 처리로서 착수된 과거의 계획이나 접근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본인은 우리 미국인(美國人)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속하지나 않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 음악, 인적(人的)왕래, 공업 및 상업 등 여러 분야의 접촉을 확대시킴에 따라 우리의 관계에 변함없는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혁신과 참신한 접근 방법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끊임 없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요새(要塞)와도 같은 공산사회(共產社會)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에 있어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접근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나라 관계처럼 긴밀한 두 국가(國家) 사이의 관계란 결코 변치 않거나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은 끝맺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대적자(對敵者)들과의 우리의 관계에 보다 많은 안정성(安定性)이 있거나 없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볼 때 그들의 적의(敵意)는 일관된 성질의 기정요소입니다. 이를 보다 더 단순하게 말씀 드리자면 이웃 사람들과의 말다툼보다는 한 가족 안에서 자주 더 많은 말다툼이 있게 마련인데 일단 이웃 사람이 그 가족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오면 그 가족 안의 말다툼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美國)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문화적 접촉을 가족문제로 간주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본인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적자(對敵者)들 그 누구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견차이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견고하고도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문화적 이해와 문화적 자유야말로 실로 1980년대의 탁월한 특징임을 과시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는 동정과 신뢰로써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MIG-21기(機) 시승기(試乘記)



이 건 순(李建淳) 역(譯)

시승(試乘)

Egypt 공군(空軍)이 운용중(運用中)인 소련 제(製) MiG-21 Fishbed기(機)의 공중작전상(空中作戰上)의 특성(特性)들을 본(本)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사(社)의 전속조종사(專屬操縱士)가 이 항공기(航空機)에 동승(同乘)하고 Suez운하(運河), Great Bitter호(湖) 및 Sinai사막(砂漠) 상공(上空)을 날으는 동안 지켜볼 수 있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특(特)히 저속상태(低速狀態)에서 안정성(安定性)이 뛰어나고 또한 경쾌(輕快)하고, 취급(取扱)이 용이(容易)한 특성(特性)을 지닌 항공기(航空機)로서 알려져 있는데, “Mongol”이라는 별명(別名)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MiG-21 US형기(型機)를 시승(試乘)해 봄으로써 이를 실감(實感)할 수 있었다. 전방석(前方席)에는 동공군(同空軍)의 전투작전훈련부(戰鬥作戰訓練部)의 책임(責任)을 맡고 있는 Nabil Farid Soukry준장(准將)이 그리고 후방석(後方席)에는 본인(本人)이 탑승(搭乘)했다.

항공기결점(航空機缺點)

약(約) 30분간(分間)에 걸친 실제비행(實際飛行)을 통(通)하여 본인(本人)은 이 MiG-21기(機)가 다음과 같은 결점(缺點)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절(適切)한 무기체계(武器體系)의 부족(不足)
- 기내(機內) 연료적재량(燃料積載量)이 적다.
- 항법체계(航法體系)가 없다.

(단(但) MiG-21 MF(Fishbed J)형(型)에는 VOR/ADF기초항법(基礎航法) 장비(裝備)가 되어 있다)

실제(實際) 공중기동비행(空中機動飛行)이 약(約) 18분(分)동안 실시(實施)되었는 바 그동안 AB추력비행(推力飛行)을 포함(包含)하여 여러가지 형태(形態)의 기동비행(機動飛行)을 실시(實施)해 볼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수천대(數千臺)에 달(達)하는 MiG-21 계열기(系列機)들이 소련 내(內)에서는 물론(勿論), 체코 및 인도(印度) 등지(等地)에서 생산(生産)되어 오면서, 기체(機體)를 비롯하여, Avionics, 화력통제(火力統制) 및 무기체계(武器體系)의 개량(改良), 최근(最近)에는 전천후작전 능력(全天候作戰能力)을 갖춘 최신형기(最新型機)도 생산(生産)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는 IR유도형(誘導型)을 비롯 하여 Radar Homing형(型)의 개량(改良)된 Atoll 공대공(空對空) 미사일을 적재(積載)토록 개량(改良)된 것도 포함(包含)된다.

Great Bitter호(湖)와 Suez운하(運河) 근방(近方)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이 Farid 공군기지(空軍基地)에는 MiG-21 S기(機)들로 무장(武裝)한 1개(個) 비행단(飛行團)이 주둔(駐屯)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東)쪽으로부터의 공중위협(空中威脅)에 대비(對備)하여 작전(作戰) 중(中)에 있다.

대공(對空)미사일 부대(部隊)들이 본기지주위(本基地周圍) 사막(沙漠)에 집중적(集中的)으로 배치(配置)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지원차량(支援車輛)들을 비롯하여 항공기(航空機) 및 정비용시설(整備用施設)들이 콘크리트 엄체호내(掩體壕內)에 들어 있었고, 이들 호(壕)는 사막(沙漠)모래로 덮여 위장(偽裝)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중(空中)에서는 텅 빈 활주로시설(滑走路施設)들만 드러내 보였다.

MiG-21 기(機)들이 임무비행(任務飛行)을 위(爲)해 발진(發進)할 때에는 Engine Start가 Shelter 내(內)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종사(操縱士)들은 곧바로 이륙대기지점(離陸待機地點)까지 직진(直進)하여 이륙기능동작(離陸機能動作)을 위(爲)해 잠시 대기(待機)하게 될 따름이다.

이 기지(基地)는 지난 1973년(年) 10월(月) 제(第)4차중동전시(次中東戰時) Israel 군(軍)에 의(依)해 한때 점령(占領)되면서 이들 Shelter들이 파괴(破壞)되었던 것이다.

이 기지(基地)를 Egypt가 되찾게 되면서 이곳이 Suez운하(運河)와 Great Bitter호(湖)를 인접(隣接)하고 있는 전략요충지(戰略要衝地)임을 감안하여 이곳에 많은 수(數)의 Shelter들을 재건(再建)하게 되었는데, 정밀유도무기(精密誘導武器)의 직격탄(直擊彈)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堅固)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관계관(關係官)은 말하고 있다.

이곳에는 매(每) 대대당(大隊當) 16~20대(臺)의 MiG-21 전투기(戰鬥機)들로 편성(編成)되어 있는 3개의 비행대대(飛行大隊)들이 필요(必要)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Shelter들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Egypt 공군(空軍)이 마련하고 있는 자체방호계획(自體防護計劃)에 따라 피습시(被襲時) 항공기(航空機) 생존률(生存率)을 높이기 위(爲)해 항공기(航空機)들을 이곳 저곳으로 그 배치위치(配置位置)를 수시(隨時)로 바꾸기 위(爲)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MiG-21 기(機)의 비행(飛行)점검(點檢)도 물론(勿論), 이 Shelter 내(內)에서 이루어졌다.

연료누출(燃料漏出)

격납(格納)되고 있는 MiG-21기(機) 밑바닥에서 흘러 나오는 기내연료(機內燃料)를 받아 모으기 위(爲)하여 대형(大型) 기름받이를 놓고 있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약(約) 634gal(2,400L)의 기내(機內) 연료(燃料)를 적재(積載)하는데, Egypt 공군측(空軍側)에서는 항공기(航空機)의 비행안전(飛行安全)을 위해 최소한(最小限) 132 gal (500L)의 연료(燃料)를 남긴 채 착륙(着陸)토록 하고 있었다.

Egypt 공군내(空軍內)에서 비행기 잘 타기로 이름 난 Shoukry준장(准將)은 본인(本人)에게 Canopy를 닫고 여압(與壓)된 좌석(座席)에 Lock하는 법(法) 등(等)에 대(對)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 AB Setting에서 Military Power Setting으로 되돌아갈 때 동조기능(同調機能)(Synchronization)이 제대로 작동(作動)치 않을 때에는 Throttle 위에 달려 있는 조작자(操作子)(Gear Tang)을 써서 수동(手動)으로 작동(作動)시키는 법(法)을 가르켜 주었다. 이와 같은 조작(操作)은 전방석(前方席)에서는 할 수 없고, 후방석(後方席)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萬一) 이와 같은 Synchrnization 기능(機能)이 Slipped out된 것을 조정(調整)치 않고 방치(放置)해 두면 비행중(飛行中) 엔진 비상사태(非常事態)(in flight engine emergency situation)에 빠져 들게 된다는 것이다.

좌석(座席)에 들어앉자마자 이 항공기(航空機)가 매우 조잡(粗雜)하고 단순(單純)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항법계통장비(航法系統裝備)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계기(計器)들은 최소한(最小限)의 것으로 국한(局限)되어 있었다.

- Mach계(計)
- g-force계(計)
- 고도계(高度計)
- 자세계 등(姿勢計等)
- 속도계(速度計)

좌석형태(座席形態)

좌석(座席) 우측(右側)에 달려 있는 통신(通信) Switch는 최소한(最小限)의 주파수(周波數)를 다루는 것이었다. 좌측(左側)에 Throttle Lever는 손 위치(位置) 가까이 부착(附着)되어 있었다. Ejection Seat System은 전방석(前方席)에서 동시작동(同時作動)시키거나, 양(兩)다리 사이에 달려 있는 D형(型) 고리를 당김으로써 전후방좌석(前後方座席)이 분리(分離) 사출(射出)하게 되어 있었다. 사출시(射出時)는 탈출(脫出) 캡슐(Escape Eapsule)을 형성(形成)토록 Canopy와 Seat가 동시사출(同時射出)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Tumansky Engine은 Shelter 내(內)에서 시동(始動)되고 3분후(分後)에 밖으로 나와 매우 빠른 속도(速度)로 활주로(滑走路) 이륙대기선(離陸待機線)까지 진출(進出)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항공기(航空機)들은 극(極)히 제한(制限)된 시간(時間) 동안 외부(外部)에 노출(露出)되게 되는 셈이다.

이곳의 활주로(滑走路)는 삼선(三線)으로 된 주활주로(主滑走路)들이 평행(平行)하게 건설(建設)되어 있었다. 중앙(中央)의 주활주로(主滑走路)를 중심(中心)으로 양외측(兩外側) 주활주로(主滑走路)의 끝부분(部分)이 돌출(突出)된 상태(狀態)에서 완만(緩慢)한 각(角)으로 외측(外側)으로 구부러지게 건설(建設)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설계(設計)를 하게 된 것은 이들 삼선(三線)의 주활주로(主滑走路)가 적(敵)의 피습(被襲)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작전(作戰)을 계속(繼續) 수행(遂行)할 수 있게 하기 위(爲)함에서였다.

우리가 탄 항공기(航空機)가 이들 삼선중(三線中)의 한 활주로(滑走路) 이륙대기선(離陸待機線)에 진출(進出)하고 있을 때 탄 항공기(航空機)의 비행활동(飛行活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Flight Control Tower는 소형(小型)의 이동식(移動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필요(必要)에 따라 원(願)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곳에서 계속적(繼續的)인 비행훈련(飛行訓練)이 진행(進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최상(最上)의 Alert 상태(狀態)를 유지(維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Alert 발령시(發令時), 2분(分) 40 초(秒) 내(內)에 Shelter에서 발진(發進)하여 공중요격자세(空中邀擊姿勢)를 취(取)할 수 있는 태세(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시간(時間)은 이 비행단(飛行團) 조종사(操縱士)들의 평균출동(平均出動) 시간(時間)으로서, 최단시간(最短時間)은 아니라고 동관계관(同關係官)은 말하고 있었다.

Shoukry 준장(准將)은 활주로(滑走路) 끝 이륙대기선(離陸待機線)에서 AB추력(推力)으로 이륙중(離陸中) 최대한(最大限)의 이륙성능(離陸性能)을 발휘(發揮)토록 하기 위해 80% rpm으로 Engine을 가동(稼動)시킨 다음, 곧 이어 100% rpm engine setting으로 AB를 가동(稼動)시켰다.

이 Mongol기(機)는 활주중(滑走中) 가속(加速)되면서, 2,297ft (700m) 지점(地點)에서 이륙공중(離陸空中)으로 향(向)했다.

40도(度) 각(角)으로 상승(上昇)하면서, 20초내(秒內)에 4,950ft (1,500m) 고도(高度)에 이르렀다.

즉(卽), 이 항공기(航空機)는 SeaLevel에서 21,000 fpm, 36,000ft 고도(高度)에서 10,000 fpm의 상승율(上昇率)을 가지는 것이었다.

Shoukry 준장(准將)의 비행계획(飛行計劃)은 좌측(左側)으로 6g 지속선회(持續旋回)를 하면서, Great Bitter호(湖) 동(東)쪽 상공(上空)으로 Heading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동(機動)이 지속(持續)되는 동안 속도계(速度計)는 속도감소(速度減少) 없이 493kt (900km/h)를 유지(維持)하는 것이었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지속선회율(持續旋回率)은:

- 고도(高度) 15,000 ft
기속(機速) Mach 0.9에서
○ 7.5도(度)/초(秒) (지속(持續))
○ 13.4도(度)/초(秒) (순간(瞬間))
- 고도(高度) 15,000 ft
기속(機速) Mach 0.5에서
○ 11.1도(度)/초(秒) (지속선회율(持續旋回率))

우리는 다시 AB를 작동(作動)시켜 Aileron Roll을 하면서, 26,400ft (8,000m) 고도(高度)까지 450 fps (27,000fpm)의 상승율(上昇率)로 급상승(急上昇)하였다.

기수(機首)를 북(北)쪽으로 바꾸어, Suez운하(運河) 상공(上空)으로 진입(進入)하고 나서는, 다시 동진(東進)하여 “Split-S” 기동(機動)을 하면서 Sinai지역(地域)을 비행(飛行)하였다. 여기서, 2640ft (800m) 고도(高度)까지 급강하(急降下)하면서 서진(西進), 모기지상공(母基地上空)을 Pass하였다.

우리는 약(約) 495ft(150m) 저공(低空)까지 강하(降下)하여 Farid 모기지(母基地) 활주로상공(滑走路上空)에서 Slow Roll을 실시(實施)하였다. 이 때의 속도(速度)는 431.2kt (800km /h)였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최대속도(最大速度)는 Sea Level에서 Mach 1.06, 고공(高空)에서 Mach 2.02라는 관계관(關係官)은 말하고 있다.

한편, MiG-21기(機)의 비추력(比推力)(Specific Power)과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Thrust/Weight Ratio)는 다음과 같다;

Specific Power, MiG-21

고도(高度): 15,000 ft

속도(速度): Mach 0.9

Pulling 1g 450 fps

Pulling 5g 50 fps

Thrust/Weight Ratio 비교(比較)

MiG-21	F-5E	F-14A	F-15	F-16A
0.8	0.63	0.72	1.08	1.01

성능시범(性能示範)

전투기(戰鬥機)의 비행시간(飛行時間)이 약(約) 3,000시간(時間), MiG-21기(機)의 비행시간(飛行時間)이 약(約) 1,000시간(時間)의 기록(記錄)을 갖고 있는 Shoukry 준장(准將)은 이 항공기(航空機)의 성능(性能)이 일반(一般) 보통(普通)의 전투기(戰鬥機)의 성능수준(性能水準)을 능가(凌駕)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우리가 탑승(搭乘)한 MiG기(機)를 Great Bitter호(湖)와 Sinai지방(地方)에서 귀환비행(歸還飛行)하는 Flight Profile에서 이 항공기(航空機)의 안전성(安全性)과 취급성(取扱性)을 유감(遺憾)없이 발휘(發揮)케 하는 것이었다.

AB를 작동(作動), 2,970 ft (900m) 높이를 상승(上昇)하는 동안, 377 kt(700 km/h)에서 539kt(1,000km/h)로 매우 빠른 가속반응성(加速反應性)을 나타냈다. 또한 6g으로 360도(度) 선회(旋回)한 후(後), 중간(中間) Power Setting으로 Aileron Roll 상승(上昇)을 하였는데, 이는 저속(低速) 및 무속상태(無速狀態)에서의 MiG-21기(機)의 취급성(取扱性)을 시범(示範)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속도(速度)가 151kt (280km/h)를 가리키고 있는 데에도 온전한 기동력(機動力)을 발휘(發揮)하고 있었다. 속도(速度)가 계속(繼續) 떨어져 가고 있는 데에도 기동성(機動性)은 여전히 유지(維持)되어 나갔고, Stick이 Full aft 상태(狀態)에서도 아주 쉽게 선회(旋回)되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아주 조잡(粗雜)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것이 매우 빠른 속도(速度)의 대량생산형(大量生産型)으로 설계(設計)된 항공기(航空機)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예(例)로서, 유압통제계통(油壓統制系統)(Hydraulic Control System)의 일부(一部)인 가압보조장치(加壓補助裝置)(Boost Assistance)의 설계(設計) 잘못으로 항공기(航空機)가 어떤 역각비행(迎角飛行)으로 g- force가 걸려 있는 상태하(狀態下)에서는 조종사(操縱士)로 하여금 과(過)한 압력(壓力)(Over Stress)으로 항공기(航空機)를 동작(動作)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Over Stress되고 있는 이 항공기(航空機)를 조종간(操縱杆)으로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뻑뻑하고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조종사(操縱士)는 이와 같이 작용(作用)되는 힘들을 거의 모두 항공기(航空機)의 조타면(操舵面) (Control Surfaces)만으로 처리(處理)되게끔 만들어져 있었다.

안정성 과시(安定性 誇示)

전비행과정(全飛行過程)을 통(通)하여 이 항공기(航空機)의 안정성(安定性)이 뛰어난을 드러내 보였지만, 전후방향(前後方向)의 시계(視界)는 제한(制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 항공기(航空機)의 Canopy가 방탄용(防彈用) 풍방(風防)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연(自然)히 시계(視界)에 지장(支障)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상(地上)에서 Landing Gear가 내려져 있는 상태(狀態)에서 후방석(後方席)의 시계(視界)를 돕기 위하여, 잠망경(潛望鏡)(Periscope)이 부착(附着)되어 있었고, Landing Gear가 인계(引

繼)됨에 따라, 계기반(計器盤) 상단(上端)의 원위치(原位置)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Aileron Roll 상승(上昇)을 하며, 급우선회(急右旋回)로 계획(計劃)된 기동시범(機動示範)을 보여 주고 나서 Shoukry 준장(准將)은 착륙(着陸)을 위(爲)해 기수(機首)를 기지(基地)로 향(向)하게 하였다. 항공기(航空機)가 접지(接地)할 때, 연료계(燃料計)는 237gal (900L)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시(指示)하고 있었다.

착륙시(着陸時) 이 항공기(航空機)는 매우 탄탄한 느낌을 주었고 완충계통(緩衝系統)의 작용(作用)도 매우 양호(良好)하였다. 항공기(航空機)가 멈추자, Taxing을 급(急)히 하여 빠른 동작(動作)으로 Shelter 내(內)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Shoukry 준장(准將)은 항공기(航空機)가 Shelter 내(內)에 격납(格納)되고 나서, 이 비행단(飛行團)에 소속(所屬)되어 있는 조종사(操縱士)들은 매월(每月) 약(約) 20회(回)의 비행(飛行)을 하고 있어, 이 항공기(航空機)와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水準)의 임전태세(臨戰態勢)를 유지(維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說明)해 주었다.

미(美) 본토(本土)의 Hill AFB에서 F-16기(機)도 탑승(搭乘)한 경험(經驗)을 갖고 있는 이 준장(准將)은 이 MiG-21 비행(飛行) 대대(大隊)의 항공기(航空機)들이 하루 약(約) 6 Sorties의 출동(出動)도 가능(可能)하나, 이와 같은 출동(出動)을 감행(敢行)하고 나서는 2~3구간(區間)의 정비(整備)를 위해 항공기(航空機)를 세워 놓아야만 한다고 설명(說明)해 주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Egypt 내(內)에서 여러 가지 개량작업(改良作業)이 진행(進行)되어 오고 있는데, 소련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 그 후(後) 수출기(輸出機)에서 개량실시(改良實施)되고 있다고, 수리(修理) 및 기술담당책임(技術擔當責任)의 George Ezzat 준장(准將)도 말하고 있다. 즉(卽), 무장(武裝) 적재위치(積載位置)가 개량(改良)되었고, 또한 새로운 R-13-300 Turbojet Engine의 장착(裝着)으로 300시간(時間)까지의 운전(運轉)이 가능(可能)하게 되었는데 바 이것은 종전(從前) Engine 이 250시간(時間) 밖에 운전(運轉)치 못하였던 것에 비(比)하면 크게 향상(向上)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Engine의 장착(裝着)으로 행동거리(行動距離)도 증가(增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AB Power로 공중기동(空中機動)할 때에는 보조(補助) Tank를 단 채(동체중앙(胴體中央) 밑 Pylon 비행(飛行)치 못하도록 제한(制限)되어 있으며, 따라서 15분(分) 이상(以上) AB비행(飛行)치 못하도록 규제(規制)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약점(制約點)을 덜기 위하여 Egypt 국내(國內)에서 원래(元來) 소련 것보다도 더 많은 용량(容量)의 연료(燃料)를 실을 수 있는 기내(機內) 연료(燃料) Tank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作業)은 Helwan Aircraft Factory에서 실시(實施)하고 있다.

MiG-2 IMF(Fishbed J) 형기(型機)는 보조(補助) Tank를 달고 약(約) 1.5시간(時間)을 비행(飛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Shoukry 준장(准將)과 Egypt 공군(空軍)의 작전참모부장(作戰參謀副長) Mohammad Alaa Barakat 준장(准將)은 MiG- 21기(機)가 비록 소련으로부터의 정식(正式) 지원(支援)이 중단(中

斷)되어 있는 상태하(狀態下)에서 부품지원(部品支援)에 제약(制約)을 받는 형편(形便)에 있으나 동군(同軍)은 이와 같은 역경(逆境)속에서도 최대한(最大限)의 임전태세(臨戰態勢)를 갖추도록 노력중(努力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事情)으로 미루어 보아, 동국(同國)이 서방진영(西方陣營)의 지원(支援)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항공기(航空機) 재생(再生) 및 정비능력(整備能力)을 최대한(最大限) 유지(維持). 발전(發展)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중공(中共)의 지원(支援)

이들 두 준장(准將)의 말에 따르면, 동국(同國)은 중공(中共)으로부터 어느 정도(程度)의 지원(支援)을 받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Overhaul을 위(爲)해 소련에 보내졌던 Tumansky Engine들이 Egypt국(國)에 와 있던 소련인(人)들이 철수(撤收)하고 난 뒤 Egypt로 되돌아 왔는데, 그 수(數)는 약(約) 150대(臺)에 달(達)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두 준장(准將)들은 MiG기(機) 훈련(訓練)을 모두 소련에서 받은 바 있다. 한편 Barakat 준장(准將)은 MiG-19기(機)로서 500시간(時間), Su-17 대지공격기(對地攻擊機)로서 350시간(時間)에 달(達)하는 교관비행시간(教官飛行時間)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다.

이 기지(基地)의 기지사령관(基地司令官)인 Abdel Nasr준장(准將)은 이 MiG-21기(機)가 이 지역내(地域內)의 어떤 전투기(戰鬥機)들보다도 우수(優秀)하고, 또한 조종사(操縱士)들의 전투 경험(戰鬥經驗)과 기술(技術)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항공기(航空機)를 격추(擊墜)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이 MiG-21기(機)에 대(對)하여 몇 가지 중요(重要)한 개량계획(改良計劃)이 추진(推進)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몇몇 미국항공회사(美國航空會社)들이 이 최신화작업(最新化作業)에 경합(競合)하고 있었다. 미국(美國)의 Teledyne사(社)에서는 지금 소련의 주파수권내(周波數圈內)에서 운용(運用)되고 있는 이들 항공기(航空機)에 IFF 장비(裝備)를 설치(設置)하는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한 바 있는데, 이 작업(作業)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現在) Egypt 국내(國內)에서 운용(運用)되고 있는 여타(餘他) 소련제(製) 항공기(航空機)와는 아주 뚜렷한 존재(存在)로 등장(登場)하게 될 것이다.

동사(同社)에서는 또한 서독(西獨)의 Litef, Litton사(社)들과 합동(合同)으로 Dassault-Breguet/ Dornier사(社) 공동개발(共同開發)의 Alpha Jet의 서독대지근원지원공격형기용(西獨對地近援支援攻擊型機用) Dopplar Navigation Computer 및 동(同) Control Display System에 대(對)한 개발계약(開發契約)도 체결(締結)하고 있다. 이 체계(體系)는 Head-up Display와 더불어 무기발사계통(武器發射系統)과 연계운용(連繫運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Egypt 측(側)에서는 동국(同國)에서 보유운용(保有運用)하고 있는 항공기(航空機)들에 공

동(共同)으로 장비(裝備)할 수 있는 Dopplar 항법(航法)시스템을 원(願)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MiG-21기(機)를 비롯하여, 여타(餘他) 동국보유(同國保有)의 고정(固定) 및 회전익(回轉翼) 항공기(航空機)에 미국(美國) Teledyne사제(社製) 항법(航法) 시스템으로 장비(裝備)할 것을 강력(強力)히 바라고 있었다.

Egypt 공군내(空軍內)에는 6종(種)에 달(達)하는 MiG-21 계열기(系列機)와 훈련형기(訓練型機)를 보유(保有) 운용(運用)하고 있는데 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보유(保有) MiG-21기(機) 계열(系列)

● F-13형(型)

Fishbed C로 알려져 있는 이 주간전투기(晝間戰鬥機)는 Radar Ranging 시스템을 탑재(搭載)한 VFR 작전용(作戰用) 단거리전투기(短距離戰鬥機)이다.

Engine을 RD-11이라고 알려진 Tumansky Turbojet Engine으로서, Dry추력(推力) 9,600 lb, AB추력(推力)은 12,700 lb의 것이다.

무장(武裝)은,

○ 적외선유도형(赤外線誘導型) K-12 Atoll 공대공(空對空) 미사일과

○ 우측동체(右側胴體)에 23mm 기관포(機關砲)를 적재(積載)한다.

Ejection Seat는 Conopy와 좌석(座席)의 동시사출형(同時射出型)이다.

● PFM 형(型)

Fishbed F형(型)으로 알려져 있는 전투기(戰鬥機)로서, 개량형(改良型) Radar를 탑재(搭載)하고 있으며,

○ 약(約) 10 NM 밖에서 목표물(目標物)을 Lock-on시킨다.

수직안정판(垂直安定板) 상단(上端)은 도전판구조(導電板構造)로 되어있고, 그 내부(內部)에 Antenna가 수납(收納)되어 있다.

● PFS 형(型)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 Fishbed D형기(型機)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전투기(戰鬥機)는,

○ 최신(最新) 개량형(改良型) RD-11 Engine을 장착(裝着)하고 있으며, 이것은 종전(從前) 것에 비(比)해 AB추력(推力)이 약(約) 1,000 lb 증가(增加)되었다.

○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 면적(面積)의 확대(擴大)

○ 방공임무기능(防空任務機能) 증대(增大)를 위(爲)해 탐색(探索) 및 추적용(追跡用) Radar 추가탑재(追加搭載)

○ 전방동체(前方胴體) Taper율(率)이 완만(緩慢)하여졌다.

○ 타형기(他型機)들과 크게 차이(差異)나는 점(點)은,
 • Rocket 보조이륙(補助離陸)시스템 도입(導入)으로 990ft(300m) 이내 이륙가능(以內離陸可能)

• Blown Flap 사용(使用)으로 착륙거리(着陸距離)를 1,320ft(400m) 이내(以內)로 단축(短縮)

● F L 형(型)

후기생산(後期生産) 수출형(輸出型)으로서,
 ○ 수직안정판(垂直安定板) Chord 폭(幅)이 넓어졌다.

○ Rudder Base에 Drag Chute 수납(收納)

○ R-2L탐색(探索) 및 추적용(追跡用) Radar 탑재(搭載)

○ R-11-300 Tumansky Turbojet Engine

• Dry추력(推力) 8,500 lb

• AB추력(推力) 13,700 lb

● MF 형(型)

○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 Fishbed J형기(型機)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전투기(戰鬪機)는 ,

○ Engine은 RD-13-300 Tumansky Turbojet Engine으로서 ,

• Dry 추력(推力) 11,240 lb

• AB 추력(推力) 14,550 lb

• RD-11F-300 (Fishbed C/E Engine) 보다 약(約) 15%의 추력증가(推力增加)를 가져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추력향상(推力向上)에 따른 부작용(副作用)으로 비연료소모(比燃料消耗)(SFC)면(面)에서는 약(約) 2%가 감소(減少)되었다.

• Compressor Stage 2단(段)이 추가(追加)되었고, Titanium재(材)를 더 많이 사용(使用)하고 있는 관계(關係)로 RD-11F-300 Engine 약간(若干) 더 무겁다.

● R형(型)

○ 정찰형(偵察型) MiG-21기(機)로서 ,

○ Egypt 국내(國內) Helwan Aircraft Factory에서 제작(製作)한 정찰용(偵察用) Pod를 적재(積載)하고 있다.

● MiG-21 U /US 형(型)

○ 흔히, “Mongol” 이라고 서방측(西方側)에서 부르고 있는 훈련기(訓練機)로서 ,

○ 그 형태(形態)는 MiG-21F(Fishbed C)와 비슷하며, 종열복좌훈련기(縱列複座訓練機)이다.

○ 한편 , US형(型) (Mongol-B)은 ,

• Blown Flap 도입(導入)으로 착륙거리(着陸距離)를 단축(短縮)시켰음.

• 후방석(後方席) (교관석(教官席))에 잠망경(潛望鏡)(Periscope)이 설치(設置)되어 있는데 후방석(後方席)의 시계(視界)를 돕기 위함이고 , Landing Gear 인입(引込)과 동시(同時) 원위치(原位置)로 거두어진다.

성능비교(性能比較)

기지사령관(基地司令官) Abdel Nasr 준장(准將)은 오늘날 세계(世界)에서 운용(運用)되고 있는 일반(一般) 전투기(戰鬪機)와 MiG-21기(機)와의 성능(性能)을 비교(比較)해 가면서 , 이 MiG-21기(機)가 자국(自國)의 작전소요(作戰所要)를 충족(充足)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Fishbed기(機)의 비행성능영역(飛行性能領域)(Flight Envelope)을 색깔로 표시(表示)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 여기에는 불란서 제(製)의 Mirage 5와 F-1을 비롯하여 , Israel군(軍)이 운용(運用)하고 있는 McDonnell Douglas사제(社製)의 A-4와 F- 4기(機)들과의 성능비교(性能比較)가 명료(明瞭)하게 표시(表示)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 성능비교(性能比較) 예(例)는 다음과 같다.

최대(最大) 이륙중량(離陸重量)

단위(單位) : LB

MiG-21	F-5E	MiG-23	F-16	F-15C	F-4
20, 725	24, 600	43, 000	35,000	68,000	58, 000

익면하중치(翼面荷重値)

단위(單位) : PSF

MiG-21	F-5E	F-16A	F-4	F-15
73	85	79	89	72

전투행동반경(戰鬪行動半徑)

단위(單位): NM

MiG-21: 400	F-4: 359
• 550 LB폭탄(爆彈)X 4	• Missile X 4
• 보조(補助) Tank X 1	• 2,000 LB 폭탄(爆彈)
	• 보조(補助) Tank X 2

MiG-21MF(Fishbed J)

593 NM (1,100km)

- 기내연료(機內燃料)만으로
- 무장미상(武裝未詳)

자료(資料): Jane's aircraft 80~81Page 194 및 381

F-4

- Area Intercept 683N M (1, 266 km)
- Defensive Counter air 429 N M (795 km)
- Interdiction 618NM(1,145km)

최대속도비교(最大速度比較)

단위(單位)/kt

At Sea Level MiG-21: 660

F-4: 759

- 외부물적재(外部物積載)

- 외부물적재(外部物積載)

At 4,000 ft MiG-21: 1,148

F-4: 1,245

순간선회율(瞬間旋回率)

선회율비교(旋回率比較)

단위(單位): 각(角)/초(秒)

• Mach 0.9 고도(高度) • 15,000 ft	MiG-21	F-5E	MiG-23	F-4	F-15	F-16
	13.4	14	11.5	13.5	14.1	17.3
• Mach 0.5 • 15,000 ft	11.1	11.4	8.6	7.8	16.5	15.6

지속선회율(持續旋回率)

- Mach 0.9
- 고도(高度): 15,000 ft

MiG-21	F-5E	F-4E	F-15	F-16
7.5	7.8	9	11.8	12.8



항공(航空) · 군사(軍事) · 과학(科學)

최신 방공미사일 개발 및 증가추세

최 양 수(崔良洙) 역(譯)

198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전략체제에서부터 보병이 휴대하고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열추적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사일이 유인 항공기로부터 야기되는 위협과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각 체제를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은 없으나, 현재 판매 중에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각종 미사일체의 규모에 대한 생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요인들이 확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가장 큰 규모의 무기는 소련이 개발하고 있거나 제작한 무기이며, 서방측의 각개 무기 체제는 소련의 각개 무기체제보다 우수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합된 한 SAM 체제 계열이 소련에서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거리 체제

제4차 중동전에 대해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양상중의 하나는 미공군의 SR-71 BLACKBIRD 전략정찰기가 무사히 시나이 전장과 골란고원의 전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집트와 시리아 방공부대들은 어느 부대도 이와 같이 속도가 빠른 고고도 목표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이 부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이 SA-2 GUIDELINE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측은 영공비행에 대하여 무언의 승인을 하였을 것이며, 이를 중지시킬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고 중고도용 HAWK 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의 모든 공격기를 저지할 수 있는 최신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구입하려는 방위부대들은 각종 장비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서방측이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의 무기는 고가의 장비이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PATRIOT 미사일이다. 이 1단계 미사일은 나무 높이의 고도에서부터 24,000m까지의 모든 고도에서 목표물을 탐색,

포착 및 추적하기 위하여, 다목적 위상배열 (Phased- array)의 AN/MQP-53 레이더를 사용한다.

신형 미사일 개발을 위한 SPRINT 대탄도미사일계획 기간 중에 획득한 일부의 전문적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던 Martin Marietta사에서는 이 미사일을 실제로 개발하였으며, 미사일의 최대속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Mach 5인 것으로 추측된다.

야전에 최초로 설치될 때에는 고정된 고도와 방위각에 레이더와 4개의 발사대가 고정된다. 공격해오는 목표물에 미사일과 레이더빔을 지시하기 위하여 미사일이 민첩하게 작동하고, 전자안테나빔 주사방식이 사용되며, 예상공격방향이 변할 경우에는 발사대와 레이더가 새로운 방향에 있게 하기 위하여 발사대와 레이더가 방위각을 회전할 수 있고, 각 레이더는 교전통제소 (Engagement Control Station) PATRIOT 체계 중 전투시 인원이 배치되는 유일한 곳)와 같이 작동한다.

이곳에서는 발사대를 8개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대처하려고 하는, NIKEHERCULES 나 또는 개량형 HAWK보다 야전 배치가 간단하다.

PATRIOT 미사일은 새로운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은 "Track-Via-Missile(TVM)"로 알려져 있다. ECM 환경에서 철저하게 시험을 한 후에는 이 미사일은 지령 및 반응동 Homing 방식을 겸용할 것이다.

미사일 Seeker가 목표물을 Lock-on을 하면, Seeker는 교전통제소로 목표물 Data를 보내며, 미사일 유도지령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Data를 처리하여, Radar에서 얻은 Data와 비교한다.

영국 항공사는 지상기지형 SEA DART 미사일을 제의해 왔으며, 1970년대 후반에 수출주문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접근하였으나, 이 계획은 유산된 것 같다

따라서, 미국 무기 구입을 꺼려하거나, 또는 구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장거리용 SAM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련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A-2 미사일은, 구형의 SAM 이기는 하지만, 소련은 이를 서서히 폐쇄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신 모델은 월남전과 아랍, 이스라엘전쟁에서 얻은 작동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ECCM 능력을 갖고 있으나, 고속 고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나 1,500m 이하로 비행하는 목표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매우 우수하지 않다. 일부 미국인들은 SA-2의 최대 고도가 15, 000m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무기에 희생된 U-2 정찰기의 대수로 미루어 보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중공에서 제작한 SA-2 (일명 SA-1)는 소규모로 수출되었으며, 유일하게 알려진 중공의 SAM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산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엽 이후부터, 연간 125대 수준으로 생산되어 왔다

소수의 SA-4 GANEF 미사일이 수출되었으며 6일전쟁 후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방공부대에 전개되어 있으나 이집트에 넘겨주지는 않고 있다. 이 체제는 동독과 체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쌍발 자동회전식 발사대를 사용한다. 개량형은 저고도 목표물에 성능이 보다 우수

하다.

SA-5 GAMMON 미사일은 소련에서는 그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수출은 되지 않고 있다. 이 미사일은 일부 대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확실치 않다. 최근에 소련에서 취역하고 있는 최신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될 수 있는 SA-10 미사일로서, 성능은 미국의 PATRIOT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 미사일은 3개의 CW 탐색 및 추적레이더와 같이 작동을 하며,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도록 무기를 개조하기 위하여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SA-12 미사일은 능동레이더 Homing 방식을 사용하는 SA-2 /SA-5 미사일을 대처하기 위한 것 같다.

중거리 체제

HAWK 미사일의 최초 발사시험은 25년전에 실시되었다. "Homing All-the-Way Killer"라는 명칭을 갖고 있듯이 발사시험용 미사일은 요격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미사일은 계속 성공을 거듭하여 왔으며, 개조형 최신 HAWK 미사일은 총 18개 국가에 취역 중에 있거나 또는 주문 중에 있다. 한편 3개국 이상 국가에서는 원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된 무기체제이다.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SOVIET UNION						
SA-3 GUIDELINE	45	7	25	1.5	command	rocket
SA-4 GANEF	70	9	25	1	command	
					+SAR	ramjet
SA-5 GAMMON	280	90	27	?	SAR	rocket
SA- 10	65	?	30	0.03	active radar	?
USA						
PATRIOT	60	?	24	?	TVM	rocket
SAR= semi-active radar						
TVM = track- via-missile						

Medium-Range Missile Systems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SOVIET UNION

SA-3 GOA 35 ? 15 0.3 command rocket

SA-6 GAINFUL 35 4 13 0.3 command

+SAR ramjet

SA-11 28 3 14 0.03 SAR ?

USA

IMPROVED

HAWK 40 ? 18 0.03 SAR rocket

SAR= semi-active radar

지원차량을 포함하여, 각종 레이더(고고도 펄스 포착, 저고도 :CW 포착 및 Illuminato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지원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지 못한 체제가 될 수도 있으나, 구매국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 및 이용되고 있다.

미육군은 신형이기는 하나 가격이 보다 고가인 PATRIOT 미사일로 그의 개조형 HAWK 대대를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Thomson-CSF 및 MBB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 산업팀은 4년간의 1억 4,000만불의 계획으로 대부분의 NATO 체제를 향상시키고 있다.

Northrop사는 개량형 HAWK 미사일 조작 요원들에게 목표물의 시각적 영상을 제공하고 저고도 추적과 조밀하게 그룹지어져 있는 목표물의 식별 및 적항공기의 확실한 식별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광학 Tracking Adjunct System을 지원하기 위하여 1,47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리 측정 레이더(Range Only Radar)」가 심한 ECM 환경에서 제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Stand-off Jamming 항공기의 위협과 대처하기 위하여 더욱 개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른 무기를 찾고 있는 군은 소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광범위하게 수출된 소련체제는 SA-3 GOA와 SA-6 GAINFUL을 들 수 있다. 이 두 미사일 체제는 전투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제4차 중동전 당시 SA-6의 출현은 전쟁초기단계에서 이스라엘의 공격기에게 큰 경중이 아닐 수 없었다.

추적차량에 적재된 SA-6와 그의 STRAIGHT FLUSH 레이더 차량은 적이 이동하면, 새로운 사격진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위치에 설치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조형이 시리아에 취역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SA-11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미정보사회에서 누설된 평가된 성능에 따르면, SA-11은 SA-6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의 자동회전식 차량에는 FLAP LID 추적 레이더를 포함하여 4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

으며 다른 차량에는 1개의 입체식 CLAM SHELL포착 Set가 장치되어 있다. 최초형은 SA-6 레이더 체제를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단거리 체제

서구라파에서 개발한 3가지의 단거리 미사일 체제가 미사일 판매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CROTALE와 ROLAND 및 RAPIER 미사일은 모두가 5km 정도의 단거리를 유도하는데 SACLOS(Semi-Automatic Command to Line-of Sight) 유도방식을 사용하나, 영국에서 개발한 무기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즐겨 사용하는 근접폭파신관(Proximity Fuzing) 보다는 충격폭파신관(Contact Fuze)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RAPIER 미사일 체제는 견인식 체제로서 이용되었으나, 현재 영국 육군은 이란을 위하여 최초로 개발된 자동회전 4TRACKED RAPIER 체제를 채택하였다.

ROLAND와 TRACKED RAPIER 미사일 체제는 하나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추적차량에 적재되어 있으나 CROTALE 미사일은 2개의 유쾌차량에 적재되어 있다.

CROTALE 미사일을 최근에 개조하여 개발한 미사일은 SICA 미사일로서, 이는 사정거리가 약간 긴 미사일과 새로운 Pulse-Doppler 감시 레이더를 사용하며, 발사대가 6개로 되어 있다. 이 미사일 체제의 한가지 형은 SHAHINE 미사일로서, 사우디 아라비아용으로 개발하였으며, AMX 30을 기초로 한 추적차량을 사용한다.

ROLAND 미사일은 2가지 형이 있다. 최초형인 ROLAND-1 체제는 오직 청천후(Clearweather)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ROLAND-2체제는 400m 시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미국은 ROLAND-2 미사일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국방예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미국의 최단거리 SAM은 CHAPARRAL 미사일로서, 이는 AIM-9 SIDEWINDER 열추적 미사일의 MIM-72형을 사용하는 지대공 무기체제이다.

ROLAND 미사일은 CHAPARRAL 미사일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보충할 것이다. 따라서 미 육군은 개량형 탄두와 Rocket Motor는 물론 근접신관과 성능이 우수한 Seeker를 통합한 개량형을 인도하였다.

수출될 소련의 이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은 IR-homing SA-9 GASKIN으로서, BRDM-2 유쾌차량에 4발의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다. ROLAND 미사일과 개념상 비슷한 SA-8 GECKO 미사일이 소련의 전선부대에 서서히 취역되어 왔으나 서독주재 소련군 부대보다는 소련주둔 일선부대에 조기 인도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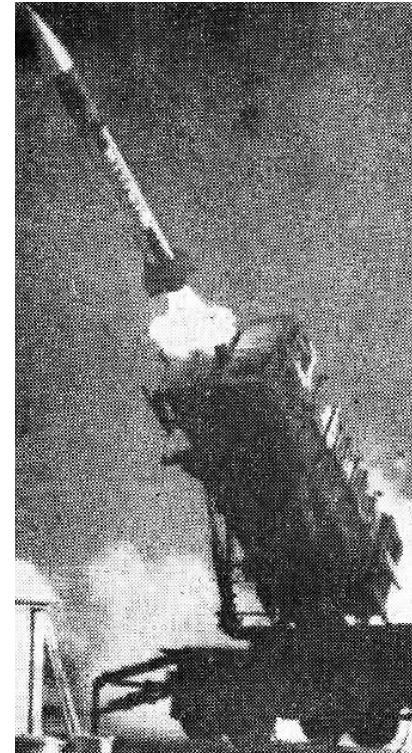
초기형의 이 미사일 체제는 6륜발사차량에 4발의 미사일이 항시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밀봉된 발사/저장 콘테이너에 6발의 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는 최신형이 보고된 바 있었다. 소련의 최신무기는 SA-13으로서 이는 Gaskin을 대체하기 위하여 작년에 최초로 야전배치되었다.

거리측정 레이더를 포함하여 4~6발의 IR-homing 미사일이 장착된 추적차량이 보고된 바 있다.

이태리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Sistel사에서는 Indigo-MEI, SACLOS 유도방식의 미사일 체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2대의 M 548 추적차량에 적재되어 있다. 이 무기는 이태리 육군에서는 채택할 것같지 않고, 오히려 ROLAND 미사일을 채택할 것 같다.

일본 자위대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Toshiba사에서 개발한 TANSAM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공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FRANCE						
CROTALE	8.5	0.5	3.6	0.05	SACLOS	rocket
SICA	10	0.5	?	?	SACLOS	rocket
INTERNATIONAL						
ADATS	8+	1	5	?	laser beam	rocket
ROLAND	6.3	0.5	3	?	SACLOS	rocket
SKYGUARD	18?	1?	5?	?	SAR	rocket
ITALY						
INDIGOMEI	10	1	15	0.02	SACLOS	rocket
JAPAN						
TANSAM	10	?	?	?	passive IR	rocket
SOVIET UNION						
SA- 8 GECKO	12	3	10	0.05		SACLOS
rocket						
SA-9						
GASKIN	7	0.6	5	0.02	passive IR	rocket
SA-13	7	?	10	?	passive IR	rocket?
UK						
RAPIER	6.5	1	3	?	SACLOS	rocket
TIGERCAT	5+	?	?	?	command	rocket
USA						
CHAPARRAL	3+	?	?	?	passive IR	rocket
SACLOS= semi-active command to line- of-sight						
SAR= semi-active radar						



앞으로 NIKE, HERCULES와 HAWK 미사일은, PATRIOT 미사일로 대체될 것이다.

개된 바가 없다. 화력조종장비와 4개의 발사대가 있는 차량은, 공중으로 수송할 수 있는 3.5톤 트럭을 기초로 하였다. 동 미사일은 2가지 색깔의 적외선 Seeker와 최신 신호 처리기술을 사용하며, 이는 지형 "Hot Spots"와 같은 오(False) IR Sources로 기만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총 76체제가 주문될 예정이다.

최신 자동회전식 체제는 Oerlikon사의 ADATS 미사일 체제이다. 이 체제는 Laser beam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대항공기 및 대전차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추적발사차량에는 8발이 장착되어 있고, 발사시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 작전화될 예정이다.

단거리 미사일 체제는 모두가 차량에 적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체제는 적합한 장소로 견인되어 재래식 대공포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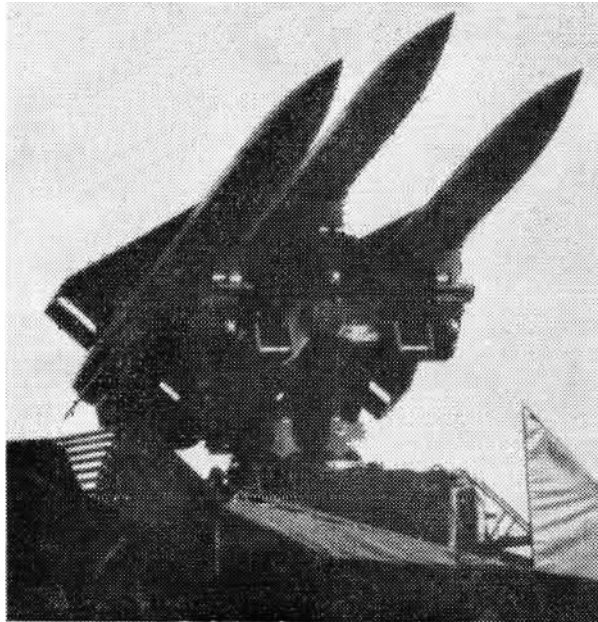
영국의 RAPIER 체제는 견인체제로서 개발되어 전개되었으며, 영국주둔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형으로서 미 공군에서 구입하고 있다.

은밀작전(Silent Operation)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한 개조계획에는 피동적외선 감시 체제와 Laser 거리 측정기는 물론, Night-vision Channel이 포함되어 있다.

TIGERCAT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며, 개발회사는 경량발사대와 소형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신형 Mk-2형에 대하여 최근에 수출 주문을 받았다. 모든 형은 지령유도방식을 사용한다.

Contraves사에서 개발한 SKYGUARD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국가도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 발사시험은 SPARROW 미사일을 사용하여 1980. 10.에 이미 시작하였고, Selenia사의 ASPIDE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Contraves사는 몇 개의 구매국가들과 잠정적으로 협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최초 주문을 발표할 희망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종류의 장비는 CHAPARRAL의 M-54형으로, 이는 비행장과 같은 고정된 시설물을 방어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 수송할 수 있는 형이다.



네덜란드의 Twent 공군기지에 전개된 개조형 HAWK 미사일. 초기형 HAWK 미사일은 과거 20년 동안 자유세계의 방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휴대용 체제(Man-Portable Systems)

대부분의 20세기 동안에는 각개 병사들은 공중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며, 경기관총으로 비효과적으로 사격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무기가 미국의 REDEYE 미사일로서 이는 병사가 어깨에서 발사하는 적외선 Homing 미사일이며, 1960년대에 취역하였다. 현재 이 미사일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개조형 미사일인 STINGER 미사일이 1981년 2월에 미 육군에 취역하였다.

현재 4,000발 이상이 주문 중에 있으며 제작 회사에서는 총 7,000발 이상을 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STINGER 미사일을 전개할 것이며, 미사일이 적의 방해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저항하게 할 수 있는 2중 주파수의 적외선/자외선 Seeker의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최신 IR-homing 무기는 소련의 SA-7 GRAIL 미사일이다. 최초형은 Flare와 같은 적의 방해수단에 민감하나, Mod 1 개조형은 이에 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Seeker가 기만당하지 않도록 각종 Filter를 통합시켰고 개조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개조에는 Seeker가 시계의 다른 더운 IR원에 Lock-on하게 하는 장치도 포함

되며, 이와 같은 전술은 Flare나 다른 IR의 기만의 효과를 종종 극복할 수도 있다.

REDEYE 미사일과 같이 SA-7 GRAIL 미사일도 도주하는 항공기의 더운 열이 나는 제트 파이프에 발사하기 위하여 「후미추적」방식을 사용한다

Medium-Range Missile Systems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FRANCE				
SATCP	5	<0.5	5	0.5 passive IR rocket
SOVIET UNION				
SA-7 GRAIL	3.5	?	4.3	0.025 passive IR rocket
SWEDEN				
RBS 70	5	?	3	? laser beam rocket
UK				
BLOWPIPE	3+	?	2	? command rocket
USA				
STINGER	5	?	3	? passive IR rocket

일본의 Kawasaki사에서는 KEIKO라고 부르는 적외선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 계획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취역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의 Matra사에서도 SATCP 휴대용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무기는 2가지 하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Pulse-Doppler 감시 레이더를 사용하는 완전한 차량적재형과 포탑에 장치된 해군체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조형 미사일이 계획 중에 있으며, 경량 휴대용(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불란서의 신속전개군용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또한 Radar-homing 미사일형이 1990년대에 취역하기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RBS 70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Bofors사에서는 Laser Beam Riding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이 유도체제는 열추적미사일이 사용하는 간단한 발사대보다 많은 지상장비를 필요로 하나 모든 목표물에 효과적이고, ECM으로 기만하기가 곤란하다. 프랑스의 SATCP 미사일 체제와 같이 이 무기체제는 장비를 2인이 휴대한다.

LAND ROVER이나 또는 M113 및 Ikv 103 APC와 같은 Platform을 사용하는 차량적재형에 대한 각종 발사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M113의 시설장비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목표물 포착 레이더 및 야간 조준경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장비는 1984년에 구매국들에게 인도하도록 준비될 것이다..

소련은 SA-7의 대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무기가 Laser Beam Riding 유도방식을 사용한다고 1970년대 후반에 보고된 바 있었으나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BLOWPIPE 미사일은 간단한 지령유도방식을 사용하나, 개발회사에서는 미사일의 동체와 탄두를 개조하여 SACLOS 유도형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표준형에 대한 생산은 계속하고 있으나, 4발의 견인 또는 차량적재형에 대한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

명장명언(名將名言)

장군(將軍)이 명심해야 할 일이 다섯 가지 있으니, 첫째는 리(理)요, 둘째는 비(備)요, 셋째는 과(果)요, 넷째는 계(戒)요, 다섯째는 약(約)이다.

리(理)란 많은 병사(兵士) 다스리기를 마치 적은 병사(兵士) 통솔하듯 함이며, 비(備)란 문밖에 나서면 적(敵)을 대한 듯 대처함이며, 과(果)란 적(敵)과 싸움에 살 생각을 품지 않는 용기(勇氣)이며, 계(戒)란 승리(勝利)하여도 서전(序戰) 때의 긴장을 품지 않음이며, 약(約)이란 법령(法令)을 생략(省略)하여 간소화(簡素化)함이다.

장조소신오(將之所慎五) 일일리(一日理) 이일비(二日備) 삼일과(三日果) 사일계(四日戒) 오일약(五日約)

리자(理者) 치중여치과(治衆如治寡) 비자(備者) 출문여견적(出門如見敵) 과자(果者) 림교부회부회생(臨巧不懷不懷生) 계자(戒者) 수극여시전(雖克如始戰) 약자(約者) 법령성이부번(法令省而不煩)

오자(吳子) 〈제사론장(第四論將)〉



항공(航空) · 군사(軍事) · 과학(科學)

소련의 위성정찰 활동과 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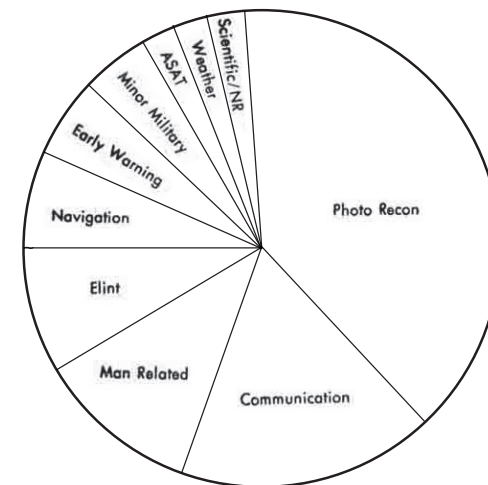
윤 형 기(尹炯基) 역(譯)

1957년에 Sputnik-1이 발사되어 우주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기 전에도 전송장치를 통해서나 또는 캡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찰위성이 촬영한 각종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사진 정찰위성을 궤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였다.

「정찰용 인공위성의 이용」이라는 제목의 Rand Corp의 보고서는 미국의 초기 개발노력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정찰장비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각종 로케트의 제작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소련의 과학자들은 아마 똑같은 노력을 해 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시능력은 농업 및 자연자원을 모니터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하늘의 스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및 정치적인 제반이익도 또한 충분히 인식 되었다.



1980년에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을 기초로 한 소련이 비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우주계획

미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18개월 동안 12개의 우주선을 손실한 후, Discoverer-13을 회수하는 일 외에도 1960. 8. 11.에 지구궤도로부터 사진 캡슐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성공리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Discoverer 계획의 실제적인 성공과 Tiros 기상위성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격렬하였으며, 1960. 5. 소련상공에서 U-2기를 격추시킨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Discoverer-13이 회수된지 불과 9일쯤해서 소련은 2마리의 개를 탑승시킨 Sputnik-2 호의 궤도에서의 성공적인 회수를 발표하였으며, 소련 자신의 정찰위성의 가능성이 그 때부터 확실하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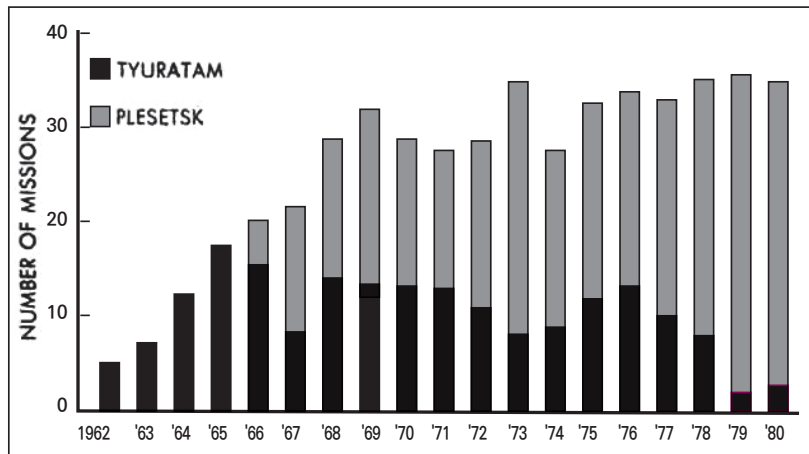
소련은 1962년과 1963년 봄에 정찰위성의 궤도발사를 중지하자고 미국에 제의하여 왔으나, 1963년 가을에 9회에 걸친 사진정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발사중지에 대한 제의를 위반하였다.

소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위성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미국, 구라파 및 세계 도처의 동맹국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위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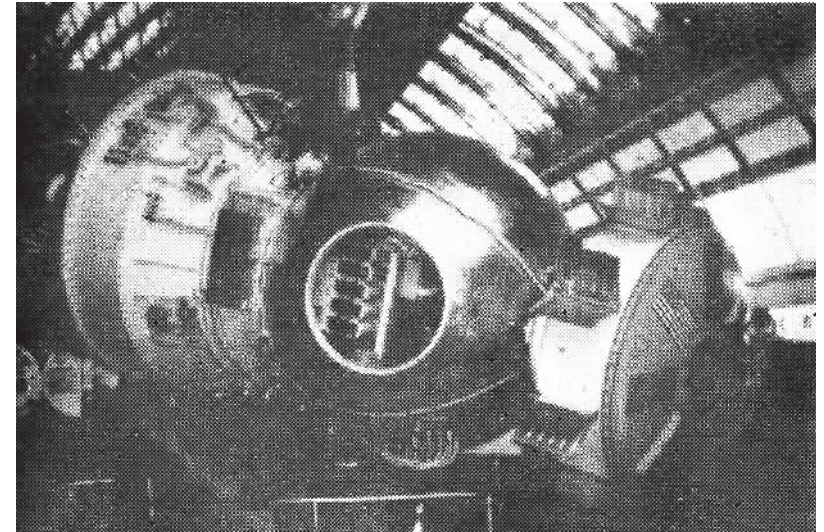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위성들이 큰 가치를 갖고 있음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Data를 신속히 획득하여 무사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정찰위성은 미·소 양국이 상대방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냉전징후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진격을 이집트에게 경고하여 주었고, 1977년 여름에 핵 무기시험을 위하여 미국이 남아프리카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충고하기 위하여 소련이 이와 같은 우



이 도표는 소련이 지구에 대한 사진정찰임무를 수행하는데 투자하는 연간 투자액을 표시한 것이다.



Kosmos-782 생물학용 우주선, 최근에 2주일간의 장기간 체류한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은 이와 같은 형일 수도 있다.

주의 눈을 사용하였다는 보고서는 사진정찰위성이 전술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제반 작전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련은 이와 같은 정찰위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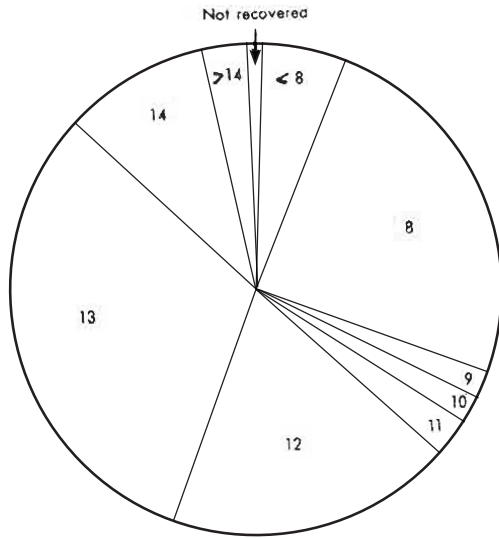
소련의 우세 (1971년 이후)

소련은 1971년 이후부터 사진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미국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어 왔다.

이 사진정찰위성계획은 1980에 소련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모든 위성 중 39% 이상을 차지하였다(도표 1 참조). 1981. 1. 1.까지 약 501개 정도의 무인 회수용 우주선이 지구감시용 사진정찰 위성계획과 관계가 있는 우주선이며, 이 위성숫자는 1957년에서 1980년까지 소련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총 1,339개의 위성중 3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도표 2 참조). 이 회수용 위성 중 대다수 위성은 낮은 지구궤도에 있으며, 2주 이내로 중요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지구로 귀환한다(도표 3,4 참조) 이 중 4개의 위성은, 재돌입 체계가 고장을 일으킨 후, 비동맹국가에서 회수하지 못하도록 궤도 상에서 조심성 있게 폭발시킨 것 같다.

1970년 전까지는 매년 궤도를 비행하였던 대다수의 정찰위성 들은 8일간 궤도비행을 하였으나, 과거 10년 동안에는 이 위성들은 12~13일간을 규칙적으로 비행하였다. 이는 소련의 정찰위성 이 해상로와 장기간의 비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의 우주정찰계획이 다양하고 유연성이 있다는 대표적인 한 예가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제4차중동전 기간 중에 나타났다. 전운이 고조되었을 때, 3개의 사진정찰위성이 3~4일간의 간격으로 발사되었으며, 종전과 같이 12~13일간 비행하지 않고, 5, 8일간만 궤도비행을 하고 회수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고문단들은 보다 적시의 전투서열을 이집트관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불과 3주반동안에 7개의 소련 사진정찰위성이 궤도로 발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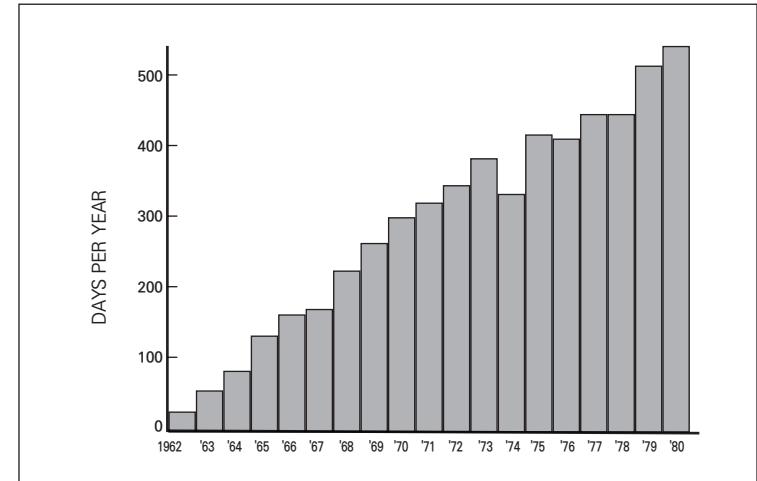
1962~80년간의 소련의 정찰위성의 비행을 궤도상의 체류비행기간별로 분류 세분한 도표임. 1980년에 수행한 임무 중 2/3는 13 14일간 계속 비행을 하였음.

그러나 제반전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위성을 발사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소련의 우주군에 어떤 손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소련은 1975년에 새로운 세대의 사진정찰위성개발에 대한 시험을 시작하였으며, 이 우주선들은 6주 이상 동안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민감한 정보자료를 즉시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재돌입 캡슐을 장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위성들이 매 년마다 궤도를 비행하고 있으며, 위성의 평균 궤도비행 수명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 개 이상의 정찰위성이 항시 궤도를 비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궤도비행 수명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이 매년



이 도표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정찰위성에 대한 노력이 1962년 이후부터 계속적인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74년의 감소는 제4차 중동전 기간 중, 1973년 후반에 기대하지 않았던 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다 완수하는 전체의 임무수행일수가 실제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1979년에는 연간 증가 숫자가 500일을 초과하였다 (도표 참조).

소련의 정찰위성은 Tyuratam과 Plesetsk에서 발사되었으며, 이곳은 미국의 Kennedy Space Center와 Vandenberg 공군기지과 같은 곳이다. Tyuratam 기지에서 발사된 위성은 적도를 향하여 65° 또는 70°, 71°까지 경사된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Plesetsk 기지에서는 63°, 67°, 73°, 또는 81°~82°까지 경사된 궤도로 위성을 발사한다. 궤도경사와 발사시간을 신중하게 선정함으로써, 소련은 거의 매년 전 세계의 지역을 최대로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가 있다.

Plesetsk에서의 위성 발사는 대체적으로 Tyuratam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하루 늦게 발사하며, Tyuratam의 북동쪽 지역에서의 모든 위성의 회수시간은 아주 규칙적으로 Tyuratam 시간으로 오전 약 11시경이다.

이와 같이 회수시간이 규칙적인 것은 위성 사진체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경미한 방해 요인들 때문일 것이다.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통과하면 많은 목표물들을 충분히 비출 수가 있으며,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나타나는 긴 그림자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목표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각 회전기간 동안 전형적으로 비추게 하는 시험을 함으로써 더욱 더 알 수 있다.

고·저사진해상도 (Low and High Photo Resolution)

아주 최근까지는 소련의 사진정찰임무는 고·저사진해상도의 2가지형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전자의 저사진해상도(Low Photographic Resolution)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동목표물이나 또는 건축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Wideangle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포착되면, 어떤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좁은 시계를 사용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고해상도 임무를 항시 뒤이어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소련의 모든 정찰임무 중, 약 58%는 각종 고해상도 임무였다(그림 참조).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간해상도 임무가 구식의 저해상도임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위성은 약간 높은 궤도를 비행하면서 2가지의 고·저해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계가 보다 작은 카메라를 사용 기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Tyuratam 기지가 사진정찰 계획임무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군사정보에 대하여 관심을 끌어왔던 중동에서 있었던 소련의 최근의 제반 활동은 이와 같은 다재다능한 우주선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1980. 11. 12~28 동안 새로이 조직된 미국의 신속전개군은 카이로 근처에서 이집트군과 합동 작전을 실시하였다. 훈련 첫날에 미군 요원들이 이집트로 공수되고 있었을 때, 소련은 Plesetsk에



위 도표는 1962~80년간 소련의 저·중·고해상도 사진정찰임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에는 중해상도 임무가 전체 사진비행 중 거의 1/4에 달하였다.

서 중간해상도의 사진정찰위성인 Kosmos-1, 221호를 발사하였다(그림 참조).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Kosmos-1, 221호는 오후 1 : 15분에 255km의 고도로 카이로 동쪽 약 40km 지역을 통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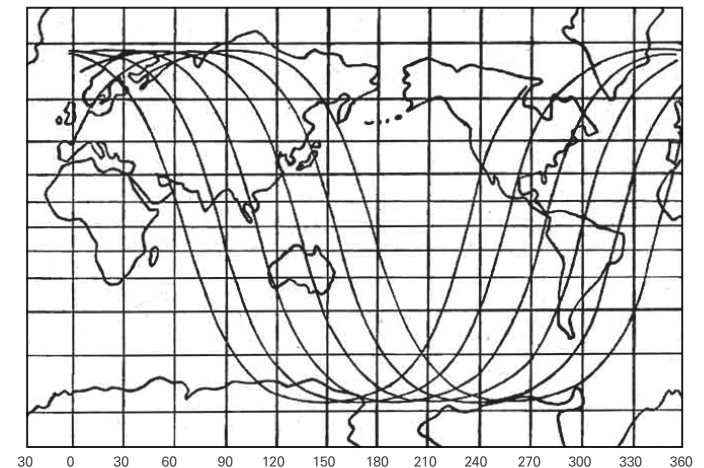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유리한 위치에서는 전개되는 훈련을 쉽게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이로 서쪽 공항에서 지난 밤에 추락하였던 미국의 C-141의 잔해를 볼 수 있었다.

다음날인 11월 14일에 Kosmos-1, 221호는 대략 똑같은 시간과 고도로 카이로 서쪽을 통과하였으며, 훈련이 종료되고 있었을 때인 11월 26일에 지구로 회수되었다.

두번째의 소련 정찰위성이 카이로 시간으로 오전 8시 바로 전, 11월 17일에 185km 고도로 카이로 상공을 통과하였다. Kosmos-1, 218호로 부르는 이 정찰위성은 Tyuratam 기지에서 보다 낮게 경사된 궤도로 1980. 10. 30일에 발사한 최신세대의 고해상도 정찰위성이었다.

3일 후 그리고 계획된 궤도기동의 불과 수시간 전, Kosmos-1, 218호가 Khorramshahr 및 7Ahwaz의 바로 서쪽방향과 165~175km의 고도로 Dezful 및 Tehram 지역 상공을 직접 통과하였을 때, 소련의 관심은 이란·이라크전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거 10여년 이상 동안, 소련 정찰위성에 대한 각종 다른 임무간의 구별이 영국인인 Geoffrey Perry씨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Perry씨는 소련의 우주선에서 각종 원격회수신호를 방수(Intercept), 분류하여 충분한 분석을 한 후에 전반적으로 3가지의 임무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Kosmos-1, 221호의 최초 6회 (1980. 11. 12 26간) 선회 과정을 표시한 도표이다. 소련 사진정찰위성은 대부분이 고도로 경사된 궤도를 비행하며, 이는 가급적 전 세계를 사진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분류방법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였으며, 미 상원에서 발표된 5개년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1969~1976년의 대다수의 비행은 우주의 체류기간에 따라 고해상도 또는 저해상도별로 잠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2일간의 임무 중 81%는 저해상도임무였고, 13일간의 임무 중 92%는 고해상도임무였다. 그러나 1976년 이후, 4년 동안에는 12일간의 임무수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고해상도임무인 13일간의 임무는 전체의 고해상도 임무 통계수의 %와 거의 같다.

1개월간 궤도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이 현재 2주간 비행하는 위성을 점차적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가서는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의 연간 수가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동이 불가능한 우주선도 보다 다목적인 중간해상도위성으로 전체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Tyuratam 기지에서의 제반 위성의 운영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추측되며, 반면에 Plesetsk 기지에서는 73도와 81도 그리고 82도까지의 급경사의 궤도에 집중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이 주로 사용해온 역태 양동위궤도의 사용을 꺼려해 왔다. 이 궤도는 일정한 위치에 대하여 실제로 일정한 태양각을 허용하며, 새로운 건설이나 또는 각종 부대의 이동 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소련이 훨씬 장기간 동안(수개월 동안) 궤도를 비행하면서 캡슐이나 디지털 송신방식으로 각종 사진을 지구로 회송할 수 있는 정찰용 우주선을 개발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여러 가지의 이점 보다는 이 궤도상에서 발생하는 중량상의 여러 가지 결점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지리적, 기상학적, 해상학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주에 영구적인 유인전초기지를 개발할 것을 소련은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소련은 아직도 계속 시험하고 있다.

1979년에는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Ryumin과 Lyakhov는 궤도를 비행하는 Salyut-6 우주정거장의 선체에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체류하였으며, 소련은 이해에 19년 계획의 역사상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유인사진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각종 전술 및 전략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 유인군사 Salyut 계획은 1973~1977년 간에 3개의 특수 저고도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중에 7회의 중요한 실패를 체험한 바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중지하여 왔다. 따라서 하늘의 Robot 「스파이」는 앞으로 수 년 동안, 그의 기계적인 눈을 계속 훈련할 것 같다.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TU-계열의 항공기

투폴레프(Andrei Tupolev)는 「러시아 항공(航空)의 아버지」 주코프스키(Nikolai ye Zhukovsky) 교수가 조직(組織)한 모스크바 고등기술학교(高等技術學校) (MVTU)의 항공연구(航空研究) 서울 출신(出身)으로서 세계적(世界的)인 폭격기 설계자(設計者)다.

그는 TU-4에서부터 전략(戰略)폭격기 TU-26(Back fire)에 이르기까지 소련 폭격기의 주종(主宗)을 이루고 있는 TU계열의 항공기를 설계(設計)하였다. 그래서 TU계열 중 몇몇 대표적(代表的)인 기종(機種)들을 골라 그 항공기의 개요(概要)와 성능(性能) 및 제원(諸元) 등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특히 중복되는 명칭들이 많아 혼동하기 쉬운 점 등에 착안하여 그 명칭을 분명(分明)히 하는데 노력하였다.

— 역자주(譯者註) —

윤 용 현(尹龍鉉) 역(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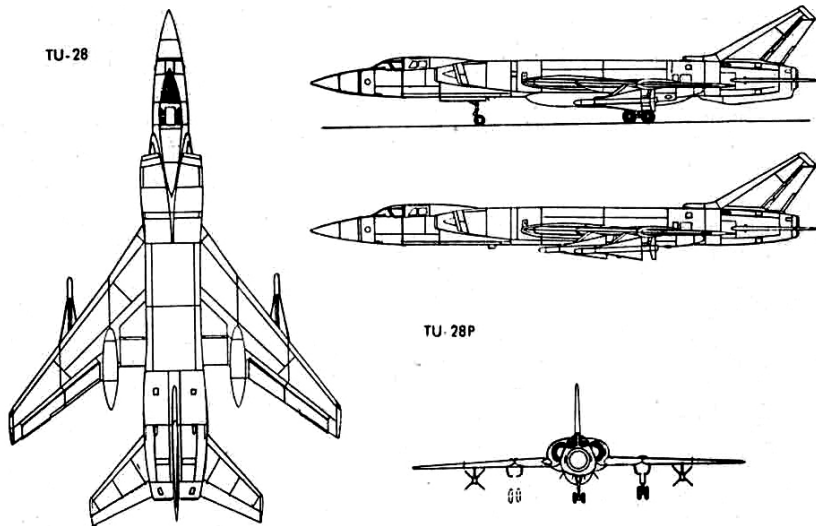
1. TU -28 (Fiddler)

TU-28(Fiddler)은 매우 중요(重要)한 특성(特性)을 지닌 전투기(戰鬪機)이지만 소련이 운용(運用)하고 있는 전투기중(戰鬪機中)에서 잘 공개(公開)되지 않았던 비행기(飛行機)다. 그런데 1959년(年) 미국(美國) CIA의 첩보기 U-2기(機)에 의해 첫 사진이 입수되었을 때 외견상 TU-98(Backfin)과 유사하여 식별이 매우 모호하였다. 그후 1961년 TU-105가 출현(出現)했을 때 이 TU-105가 Backfin에서 기인한 중폭격기라는 사실이 확실시되자 이 항공기들의 실제 역할에 따라 명칭을 새롭게 하여 TU-102와 TU-28을 Fiddler라 하고 TU-105와 TU-22는 Blinder라 부르게 되었다

TU-102/TU-28 (Fiddler)은 YAK-25의 대체기로 보다 향상된 독자적 작전수행과 전천후 요격능력을 지닌 항공기로 생산(生産)하였다. 초기엔 YAK-25와 TU-102(Fiddler-A)를 경쟁생산하였으나 YAK-25가 먼저 완성(完成)되어 1956년 전반기에 비행을 시작했었다. 그런데 1956년 6월과 59년 11월에 발생(發生)한 두 건의 사고로 인해 생산(生産)을 중단(中斷)하고 YAK-25 대신 TU-102를 1961년부터 생산(生産)하기 시작했다. 이 TU-102는 두 개의 Lyulka AL-7 터보제트 엔진

을 장착하고 보다 우수한 요격 임무(hunter-killer)를 수행하기 위해 카누형의 커다란 레이더 돔을 동체 하부에 장착하였다. 요격 임무시에는 AA-5 Ash 미사일을 유도하는 2대의 공대공(空對空) 레이더를 사용했다. 1967년에는 전천후 요격능력을 갖도록 개량한 TU-28P(Fiddler-B)를 생산하였는데 항공기가 그 동안 소련이 제작한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큰 전투기(戰鬪機)일 뿐 아니라 대단한 제공력(制空力)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美國)의 F-102와 비교해 볼 때 성능(性能)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1974년부터 점차적으로 TU-22(Blinder)를 요격기로 개조한 TU-128로 대체하면서 TU-28은 SAM (Umbrella)이 부분적(部分的)으로 방어하지 못한 지역(地域)을 초계 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TU-28의 체공능력은 보조연료탱크나 비행중(飛行中) 재급유를 받지 않고도 약 3시간 30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수부분(機首部分)에 장거리 대형 레이더와 Sukhoi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총 가동대수는 130~400대 정도로 판단된다.

TU -28의 삼면도



Tupolev TU-102 (Fiddler-A) /TU-28P (Fiddler- B)

임무 : 전천 후 장거리 요격기 (복좌) .
엔진 : 2X 7,000 kg/st (연료 : 4, 070 gal)
제원 : 스펠 (19.3 m)
기장 (27.25 m)
기고 (5.83 m)

무게 : 45, 000kg (최대이륙중량)
성능 : 최대속도(最大速度)(1,840km/h)
순항속도(巡航速度)(1,015km/h)
실용상승고도 (16,000m)
전투행동반경(戰鬪行動半徑)(900~1,440km)
항속거리(3,450km)
무장 : 4XAA 5 Ash 공대공미사일
2Xradar
2xIR Homing

2. TU-126 (Moss)

TU-126(Moss)을 미국방성(美國防省)은 SU AWACS, 파키스탄 정보국(情報局)에서는 Spider 라고 부르는데 이 항공기는 TU-114 Rossiya에다 조기 경보탐제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TU-114의 기체(機體)를 거의 변형(變形)시키지 않고 동체(胴體)위에다 직경이 1m 인 회전 레이더돔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개조는 미국(美國) Lockheed사(社)가 Warning Stars, AWACS, Hawk eye 등을 채택해서 개조한 것과 유사한 방법(方法)이었다. TU-126에 대한 정보(情報)는 1960년대 중반쯤에 밝혀지기 시작하여 1968년에 이 비행기에 대한 확실한 천연 색 사진정보가 공개(公開)되었다.

이 항공기는 1967~70년 사이에 작전배치되었는데 종전에 지상에서 전투기(戰鬪機)까지 요격정보를 제공하던 체제를 탈피해서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하는 역할처럼 주로 방공작전을 하는 Fiddler, Flagons, Foxbats와 함께 작전(作戰)을 한다. 또한 TU-126은 MIG-21의 제공작전(制空作戰)과 SU-17의 대지공격작전(對地攻擊作戰)을 유도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TU-126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戰爭)에서 인도의 전투기(戰鬪機) 작전(作戰)을 유도해 왔으며 근래 아랍-이스라엘 전(戰)에서도 아랍 공군(空軍)과 협력(協力)했다고 한다. 현재(現在) 소련 공군(空軍)은 10~12대의 TU-126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TU-114, TU-114D, TU-95의 특성(特性)과 기술적(技術的)인 자료(資料)가 TU-126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순항속도(巡航速度)와 항속거리, 최대적재량만이 약간 차이가 난다.

3. TU-16 (Badger)

1951년 TU-16은 미국(美國) Boeing사(社)의 B-47에 맞서는 새로운 제트 중(中)폭격기로 개발(開發)에 착수, 개발기간중(開發期間中)에는 쌍발 제트엔진(Samolot N)을 장착하여 TU-88이라 불렀다. 초기엔 IL -46과 경쟁 생산(生産)하였으나 IL -46은 오래가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고

뒤처짐각의 날개를 갖는 비행기인 TU-88(TU-16)원형기를 제작했다. 서방제국의 정보소식통들은 이 새로운 항공기들을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해 여러 명칭을 사용하다가 TU-104가 공식적(公式的)으로 출현(出現)하게 되면서 점차 확실시되어 이 새로운 비행기를 TU88 (Badger)라 했다. TU-88(TU-16)은 급속한 개발(開發)을 하게 되어 1952년에 원형기가 이미 비행하였으며 1953년 11월에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TU-88(TU-16)의 공식적(公式的)인 출현(出現)은 1954년 5월 1일, Air Show에서 9대가 첫선을 보였다. 이듬해 항공의 날 Air Show에서 총 54대의 폭격기가 공중 퍼레이드를 하며 소련 전략공군이 이미 막강한 중(中)폭격기로 무장하였음을 과시하였다.

원형기(原型機)와 예비생산 항공기는 두 개의 8단계 Mikulin RD-3 터보제트엔진(6,750kg/s)을 장착하였으나 대량생산(大量生産)된 항공기는 AM-3M (혹은 RD- SM) 제트엔진(9, 500kg/s)으로 바꾸어 생산(生産)했다. 무장은 23mm Cannon 한쌍을 장착한 2개의 원격조종 총좌(銃座)가 있고 오른쪽 기수부분(機首部分)에 또 다른 Cannon이 있으며 폭탄 bay에 약 9,000kg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해군 항공대에서는 해상정찰 항공기로서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이상적인 항공기라고 했다.

다음은 TU-16의 개량형들이다.

Badger-A :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초기에 생산했던 것으로 중공 공군과 이집트 공군(6일 전쟁시(戰爭時) 20~30대(臺)가 격추) 그리고 이라크(6대(臺))에 배치되었다. 또한 몇 대는 공중(空中)급유기로 개조되고 나머지는 훈련(訓練)과 기상관측용(氣象觀測用)으로 사용되어 왔다.

Badger-B : 두 개의 AS-1 Kennel 미사일을 장착한 첫 미사일 운반용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라크 공군 등지에서도 활약했었다. Badger-A와의 차이점은 날개에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두 개의 Hard point가 있고 동체 중앙부에 대형 유도미사일이 있다.

Badger-C : 해상정찰용으로 사용되며 AS-2 Kipper 미사일을 폭탄 Bay에 운반하도록 개조하였다. 이 개량형은 이제까지 외국에 수출된 바가 없다.

Badger-D : 대형 레이더를 앞 부분에 장착하고 배부분에는 세 개의 작은 레이더돔을 갖도록 개조한 해상정찰용으로 배부분에 장착된 레이더 돔은 접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집트 공군에는 아직도 취역 중에 있으며 소련 승무원이 동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1년에 발견(發見)되었다.

Badger-E : 폭탄 Bay에 카메라를 장착한 Badger-A의 개량형으로 전략정찰용이다.

Badger-F : Badger-E의 날개 하부에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종종 해군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adger-F : Badger-E의 날개 하부에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종종 해군(海軍)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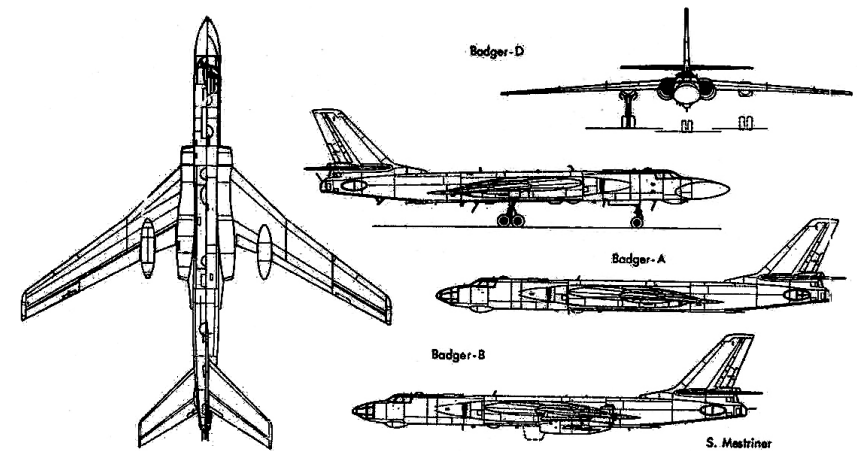
Badger-G : AS-5 Kelt 미사일을 장착한 Badger-B의 개량형으로 약 18대가 이집트 공군(空軍)에서 취역 중에 있다

이제까지 소련은 약 1,500~2,000대의 TU16을 제작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생산(生産)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중공(中共)에서는 1970년대 초 탄도미사일을 작전배치할 때까지 원자탄 운반용으로 이 모델을 제작하기 시작했었다.

소련은 점차 TU-16을 TU-22(Blinder)로 대체하여 현재는 약 4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나라의 TU-16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공(中共)(60~100대), 이집트(17~25대), 인도네시아(22대), 이라크(8~9대), 리비아(12대).

TU-계열의 항공기



TU-16/TU-88 (Badger-D)

임무 : 전략(戰略) 중폭격기 (7명의 승무원)

엔진 : 2X9,500kg/s Mikulin AM-3M,
RD3M Axial Turbojet.

제원 : 날개 길이(33.5m), 기장(36.8m),
기고(10.80m), 날개 면적 (169.0).

무게 : 적재 하중(68,000kg)
최대이륙중량 (77,000kg)

성능 : 최대속도(最大速度)(945km/h)

순항속도(巡航續度)(786km/h)

실용상승한도(13,000m)

항속거리(6,400km)

무장 : 6 X NR-23 (Nudelmann-Richter 23mm Cannons)

2XAS-1 Kennel/AS-5 Kelt 또는 AS-2 Kipper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4. TU-20 (Bear)

설계시(設計時)에는 TU-95라 불렀고 취역할 때는 TU20이라(NATO명(名) Bear) 불리우는 이 비행기는 Mya-4 (Bison)이나 TU-16과 유사한 점이 많다.

TU-20은 Tupolev가 미국의 B-29를 기초로 해서 설계한 전략폭격기 중 맨 마지막 작품으로 소련의 전략공군(戰略空軍)에 배치하기 위해 설계(設計)하였다. 그러므로 Mya-4와 같은 폭격기들이 갖고 있던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점(問題點)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설계자(設計者) Tupolev는 TU-20을 설계할 때 TU-85(Barge)의 동체를 모방하고 엔진은 미국의 B-29 왕복동 엔진 즉 소련제 TU4 (Bull) 엔진을, 날개는 뒤처짐각이 있는 날개 형태를 채택했는가 하면 대형 축류 터보제트의 막대한 연료소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터보프롭엔진을 개발하여 당시 제트 폭격기들이 가속하는 속도에 가깝도록 하였다. 그래서, TU-20은 터보프롭으로 구동되는 항공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되었다.

TU-20(Bear-A)은 1954년 늦은 여름에 처녀비행을 하고 1955년 7월에 TU-Shino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956년 중반에는 이미 소련의 전략공군에 작전배치 완료하였다.

Tupolev는 TU-20으로부터 TU-114(NATQ 명(名) Cleat)를 창안해 냈는데 서방 정보분석자들은 TU-114의 성능에서 TU-20의 성능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TU-95/20(Bear- B)를 특별한 목적(目的)에 부합하도록 개량한 각종 개량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Bear-B : 1961년에 소개되었으며 폭탄 Bay를 개조하고 AS-3 Kangaroo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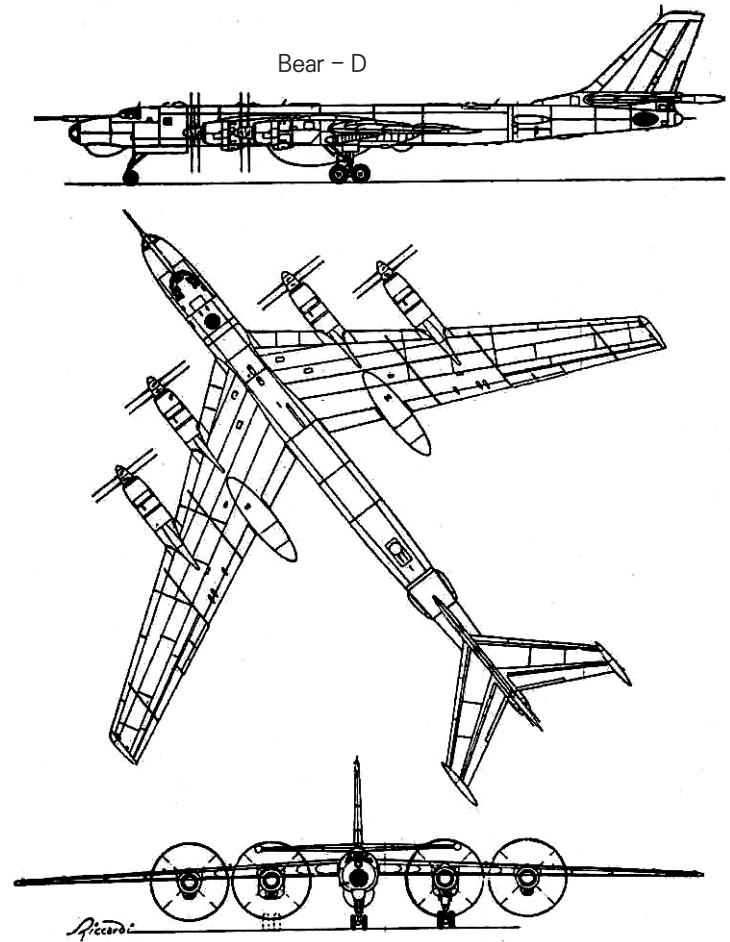
Bear-C : 전략정찰용 및 대잠기로 개량하였으며 폭탄 Bay에 전자장비를 장착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체 양쪽에 레이더돔이 있다.

Bear-D : 이 개량형은 1967년 여름에 처음 식별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형기를 개조하여 공중 급유장치, 향상된 항법장비, 순항미사일을 추적해서 유도할 수 있는 대형 레이더돔 등을 장착했다. 이 항공기는 미익 끝부분의 유선형 구조(fairing)에 의해 즉시 식별 가능하다.

Bear-E : Bear D를 사진정찰용으로 개조하였으며 Radar돔 대신에 6~7개의 사진기를 장착하고 미익 끝부분이 유선형구조(fairing)가 아닌 것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다.

Bear-F : 안쪽 엔진의 낫셀을 보다 큰 유선형 구조로 개조한 이 개량형은 1973년에 출현 하였으며 여러 개의 레이더돔은 해군 순항미 사일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以上)과 같은 TU -20은 최근 폭격기로서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1975~76년 사이에 약 100대 정도만 가동되고 77년부터 점차 Backfire- B 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현재 소련 공군에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후 약 50대의 C, D, E, F 형이 대잠목적과 순항미 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TU-95/TU-20 (Bear-A)

임무 : 전략중(戰略重)폭격기 (승무원 6~7명)
 엔진 : 4 X 12,000 HP
 제원 : 날개길이 (48.5m), 기장 (47.5m) 기고 (12. 2m), 날개 면적(292.6m²)
 무게 : 최대이륙중량(168,000kg)
 성능 : 최대속도(881km/h, Mach 0.83)
 순항속도(807km/h),
 실용상승고도(13, 500m)
 최대 항속거리(12, 550km)
 무장 : 6XNR-23 Cannons, 30,000kg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

5. TU-2 2 (Blinder)

1961년에 TU-22 중폭격기가 공식적(公式的)으로 출현(出現)하기 전에는 Myasischev나 Yakovlev 계열의 비행기로 간주되어 왔는데 미국의 B-52와 같은 급(級)으로 볼 때 성능(性能)은 약간 떨어진다. 이 TU-22는 미국의 B-47과 같은 급(級)인 TU-16의 대체기로 생산했었다. IL-54가 이와 좀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TU-22(Blinder)는 TU-98(Backfin)를 기초로 하여 설계(設計)하였다. TU-98은 1955년 처녀비행을 하였으나 서방세계(西邦世界)에는 1957년에야 알려졌는데 이 비행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TU-105/TU22라 불리는 새로운 원형기를 제작하여 1957~60년 사이에 작전화하였다. 이 비행기가 공식적(公式的)으로 출현한 것은 1961년 7월이었다. NATO에서는 초기 TU-22를 Beauty라고 명명했다가 후에 Blinder로 명칭을 바꿨다. 개량형은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Blinder-A : 초기에 개량한 것으로 전방 레이더가 동체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고 비행 중 재급유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미사일을 장착하기에 적당치 않게 되어 있다.

Blinder-B : 보다 광범위한 공격 레이더와 공중급유 가능한 Probe를 접어 넣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대지 미사일 뿐만 아니라 자유낙하 폭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폭탄 Bay를 가지고 있다.

Blinder- C, D : 폭탄 Bay를 개조해서 6개의 사진전자장치와 ECM장비를 탑재한 TU-22R이 있고 해상초계와 대전함 전투훈련용의 TU22T가 있으며 이를 후에 Blinder-D라 불렀다.

Blinder-E :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A-5 Ash와 4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다. TU-22는 불과 230~320대 정도 제작되었으며 이 항공기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TU-16의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B-58이나 불란서의 미라주 IV-AS같은 음속폭격기에 비교해 볼 때 전투행동반경이 짧기 때문에 제한 생산하게

되었다. TU-22는 가변익을 갖는 Backfire기(機)(미국의 B-1급(級))의 시험기로 제작되었으며 이 Backfire기(機)가 TU -22 (Blinder)의 대체기(Succesor)가 될 것 같다.

작전 중에 있는 Blinder를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종종 조우하게 되는데 리비아나 이라크 등에 수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linder의 주된 임무는 ①해상초계 ②대함공격 ③ 전자전의 세 가지 임무를 요약할 수 있다. 소련은 1976년 말 통계로 170대의 TU-22를 취역중에 있으며 체코 침공 때도 이 비행기로 전자전을 실시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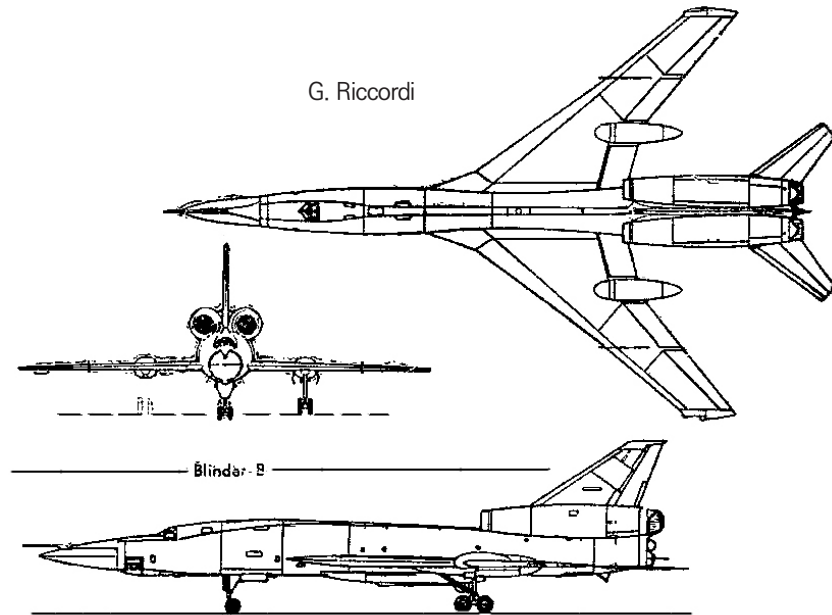
TU-105/TU-22 (Blinder-B)

임무 : 전술전략중폭격기(승무원 3명)
 엔진 : 2X 13, 000 kg/s (Soloviev D-15 터보팬)
 제원 : 날개 길이 (26.85m), 기장(40. 95m), 기고(11m), 날개 면적 (188m²)
 무게 : 최대이륙중량(84, 000 kg)
 성능 : 최대속도 (1,600 km/ h, Mach 1.5)
 순항속도 (960km/ h, Mach 0. 9)
 실용상승고도 (18,000m)
 전투행동반경(1, 000~1, 530km)
 항속거리 (2,250~3,670km)
 무장 : 1XNR-23 Cannon
 1X AS-4 Kitchen(공대지 미사일)

6. TU-26(Backfire)

중폭격기 TU-22(Blinder)가 TU-16 (Badger) 대신 작전배치되던 1962년경, 소련의 군사교리는 중(中)거리(2,500~3,000km)에 위치한 전략목표(戰略目標)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전술(戰術)미사일이나 IRBM 등을 운반하여 공격할 수 있는 Backfire기(機)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1969년 가을에 TU-22를 개조해서 Sukhoi Su-7(Fitter)와 같은 가변익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었다. 그래서 초기에 서방측에서는 그 비행기를 BlinderVG(Variable Geometry)라 불렀는데 1970년 미공군(美空軍) 정찰위성이 소련의 Kazan 지방(地方)에 있는 Tupolev 계열 생산공장부근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의 모델을 촬영하였다. 그후 다시 두대의 원형기를 발견했는데 한 대는 비행 중에 있었고 다른 한 대는 MI-4(Bison)의 공중급유탱크에서 공중급유 훈련 중인 모습을 촬영했다. 미 공군 정보분석가들은 각종 자료를 수집, 이 비행기의 실제 모습과 거의 유사한 나무모형을 만들어 Big Swinger(F-111의 별명)라 했다.

이 Backfire기(機)는 2개의 대형제트엔진과 두 개의 가변공기 흡입구를 가졌고 날개의 가변각은 20°~55°이다



1976년 미 공군에서는 Backfire-A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난 Backfire-B (소련명칭 TU30?)의 규격을 다시 제작하였는데 BackfireB(TU-30?)는 많은 수동과 능동의 전자전 장비와 항법장비 이외에도 군사위성과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새로운 관성항법장비를 갖추고 있다. Backfire-A는 9대 정도가 남서 러시아에 주둔한 전략공군부대(戰略空軍部隊)에, 그리고 흑해사령부 산하의 해군항공대에 2개 대대가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Backfire-B는 아마 1976년 말까지 약 80대가 작전배치 완료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TU-26/30(?) (Backfire)

임무 : 전략(戰略)폭격 기 (승무원 3명)
 엔진 : 2X 13,000 kg/st(이중 터보팬)
 제원 : 날개 길이 (34.5m, 뒤편 20°일 때)
 (26.2m, 뒤편 55°일 때)
 기장(40.2m), 기고(10m)
 날개 면적 (134.5~168m²)

무게 : 최대 이륙중량(122, 500 kg)
 성능 : 최대 속도(2,123km/h, Mach 2.0)
 상승률 (140m/sec)
 실용상승고도 (18,000m)
 전투행동반경 (2,500~6, 000km 재급유 없이)
 최대 항속거리 (20, 000km 재급유 없이)
 무장 : 1xNR-30 Cannon
 2X AS-4 Kitchen, AS-6 ASM 미사일
 4x350 Kilotoni 전술핵폭탄,
 16, 500 kg의 재래식 폭탄.



우수전투 조종사(優秀戰鬥 操縱士)의 조건(條件) (2)

박 범 진(朴范鎭) 역(譯)

천차만별한 전황(戰況)에 빨리 대응한다.

자신 있는 공중전투형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결코 오랜 시일에 걸쳐 커다란 전과를 올릴 수는 없다. 공중전의 전황은 항상 천차만별하기 때문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태세를 새로이 갖추어 여유도 없이 Dog Fighting에 들어 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격기의 엄호 임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에이스는 전기(戰技), 전술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어떠한 적과 어떠한 상태에서 싸우더라도 1보(步)도 양보하지 않는 실력과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할트만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전법(戰法)을 마스터했다. 바로 이것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대전과(大戰果)를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법(戰法)을 실증케 한 기량 : All round player로서의 실력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

전쟁 말기에 그는 8대의 무스탕에 포위되어 불리한 공중전을 했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8대의 무스탕에게 쫓기면서

이 무스탕 조종사는 정말 훌륭했었다. 엔진을 전개한 채로 좌전회급강하(左轉回急降下)로 대지(大地)로 돌진하는 할트만 뒤를 바짝 따라 붙었다.

「자력(自力)으로 귀환하라! 나도 나중에 혼자서 귀환하겠단!」

그는 무선으로 요기에게 지시하였다. 분하지만 싸우기에는 적기의 수가 너무 많았다. 요기(僚機)만은 탈출시켜 생환(生還)시키고 싶었다. 적은 단기(單機)가 된 그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그는 백미러로 좌우를 보았다.

8대의 무스탕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수직면(垂直面) 기동(機動)으로 빠져 나오려고 급상승을 시도했다. 이것이 적을 혼란시키는 것이 되었다. 잠깐 동안에 태세가 호전(好戰)하였지만 곧 진로(進路)를 차단당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 어느 때와 같이 그는 큰소리로 혼자서 소리 치기 시작했다.

「만사가 생각한 대로다. 「에릿히」 침착해라.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힘을 다해 싸워라!」

무스탕은 4대씩 2편대로 나뉘어 그를 한가운데에 몰아 넣었다. 그들은 그와 거의 같은 속도였다. 그는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 수 없었다. 「급선회하라! 「에릿히」 힘껏 급선회하지 않으면 허리에 큰 구멍이 날꺼야!」

바로 고양이와 쥐의 추적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기체를 좌선회시켰다. 그러면 적도 좌선회를 했다. 그는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였다.

힘껏 우선회—2대의 무스탕으로부터 집중(集中) 포화(砲火)—다시 좌선회—다른 방향에서 영광탄(曳光彈)의 다발이 치솟는다—급히 우선회—또 다시 영광탄의 다발,

「운이 좋구나. 「에릿히」 놈들은 명사수가 아니야 놈들의 사격은 너무 서툴러 사거리(射距離)가 너무 멀어. 「에릿히」 너의 사격술을 놈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너는 벌써 저승에 갔을거야! 운이 좋구나!」

급한 우선회, 좌선회에 신경을 극도로 소모시키는 선회 전투 중에서도 무스탕이 자기 앞에 나오면 그도 포화를 퍼부었다.

「「에릿히」 이 따위 사격으로 탄환은 명중하지 않아. 너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놈들은 너의 영광탄을 보고서 조금은 기분이 동요할거야. 그리고 자기 기관포의 발사음은 웬지 모르게 기분을 안정시켜 주는 법이야. 그러나 아뭏든 몇 분 후에 나는 놈들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라고 생각하면.....?」

8대의 미군기와 1대의 독일기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좁은 듯 선회를 계속한다. 단속적(斷續的)으로 기관포가 발사되고 어떻게든지 영광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독일기는 필사적으로 도피기동(逃避機動)한다. 따미 그의 등을 축축히 젖게 하고 그의 별장게 달아오른 얼굴은 한증탕에 들어 있는 듯하다.

Dog Fighting은 고통에 가득찬 중노동이다. 무스탕의 총탄을 피하는 필사적인 도피 기동 중에 과거의 회상이 머리속을 스친다.

학교에서 체조를 잘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 「에릿히」 너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근육을 갖고 있어. 머리만을 써서는 아무것도 안 돼 힘을 내는거야. 체력의 싸움이다!

그도 어떻게든지 반격을 하려고 사격찬스를 노린다. 그러나 이렇게 급선회의 연속이어서는 명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Dog Fighting을 계속하면서 그는 점차 기지에 접근해 갔다.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비행장에 접근하라. 「에릿히」 아군 고사포가 너를 놈들의 손으로부터 구해 줄거야!」

실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열세를 만회하고 있었다. 선회할 때마다 조금씩 적으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트만」은 방어를 위한 독특한 전법(戰法)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그는 가장 자신있는 공격 전법으로 노련한 선배들을 격추 몇수 면에서 월등히 추월하고 이 방어 전법으로 죽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후상방(後上方)으로부터 적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그는 적기의 안쪽으로 급선회하여 들어가면

서 급상승한다. 一적은 후상방(後上方)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비스듬히 한바퀴 도는 형으로 적의 후하방(後下方)으로 돌아 들어서 그대로 돌진하여 급강하이탈(急降下離脫)한다.

그와 함께 작전비행을 한 조종사들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예측과 계산을 기초로 한 이 기동(機動)을 마치 초인적인 기술이라 생각했다.

그는 적을 항상 면밀 정확하게 관찰하여 발포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적이 발포하기 전까지 회피선회기동(回避旋回機動)을 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는 본능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군(拔群)의 기안(機眼)과 냉정을 가질 수 있는 담력을 필요로 한다.

너무 조급하게 회피기동을 하면 적은 이 찬스를 포착하여 추미선회(追尾旋回)를 뿌리치고 뒤로 돌아와 버리므로 한층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배후에서 자신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적이 기관총을 발포하기 직전에 기체를 뒤집음으로써 느린 속도를 이용하여 작은 선회로써 적의 총탄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모험이다. 그러나 그는 이 방법으로 적의 총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타인이 따라서 할 수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 활로를 열어 준 것이 “一G”이다. 총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작은 반경의 선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격측은 공격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층 작은 선회를 하지 않으면 명중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순간 바로 코앞의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 그대로 계속 비행을 하면 회전급강하(回轉急降下)한 적이 뒤에서 급상승하여 명중탄을 보내게 된다. 즉 추적(追跡)당하는 측은 조종간을 힘껏 앞으로 밀어 방향타를 밟고 회전급강하하여 위험한 코스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중력은 +G로부터 -G로 급격히 변화한다. -G를 거는 조종은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다. 속도가 우세한 공격측이 이러한 기동을 쫓아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리하게 쫓아오면 갑자기 커다란 -G에 습격당하여 조종사의 몸은 좌석에서 떠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머리에 피가 몰려 눈이 감기고 일시적으로 조종 불능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는 이 테크닉을 사용하여 절대 절명의 궁지를 탈출했을 뿐 아니라 가끔 결정적인 전과를 올렸다.

그 혼자만의 비술(秘術)이었던 것이다. 점위(占位)한 사격점으로부터 신속하게 적기발견, 접근기동, 그리고 기량을 다 발휘하여 Dog Fighting, 이들은 모두 사격점을 점위하기 위한 것이다. 머리와 근육을 사용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도 목적은 단 한가지 적기를 명중시키는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겨우 획득한 발포가 명중하지 않는다면 만사가 물거품이 된다.

전쟁 중 자신의 숨씨가 미숙하다는 것을 나는 속으로 여러 번 뼈저리게 느꼈다.

「명중하는 기관포가 있었으면 정교(精巧)한 조준기가 있다면…」 미군과 같이 1,000km 떨어져서도 예광탄이 똑바로 날라갈 수 있는 기관포가 있다면… 뒤에서 뿐이 아니다. 그들과 같이 앞에 서든 옆에서든 명중탄을 퍼부을 수 있다면……」

F-86F의 조준기는 레이더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명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 스코프상의 원내(圓內)에 목표를 맞추는 것이 매우 힘들다.

웬만큼 안정된 조종을 하지 않으면 이 원이 흔들려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결국 조종사의 기량에 맡길 수 있을 뿐이었다. 고속기(高速機)일수록 사격은 힘들다. F-86 F처럼 운동성이 뛰어난 비행기도 옛날처럼 광상식조준기(光像式照準機)로는 아무리 사격의 명수더라도 명중탄을 퍼붓는 것은 힘들 것이다. 적기를 명중시킬 수 있는 위치를 점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한 번 있을 만한 좋은 찬스를 맞아서도 사격 기술이 미숙한 탓으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는 한다.

기회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에이스이다. 그리고 대(大)에이스일수록 기회를 놓치는 적은 결코 없다.

B-29의 직상방공격(直上方攻撃)은 초인적인 경지에 도달한 구로노(黒野)중위의 사격 기량 때문에 처음으로 가능했다. 이 공격법이 유효하고 적탄을 맞는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이 공격법을 사용한 조종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 아메리카 전선에서 1년도 채 못되어 158대를 격추하고 아깝게도 엔진 고장으로 추락사한 마르세이유 대위는 조종학생 때부터 사격의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미·영기(美·英機) 1대의 격추는 소련기 3대의 격추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전과를 소련기로 환산하면 474대라는 계산이 된다. 더욱 할트만의 절반의 기간 동안에 도달한 전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르세이유야말로 톱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현실은 산술계산처럼은 안 된다. 독일 공군이 적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던 시대와 30:1의 열세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전쟁 말기와의 환경 조건의 차 그리고 소련 공군에 관한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견해에는 전적으로 찬성은 할 수 없지만 마르세이유는 어떠한 위치로부터도 적기를 명중시켰다 한다.

비행군 사령으로 할트만의 상관이며 275대를 격추하고 전쟁 후에는 독일 항공함대 사령관으로서 할트만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아준 군타 같은 그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우들의 할트만에 관한 추억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명중탄을 적기에 퍼붓는 명사수라는 것이었다.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방향, 각도 그리고 원거리로부터 적기를 명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230대 격추, 그 중 미·영기가 124대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리고 아깝게도 1957년 스포츠 비행기로 추락사한 하인츠·페아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전방공격 사격에 있어서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군 제1의 명사수였던 전설적인 명사수였던 마르세이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정비사 출신으로 수학이 뛰어난 포크류슈킨은 비행경로와 총탄의 속도를 계산하여 공중 사격의 제요소(諸要素)를 수학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복잡한 계산으로 지면(紙面)을 메꾸고 곡선을 그렸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그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과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오로지 근거리 사격의 연구에만 골몰하여 끝내는 획기적인 명중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실제 공중전에서 59대를 격추하여 그의 결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조종기량이 뛰어 나다고 해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항공쇼의 곡예 비행팀, 장거리 항법, 계기비행, 공중전에 이르 기까지 각각 뛰어난 조종사가 있다.

그러나 사격은 이들 모두를 집대성한 것이 아닐까. 사격은 명인이지만 공중전이라든가 편대비 행은 형편없다고 하는 조종사는 본적이 없다.

이탈 귀환의 3가지 타입

100대 이상씩 격추시킨 대(大)에이스들은 몇 번씩 격추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수백회가 넘는 공중전에서는 절대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 불 속의 밤을 주 어와야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료 부하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지폭격(敵地爆撃), 대지공격에서 적의 화기는 상대를 선택하지 않는다. 할트만은 15회, 디웨이 트트는 14회 루멜은 실로 30회 격추 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껏해야 2회까지 1고 3회 격추돼서 생환해 돌아온 예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전장이 평원(平原)이고 진공거리가 짧고 격추당하여도 대개의 경우 구조반(救助班)이 와서 구 출해 주고 귀환하여 즉시 재출격할 수 있는 환경과, 낙하산으로 탈출하여도 바다위인데다가 구 조반도 없고 예를들면 육상이더라도 적의 점령 지역을 몇 백 km씩이나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 던 일본군의 경우와는 조건이 다르지만 인간인 이상 격추당한 정신적 쇼크는 상당히 큰 것이다. 이 쇼크를 몇 번씩 당하여도 태연자약하게 건전한 신경을 건지할 수 있는 조종사가 아니면 대(大) 에이스로 성장할 수가 없다.

격추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세한 병력, 불리한 태세하에서의 공중전의 스트레스는 매우 크 다. 승리가 확실하고 병력이 우세했던 미군 조종사의 스트레스는 일본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 리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미군은 규정출격 회수에 도달한 조종사는 후방에서 휴양시켜 사기회복 을 시켰다.

일본군이나 독일군 모두 미군과 같은 여유는 없었다.

특히 전쟁말기에 전장에 나온 조종사는 살아서 조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선 없다고 각오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하여 신경과 체력을 극한 상태까지 소모시키는 공중전을 살아 남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똑같은 공중전이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능력은 거의 없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다음 출격 뿐이다.

내일은 어떻게 설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없다. 더우기 2,3일 후의 자기의 운명은 어디 먼 세계의 일 같은 생각이 든다. 전과를 올리든, 생환을 하든 앞날에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한다. 자기

의 생명도 조국의 앞날도, 이 흙탕물 같은 상태에서 빠져 나오려면 그것은 죽음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닥쳐 올때까지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길 이 외에 도리가 없다.

이런 스트레스는 경험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일본군의 전통과 각자의 의지(意志)가 한계 점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있던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은 슈타인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편대로 적을 수색 중에 있을 때의 각자의 행동은 평상시와 같다. 계기 스위치류의 점검, 연료 농도의 조절, 산소 마스크의 점검 등이다.

수위에 여러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하는 유리창 내의 좌석은 매우 고독하다. 엔진이 어디엔가 이상한 소리라도 나지는 않을까, 밑에 보이는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시선을 준 다. 과연 살아 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비행성능의 저하는 타기 와 행동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기지에 귀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된다. 각 조종사는 이와 같은 유혹에 끌리고는 한다.

누군가가 「적기발견」하고 소리치면 상황은 급변한다. 전투대형 뿐만 아니라 심리면에서도 그렇 다. 수색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유무(有無)를 불연계하는 선고(宣告)이기도 하다. 이제는 싸우는 수 밖에 길이 없다.

자기 혼자만 빠질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와서 전투를 피해서 단독 행동을 취하려 하는 자는 격추 될 수 밖에 없다.

편대로부터의 이탈 귀환은 보통 착륙 후 바로 또는 적과 조우할 위험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유 감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항상 뒤를 잇는다.

「엔진 이상(異狀)!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전혀 순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식의 귀환 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정말로 비행기가 고장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 하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많은 전국(戰局)을 치러온 노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들은 자 기 비행기에 관하여 체험상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간단한 고장정도로는 그렇게 쉽사리 임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일이 설명은 안 한다.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이며 확신을 갖고 편대 장에게 보고한다. 타인이 신용하든 안하든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종류는 갑자기 쳐들어오는 체력, 기력의 한계에 도달한 노련한 조종사들이다. 그들이 이것을 의식하던 안하던 간에 상관없다. 수백회를 넘는 출격과 공중전을 거쳐서 출격을 할 때마다 여하히 자기자신을 극복할 것인가. 본능적인 자기 보존욕을 기만할 것인가를 잘 안 후에 극도의 피로의 상태에 도달해서 갑자기 그 억제하는 벽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하여 적당한 시기에 「미 안 하다」하고 말하고 편대를 이탈하고 싶은 유혹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세번째 종류는 보충부대로부터 온 젊은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항상 무엇 인가 구실을 만들어 전투를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에 사로 잡혀 있다. 그들은 그 전장의 냉혹무참 한 양상에 놀라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기분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죽고 있었던 것이 다. 전선(戰線)으로부터의 보도는 항상 씩씩하고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것 뿐이었었고 적이 한발 한

발 획득해 온 우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어떤 전투기 조종학교에서도 젊은 조종사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에 관해서의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련한 조종사들은 출격으로부터 귀환한 후 출격 도중에 되돌아온 젊은 조종사의 비행기를 시험해 본다. 대개의 경우 고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서 젊은 조종사의 허구성이 산산히 깨져 버린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훨씬 지난 후에 두번째 종류의 부류(部類)에 속하게 된다. 그들의 대부분은 전사하든가 아니면 다른 임무로 전환되기 위하여 본국에 송환된다.」

전쟁 중의 일본에서도 소수였지만 두번째 종류에 속하는 조종사가 있었다. 계급이 높을수록 자유 재량의 여지가 크므로 대개의 경우 지상 지휘를 한다하여 자기 자신은 거의 출격하지 않는다. 계급이 낮아지면 임무를 남에게 전가(轉嫁)하려 하여도 부하가 없으므로 병이 들어 버린다. 심인성(心因性)병이다. 그러나 이들 조종사들은 겁장이라든가 비겁하다고 정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잔혹하다.

한때는 용맹, 과감한 전사(戰士)였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발산하려 하여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후사당한다고 생각하면 여간한 신경을 가진자가 아닌한 언젠가는 역제의 한계를 넘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계이다. 말하자면 물리적 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의 용감한 전사를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전쟁 지도층의 휴머니즘의 문제이다.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뿐이 전쟁 수행의 길이 없게 되면 전쟁은 벌써 진 것과 마찬가지다. 구 일본군의 경우는 이 단계조차도 지나쳐서 특공대로서의 죽음을 강요했다. 이미 지휘는 부재(不在)한 상태였다. 기량이 미숙한 조종사는 출격시켜서 개죽음을 시키는 것보다 뜻있게 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폭언(暴言)이다.

전기(全機) 특공대 출격의 흥분과 침착

그러나 소수였지만 상식의 밖에 있는 조종사들도 있었다. 어떠한 곤란과 위협에 부딪혀서도 조금도 동요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포라든가 생(生)의 집착에 대한 본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케 할 정도였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거기에는 별로 수양 또는 사색에 잠겼던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므로 역시 신경의 구조가 보통 사람과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다. 전기특공(全機特攻)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 2시간쯤 전에 마지막朝食(朝食)을 취했다. 비행기의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식사는 형편 없는 밥에 멸건 된장국위에 푸른 파파이아 열매가 떠 있을 뿐이었다. 조미료같은 것은 들어 있지도 않다. 매 식사때마다 같은 메뉴여서 웬만큼 배가 고픈지 않고서는 목구멍을 지나지 않는 음식이었다.

나는 전날밤 12시에 명령을 받고나서 한 잠도 못 잤었다. 이제 몇 시간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신경이 곤두서서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이 하나 하나 뇌리를 스쳤다. 폭탄을 안고 무작정 가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마음껏 공중전을 한 후에 산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나였기 때문에 이 식사는 보기만해도 식욕이 일지 않았다. 제1진으로 출격 예정이었던 특조(特操) 1기(一期) 조종사가, 유유히 깨끗하게 다 먹어 치우는 것을 보고 대단한 신경의 소유자라고 존경스럽게 보고 했었다. 이어서 그는 식사 후에 함께 출격하게 되어 있던 기무라(木村) 상사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태도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머리가 수그러지는 기분이었다.

전혀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경의 소유자일까? 이와 같은 조종사가 정말로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있었던 중대의 선임장교 사하꾸(佐泊) 중위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우는 항상 명랑하고 어느때나 싱글 싱글 웃고 있었다.

출격으로부터 귀환하면 마치 훈련을 마치고 착륙한 것처럼 싱글 싱글 웃으면서 보고했다. 마치 즐거움 산책에서 돌아온 것처럼 나보다 1년 후배였지만 전장(戰場)에서는 선배였다.

매우 센스가 뛰어난 조종사였지만 아깝게 종전(終戰)직전인 8월 13일 B-29의 요격에서 전사했다. 아마 이와 같은 조종사들이 에이스로 성장해 갈 것이다. 베테랑으로는 편대장이었던 시시모도(四至本) 대위, 이또(伊藤) 상사, 기요미(清見) 상사, 다무라(田村) 준위 등 모두 강인(強靱)한 신경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벌써 에이스의 좌(座)에 있었다.

심신(心身) 모두 튼튼해야만 한다. 작전 비행은 평시의 훈련보다 통상 비행시간이 길다. 공중전 훈련은 보통 비행장 주변의 공역이므로 1시간 이상 계속되는 일은 드물다. 하루 16교전(交戰)이 내가 체험한 최고의 훈련회수이다. 이 정도 훈련하면 아무리 갓 20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힘들다. 훈련을 마치고 거실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작전 비행은 약간 그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선단(船團)엄호는 항속시간이 최장(最長)이고 공격의 경우는 400~500km를 왕복하게 된다. 요격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초계대기이다. 이 동안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된다. 이 긴장이 육체적 피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하루에 2~3회는 출격한다.

독일 전투기대의 경우는 전장이 평원이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짧지만 출격 회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 하루 3~4회는 보통이었고 17회라는 기록도 있었다. 1940년의 영국본토 방공전(防空戰)에서 영국전투기대에는 하루 20회 출격한 조종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거기다가 전장에서는 급량(給糧)이 엉망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몇 번인가 적으로부터 취득한 물자로 생각지 않던 호화스런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모함의 조종사라면 식·주(食·住) 걱정이 없으므로 체력 유지도 가능하겠지만 전쟁말기의 전장에서는 비행기라든가 부품의 보급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므로 식사 걱정은 할 수도 없었다. 거의 현지 조달했는데 주민이 쌀, 돼지, 양, 닭, 모두 갖고 도망해 버렸으므로 식사는 정말 형편 없었다. 주거시설, 위생환경 모두 좋지 않았다.

스트레스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 전투부대도 동부전선에서는 죽은 말의 고기와 감자를

먹고 싸웠다. 나도 전장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고생했다. 지상부대의 장병들은 잡초와 같이 강인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었다. 조종사들은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대만에서는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깨끗한 침구에서 잤는데 겨우 3시간 후에는 위와 같은 상태였다. 더 우기 밤에는 산발적인 공습이 수면을 방해했다. 어떻게든 영양을 섭취하려고 생각해서 강물의 새우를 잡아서 먹었더니 아메바 설사에 걸려 버렸다. 하루에 30번씩이나 설사를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 사이에 10kg이나 체중이 빠져 버렸다.

정비사에게 엉덩이를 받쳐 가면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 귀환할 때까지 계속 설사를 했다. 만족스런 공중전을 할 리가 없다. 부대의 견인차가 되는 베테랑들은 심신 모두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으면 사기도 안 오른다. 튼튼하다는 것은 근육이 많고 거대한 체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대(大)에이스들은 결코 커다란 체구와 균형미의 소유자는 아니다.

할트만, 슈타인호프, 쿨빈스키 모두 독일인으로서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 마른 편이었다. 랄은 약간 작은 편이었고 카란트의 경우는 동양인보다도 작고 풍채도 형편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에이스들은 보통 남자였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심신이 모두 잘 균형이 잡혀 있었던 점이다. 예외적인 것은 구로에(黑江) 소령일 것이다. 그는 70kg이 넘는 거구였다. 전장의 형편없는 식사로 연속 출격하여도 체력, 기력 모두 왕성했고 「내 위장은 돼지와 같다」라고 말했다.

할트만은 운동가로도 뛰어 났었다. 슈타인호프도 전쟁 후 체육교사가 될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다. 시시모토 대위는 운동은 뭐든지 다했다. 구로에 소령도 의외로 움직임이 민첩했다.

스포츠맨=명(名)조종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튼튼한 체력의 양성분이 아니라 강인한 신경과 조종사로서의 센스를 함양하기 위한 스포츠가 매우 유효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열

일제하(日帝下) 독립운동정신 (獨立運動精神)과 그 교훈(敎訓)

우리 나라에 있어서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은 19세기 말 이후의 여러 강대국세력(強大國勢力)의 침략(侵略), 특히 1910년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의 침략(侵略)에 항거하여 36년간에 걸쳐 일어 났던 민족(民族)의 자주독립운동(自主獨立運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民族)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은 19세기 후반의 쇄국정책(鎖國政策)에 의해 거절됨으로써 양자간에 반목되어 오던 중 1875년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 이후 일본(日本)과 1876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함을 계기로 적국(敵國)과도 수교(修交)하게 되었다. 그 이후 국내적(國內的)으로는 개화파(開化派)와 수구파(守舊派)의 대립과 국제적(國際的)으로는 청(淸)과 일본(日本)의 세력경쟁(勢力競爭)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다. 임오군란(壬午軍亂)(1882)과 갑신정변(甲申政變)(1884) 등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國內)에서의 청(淸)-일간(日間)의 각축전(角逐戰)은 제(第)3자(者)인 「러시아」 세력(勢力)을 이끌어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1894년(고종(高宗) 31년)에 일어난 동학란(東學亂)은 사상 최대의 조직적(組織的)인 농민반란(農民反亂)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일본(日本)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세력(日本勢力)이 강력하게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사정(國內事情)도 현저히 달라졌다.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전부면에 걸쳐 일대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는 일본침략(日本侵略)의 전초공작으로 마침내 을미사변(乙未事變)(1896)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대일감정(對日感情)이 극도로 악화됨을 기화로 「아관파천(俄館播遷)」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日本)은 강압적으로 침략(侵略)정책(政策)을 수행해 갔다.

이에 반대하여 민족적(民族的) 자각(自覺)을 깨달은 지식인(知識人)들은 정치적(政治的)으로 단합하여 민족(民族)의 독립(獨立)과 민권(民權)의 확립(確立)을 위해 투쟁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우리 선조(先祖)들이 일제(日帝) 36년간(年間)에 걸쳐 민족독립(民族獨立)을 위해 싸운 그 정신(精神)과 열을 되새기고 이를 오늘의 교훈(教訓)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개항(開港) 이후 한반도(韓半島)를 위요한 당시의 국제정치적(國際政治的) 환경(環境)을 살펴보고, 일제(日帝)로부터 내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이념(理念)과 그 투쟁정신(鬪爭精神)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의(意義)를 찾고자 한다.

1. 개항(開港) 이후 한반도(韓半島)의 국제정치적환경(國際政治的環境)

식민국가(植民國家)인 일본(日本)이 근대국가(近代國家)로서 발족한 것은 260여년간의 장구한 덕천막부(德川幕府)의 봉건사회

(封建社會)가 해체(解體) 붕괴(崩壞)되고 왕정복고(王政復古)에 의한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성취를 계기로 하였던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한반도(韓半島)를 그 전진기지(前進基地)로 삼아 대륙침략(大陸侵略)을 기도한 사례는 고려말엽(高麗末葉) 이후 시작된 삼남연안(三南沿岸)에서의 대규모적인 해적행위(海賊行爲)와 15세기 말엽 명(明)에 대한 원정을 전제로 조선(朝鮮)을 선취(先取)하려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킨 일본(日本)의 국가정책적(國家政策的)인 기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日帝)의 한국(韓國)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은 1875년 강화도무력위협(江華島武力威脅)으로부터 1876년에 병자수호통상조약(丙子修好通商條約)을 맺고 한선(韓鮮)의 문호(門戶)를 강제로 개방시킨데서 시작된다. 특히 일본(日本)은 명치(明治) 이래 서구식(西歐式) 문물(文物)을 소화하고 서구열강(西歐列強)과 병존하면서 내적(內的)으로 정치적(政治的) 지배형태(支配形態)는 군벌재벌정치(軍閥財閥政治)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인국(隣國) 침략(侵略)을 꿈꾸고 있던 군국주의세력(軍國主義勢力)은 아직도 전근대적(前近代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한국(韓國)을 마음대로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日本)의 상선(商船)이 부산(釜山), 원산(元山), 인천(仁川) 등에 왕래하면서 경제적 침략을 시도하게 되어 조선(朝鮮)을 속국시(屬國視)하던 청국(淸國)은 1882년에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미국(美國)과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맺게 함으로써 일본(日本)의 세력(勢

力)을 견제시키려 하였다. 이어 조선(朝鮮)은 영국(英國)(1883년), 독일(獨逸)(1884년), 「이탈리아」(1884년), 「러시아」(1884년), 「프랑스」(1886년)와도 같은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日本)으로서는 강화조약(江華條約)의 성립을 본 후 한국(韓國)이 서구열강(西歐列強)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정책(對韓政策)인 「완전개국(完全開國)」이 결국 「러시아」의 남하정책(南下政策)을 견제하기 위하여 서구제국(西歐諸國)의 정치적(政治的) 세력균형(勢力均衡)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한국(韓國)과 서구열강(西歐列強)과의 수호통상(修好通商)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 이후 서구열강(西歐列強)의 동진(東進)으로 말미암아 「유럽」정치권(政治圈)에서 전지역적(全地域的) 단위로 국제사회(國際社會)가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韓半島)도 서구열강(西歐列強)의 야심(野心)의 표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일본(日本)의 한국(韓國)에 대한 지배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는 점은 우리 민족(民族)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가 되고 말았다.

특히 1895년 청(淸)·일전쟁(日戰爭) 이후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일본(日本)의 우월권이 확립되자 「러시아」는 청국(淸國)에 대신하여 일본(日本)에 대항하는 세력(勢力)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조선내(朝鮮內)에서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는 세력조작(勢力操作)까지 감행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세력부식은 그들의 동진정책(東進政策)의 일환으로 부동항(不凍港)을 얻기 위한 전통적인 국가이익(國家利益)의 기초에서 빚어진 결과로서 그것은 8.15 해방전후(解放前後)나 최근의 그들의 태도(態度)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영국(英國)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 정책과 「발칸」반도(半島)와 중동지역(中東地域)에서 종종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세력부식에 의아심을 가지고 급기야는 우리 정부(政府)에 대하여 엄연히 침략행위가 되는 거문도사건(巨文島事件)(1885~1887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 영국(英國)은 1905년에 영일동맹(英日同盟)을 맺어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일본(日本)에 위임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에 로(露)·일전쟁(日戰爭)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일본(日本)은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유일한 침략적(侵略的) 후견국(後見國)이 되었다. 결국 일본(日本)은 한반도(韓半島)에서 그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성립시키고, 이어서 1910년에는 매국적(賣國的)인 친일세력(親日勢力)과 제휴하여 국왕(國王)을 위협하여 한(韓)·일(日) 합병조약(合併條約)을 체결하고 한국(韓國)을 중국대륙(中國大陸)으로 진출하는 그들의 제국주의팽창(帝國主義膨脹)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구한말(舊韓末) 서구열강(西歐列強)의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팽창(膨脹)의 여파가 한반도(韓半島)에 미쳤을 때 정부(政府)의 지배층은 본능적(本能的) 위구심(危懼心)에만 사로잡혀 소극적인 방위체제(防衛體制)를 유지하는데 골몰할 뿐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쇄국정책(鎖國政策) 내지 배외정책(排外政策)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내정쇄신(內政刷新)과 왕조(王朝)의 개혁(改革)을 위하여 전력하였던 대원군(大院君)조차도 이러한 행동(行動)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찌기 권력층내(權力層內)의 일부세력(一部勢力)은 외세의

압도적 군사력(軍事力)과 문물(文物)에 대결해 보아야 그 결과는 뻔하다는 체념적 소국근성(小國根性)에서 또는 기왕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세(外勢)에 편승하여 자체세력(自體勢力)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권력지향적(權力志向的) 일부지배세력(一部支配勢力)의 야심에서 대외세력(對外勢力)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이 한말(韓末)의 정국(政局)을 어지럽히고 외세의 간섭을 촉진시킨 이른바 친청(親淸)·친일(親日) 친로세력(親露勢力)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국외적(國外的) 여건이나 현실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주성(自主性) 보다는 의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近代的) 의미의 우리 민족정신(民族精神)은 뜻있는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서구(西歐) 물결을 탄 개화운동(開化運動)과 일본(日本)의 침략에 대항한 의병항쟁(義兵抗爭) 3.1 운동(運動)을 기점으로 한 무장활동(武裝活動), 문화활동(文化活動)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의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日帝)의 한국침탈과정(韓國侵奪過程)에서 나타난 국내외(國內外)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끈질긴 투쟁정신(鬪爭精神)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일제(日帝)의 한국침탈(韓國侵奪)과 식민통치방식(植民統治方式)의 특징

제(第)2차대전(次大戰) 전(前)까지의 식민지(植民地)지배의 목적은 한결같이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수탈이었으나 그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이나 방식은 나라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제(日帝)의 한국식민지(韓國植民地) 통치(統治)의 으뜸가는 특징은 한 마디로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에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국형(英國型) 「간접통치(間接統治)」와 「프랑스」형(型) 「직접통치(直接統治)」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직접통치(直接統治)는 본국정부의 한 기구인 총독부(總督府)나 기타 관청에 의해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고 간접통치(間接統治)는 식민지(植民地) 재개 통치기구(統治機構)를 존속시키고 본국은 그 지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영국(英國)의 경우에는 원주민(原住民)의 정치적(政治的) 반항(反抗)을 감소시키고 그 통치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식민지(植民地)의 관습이나 사회조직을 이용하는 간접통치(間接統治)가 지배적 형태였다. 게다가 영국(英國)은 통일적(統一的)인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의 결성을 막으려고 식민지(植民地)의 종족(宗族), 종교(宗教), 언어(言語), 사회적(社會的) 계층 등을 서로 대립 항쟁케 하는 이른바 「분할통치(分割統治)」를 추구했으나, 처음부터 「동화정책(同化政策)」을 취하지 않고 「자치정책(自治政策)」을 취하였다. 이는 곧 민족주의(民族主義)의 발달에 따른 민족독립(民族獨立)의 요구가 높아지기 전부터 영국통치(英國統治)의 최종적 목표는 식민지(植民地)에 자치를 부여하는데 있었으며, 식민지인(植民地人)을 정치적(政治的)으로 훈련하여 단계적으로 자치(自治)의 범위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연방자치령(英聯邦自治領)으로 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는 「동화정책(同化政策)」에 의거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의 동화정책(同化政策)은 「프랑스」혁명(革命)의 정치이념(政治理念)과 「프랑스」문화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였다. 「프랑스」는 모든 식민지(植民地)를 궁극적으로는 본국(本國)과 정치적(政治的) 문화적(文化的)으로 동화(同化)시키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우선 「프랑스」식 고등교육(高等教育)을 받은 식민지인(植民地人)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부터 「프랑스」시민화(市民化)하는 정책을 써 나갔다.

그러나 식민지민족(植民地民族)에게는 제각기 독특한 사회적(社會的) 정치적(政治的) 전통(傳統)이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양식을 지키려는 민족적(民族的) 자존심(自尊心)이 있게 마련이다. 영국형(英國型)에 비해 「프랑스」형(型)이 식민지민족(植民地民族)의 보다 큰 저항에 부딪치곤 한 것은 이 때문인데, 그로 인한 강대한 군사력 유지의 필요는 재정적 부담을 무겁게 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든 영국(英國)과 「프랑스」식 식민정책(植民政策)을 찬양한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들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곧 한국민(韓國民)에 대한 일본(日本)의 식민정책(植民政策)이 얼마나 악랄했고, 여기에 대항했던 우리 민족(民族)의 독립운동정신(獨立運動精神)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했든가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日本)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프랑스」형(型)을 모방하여 「직접통치(直接統治)」의 원칙을 채용했지만, 「프랑스」형(型)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동화(同化)」라는 미명 아래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을 감행한데 있는 것이다. 곧 일제(日帝)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호(保護)·무단(武斷)·문화정치(文化政治)로 바꾸어 가면서 최종 목표는 한국민족(韓國民族) 그 자체를 지구에서 소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일제(日帝)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근대(近代) 서구제국주의(西歐帝國主義)의 그것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 독립운동선열(獨立運動先列)들의 투쟁정신(鬪爭精神)과 얻은 그 어느 국가(國家)의 민족운동가(民族運動家)들보다 높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서구제국주의(西歐帝國主義)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간접통치(間接統治)거나 직접통치(直接統治)거나 간에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수탈을 기본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지배 민족의 민족보존(民族保存)은 당연한 일로서 인정했으며, 민족문화운동(民族文化運動)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아닌 한 방관적 정책을 취했다. 제 아무리 「프랑스」가 동화정책(同化政策)에 기존하는 직접통치 방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원주민의 민족보존운동(民族保存運動)에는 방관적이었으며, 민족문화운동(民族文化運動)에 대해서도 교육(教育)을 통해 통제하고 「프랑스」식 문화체제(文化體制)를 옮겨 심으려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日帝)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수탈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민족(植民地民族)을 말살(抹殺), 소멸(消滅)시켜 일제(日帝)안의 종속신분층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이만족말살정책(異民族抹殺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악랄한 성격의 것이었다. 실로 한민족말살(韓民族抹殺)을 위한 일제(日帝)의 노예교육은 그 어느 식민주의(植民主義) 국가(國家)의 그것보다도 철저했고 무자비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제(日帝)의 모진 학정에 신음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민족(民族)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위해 싸웠던 선열(先列)들의 숭고한 피와 그 정신(精神)이 얼마나 고귀했던가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3. 일제하(日帝下)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의 이념(理念)과 그 특징

구한말(舊韓末) 일본(日本)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이른바 「보호정치(保護政治)」라는 구실하에 우리 민족(民族)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10년 한국(韓國)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부터는 극도로 가혹한 통치(統治)를 폈는데, 「무단정치(武斷政治)」라 불리는 3·1운동(運動)까지의 일제통치(日帝統治)는 일종의 군정체제(軍政體制)였다.

이 시기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의 특징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항쟁(抗爭)의 준비기로서 민족교육(民族教育), 식민성봉건계층형성(植民性封建階層形成)에 대한 응징, 독립군기지개척(獨立軍基地開拓), 토지분쟁(土地紛爭), 3·1민중봉기(民衆蜂起) 등으로 무단정치(武斷政治)에 대항하였다. 이 시기는 모든 민족운동(民族運動)이 민족감정(民族感情)의 자연적 폭발로써 극한 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조직적인 항일(抗日)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기독교(基督教), 천주교(天主教), 불교(佛教) 및 유교(儒教) 등의 종교단체(宗教團體)와 의병(義兵) 등의 지도층이 그 중심체(中心體)를 이루었다. 그리고 3·1 운동(運動)에 이르는 일련(一聯)의 국외투쟁(國外鬭爭)은 지역적으로 개인적인 투쟁과 더불어 극한적 항일(抗日)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시공간적(時空間的)인 면(面)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해외(海外)에서의 이들 망명독립투사(亡命獨立鬭士)나 독립단체(獨立團體)들의 투쟁 활동은 이전에 국내(國內)에서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참여하였던 투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國內)의 독립투사(獨立鬭士)나 단체(團體)와 종횡적(縱橫的)인 면에서 연결을 갖고 3·1운동을 전후하여 국제무대(國際舞臺)에서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이루어 기여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3·1 독립선언(獨立宣言)의 이념적(理念的) 근거가 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는 구 왕조(舊王朝)의 복고가 아닌 점에서 민족대표(民族代表)를 내세워 밑으로부터 민족국가(民族國家)를 만들어 내려는 근대적 민족의지(民族意志)의 표현(表現)이었다 하겠다.

그 역사적(歷史的) 증거는 3·1독립선언(獨立宣言) 이후 그 선언(宣言)에 의거하여 세 갈래의 임시정부안이 나왔지만, 그 공통적 형태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내(國內)의 3·1운동(運動)과 국외(國外)에서의 임시정부수립 및 민주헌법제정(民主憲法制定)과는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으며, 3·1운동(運動)은 바로 민주헌정(民主憲政)으로 구현된 민족국가(民族國家)의 잠재적 성립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1 독립선언(獨立宣言)은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에 의거하는 이상적(理想的) 국제관(國際觀)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그것은 침략주의(侵略主義), 강권주의(強權主義)를 구시대의 유물로 돌리고 전인류(全人類)의 공존공생권(共存共生權)이 보장되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세계를 그리고 있다.

3·1운동(運動)은 이러한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 국제관(國際觀)에 따라 우리 민족사(民族史)를 세계사(世界史)의 전개과정과 연관지으려 했는데, 이때 한국민족(韓國民族)은 민족국가(民族國家)를 건설하여 세계사(世界史)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국제적 단위로서 참여하기 위해 국가(國家)의 형태를 갖추려 한 것이다.

요컨대 3·1운동(運動)은 고도로 양양된 민족의식(民族意識)과 그 당시 그 나름대로의 국제정세(國際情勢)에 따라서 「자기수립(自己樹立)」을 선언한 운동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외적인 운동이 아니라 근대적인 국민국가(國民國家)를 형성하려는 민족주의(民族主義) 운동(運動)이었다.

그런데 3.1독립운동(獨立運動)을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피살(被殺), 투옥(投獄), 망명(亡命)과 더불어 일제(日帝)의 회유책에 의한 일제의 「문화정치(文化政治)」가 실시됨으로써 지도자를 잃은 국내(國內)에서는 문화운동(文化運動)을 전개함과 동시에 보다 조직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사상적(思想的) 사회운동(社會運動)이 이 시기의 이대경향(二大傾向)으로 나타났다.

즉 신간회(新幹會)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自由主義), 민족주의(民族主義), 사회주의(社會主義),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및 공산주의(共產主義) 등의 사상적(思想的) 배경(背景)을 지닌 인사(人士)들이 작파(作派), 작당(作黨)하여 정치적(政治的) 극한 투쟁 위주로 조직된 정치단체와 더불어 그 투쟁양상(鬭爭樣相)을 계몽(啓蒙), 교육(教育) 등과 같은 민족(民族)의 문화적(文化的) 경제적(經濟的)인 자체실력(自體實力)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길로 접근하려던 조직적인 문화단체(文化團體)와 사회단체(社會團體)가 공존(共存)하면서 항일(抗日)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였던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사변(1931년),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년), 2차대전(1939년) 등의 발발로 우리 한국(韓國)은 병참기지화(兵站基地化)되면서 이른바 「황국신민화운동(皇國臣民化運動)」또는 내선일체운동(內鮮一體運動) 등으로 민족말살책동(民族抹殺策動)이 노골화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民族)은 포악한 일제하(日帝下)에서는 무력항쟁(武力抗爭)을 계속하는 가운데 연합국(聯合國)의 승리로 8.15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4. 독립운동정신(獨立運動精神)의 교훈(敎訓)과 우리의 자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日帝)의 한국통치(韓國統治)는 단지 식민지(植民地) 한국(韓國)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민족자체(韓國民族自體)를 말살(抹殺), 동화(同化)하려 했던 특이한 성격의 것이었다. 결국 한국민족(韓國民族)은 일제통치(日帝統治) 아래서 특



교·양·강·좌(教·養·講·座)

개인(個人)과 국가사회(國家社會)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를 밝히려면 학문적으로는 발생형태, 종류, 성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이다.

그 이유는 현대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있으나 국가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국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개인만 앞세우는 일이 많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원래 개인의 자유, 권리 등을 가장 값진 것으로 보는데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국가사회란 개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요구만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등한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국가사회란 나, 우리, 우리 국민의 연장이다.

즉 국가란 나와 의지, 목적이 승화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국가가 부강하면 나도 부강하고 국가가 불행에 빠지면 나 자신도 불행해 진다.

개인의 행복도 자아실현도 자유도 나의 국가가 존재하는 속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없이 무엇이 있겠는가 일제 지배시대를 회고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다.

북괴의 남침위협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속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군장병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 많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 안보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으나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자세가 확립될 때부터 국가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히 말기에는 민족적(民族的) 주체성(主體性)이 총 파산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運動) 이후 독립운동과정(獨立運動過程)에서 민족진영(民族陣營)간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사상적(思想的) 대립(對立)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진영(民族陣營)속에서 종전기에는 변절자도 있었다는 사실이 민족운동사(民族運動史)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일제(日帝)의 침략과정(侵略過程)에서나 그 이후 독립운동과정(獨立運動過程)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진정한 우방(友邦)은 없다는 점과 나아가서 8.15 해방(解放)이 우리 민족(民族)이 염원하던 자주적(自主的)이고 통일(統一)된 조국광복(祖國光復)이 아니었지만, 그 요인은 반드시 미(美)·소 두 나라의 분단협정(分斷協定)에만 돌려버릴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내적(內的) 요인(要因)은 그간의 험악한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통일(統一)된 항일독립군사단체(抗一獨立軍事團體)의 부재(不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의병(義兵), 독립군(獨立軍)으로 이어진 독립전쟁노선(獨立戰爭路線)이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의 주류를 이루어 전후(戰後) 한국(韓國) 문제(問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라면 자주적(自主的)인 민족광복(民族光復)은 기대 가능하였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독립운동(獨立運動)의 하나 하나의 사례(史例)를 교훈(教訓) 삼아 내 나라는 내가 지키고 동시에 우리 민족(民族)의 통일(統一)은 우리 민족(民族) 스스로 성취시켜 나간다는 자주적(自主的)인 주체의식(主體意識)의 정립(定立)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양·강·좌(敎·養·講·座)

한국인(韓國人)의 자각(自覺)

우리의 혈맥(血脈) 속에는 만주의 별판을 달리던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삼국을 통일하던 신라의 창조력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던 고려(高麗)의 호국정신과 이조의 선인들의 추상열일(秋霜烈曰) 같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의 도의심(道義心)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우리의 숨결 속에는 한국의 얼이 깃들고 우리의 맥박 속에는 민족의 정기가 서리어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많은 민족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가 힘의 도태작용(淘汰作用)에 의하여 소멸되고 말았다.

우리는 가혹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민족의 피와 말과 얼과 문화를 수호하면서 역사의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놀라운 잠재적(潛在的) 저력(底力)과 창조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과거에 사는 민족과 현재에 사는 민족을 구별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민족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량과 영광을 과거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창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자신을 회복하고 민족적 사명을 자각하여 민족의 창조력을 아름답게 개화결실(開花結實)해야 한다.

일찌기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은 한국을 세계의 최고(最高) 민족(民族)으로 완성해 보자는 원대한 이상을 우리 앞에 제시했다. 우리는 체력으로나 지식력으로나 도덕력이나 세계의 최고민족이 되도록 분투노력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허황한 꿈이 아니다. 실현가능한 이상이다.

우리 국민 각자가 그러한 민족적 사명을 자각하고 청천백일(靑天白日) 같은 정신으로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는 꿈이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치며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길이다. 우리는 민족봉사(民族奉仕)에서 사는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내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건·강·의·학(健·康·醫·學)

한잔 두잔 술을 마시다보면 평소에는 없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제 자량을 늘어 놓는가 하면 의기소침해져 풀이 죽기도 하고 주먹이 근질거리 무엇이든 부숴버리고 싶다가나 싸움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술을 마시면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알콜을 흡수한 때문일까?

미(美) 위스콘신주립 대학(大學)과 웨스턴미시간 대학(大學)의 연구 팀들은 새로운 실험을 통해 이러한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알콜자체보다 오히려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실험에서 보통 술꾼이 전혀 그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히 준비된 보드카토닉과 알콜성분이 전혀 없는 단순한 토닉을 사용했다.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종류의 음료를 같은 비율로 제공하면서도 한 그룹은 그것이 술이라고, 다른 그룹은 술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들었다.

또 연구원 자신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누가 진짜 술을 마셨는지를 사전에는 알 수 없게끔 해서 실험대상자의 행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알콜성분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들은 실험대 상자에게 앞서 말한 두 가지 음료를 제공하고 나서 고의로 그들의 화를 돋워 보았다. 이 때 자신이 알콜을 마셨다고 믿고 있는 그룹은 실제로 그들이 마신 것이 술이었든 아니었든간에 보다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로는 술을 마셨어도 그것이 술이 아닌 토닉이었다고 믿게끔 한 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만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술을 마셨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과거의 경험이 술의 이름을 빌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알콜에 의한 화학 작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효과는 공격성 이외에도 술과 긴장감의 관계에서도 입증된다.

알콜의 작용(作用)과 술주정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남자의 경우 불안감이 줄어들지만 여자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결과도 남녀 어느 경우건 술을 마셨다는 심리적 작용에 크게 좌우된다.

미(美) 러트거 대학의 「테런스·월슨」과 「데이비드 에이브럼즈」박사는 남성들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대면케 하고 그녀에 대해 달콤한 말을 늘어놓도록 하면서 남성들의 심장박동수를 체크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술을 안마셨다고 믿는 그룹에 비해 알콜함유여부와 관계 없이 훨씬 느긋하게 행동하고 심장박동수도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즉 술이 남자에 있어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심리적 효과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대체로 술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에 따라 술을 마신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반응은 술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희망 또는 두려움 등 각자의 심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술을 일단 한잔 두잔 마시다 보면 발동이 걸려 계속 잔을 비우게 되는 것이 술꾼의 생리, 알콜중독자의 경우는 술이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비록 알콜중독자라도 역시 심리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美) 위스콘신대학의 「엘런·매러트」교수는 8시간의 금주로 인해 몸에 경련을 나타내기 시작한 알콜중독자들에게 앞서와 똑같은 실험을 실시해봤다.

그랬더니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술이 아니었더라도 정상상태로 회복되었으며 같은 음료를 계속 찾았지만 실재는 보드카인데도 알콜성이 아닌 토닉이라고 믿게끔한 사람들은 계속 몸을 떨면서 알콜성 음료를 찾았다. 이는 의학에서 말하는 플라세보(위약(僞藥)) 효과라는 것으로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권위있는 의사가 소화제를 진통제라고 주면 통증이 멎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실 경우에도 주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혼자 술을 마실 경우에는 여럿이 마시는 경우보다 빨리 취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술을 마신 뒤의 행동들이 알콜의 화학작용자체보다 술에 대한 각자의 생각·주위 분위기·습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알콜중독자의 경우 비알콜성 음료만으로 경련 등 금단증(禁斷症)에 대처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신 후 난폭해지는 사람들도 음주전 심리교정에 의해 어느 정도 공격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 충 고 >

황희정승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이 있다. 황희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황정승은 그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그래 그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오?」

이렇게 묻는 황정승의 말에 농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황정승은 혹시 농부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해서 더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얼마 뒤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 황정승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더니, 황정승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서,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정승은 농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그제서야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하여도 잘못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 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황정승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가 정사를 하는 데도 늘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課者

유 주 현(柳周鉉)

“이 근처가 경계선이잖디요!”

사공이 별안간 불쑥 말했다. 배에 오른지 거의 2시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공이 입을 열었다.

하늘에는 별도 나 있지 않았다. 바다 위에는 이랑지는 파도도 없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같은 빛, 그것은 어둠이었다. 어둠만이 공간에 꽉 차있는데 배는 앞을 보지 않으면서도 꽤속도였다. 가볍게 선체를 흔드는 것은 바다의 흥분하지 않은 숨결과 선창 깊숙이 숨은 엔진의 동계(動機)였다. 그러나 바다의 숨소리는 장엄했다. 엔진의 음향은 경쾌했다. 하지만 모두가 단조로웠다. 가을밤 바다 위, 어둠 속, 침묵은 어둠보다도 짙었다. 몸이 으시시 떨렸다, 마음이 떨었다고 생각했다.

“별은 서울 구경하갔쥬다. 피양보다야 좋을는디두 모르디.....”

어디를 바라보는지 사공은 선미에 앉은 채로 두번째의 입을 열었다. 탁한 음성이 60대의 뱃사람임을 짐작케 했다. 박영복은 잠자코 배가 향해서 달리는 남쪽을 보았다. 철흑의 공간이 시계(視界)를 가로막아 상념을 번지게 하지 않았다.

(평양보다야 좋을지 모르지 서울이...)

사공의 이 괴상한 말을 받아들일 만한 태세를 영복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반문해야 할지 동의해야 할지, 분별이 가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다. 영복은 자기 옆에 앉은 사나이의 표정을 찾았다. 어둠만이 보일 뿐, 역시 병어리처럼 말을 얹는 그의 입에서 담뱃불이 꺾뻐졌다.

운명은 사공이 맡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배에 오른 것이 어둔 연후였다. 이따금 담뱃불을 불어느라고 성냥을 그은 일이 있지만, 서로 얼굴들을 익힐 틈은 없었다.

그러니 이 어두운 밤 바다위에서 서로 눈치 보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사실 누구에게도 눈치 벨 말이란 있을 수도 없었다.

배에는 네 사람이 타고 있었다. 선창에는 지금 배를 운전하는 선원 한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외양은 범선이었다. 지금은 돛을 달지 않고 비밀장치로 되어 있는 모터로 해상을 미끄러져 가고 있지만 낮에는 돛을 단 어선으로 변하는 특수한 배인 모양이다. 갑판이탈 것도 없는 배 위에 어망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옆의 사나이는 연백 어느 이름 없는 나루에서 이 배에 올랐다. 영복은 그 사나이가 이유없이 있었다. 그래 그가 배에 오르자 차츰 가슴 한 구석에서 눈 떠오르는 불안의식이 있었다. 6개월 동안이나 철저하게 밀봉교육을 받았지만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제 마음이었다.

그것은 평양 사동(寺洞) 빈민촌에 있는 조그마한 바라크였다. 그 바라크에는 방이 두개밖에 없었다. 거기서 밀봉교육을 받았다. 윤이라는 식모와 단 둘이서 기거하며 매일 낮과 밤으로 순회해 오는 중앙당 간부들에게 교양을 받은 것이다. 그 바라크는 대낮에도 늘 대문을 닫아 걸고 있게 마련이었다.

식모 윤이순이라는 여자는 말만 식모격이지 실상은 영복의 동정을 감시하도록 중앙당에서 밀파한 서른 세살된 여자 당원이었다.

그 윤이순은 정말 모를 사람이었다. 자기가 실토한 바에 의하면 원래 사변 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한다. 남편이 남로당원이었는데 9·28 때 국군이 그 곳을 수복하는 바람에 잡힌 몸이 되어 아내인 자기의 눈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따금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드득보드득 이를 갈긴 했으나 어딘지 그 모습은 남편없는 여자의 히스테리 발작으로 보였다. 사흘만꼴씩 투입되는 남한의 여러 신문과 잡지의 활자 하나하나를 넣어 읽으며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기간에는 남한의 방송까지도 수시로 듣게 하여 남한의 실정을 익히게 하는 까닭에 둘이서는 곤잘 과거 이야기들을 나누기까지 했다. 그럴 때면 분명 그 눈에는 향수가 어려 있었다.

그 윤이순과는 같이 있게된 지 한달이 채 안 되어 정을 서로 통했으나 결코 연애는 아니었다. 육체적인 고독을 푸는 것이라고 언제나 답답한 태도로 대답할 수 있었다.

영복은 갑자기 그 윤이순의 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박동무 조심해요. 만약 이남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조심해요. 여기서와 똑같이 동무를 감시하는 눈이 늘 따라당길 테니, 그러구 늘 동무에게 대답을 강요할 것이요. 공작, 공작포기, 자수, 체포....., 그 중에서 동무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구.”

윤이순은 어제 아침 마지막 헤어질 때, 울먹울먹하면서 한 가지 당부가 있노라고 했다.

“우리 고향엘 들려줘요. 수원 XX동이야,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신가 살퍼만 줘요. 허긴 박동무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이런 말로 보아도 그 윤이순은 정말 모를 여자였다.

철저한 당원인지 아닌지 겉으로는 열성적인데 이따금 피로한 기색을 보이며 새까만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원한을 가진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이용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머지 않아 자기도 공작대로 지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말뜻은 어떤 본심을 내포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영복은 잠시 전 연백에서 오른 그 사나이를 보자 문득 윤이순의 말대로 감시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선뜩했던 것이다. 윤이순의 말대로 벌써부터 대답을 강요하는 자가 따르는 것인가 서먹했다. 그러나 임무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도 여겨졌다.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첩보하 라면서 단독으로 보낼 리가 없을 듯 싶었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니까?”

잠시 후 그 사나이가 영복에게 이런 말을 물었을 때,

“경상도 안동이외다.”

영복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난 원주외다. 15년만에 이남에 가는 길ियो. 동무는 대전엘 가 본 일이 있으?”

묻지도 않는 말을 수월하게 해대는 것이 더욱 불쾌했다. 최라고 했다. 영복에게 비하면 10년은 연장적인 마흔 네댓쯤 됨직한 사나이다.

“동무는 사변 후에 넘어왔습수다래?”

“.....”

최가 이런 말을 또 물었으나 영복은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확실히 사변 후에 넘어갔다.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온 그는 대전으로 내려가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사변을 맞이했다. 침략 군이 그 곳을 석권했을 때, 어떻게 된 셈인지 그는 그 곳에 남아 있었다.

그래 직장인 민원(民怨)을 사는 곳이었으므로 겁도 나는 데다가 마침 동료 중에 남포당 비밀당 원이 있어, 그에게 이끌려 텅텅버린 것이 어느 틈에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 그저 엄병 텅텅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자기 목적이나 의사대로 행동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자 침략군이 다시 후퇴하는 사품에 끼어 몇 달 끌려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북한 땅을 밟 게 되었고, 거기서 또 몇 해 목숨을 부지한 것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열성당원처럼 된 것이다. 역시 자기 의사대로 산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뚜렷한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조성되는 환경에 언제나 끌려 들어갔다는 편이 옳았다. 아니면 소극적이고 자포자기적인 행동이 그를 이끌고 다니며 몇 번이고 변질시킨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포적인 성격이 또 새로운 구렁으로 그를 몰아넣었다. 뭘때로 되라는 심정 은 가다가 과단(果斷)과 용기로 변하는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작대원은 엉뚱한 짓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과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 무슨 근거가 있는 편이 유리하다.

영복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그 형의 일가는 남한 대전에서 크게 목재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사변 전, 영복은 결혼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아내와 더불어 그 형의 집에 얹혀 있다가, 혼자 몸 으로 북한까지 밀려 왔었는데, 이제 평양에다가 또 다른 아내와 1남 1녀의 자녀까지 남겨 놓고 남 한으로 필파되어 가는 길이다. 여기에도 또한 영복 자신의 의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것이다. 의

사에 없으면서 책임은 절대적이다. 만약 남한에 가서 책임을 완수 못하면 반동이라는 명목하에 처 단을 받게 마련이다. 그 처단이란 평양에 남은 처자들이 받을 것이었다. 설혹 불가항력인 경우 경 찰에 체포되는 것까지 인민에 대한 반동이라 했다. 기막힌 노릇이다. 거기다가 무대는 서울이 었다.

특히 서울 거리에서는 형사들이 언제나 널려 있다고 하면서, 그네들을 신숙히 정확하게 간파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멋장이 신사를 보면 일단 형사로 알라! 이것이 누누이 강조된 주의 사항이다. 이남의 형사들은 겉보기에 쪽쪽 뺨 신사들이라는 것이다. 최신식 고급 양복에 넥 타이를 단정히 매고, 여름이면 파나마, 겨울이면 중절모를 꺾듯이 쓰고 다니는 것이 형사라 했다.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남한의 실정이지만, 형사들만은 기름진 얼굴에 말 속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말쑥한 신사를 보면 대개 형사로 보아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영복은 지난 몇 해 동안에 남한의 실정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 면 자기의 사명은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노릇이다. 말대로 그렇게 많은 형사들을 어떻게 끝내 피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구와 불안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나 당의 명령은 절대였다.

영복이 교육을 마치고 기림리(箕林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어제 아침이었다. 하룻 밤 자면 남한으로 떠난다니까 아내는 단박 서글픈 표정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한 말이 너무 많아 차라리 함구(緘口)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죄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잃은 것처럼 서로 완전한 보고들 있다가, 고생이 되더라도 넉넉히 3년만 아이들 잘 기르며 몸조심하라 고 타이르는 영복에게 엎드리며 흐느끼던 아내의 모습이 가슴아팠다.

“고생은 타고난 팔자 아니외까? 아주 못 오시는 건 아니디오?”

그 순간, 영복은 7년 전 여름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남한 대전집에서 의용군으로 떠날 적에도 품에 안겨 울부짖던 여인이 있었다. 그때는 그 여인이 아내였다. 마구 푸념을 했다.

“남들은 다 피하는데 왜 당신만이 끌려갈 게 뭐예요? 당신이 언제적부터 공산당이라고 앞장을 서는거예요?”

영복은 항변하는 아내의 음성이 너무나 커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주었다.

“넉넉잡구 석 달이면 끝난대, 염려 말구 기다려 줘요!”

세월은 흘렀다. 분명 7년.....

대전의 아내는 여학교 출신의 지식녀로서 눈이 맑고 해사한 얼굴, 선이 가늘었다. 남한의 도시는 거의가 젓터미로 화했는데 그 아내는 죽었을까 살아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별한 평양의 아내는 국민학교조차 제대로 못 마친 두메 여자다. 코가 낮고 입술 이 두터워 좀 감때 사나운 얼굴이다. 그래 몸이 건강한 탓인지 아이는 잘 배어서 연년생으로 두살 짜리 아들 녀석에다 며칠 전에 백일이 지났다는 딸년이 있다. 남기고 떠났다.

땅에서 일단 발을 떼어 바다 위에 몸을 두니까, 영복의 머리 속은 이런 생각들로 갑자기 어지러 워졌다. 몇 해 동안 회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약화한다 하여

질색하는 사회에서 살았다. 망망대해와 끝없는 공간이 어둠에 용해되어 흐느끼는 이 마당에서 잃었던 가지 가지의 기억이 하나 둘 소생해 왔다.

배에 오른 후 2시간의 침묵은 대전에서 삭주까지 2천리를 밤낮으로 둔주(遁走)하던 그 해의 정경과(그 후의 5년은 뽑아버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그들의 말마따나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할 인민에의 의무를 다시금 명심하는 충성의 자세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라는 사나이가 나타나 불쑥 대전일 가보았느냐고 묻는 데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살해버리니까 최는 재차 묻는 것이었다.

“동문 대전엘 가보았느냐 말이오.”

영복의 어조는 자연 또 통명스러웠다.

“대전……. 대전은 내가 살던 곳이오.”

“아하, 동무가 살던 곳이라.”

최가 반드시 다음 말이 있을 텐데 주저해버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공이 입을 열었다.

“최동무는 대전으루 갑네까?”

최는 사공에게 단박 핀잔을 주고 만다.

“사공동무는 남의 일을 묻지 마시오!”

그러면서 최는 영복에게 또 묻는다.

“그럼 동무는 살던 고향 먼저 찾아보지 않았소?”

영복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정말 기분 나쁜 작자다.

그런 유도적인 발언으로 당에의 충성심을 떠보는 것인가.

영복은 대답했다.

“내 공작지는 서울이오.”

“그런 기밀에 속하는 말은 묻지 않았소! 혹시 대전엘 먼저 들리느냐 물었을 뿐이오.”

최의 차고 거만한 말투를 듣자 영복은 뺨이 발작났다.

“동무도 남의 일을 물을 거 없지않소?”

이 때 사공이 영복에게 커다란 음성으로 말을 던졌다.

“박동무, 서울 가문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구래!”

영복은 담배를 한 개 입에 물었다.

최는 입에 물었던 공초를 톡 튕겨 바다 위에 버렸다.

사공은 그들 앞으로 다가오더니 사려놓은 로프를 베게 삼아 벌렁누우며 별도 없는 밤이군! 하고 혼자 뇌까렸다.

바다 바람은 점점 차가왔다. 파도 소리가 훨씬 요란해졌다. 깊고 진한 어둠은 변함 없었다. 엔진 소리는 열이 오른 것처럼 차츰 고조되어 갔다.

육지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이 풀려갔다.

흙 위를 떠나고 보니 흙 위에서 악다구니를 치던 몇 시간 전까지의 생활들이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가물거려 왔다.

그들 세 사나이는 제각기 자기의 현실적인 존재를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는 듯 멍청했다. 지나온 길도 가는 앞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가, 멀리 그들의 화제를 끌끌 삼켜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들의 세계인 듯 싶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흥, 이 세상에 사람이라군 우리 셋만 살아 있는 것 같수다래!”

영복이 그 말을 받았다.

“기관사가 또 있지 않소!”

최가 핀잔처럼 영복에게 말했다.

“기관사는 지금 우릴 위해 있는 게 아니오?”

영복이 또 대거리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운명은 기관사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요!”

“말긴 누가 맡아? 언제 맡겼단 말이오? 기관사는 우리 지시대로 이 배를 움직일 의무가 있을 뿐이오, 동무.”

최의 말에

“글쎄요. 난 지금 이 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영복은 의식적으로 탄청을 부렸다.

“동무들! 우리 쇠주나 한 잔씩 합시다래. 몸두 좀 톡힐겸.”

사공은 엉뚱한 제안을 했다.

“그것 참 좋은 말이외다.”

최가 선뜻 찬성했다.

“안주는 고추장하구 망둥이 뿐이외다. 그까짓거, 생것대루 먹읍시다래!”

사공은 어둠 속 흔들리는 배에서도 술을 한 방울도 흘리는 법 없이 알미늬 양재기예다 따라서 두 사나이에겐 전했다.

술 기운이 얼큰히 돌아 사공은 새삼스런 어조로 누구에게나 지목하지 않고 말했다.

“동무들한테 이런 말 해두 괜티 않을디 모르지만……, 우리 둘째 아들놈은 이남 국방군의 장교외다. 대위외다. 전엔 국방부에 있었다는데. 박동무 서울 가문 좀 찾아봐 주구래!”

영복도 동의했다.

“그러나 영감에게 소식 전할 길이 있을라구요.”

사공은 이 말에 쓸쓸히 대답했다.

“그저 잘 있나 찾아봐 주구래. 멀리서 쳐다만 보면 되디요.”

윤이순의 부탁과 같은 것이라고 영복은 미소를 지었다.

이때 최는 불안간 영복의 어깨를 탁 쳤다.

“박동문 잘 됐다. 사공동무의 아들을 먼저 포섭하면 공작하기가 쉽겠소.”

사공이 펄쩍 뛰었다.

“거 힘들 거외다. 생각두 말우! 그 놈은 텔레(철저)하니까 되레 박동무의 꼬리가 잡힐 거요. 애당초 생각두 말우!”

“그런 반동일수록 포섭만 하면 안심하구 공작할 수 있지...”

최는 단정했다.

이번에는 영복이가 인성을 높였다.

“그런 애긴 그만둬시다. 여기서.”

“내 배따라기나 한 번 불러 볼까? 동무들!”

사공은 최를 흘겨보고는 영복이의 무릎을 툭 치고, 딸국질을 꿀꺽 했다.

“그것 좋습니다. 그믐 황해바다 한가운데서 공작원들이 배따라기를 들으며 술을 마신다! 오랜만에 참 멋있는 애깁니다. 허허허.”

영복도 거북해진 김에 너털웃음을 웃었다.

“좋아, 좋아! 시러베 아들놈들! 밤낮 투쟁이니 인민이니 하군 부려만 먹을라구 드니 이놈의 세상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어떤 놈들은 호의호식 앉아서 땅땅 명령이나 하구, 우리는 실 새 없이 사지로 몰아넣구.”

요행히 죽을 고비를 넘겨 목숨이 부지되면 제법 엄숙하게 뻗뻗뻗 메끼 칠한 훈장이나 주구, 그 놈의 훈장! 난 세개나 있는데. 소주 한 병 하구 바꿔주는 놈도 없거든 태백산 일대의 빨치산을 영웅적으로 지휘했다구 국기 훈장까지 받았는데. 그런 건 전당두 안 잡는단 말야, 여 사공동무, 자 배따라기나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러.”

최는 본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늘어놓았다. 그 바람에 좌중은 단박 괴괴해졌다. 아무도 최에게 맞장구커녕 솔깃한 기색조차 나타낼 수가 없었다. 배따라기가 나올리 없었다.

늙은 사공은 잠자코 자작 술을 따라 마시고, 깡통을 뒤적거려 망둥이 한놈을 꺼내 고추장을 푼 쪽에서는 입 속에 깊숙이 넣고 질경질경 씹기 시작했다.

영복은 기가 죽었다. 그러나 최의 그 한마디로 기가 죽어서는 끝내 그에게 휘감길 것을 생각하고 칠흑의 허공을 노렸다.

또 최의 말.

“이봐, 박동무! 서울에 가거든 말야. 국방부를 찾아가서 저 사공동무의 아들을 만나, 당신 아버지의 배를 타구 북반부로 넘어가라고 전하란 말야, 잉? 장교라지? 그러구 박동무가 그 자리에 가 있어. 오래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잉? 모두 그렇게 한 번씩만 교대를 해 봤음, 남북이 통일 될 거야, 단박 하하하, 예, 그렇지 않소? 사공동무!”

최는 어느 틈에 어깨를 열썩앓고 있었다. 술기 돌았는 듯 싶었다. 영복은 미간을 찌푸리고는 그의 팔을 어깨에다 풀어 떼며 매서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최동무!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말조심을 해요! 반동적인 언사는 삼가시오!”

그러자 어둠을 가르느 웃는 소리가 요란히 났다. 하하하, 하하하, 다시 하하하 하하하 허.....

최는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 동안 웃어 젖혔다. 그러다가 별안간 영복의 어깨를 탁 쳤다.

“여보시오.. 박동무! 다시 말하거니와 난 국기훈장을 받았어, 1951년도 태백산 일대는 내가 쥐고 흔들었어, 그래서 영명하신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내 가슴에다 제1급 국기훈장을 달아줬단 말야. 그런데 날더러 반동이라구? 하하하, 그래 그깟 양돼지 같은 김일성이가 뭐란 말야. 내가 왜 김일성 도당 의사에 충실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단 말야. 난 나야, 내 생각과 당의 생각이 같을 순 없어, 응? 그렇지 않아? 내 목숨이 왜 그네들에게 매였느냐 말야. 왜 좋으나 싫으나 복종해야 하느냐 말야, 두번, 세번 사선을 넘었는데, 또 공작대로 밀파하는 건 뭐냐 말야. 뭐 날더러 반동이라구? 그래 난 반동이다. 사실 그래, 내 본적은 강원도 원주군 ○○면 XX리 189번지구 이름은 최장식, 번호는 1934호, 공작지는 남한의 대전 일대, 대전에 그는 내 매부가 경찰서장으로 있거든. 자, 이만하면 분명히 내 성분을 가르쳐 줬는데, 어때 동무, 날 처단할 테야? 하하하 어이 취한다. 취하는 걸.....”

이쯤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사람이면 철저한 진짜인 것이 분명하다. 영복은 사공을 흘깃보았다. 아금이 덜덜 떨렸다. 바다 바람이 찰랑해서만은 아니었다. 사공은 별별 일이나 앉았다. 뱃전을 대통(담뱃 대)으로 딱딱 두드리며 카악! 하고 진가래를 바다 위에 뿔었다. 그리고는 한 마디 했다.

“취했군 취했어! 동문 술이 약하외다래, 웬 젊은이가 쇠주 몇 잔에 취다니.....”

물결이 뱃전을 꽤 세차게 와 때렸다. 배가 기우뚱하고 흔들렸다. 멈칫했다가 쭈욱 나가는 듯 했다.

“사공동무! 나 언제 취하도록 술 주었소? 그렇지만 취하긴 취했우다. 취하지 않구셔야 그런 말 할 수 있을라구 잉, 박동무도 술 마시라우, 술을 마셔야 다 용기가 나는 거야. 공작할래문 용기가 있어야지 잉, 맘 놓구 취해 봅시다. 여기는 북반부도 아니구 남반부도 아냐, 황해바다 위야, 우리 3인 천하야, 지배자도 없구 공작 대상도 없는 곳이야, 조금 후엔 애긴 달라져 잉, 박동무 날더러 반동이랬지? 박동무나 남반부에 가서 공작 잘 하라우. 사공동무의 아들이 이남 국방부 장교잖아. 찾아가 보라우, 반가와할 테니 사공동무의 안부도 전해 주구. 우리들 실어다 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잉, 하하하.”

취한 채하며 영복을 자꾸 열썩안는 데에는 질색이었다.

“동무 취한 채하지 마오. 우리 다른 애길 합시다!”

영복은 불쾌한 인사로 타박을 주며 어깨에 잠긴 최의 팔을 또 떨어 버렸다.

“하하하, 취한 채하지 말라구? 하하, 박동무의 투쟁적인 신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한도, 최소 한도 말야, 가면은 벗으라우. 남한에 가면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를 동무가 팬시리 큰소리 작작 하구. 여보, 사공동무! 그렇잖소? 이런 무골충(無骨虫)이야말로 정말 어떤 반동을 할지 모르는거요. 박동무! 불평이 있는 것은 고민이 있는 까닭야. 무조건 순응만 하는 자는 그만큼 반동할 소질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사공동무의 배따라기나 들어 봅시다 잉.”

영복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무골충이란 말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무조건 순응하는 자는 의지가 빈약한 까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영복은 찬찬한 말씨로 최에게 말했다.

“최 동무는 남을 모욕하지 마시오! 최 동무가 얼마나 영웅적인 투쟁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신념이란 죽음 앞에 마주봐야 알겠읍니다.”

“죽음 앞에서두 반발하는 게 신념이지!”

“어, 어떠한 죽음이나가 문제 아니오? 개 죽음은 아니라야죠?”

걱정을 억압하면 은근한 태도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복은 말을 자꾸 더듬었다. 이번에는 사공이 말했다.

“동무들은 왜 흥분하오! 공작대루 밀파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솔해서야 되겠소? 지금 니론을 가지구 다들 떠나 말이오. 최동무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수다!”

이 말에 최는 단박 격분해서 소리쳤다.

“사공동문 참견 마오! 사공동무야말로 반동이 아니오? 아들이 국방군의 장교로 있다니 반동이 아니구 뭘니까?”

늙은 사공도 벌떡 일어났다.

“똥이, 어드래? 이 쌍 간나 새끼! 날더러 반동이라구? 이 새끼 술 처먹여 주니까 누구한테 개수작이야!”

사공은 아들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결기가 대단했다. 최의 멱살을 잡았다.

비틀거리며 멱살을 잡힌 최는 사공의 가슴에다 주먹질을 했다. 두 사람은 함부로 욕을 퍼부으며 드잡이를 시작했다. 영복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그들을 뜯어말리려고 했으나 그들의 드잡이는 더욱 열을 가해 갔다.

배가 다소 흔들렸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경쾌했다.

파도는 심심치 않게 소리 내며 뱃전을 쳤다. 바람에는 습기가 있었다. 공간은 사뭇 먹칠이었다. 하늘에는 그렇게 별이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없었다. 구름이 두껍게 덮인 모양이다. 바다 한가운데였다.

시작은 해식은 싸움이었으나 말이 자꾸 윤희가며 점점 사납게 벌어져 갔다. 최는 술이 깨있는 지 제법 몸을 가누며 늙은 사공에게 욕박했다.

사공은 몇 번인가 대갈반이로 최에게 결정타를 가하려 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이 놈새끼! 내 아들 애긴 왜 자꾸 꺼내는 거디? 국방군입 국방군이지 어쨌단 말야! 이 개 같은 놈새끼!”

영복은 중간에서 말리다가 몇 번인가 얼굴에 주먹 세례를 받았다. 입 언저리가 축축한 것을 보면 엉뚱하게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는 그래도 연상 ‘반동’ 소리만 연발하며 조금도 수그러 지지기를 않았다.

이 때 밑에서 기관사가 뛰어 올라왔다. 어둠 속일망정 버티고 쏜 체구로 보아 젊은 장정임이

분명했다

기관사는 잠시 허리를 짚은 채로 싸움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늙은 사공이 최에게 몇 번 쥐어박히는 것을 보더니, 두말 않고 앞으로 나서며 세찬 주먹으로 최의 면상을 갈겼다. 두 번 세 번, 연거푸 갈기는 바람에, 최는 뱃전에 비켜 서 있는 영복에게로 비틀거리며 넘어왔다.

영복은 넘어오는 최를 본능적으로 떠다밀었다. 헛껏 떠다미는 바람에 배가 약간 기우뚱 했다. 배가 기우는 편으로 최의 몸도 기울었다. 그 순간 최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편으로 넘어갔다. 첩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는 허리가 꺾인 순간 바다로 떨어졌던 것이다.

배는 그대로 진행 중에 있었다. 어둠은 시계(視界)를 방해했다. 파도는 또 뱃전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멍청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살려야지!”

사공이 입을 열었다.

“살리문 아저씨가 죽습네다!”

기관사가 응대했다.

영복은 아래웃니가 마주쳐 따다닥 소리를 내고 있었다.

“뱃머리를 돌립시다. 거 건져야지!”

영복은 말을 또 더듬었다.

아무도 대꾸해 주지 않았다. 배는 벌써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었다.

영복은 뱃전애다 허리를 척 걸쳤다.

(살인)

뇌까린 듯했다. 분명 자기가 떠다민 힘으로 최는 넘어간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 결코 그를 죽이려는 의사는 아니었는데 죽이고 말았다.

영복은 몸이 견잡을 새 없이 덜덜덜 떨렸다. 눈을 크게 벌리고 배가 지나온 방향을 돌아보았으나 어둠 뿐이었다.

“사공동무! 배, 배를 도, 돌립시다.”

그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자 마자, 밤바람이 앓아갔다. 사악하고 물갈라지는 소리, 통탕 거리는 엔진 소리.

배의 진행은 한결같았다.

“아저씨, 술이나 한 잔 주시오! 늙은 일 티는 늙은 죽어 싸디!”

기관사의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남은 세 사람은 다시 새로운 소주병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젊은 동무! 부디 몸 조심하라우요! 그리고 내 아들놈 꼭 좀 찾아봐주! 잘 있나...”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 물에다 배를 갖다 대어준 늙은 사공은 마약 짐을 들고 뛰어내리는 영복

의 어깨를 탁 치며 당부하는 것이었다.

날은 아직도 칠흠이었다. 주위는 파도소리도 없이 괴괴했다. 눈 앞에는 시커먼 산이었다. 남남 동으로 15리 가면 김포읍이라 했다.

실어다 준 배가 촌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을 뒤로하는 것을 보다 영복은 몸이 착 까부러지는 것처럼 허전했다. 사람은 종긴 싫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바다를 등지고 어두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가슴이 설레어 왔다.

(남한 땅.....)

영복은 자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잡히는 조약돌을 만지며 “남한 땅”하고 다시 한 번 뇌까렸다. 땅이 다를 리 없었다. 어두운 하늘에 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가 남한 땅이라고 생각하니 일각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면서도 그 자리에 엎드려 한바탕 통곡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유는 오직, ‘남한 땅’이라는 것 뿐이었다. 갑자기 모든것이 그리워졌다. 무엇이 그럽다고 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싶었는데 그저 그리운 마음이 가슴에 부딪혔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작을 하러 온 것이라는 절박감은 추호도 없었다.

잠시 후 보따리를 들고 언덕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그저 안온한 심정에서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지나온 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등신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어둠 속에 떠오르는 최의 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죽음의 동기가 그토록 간단하다는 것을 전쟁터에서도 보지를 못했다. 떠다밀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불현듯 달음박질해서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는 법 없이 허겁지겁 달리고 있었다. 오직 남남동이라는 방향만이 머리 속에 있을 뿐이었다.

영복은 오후까지 이름 모를 산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서야 잠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 안도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버스에 타고 보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순간 영복은 가슴이 찢어졌다. ‘신사를 보면 일단 형사로 알라!’ 쪽쪽 뻗 신사들, 중절모를 단정하게 눌러 쓰고,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색채도 화사한 말쑥한 옷차림의 신사들이 왜 이리 많으나 말이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는 신사들, 형사들? 벌써 냄새를 맡고 따라선 것인가. 옆에 앉은 빨간 넥타이도 눈매가 이상했다. 맞은 편에 앉은 검은색 안경의 사나이도 자꾸 이쪽만 바라보고 있다. 문 앞에 서 있는 곤색 양복도 이따금 뒤를 돌아보곤 한다. 과연 모두가 쪽쪽 뻗 신사차림이다. 이진 도대체 몇 사람씩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영복은 가슴을 펴며 태연한 자세를 꾸며 보았다. 고개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부자연한 것 같아 이내 옆으로 돌아앉으며 차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옆의 사나이가 물었기 때문이다. 옆의 사나이....., 빨간 넥타이.

영복은 가슴이 두방망이질쳤다. 필쩍 돌아 앉으며,

“서울 갑니다.”

했다. 상대방에게 들렸는지 몰랐다. 너무 크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않았는가, 평양 사투리가 섞이지 않았을까?

빨간 넥타이는 그 이상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더 불안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들었으면 응당 다음 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영복은 잔등에 축죽한 감촉을 느꼈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아 바닥에다 꼭 눌렀다. 그래도 빨간 넥타이는 다음 말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진 고등술책이 아닌가.

꼬치꼬치 캐어묻는 것은 소련식인지도 모른다.

영복은 눈을 감았다. 떨리는 가슴을 자제해 보려고 이를 악물었다. 이마에 콧잔등에, 땀이 솟는 것 같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본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색안경....., 빙긋이 웃고 있는 것 같다. 이진 완전히 조롱이다. 꼬라지나 보자고 유유히 앉아 있는 것인가? 눈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입가에는 분명 가벼운 웃음이 깃들어 있다. 우스워 웃는 게 아니다. 정녕 조롱하는 웃음이다. 문턱을 본다.

문턱에 서 있는 곤색 양복은 어느 사이에 돌아서 있다. 이 작자는 웃지도 않고 결눈질도 않으며 아주 시치미를 딱 떼고 있다. 이진 좀 노련한 수작이다.

영복은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조심성 있게 차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누구 하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차 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차든 버스든 차를 탄 사람들은 생부지 처음 만난 사이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오고 가는 법이다. 이렇게 조용하다니 까닭이 있을 것이다. 모두들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형사들이 셋 씩이나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토록 말 한 마디 주고 받지 않는 차 안의 분위기로 보아 남한의 경찰은 공작대원을 하나 잡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얼마나 세심한 수사망을 피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영복은 입맛을 다셨다. 이렇게 심겁게 잡힐 수는 없었다. 잡히는 것도 인민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했다.

반동에 대한 보복을 평양에 남기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받는 것이다. 호락호락 잡혀서는 아니 되었다.

윤이순의 말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공작, 공작 포기, 자수, 체포, 그 중에 동무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고,

그 뿐이 아니다. 늘 감시하는 눈이 따라 다닌다고 했다. 이 차 안에도 있을는지 모른다. 노련한 공작대원이 승객을 가장하고 앉아 새로 밀파되어 오는 공작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복은 배에 찬 권총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 보았다. 시민증에 기재된 주소를 외워 본다. 서울특

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X X 번지. 신분증은 회사원이다. 무역회사 남미상사의 사원으로 되어 있다. 국민병 수첩도 있다.

병중(兵種)은 을종(乙種), 무조건 신체 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남한 경찰의 특색이라 했다. 지나치게 근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형사들에게 미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성싶다. 그렇다면 다음 정류장에서 일단 내려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미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버스는 어느 면소재지 정도의 부락으로 돌입하고 있다. 순경이 보초를 서 있는 주재소 앞을 지나 조금 구르다가 정거를 했다.

영복은 별떡 일어 났다. 민첩한 동작으로 내려버리려고 문 앞으로 나가자니까, 아뽕싸 문 앞에서 있던 곤색 양복이 앞장을 서며 먼저 선뜻 내리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곤색 양복이 내리고 이번에는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짹째 차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영복은 무의식 중에 주춤하고 망설였다. 여차장은 벌써 호각을 불었다. 차는 움직였다. 가죽 잠바는 영복을 가볍게 한 번 쳐다보고는 서슴지 않고 바로 여지껏 영복이가 앉았던 좌석에 가서 털썩 앉아버린다.

영복은 기가 막혔다. 이걸 정말 틀림이 없다. 곤색 양복과 가죽 잠바는 교대를 한 것이다. 지서 앞에서 내린 곤색 양복은 영복을 가죽 잠바에게 인계한 것이 틀림없다. 그 증거로는 아직도 색안경과 빨간 넥타이는 꼼짝않고 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과연 남한 경찰의 정보망은 경이적으로 발달되었다고 영복은 은근히 놀랐다. 달아날 염려가 없는 버스 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자기를 체포하지 않을 뿐이다.

버스가 서울역 앞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날이 가물가물 어두워 올 무렵이었다. 드디어 영복은 버스가 엔진을 끄자마자 필시 가죽 잠바가 수갑을 들고 나설 줄로 알았다.

그러나 가죽 잠바는 차가 서니까 잠자코 영복의 앞을 가로막았다. 앞서서 내리려는 것처럼,

빨간 넥타이는 바로 영복의 뒤로 바짝 대 섰다.

색안경은 영복의 옆으로 붙어섰다.

영복은 기가 딱 질렸다. 앞 뒤 옆으로 묵묵히 포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오직 당장 수갑을 치르지 않는 것은 미국식 경찰의 규칙이려니 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중인환시리에서는 포박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단정했다.

영복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완전히 절망했다.

벌써 자기의 의사는 행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순응도 거역도 어떤 효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여기까지의 생활체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목적과 생명의 비중을 저울질해서 행동하는 것이 생리화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는 남한에 온 목적이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무거운 비중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었다. 마음이 일조일석에 변한다는 것은 믿기 싫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표면화되지 못한 잠재의식의 문제였다. 잠재의식이란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겉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여러 번 변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사가 아니었다 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다. 불안은 언제나 따

라 다녔다. 영복은 흡사 풍류병자와도 같이 가죽 잠바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남대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를 못했다. 뒤따르는 발소리만을 귀에 담으며, 이대로 곧장 경찰서로 들어 가게 마련이라고 체념했다. 체념하니 오히려 마음은 누그러졌다.

그런데 거리는 너무나 혼잡했다.

영복은 문득 가죽 잠바를 잃어버렸다. 금방 바로 앞에 가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지 온데 간데 없이 보이지를 않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도 없었다. 으레히 뒤따라 오려니 했던 빨간 넥타이도 색안경도 보이지 않았다. 이걸 사람을 사뭇 미치게 하는 수작들이 아닌가. 그러자 영복은 불현듯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뭉툭 자세를 차렸다. 눈 앞에 보이는 골목으로 도망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길 가운데에 주춤하고 선 채 움직이지를 못했다. 남한 땅에 와서 또 어디로 똬단 말인가.

그는 마침 앞으로 다가오는 낮 모를 신사를 노려봤다.

(어디 뭉 데가 있어?)

영복은 본능적으로 그의 팔소매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동무, 아 저 선생님, 저....., 선생님 말입니다.....”

낮 모를 신사는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형사였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7월 10일 인 쇄

1982년 7월 15일 발 행

발 행: 공 군 본 부

편 집: 정 훈 감 실

인 쇄: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827-2961, 호-5241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공 군 의 결 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